東洋學

第 六十二 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16. 1.

東洋學

第 六十二 輯

目　　次

조선후기『隨園詩話』의 유입과 崔瑆煥의『性靈集』편찬 …… 韓　東 …… 1

영향관계로 본 이규영의 품사 분류 …… 金海錦 …… 19

「將軍族」의 表現技巧 分析 …… 黃炫國 …… 39

東亞文化交流視野下的朝鮮譯官角色——以譯官金指南的活動爲中心 …… 羅樂然 …… 55

조선시대 外交儀禮의 특징 …… 김문식 …… 77

백범 김구의 자주독립·통일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의 꿈 …… 한시준 …… 99

한국독립운동세력과 CC파·역행사의 공동 첩보활동 …… 梁志善 …… 123

음양오행론에서『淮南子』와『五行大義』의 위상과 상이점 …… 강성인·김만태 …… 147

彙　　報 …… 173

『東洋學』투고간행 규정 …… 176

『東洋學』원고작성 요령 …… 180

『東洋學』편집심사 규정 …… 188

『東洋學』연구윤리 규정 …… 199

『東洋學』제62집 심사 경위 …… 207

DONG YANG HAK

The Oriental Studies

Vol. 62 JANUARY 2016

CONTENTS

[Articles]

Incoming of "Criticism of Poetry from the Garden of Leisure" in Later Period of Korea and Compilation of "Soul Set" by Choi Seonghwan ·· Han, Dong ····· 18

On Lee Gyu-yeong's Study about Parts-of-Speech of Korean in Relation with Other Contemporary Scholars ····· Jin, Haijin ····· 38

An Analysis of Writing Techniques in *Jiangjunzu* (「將軍族」) ···· Hwang, Hyunguk ····· 54

The Role of Chosŏn Interpreter by the Perspectives of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The Study of Kim Chi-nam's Activities ····· Lok-yin Law ····· 76

The Character of a Diplomatic Ritual Appeared in Joseon Dynasty ····· Kim, Moonsik ····· 97

Baikbum KimKoo's Dream for Building an Autonomic Independent Unified Nation and for the World Peace ····· Han, Seejun ····· 121

Joint Espionage Activities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and CC Group · Lixingshi ····· Yang, Jisun ····· 144

The Status and Differences of *Huainanzi* (『淮南子』) and *Wuxingdayi* (『五行大義』) in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 Kang, Sungin · Kim, Mantae ····· 171

Published by

ACADEMY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東洋學 第62輯(2016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조선후기『隨園詩話』의 유입과 崔瑆煥의『性靈集』편찬

韓 東*

▌국문초록 ▐

19세기에 이르러 여항시인 사이에 원매를 수용하는 열기가 일어났다. 최성환의『性靈集』은 19세기 조선 시학의 이런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을 제공해 주었다. 본고에서는 최성환이『性靈集』을 편찬하는 연유와 원리를 고찰하는 것을 통해 19세기에 원매와『隨園詩話』의 조선 전파 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18세기 말~19세기 초 원매의『隨園詩話』가 조선으로 들어온 후 열독의 열기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조선 문인이『隨園詩話』에 수록된 시론과 시에 대해 갖는 관심이 점점 증폭되었다. "성령" 시학을 이해하고 선언하는 측면에서 일부 문인은『隨園詩話』의 내용을 선별하여 초록하였다. 최성환의『性靈集』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세상에 등장했다.

둘째, 최성환은 원매가 편찬한『隨園詩話』의 영향을 받아『性靈集』을 편찬하여 시를 선별하였는데, 이 때 진부하고 상투적인 창작 풍격을 지양한 동시에 시인의 신분과 성별 그리고 시가의 체제와 체격에 구속되지 않고 성령을 드러내는 시가라면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로 인해『性靈集』은 원매의『隨園詩話』에 수록된 여성 시인과 염정시 그리고 "拔俗", "風趣"의 풍격을 지니는 시가를 유독 많이 옮겨 담게 되었다. 이는『性靈集』만이 갖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셋째, 원매가『隨園詩話』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시가의 후대 유전을 중시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최성환이『性靈集』을 편찬했을 때에도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隨園詩話』에 수록되어 있는 "早亡" 시인과 "自焚詩稿" 시인의 시가를 모두『性靈集』에서 담아내게 된 것이다. 또한 18세기 후기 조선 시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 "조선풍" 시학 이념의 영향에서 최성환은 중국 역대 시가를 선별한 동시에 자신을 포함하여 조선 시인의 시가도 적지 않게 수록하였다.

[주제어] 최성환, 성령집, 원매, 수원시화, 시론

▌목 차 ▐

Ⅰ. 머리말
Ⅱ. 원매『隨園詩話』의 조선 유입과 전파
Ⅲ.『性靈集』편찬의 연기(緣起) 재론
Ⅳ.『性靈集』의 편찬 원리와『隨園詩話』의 영향
Ⅴ. 맺음말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handonghy@hotmail.com

Ⅰ. 머리말

원매(袁枚, 1716~1797)는 건가시단(乾嘉詩壇) 성령파의 거두로서 그 당시 시단에 성행하고 있던 "복고(復古)"와 "시교(詩教)" 그리고 "고증(考證)" 기풍을 비판하여 "개성"과 "진정"을 표방하는 "성령" 이론을 제기하였다. 그의 "성령" 이론은 시단에 나타나자마자 많은 호응을 받아 널리 향유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후반 연암그룹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원매를 소개하여 도입한 이후 원매의 시문집과 시화집도 잇따라 조선에 들어왔다. 특히 그 가운데 『隨園詩話』의 유입과 전파는 조선 문인이 원매의 "성령" 이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반이 되었다. 본고는 19세기 조선 문단에서 袁枚를 수용하는 양상을 고찰하는 일환으로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원매 『隨園詩話』의 영향을 받은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性靈集』은 19세기 중인 출신 무관 최성환(崔瑆煥, 1813~1891)이 1854년에 시작하여 1858년에 완성했다는 역대 시선집이다. 과거 80년대에 이우성 선생은 최성환이 원매의 성령 이론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설파하며 『性靈集』의 성격을 중국 역대 시가를 선별하여 편집한 것으로 규정하였다.[1] 이후 금지아 교수는 이 규정을 따르는 판단 하에 다시 『性靈集』의 판본 상황을 소개하며 더욱 상세하게 최성환이 원매의 "有我" 이론을 수용했던 사실을 밝혔다.[2] 이외에도 정우봉 교수는 "독자반응비평"이라는 이론에 입각하여 최성환의 성령론과 김성탄의 문학의식 사이의 유사성을 밝혔고, 張混의 『詩宗』에 나타난 편찬의식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한편 천기론(天幾輪)과의 상호 대비를 시도하였다.[3] 기왕의 연구들은 최성환의 문학 연원과 지향성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性靈集』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언급에 그치고 말았으니 『性靈集』의 내부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유감이 있다. 필자는 『性靈集』[4]을 읽는 과정에서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이 시선집의 명대 부분에서 중국 문인의 시가를 선별하여 수록한 동시에 이름을 날린 조선 시인들의 시가도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시선집의 청대 부분을 보면 원매의 『隨園詩話』에 수록되어 있는 시를 인용하고 베끼는 내용이 차지하는 양이 유독 많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최성환 『性靈集』의 구조와 편찬 과정 중에 원매와 그의 『隨園詩話』로부터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는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이우성, 「金秋史 및 中人層의 性靈論」, 『한국한문학연구』 5, 한국한문학연구회, 1980, 135~136쪽.
2) 금지아, 「『性靈集』의 편성체제와 특징」, 『中國語文學論集』 46,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419~439쪽.
3) 정우봉, 「19세기 性靈論의 재조명 - 崔瑆煥의 性靈論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연구회 2005, 79~106쪽.
4) 금지아(앞의 논문, 423~428쪽)는 고찰했듯이 지금 『性靈集』의 판본은 대략 國立中央圖書館, 延世大, 奎章閣, 澗松美術館,嶺南大, 高麗大, 啟明大, 全南大, 慶北大 翠菴文庫, 雅丹文庫 10가지가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판본은 國立中央圖書館 소장본(일산古3715-68)이다.

Ⅱ. 원매『隨園詩話』의 조선 유입과 전파

원매 시학의 핵심이 "성령"이라면 그가 "성령"을 표방하게 되는 기초는『隨園詩話』라고 말할 수 있다. 원매의 시학 이론은『隨園詩話』의 출판과 유통으로 문단에 널리 전파되어 알려졌다. 그렇다면『隨園詩話』는 언제 출판되었고 또한 조선에 유입되었는가? 이 장절은 주로 이런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隨園詩話』최초의 판본은 건륭55년(1790) 隨園自刻本이라고 확인되며『隨園詩話補遺』판본의 완성 시기는 嘉慶2년(1797)으로 추정된다.[5]『隨園詩話』는 正編 16권과 補遺 1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화 1900여 條가 수록되어 있었다. 원매는 생전에 이미『隨園詩話』의 편집과 출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인 畢弁山과 孫穉田의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6] 원매의『隨園詩話』는 전통 교화론과 복고론의 구속을 벗어나 眞情한 새로움을 강조하며 시인의 신분 차이를 타파하고자 좋은 시라면 그 출처를 따지지 않겠다고 주장했기에 출판하자마자 많은 시인의 호응을 받았다.[7] 원매의 성령 이론은 시단에서 인기가 많았던 탓에 그의『隨園詩話』를 번각하는 것이 한때 유행처럼 성행하였다.[8] 이른바 해적판의 유행은 당대에 원매『隨園詩話』의 영향력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면 원매의 시문집은 도대체 언제 조선으로 수입된 것인가? 蔣敦復(1808~1867)은『隨園軼事』중의 '高麗使臣購隨園集' 條를 보면 1765년에 홍대용이 이미 베이징에서 원매의 문집을 열독한 뒤 십여 부의 문집을 구입해 박제가 등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보냈으며, 몇 년 후에 또 다시 사람을 보내 문집을 주문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9] 그럼에도 이 논술의 신빙성은 懷疑할 만한 것이다. 우선 그 당시 청인 문집에 수록된 조선에 관한 기사가 대체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洪奭周(1774~1842)는『鶴岡散筆』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 중국 사람이 우리 조선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은 항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근세 원매는『小倉山房集』에서 스스로 고려(조선) 사신들이 자신의 문집을 구매하러 왔는데 그 사신 명단에서 내 선인(先人)의 명휘가 적혀 있었다. 선인은 포의(布衣)로서 조고(祖考) 효안공(孝安公)을 따라 청나라에 갔지만 그때에 사신의 임무를 맡지 않았고 또한 그때에는 아직 원매의 문장을 잘 몰랐다.[10]

---

5) 王英志(編),『袁枚全集』第一冊, 前言, 江蘇古籍出版社, 1993, 13쪽.
6) 袁枚(著), 顧學頡(校點),『隨園詩話』補遺 卷3, 人民文學出版社, 1960, 671쪽. "余編詩話, 為助刻資者 畢弁山尚書, 孫穉田慰祖司馬也."
7) 錢泳(著),『履園叢話』, 丁福保(輯),『清詩話』下冊, 上海古籍出版社, 1978, 871쪽. "自宗伯三種別裁集出, 詩人日漸日少, 自太史隨園詩話出, 詩人日漸日多."
8) 袁枚,『隨園詩話』補遺 卷2, 앞의 책, 1960, 630쪽. "余刻詩話尺牘二種, 被人翻板, 以一時風行, 賣者得價故也, 近聞又有翻刻隨園全集者."
9) 蔣敦復(著),『隨園軼事』, 王英志(編),『袁枚全集』第八冊, 江蘇古籍出版社, 1993, 50~51쪽.
10) 洪奭周,『鶴岡散筆』卷二,『淵泉全書』第七冊, 旿晟社, 1984, 66~67쪽. "中國人記我東事, 往往全失其實……近世袁枚小倉山房集自言高麗史臣來購己文集, 列使臣性命有吾先人諱字, 先人以布衣從吾祖考孝安公赴燕, 未嘗為使臣, 時亦未嘗知有枚文也."

중국 학자 장백위의 고증에 의하면 洪奭周가 말한 '선인'은 洪仁謨이고 '조고 효안공'은 洪樂性이며 효안공이 청나라로 갔던 시기는 1783년이었다.[11] 洪奭周의 말에 따르면 1783년까지는 여전히 조선 문인이 원매를 몰랐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777년에 연암그룹의 문인이 이미 원매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76년에 조선 문인 유금은 청인 이조원과의 교담을 통해 원매를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유금의 소개로 원매는 연암그룹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또한 1777년에는 그들이 청인 이조원에게서 원매의 회고시 2수를 얻게 된다.[12] 다만 그때까지도 원매의 문집은 여전히 구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원매의 시문집은 빨라도 1783년 이후에나 조선으로 들어온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어서 원매『隨園詩話』의 출판 시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조선으로『隨園詩話』가 들어온 시기는 그의 다른 시문집에 비해 늦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隨園詩話』正編은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조선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예로 이옥(李鈺, 1760~1815)은『百家詩話鈔』를 편찬했는데 이 시화집은 실제로는 원매『隨園詩話』의 내용을 선별하여 베낀 것에 불과하다.[1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옥이 초록한 내용이 모두『隨園詩話』正編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옥은『百家詩話鈔』에서『隨園詩話』補遺의 내용은 하나도 초록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매의『隨園詩話』補遺는 18세기 말까지도 여전히 조선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隨園詩話』補遺가 늦어도 1817년에 이미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은「讀隨園詩話有感 幷序 丁丑」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 (내가) 숙직하고 잠을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연히 원매의『隨園詩話補遺』을 읽었다. 그 권3에서 말하기를, "남경(白下) 출신 수재인 사마장은 자가 石圃이고 정신 풍모가 대범하다. 그가 나이가 어려서 정이 많다."하였다. 이에 내가 그의 사곡을 몇 편을 기억하였다. 이 사람은 지금 계주 지부를 맡고 있었는데 내가 그와 연행길에서 만나고 시로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것을 매우 놀라고도 기뻐하며 시를 짓고 감탄하였다.[14]

여기서 조인영은 자신이 일찍이 원매의『隨園詩話補遺』에서 읽은 인물을 우연히 연행 도중에 직접 만났다고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감탄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시기가 丁丑 년인데 이는 곧 1817년이다. 그러므로 원매의『隨園詩話』補遺가 비록 正編보다 늦게 조선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여전히 19세기 초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원매의『隨園詩話』가 조선으로 도입된 이후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문사

---

11) 張伯偉,『清代詩話東傳略論稿』, 中華書局, 2007, 142쪽.
12) 이경수,『漢詩四家의 清代詩受容研究』, 택학사, 1995, 144~152쪽.
13) 이옥의『百家詩話鈔』는 원매의『隨園詩話』를 초록하는 문제와 구체적 내용은 중국 학자 張伯偉(「李鈺「百家詩話鈔」小考」,『域外漢籍研究集刊』3, 中華書局, 2007, 49~59쪽)와 童玲(「「百家詩話鈔」溯源小考」,『古代文學理論研究』33,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1, 392~404쪽)은 이미 상세히 밝힌 바가 있었다.
14) 조인영,「讀隨園詩話有感 幷序 丁丑」,『雲石遺稿』卷二,『韓國文集叢刊』299, 민족문화추진회, 2001, 30쪽. "直廬無寐, 偶閱袁枚隨園詩話補遺第三卷, 有云: 白下秀才司馬章, 字石圃, 風神蕭灑, 年少多情. 而仍記其詞曲數闋, 此人今現任薊州知府, 余燕路相遝, 與之酬唱者也, 驚喜如對, 以詩志之."

들이 이 작품을 널리 열독하였을 뿐 아니라『隨園詩話』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隨園詩話』正編에 대한 인용은 이옥의『百家詩話鈔』이외에도 또 하나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박제가의 셋째 아들인 박장암(朴長馣)이 1809년에 엮은『縞紵集』에서 원매를 기술하는 내용은 실제로는 원매의『隨園詩話』를 직접 정리하여 인용한 것이다.

> 원매가 말하기를, "(나는) 평생에 집구시와 차운시 그리고 첩운시를 하지 않았다." 했고 또한 말하기를, "率率을 구애하면 天籟을 상하게 한다." 하였다. 그가 장사전과 우호하고 서로 추앙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시를 논했는데 말하기를, "내가 황정견을 마음에 들미 않고 양만리를 좋아한데 군이 양만리를 좋아하지 않고 황정견을 선호한다. 이것이야말로 화이부동이다." 하였다.[15] (박장암,『縞紵集』)

> 내가 시를 지을 때 첩운와 화운 그리고 고인의 운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개 시란 성정을 드러나서 단지 내가 마음에 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16] (원매,『隨園詩話』卷一)

> 장사전과 나는 서로 추앙하지만 단지 시를 논한 것은 부합되지 않았다. 내가 왕정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양만리를 좋아하는데 군은 양만리를 좋아하지 않고 황정견을 선호한다. 이것이야말로 화이부동이다.[17] (원매,『隨園詩話』卷八)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장암은『縞紵集』에서『隨園詩話』권1과 권8에 수록하는 내용 각자 한 칙을 정리하여 인용하였다.『隨園詩話』에 대한 인용 사례는『隨園詩話』가 당대 조선에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조선 문인들이 원매에 관한 인식과 수용이 18세기보다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 고찰하는 최성환의『性靈集』편찬도 이러한 수용 심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Ⅲ.『性靈集』편찬의 연기(緣起) 재론

최성환은 일찍이『性靈集』을 편찬하는 연유를「性靈集序」에서 아래와 같이 고백하였다.

> 옛 사람의 성이 좋아하는 것이 곧 나의 성이 좋아하는 것이다. 옛 사람의 성으로 옛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만 이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나의 성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15) 박장암(역음),『縞紵集』上, 이우성(편),『楚亭全書』下, 亞細亞文化社, 1992, 19쪽. "枚自言平生不集句次韻不疊韻, 謂拘於率率致傷天籟也, 與蔣尤好互相推許, 曾與論詩曰: 余不喜黃山谷而喜楊誠齋, 子不喜楊而喜黃, 可謂和而不同."
16) 袁枚,『隨園詩話』卷1, 앞의 책, 1960, 3쪽. "余作詩 雅不喜疊韻和韻及用古人韻 以為詩寫性情 惟吾所適"
17) 袁枚,『隨園詩話』上 卷8, 앞의 책, 1960, 282쪽. "蔣苕生與余互相推許, 惟論詩不合者, 余不喜黃山谷而喜楊誠齋, 蔣不喜楊而喜黃, 可謂和而不同."

>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면, 옛 사람이 말한 것이 곧 나의 말인 것이다. 나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의 마음에 맞는 것은 진실로 나의 말이요,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다. 맞는 말을 취하여 나의 말로 삼는다면, 그 말이 문장으로 표현된 것 또한 나의 문장이다.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이것이 내가 성령집을 편찬한 까닭이다.[18]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성환은 옛 사람과 자신의 "性"이 서로 같다는 데에 입각하여 옛 사람의 시를 빌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즉『性靈集』편찬의 연유가 다른 이의 "성령시(性靈詩)"를 초록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령 취향을 보여주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말을 보다 깊이 음미해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은 오로지『性靈集』을 편찬하는 목적을 드러내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연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최성환은 어떤 배경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세웠을까? 이 문제는 바로『性靈集』편찬의 연기(緣起)에 관한 것이다.

최성환의『性靈集』은 正編・續集・補遺・續集補遺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수는 20권에 달하는 방대한 시선집이다. 이 시선집에 수록된 시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全詩"이고 다른 하나는 "摘句"이다. 또한『性靈集』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소개한다면 역대 名媛의 "全詩"와 "摘句"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性靈集』에는 "全詩" 5850首와 "摘句" 3498聯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시대별로 계산해 보면 청대의 시가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최성환이 선별하여 옮겨 담은 청대 시가를 다시 살펴보면 원매의『隨園詩話』에 기재되어 있는 시가를 베껴 수록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표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正編	續集(歷代名媛)	補遺(歷代摘句)	續集補遺(歷代名媛摘句)
共計	4880首	970首	2548聯	950聯
清代	1316首	217首	1090聯	365聯
引用『隨園詩話』	494首	98首	634聯	70聯

이상의 통계 자료를 보면 최성환이『性靈集』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원매의『隨園詩話』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고찰해 볼 만한 문제가 하나있다. 바로 최성환이『性靈集』을 편찬하는 연기(緣起) 혹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재고(再考)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최성환은 중인 출신 무관이고 그의 시학 활동은 대개 여항 시인의 계보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성환이『性靈

18) 최성환,「性靈集序」,『性靈集』. "古人之性, 即我之性, 古人性之所好, 即我性之所好. 以古人之性道古人之所好, 直不過如是也, 以我之性道我之所好, 亦直不過如是也. 是古人之所言者, 即我之言也, 豈可以不經我口遂謂之非我之心哉. 然則我心之所合者, 固我之言也, 我心之所不合者非我之言也, 取其所合之言而以為我言, 則其言之發為文章者, 即亦我之文章也. 其誰曰不然, 此我性靈集之所以撰也."

集』를 편찬했을 때는 여항 선배 시인의 편찬 활동을 추종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우봉 교수는 일찍이『性靈集』과 張混『詩宗』의 유사성을 주목하고 두 사람 간에 상호 공유된 시 의식에 입각하여『性靈集』의 편찬은 어느 정도『詩宗』의 맥락을 계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19] 그러나 여기에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詩宗』은 중국 역대 시선집인데『性靈集』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의 시가까지 널리 선별하여 수록한 시선집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性靈集』은 청대 시가를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청대 시가의 출처가 원매의『隨園詩話』에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다시 최성환『性靈集』의 창작 배경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性靈集』의 편찬은 조선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원매의『隨園詩話』를 수용했다는 영향을 받았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옥은 일찍이 원매의『隨園詩話』正编을 선별하여『百家詩話鈔』를 편찬하였다.『百家詩話鈔』의 내용을 보면 주로 시화를 초록한 동시에 일부 시인의 "全詩"와 "摘句"도 함께 기재하고 있다. 물론 그 가운데 名媛의 시가도 발견할 수 있다. 다만『百家詩話鈔』에서 시화와 "全詩" 그리고 "摘句"의 내용은 분별하여 선명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서로 뒤섞어서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성환의『性靈集』을 보면『隨園詩話』正编뿐만 아니라 補遺까지 초록한 동시에 그 시를 시대와 항목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에『隨園詩話』를 베낀 수량과 범위 면에서 최성환의『性靈集』이 갖춘 규모는 이미 이옥의『百家詩話鈔』를 넘어선 것이다. 양식 측면에서 보아도『性靈集』의 구조는『百家詩話鈔』보다 더욱 완비된 구성을 갖추었다. 따라서 최성환이『性靈集』을 편찬한 것은 張混의『詩宗』편찬을 잇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당대 조선에 있는 원매 성령 시학을 수용하고, 특히 원매의『隨園詩話』를 열독하여 정리하는 기풍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隨園詩話』가 조선에서 널리 전파되고 열독의 대상이 된 것은 최성환으로 하여금『性靈集』을 편찬하는 기반이 되었다. 고로 이옥은『百家詩話鈔』를 통해 자신의 시론 주장을 고백하고자 했던 반면, 최성환은『性靈集』을 통해 자신의 성령 시학 취향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옥이『百家詩話鈔』를 편찬할 때『隨園詩話』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성환이『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隨園詩話』는 원래 시화와 시가를 섞어서 함께 기술하는 형식을 취했기에 제목이 없는 시가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최성환은 이런 무제(無題) 시가를 초록하여『性靈集』을 편찬했을 때 해당 시가의 주요 내용을 개괄할 수 있는 제목을 스스로 만들어 붙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모두 51개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출판시의 편의를 고려하여 불편이 발생할 긴 제목은 짧게 개정하거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호로 인해 제목을 일부 바꾸어 버린 사례도 36개가 있다. 원래『隨園詩話』는 한 시인의 시가를 집중적으로 많이 수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성환은 최대한 다양한 시인의 시가를 수록하기 위해 한 시인이 쓴 많은 시가 가운데에서 언제나 가장 마음에 든 시가 한 수 혹은 두 수만을 뽑아서 기재하였다. 때문에『性靈集』에서는 원매의『隨園詩話』에 수록되어 있는 동일 시인의 시가를 단 몇 수만 뽑아 초록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런 사례는 모두 117개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한 시의 한 연만 수록하는 경우, 작가의 이름을 틀리게 기록하거나 타인의 시가를 원작자와

19) 정우봉, 앞의 논문, 2005, 87~95쪽.

는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의 명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性靈集』은 편찬 과정에서 18세기 후기 조선 시단에 나타난 "조선풍" 시학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조선풍"이란 조선 후기에 일부 문인이 주체의 자각에 입각하여 중국 시가 가치의 절대성과 우위성이라는 사유의 틀을 벗어나 조선 시가가 갖는 가치를 추구하고 강조하는 문학 운동을 말한다.[20] 『性靈集』의 편찬 과정에서 최성환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식의 문학 정신을 드러내며 실천하였다. 예를 들면 『性靈集』에서 明代 부분에 수록된 시가를 보면 중국 시인 이외에도 占城貢使의 七絕 한 수와 조선 시인 17명의 시가 30수를 같이 수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1] 뿐만 아니라 清代 부분을 보면 최성환 자신이 직접 쓴 五律 한 수를 수록하기도 하였다.[22] 이 시가 옆에는 최성환이 이 시를 쓰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글도 같이 첨부하고 있다.

> 先大父 菊隱公은 "郊外"란 한 연을 썼다. "해가 뜨니 까마귀가 날아 흩어지고, 고촌에 흰 연기가 자옥하다." 先考 雲樵公도 "郊外"란 한 연을 쓰기도 하였다. "산이 공하니 운이 만지하고, 평야가 넓으니 물이 하늘에 떠다니다." 그러나 두 시가의 전편은 이미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문집에 수록되지 않았고 단지 이 2 연만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내가 시간이 오래 되면 또 실전될까봐 걱정되었다. 이제 교외에 가는 행정이 있고 그 경을 맞춰 정을 얻었는데 다시 2 연을 쓰고 보충하기로 하였다.[23]

최성환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자 "郊外" 시 한 연을 썼고 최성환은 이 두 연이 훗날 실전(失傳)될까봐 걱정하였는데, 그때 마침 교외에 가는 일에 있었기에 그가 스스로 2연을 써서 함께 그 뒤에 붙이고 五律 한 수를 완성하였다고 했다. 최성환은 이 "郊外" 시를 『性靈集』에 수록한 것은 선인의 시가를 보존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에게는 자신이 쓴 시가의 성령 취향을 보여 주는 동시에 후대에 유전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 명대 부분에 조선 문인의 시가를 적지 않게 수록한 데에 비하여 청대 부분에서는 그가 단지 자신이 쓰는 시가 한수만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性靈集』에 중국 역대 문인

---

20) "조선풍"의 개념과 문학 지향 등 문제에 대한 상세히 논술은 이정선,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17~52쪽 참조 바람.

21) 占城貢使(七絕 1) 鄭夢周(五律 1), 申叔舟(五律 1), 徐居正(七絕 1), 崔應賢(七絕 1), 成俔(七古 1), 金訢(七絕 1), 南孝溫(七絕 1), 申從濩(七絕 1), 鄭之升(七絕 1), 金淨(五古 1, 五絕 1), 申光漢(五絕 1, 七絕 1), 崔慶昌(七古 1), 李達(七律 1), 林悌(五絕 1), 姜克誠(五絕 1), 許筠(五古 1), 許景樊(五古 1, 五律 1, 七律 1, 五絕 3, 七絕 6). 이상 시가의 출처를 따져 볼 때 占城貢使, 鄭夢周, 申叔舟, 徐居正, 崔應賢, 成俔, 金訢, 南孝溫, 金淨, 申光漢, 崔慶昌, 許筠, 許景樊의 시가는 전겸익의 『列朝詩集』 朝鮮 조에 수록되어 있는 시가를 초록했으며 그 이외에도 『列朝詩集』에 수록되지 않은 姜克誠, 林悌, 申從濩, 鄭之升의 시가는 孫致彌의 『朝鮮採風錄』과 주이준의 『明詩綜』 그리고 왕사정의 『池北偶談』 등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 시가를 인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李達의 「韻成次王峯韻」 七律詩는 『列朝詩集』과 『朝鮮採風錄』에서 모두 수록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이에 여기서 최성환이 시가를 선별할 때 그 시기에 이미 널리 알려진 시가를 직접 초록한 동시에 자신 스스로 호감을 갖는 이전의 시가 보다는 새로운 시가를 선별하고자 하는 방향을 취하고자 한 편선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孫致彌의 『朝鮮採風錄』과 주이준의 『明詩綜』 그리고 왕사정의 『池北偶談』에서 수록된 조선 문인의 시가 현황은 劉婧・金榮鎭, 「清人 孫致彌가 편찬한 『朝鮮採風錄』에 대한 고찰」, 『溫知論叢』 42, 2015, 370~382쪽 참조.

22) 최성환, 『性靈集』 "日出棲鴉散, 孤村生白煙. 山空雲滿地, 野闊水浮天. 客袖濃承露, 磵途斜讓泉. 孤吟吟正苦, 無處覓流季."

23) 최성환, 『性靈集』 "先大父菊隱公有郊外一聯云: 日出棲鴉散, 孤村生白煙. 先考雲樵公亦有郊外一聯云: 山空雲滿地, 野闊水浮天. 但俱逸全篇, 故集中不載, 惟二聯誦在人口. 余懼日久而失傳也, 今於郊外之行, 因其境而得其情以二聯足之."

시가 이외에도 조선 문인과 최성환 본인이 쓰는 시가도 함께 수록됐다는 것을 보면 최성환은 조선 시가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려고 한 동시에 중국 시가와 함께 후대로 유전해보고자 했던 의도도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에서 최성환은 "성령"을 드러내는 시가가 비단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도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성환이『性靈集』을 편찬한 연기를 밝히자면 해당 시기에 조선 문인이 원매의『隨園詩話』를 열독하고 수용하면서 정리하고 인용하는 것을 즐겨하던 당대 기풍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성환은 18세기 후기 이래로 시단에 나타난 "조선풍" 이론이 이미 조선 문인 사이에 널리 전파되고 문인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어 있었음을 파악하여 중국시가뿐만 아니라 조선 시가까지도 함께 수록하기도 했던 것이다.

Ⅳ.『性靈集』의 편찬 원리와『隨園詩話』의 영향

이상 최성환이『性靈集』을 편찬한 배경을 고찰하였다. 이제 최성환이『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이 어떤 원리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더불어 이런 원리에 내재된 원매의『隨園詩話』와의 관계는 또한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최성환이『性靈集』을 편찬했을 때 시를 선별하는 범위와 대상 그리고 풍격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해 논술한다.

최성환은 일찍이『性靈集』凡例에서 말하기를, "이 집은 한·위부터 오늘까지 망라하고 마치 風·雅·頌을 편집했다는 것을 계승하는 것과 같다. 이에 선진시대 이전의 고일사는 이 책에 수록되지 않았다."[24]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性靈集』의 선시 범위는 한·위부터 청대에 이르는 넓은 시대를 다루고 있다.『性靈集』의 선시 범위가 이토록 광대한 너비를 갖는다 하더라도 최성환은 다만 하나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는「性靈集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책은 성령에 전념하고 그 격조는 버금이며 기백(웅흔)은 버리는 것이다. 이는 나의 성정과 가까운 것이고 나의 시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25] 이를 통해 최성환의『性靈集』은 주로 성령을 드러내는 시가를 초록하고자 격조에 구속된 시가를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최성환에게 격조란 성령에 대치된 존재이다. 원매는 일찍이 "但添出一分氣格 定減去一分性情"[26]을 말했고 "但多一分格調者, 必損一分性情"[27]을 강조한 적이 있었다. 이에 원매는 격조론을 반대하는 편에서 시인이 각자의 성정에 따라 자유롭게 창작하기를 원하였다. 최성환이 역대의 시를 선별할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였다. 예를 들면『性靈集』에 초록되어 있는 시 가운데 청대 성령파의 원매와 조익의 시를 제일 많이 수록하고 있다.

---

24) 최성환,「凡例」,『性靈集』. "是集始自漢魏以至于今, 猶之承頌雅國風之後, 故先秦以上古逸詩集槩不錄也."
25) 최성환,「性靈集序」,『性靈集』. "是集也, 專主性靈而後格調捨氣魄, 是固我之性有所相近者也, 是固為我之詩集也."
26) 袁枚,『隨園詩話』卷3, 앞의 책, 1960, 66쪽.
27) 袁枚,「趙雲松甌北集序」,『小倉山房文集』卷28, 王英志 主編,『袁枚全集』第二冊, 江蘇古籍出版社, 1993, 489쪽.

＼	五古	七古	五律	七律	五絕	七絕	五排	七排	六絕
袁枚	12	3	3	4	15	5	1		3
趙翼	13	2	2	4	18	8		1	4

위의 도표를 보면 최성환은 성령파의 거두 원매의 시를 46수를 수록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명대 공안파 "三袁"의 시는 단지 13수만을 수록하고 있다.[28] 이로써 최성환이 추구하는 성령은 실제로 이미 명대 공안파의 틀을 벗어나 청대 성령파 원매의 심미 취지에 경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전화는 실제로 19세기에 들어와서 조선 문인이 성령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최성환이 비록 성령을 드러내는 시를 중심으로 선별했지만 시가의 유파를 구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최성환이 성령시를 선별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선별의 범위는 성령파 내부만으로 구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明淸 시기의 시가를 보면 공명파와 성령파 이외에 최성환은 성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복고파(復古派), 당송파(唐宋派), 경릉파(竟陵派), 격조파(格調派), 신운파(神韻派) 기리파(肌理派) 등 다른 유파 문인의 시가도 함께 수록하였다.[29] 최성환의 이런 채시 태도는 원매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예로 원매는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 시를 선택할 때 문호가 반드시 넓어야 되고 채취는 반드시 엄격해야 된다. 만약에 유파의 주장을 알아보면 문호는 자연히 넓어지고 만약에 그 멋진 소재를 알아보면 그 채취는 자연히 엄격해진다. 내가 시를 논하는 것은 광범위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엄격한 것이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음악은 宮音이든지 徵音이든지 모두 맑아야 되고 맛은 시큼하거나 짜거나 모두 신선해야 된다.'하였다.[30]

이상의 내용을 보면 원매는 시가를 선별할 때 그 범위는 필히 넓어야 하며 동시에 수준이 높은 것만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주지하는바 명·청 이래 시학 유파는 끊임없이 나타났는데 이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서로 다른 유파들 간에 각각 자신의 주장만을 견지하여 상대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명대 이래 시단에 "문호지견(門戶之見)"의 악습이 성행하고 있었다. 원매는 이런 "문호지견"을 지양하여 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원칙을 통해 유파의 구속을 벗어났다. 예컨대 원매는 시를 타고난 화초로 비유하여 봄 난초와 가을 국화가 모두 각자 한때의 수미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과 안목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바로 훌륭한 시라고 지적하였다.[31] 그러므로 원매는 맛은 시큼하거나 짜거나 신선하면 되는 것이고, 시는 성령파가 되었

28) 袁宗道(五古 2, 七律 1), 袁宏道(五古 1, 五律 1, 七律 1, 五絕 3, 七絕 2), 袁中道(五律 1, 七絕 1).

29) 예를 들어 명대 복고파 李夢陽(七古 1, 五律 2, 七律 1, 五絕 2) 李攀龍(七古 1, 五絕 2, 七絕 1) 王世貞(五古 1, 七古 4, 五絕 2, 七絕 1); 당송파 唐順之(五律 1, 七律 1); 경릉파 鐘惺(五古 2, 五律 2) 譚元春(五古 1, 五律 1, 五絕 1). 청대 격조파 沈德潛(五律 2, 七律 1, 五絕 1); 신운파 王士禛(五古 2, 七古 2, 五絕 15, 六絕 3); 기리파 翁方綱(五古 3, 七律 2, 五絕 10, 七絕 2).

30) 袁枚, 『隨園詩話』 卷7, 앞의 책, 1960, 222쪽. "選詩如用人才, 門戶須寬, 采取須嚴, 能知派別之所由 則自然寬矣, 能知精采之所在, 則自然嚴矣. 余論詩似寬實嚴, 嘗口號云: 聲憑宮徵都須脆, 味盡酸鹹只要鮮."

31) 袁枚, 『隨園詩話』 卷3, 앞의 책, 1960, 52쪽. "詩如天生花卉, 春蘭秋菊, 各有一時之秀, 不容人為軒輊 音律風趣, 能動人心目

든 복고파가 되었든 성정을 잘 드러내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隨園詩話』에 수록되어 있는 시가들을 볼 때 성령파 시인의 시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기재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칠자 이몽양과 후칠자 왕세정이 쓴 좋은 시에 대해도 역시 높이 평가하여 수록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최성환이『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시대와 유파에 구속되지 않은 동시에 성령을 잘 드러내는 시를 중점적으로 수록하고 있었던 것은 원매가 강조했던 "門戶須寬 采取須嚴"의 채시 원칙을 따라 진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성환이 원매가 강조했던 "門戶須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시 내용을 선별한 부분에서도 재확인된다. 예를 들어『性靈集』에서 방대한 시가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시가의 내용 체제는 대개 "山水景物詩", "閨怨詩 宮怨詩 香奩詩", "題畫詩", "懷古詠史詩", "送別詩", "懷人悼亡詩", "生活瑣事詩", "應酬詩" 등으로 귀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체제 가운데에서도 "閨怨詩 宮怨詩 香奩詩"의 수량이 적지 않았다. 이런 시들은 진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녀의 그리움과 원한 그리고 욕망을 자연스럽게 보여 주고 있다.[32] 유가 전통 시론에서 "情詩"는 배척하게 되는 대상으로 언제나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원매는 "情詩"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隨園詩話』에 많은 "情詩"를 수록하였다. 원매는 일찍이 심덕잠에게 편지를 보내 염시의 가치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었다.

> (내가)『別裁集』에 왜 유독 王次回의 시는 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선생은) 염체시는 족히 교화를 베풀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시를 선별하는 도는 역사를 쓰는 것과 같다. 한 시대의 인재는 전할 만하는 사람이 모두 전을 써야 되고 속되고 구속된 견해로 사람을 적게 취하면 안 된다.……시는 기이하든지 평담하든지 염려하든지 속박하든지 모두 채취할 수 있고 꼭 장엄한 것을 취할 필요가 없다.……(음악은) 잘 울리는 것을 선택하여 그 울리는 것을 감상하면 된다. 꼭 宮음과 商음을 존하고 角음과 羽음을 경시하며 경과 쇠 소리를 존하고 현을 경시할 필요가 없다.……염체시와 궁체시는 모두 시가의 한 체격이고 공자도 鄭衛의 시를 삭제하지 않았는데 해필 선생은 王次回의 시를 삭제하였다. 이것은 지나치지 않았는가?[33]

여기서 원매는 음악이 듣기 우미하고 좋으면 감상할 만하고 그 음악을 구성하는 다른 악기와 음조의 가치 우열은 본래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원매는 시를 음악으로 비유하고 염체시와 궁체시는 정체시와 같이 모두 시가 체격의 한 종류라고 보았으며 이런 시들의 가치는 본래 우열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마치 원매가 앞에서 시를 화초에 비유하고 사람의 마음과 안목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바로 훌륭한 시라고 지적했듯이 시가의 가치는 시의 체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의 내용이 진정을 전달할 수

者, 即為佳詩, 無所為第一第二也."

32) 예컨대 候光第,「山塘竹枝詞」: "當壚十五鬢堆鴉, 稱體單衫淺碧紗. 玉盞勸郎拼醉飲, 更無花好似儂家."; 陳浦,「商婦怨」: "淚滴門前江水滿, 眼穿天際孤帆斷. 只在郎心歸不歸, 不在郎行遠不遠."; 邵帆,「竹枝」: "送郎下揚州, 留儂江上住. 郎夢渡江來, 儂夢渡江去."

33) 袁枚,「再與沈大宗伯書」,『袁枚全集』第2冊, 앞의 책, 1993, 285쪽. "問別裁中獨不選王次回詩, 以為艷體不足垂教, 僕又疑焉.……選詩之道, 與作史同, 一代人才, 其應傳者皆宜列傳, 無庸拘見而狹取之……詩之奇平艷樸, 皆可采取, 亦不必盡莊語也……擇其善鳴者而賞其鳴足矣, 不必尊宮商而賤角羽, 進金石而弦匏也……艷詩宮體, 自是詩家一格, 孔子不刪鄭衛之詩, 而先生獨刪次回之詩, 不已過乎."

있는지 또한 사람의 마음을 환기할 수 있는지 등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성환은 「性靈集序」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 바가 있다.

> 등불 밝힌 저녁이나 꽃이 핀 아침에 옛 사람의 책을 펼치면 경치를 묘사한 것, 감정을 토로한 것, 정직한 것, 아름다운 것, 빼어난 것, 넓고 큰 것, 현묘하고 심원한 것, 진솔한 것, 기괴한 것, 아로새긴 것, 깊숙하고 가파른 것, 울적한 것, 뛰어나고 기이하며 빛나는 것 등으로부터 사공도의 이십사품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것들이 다 펼쳐져 나의 마음과 눈을 어지럽히지만, 이것들이 모두 나의 성정에 맞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나의 성정과 가까운 것들을 만나면 저절로 춤추다가는 감탄을 하고 이어서 나의 것이 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겨서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또한 여려 날 가기도 하였다.[34]

이상의 내용은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했을 때 고인의 시집을 열독하고 선별했다는 옛일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최성환은 시가를 선별하는 작업에 임했을 때 다양한 종류와 체격의 시가를 넓게 접촉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이 많은 시가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는 못하고 어느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된다고 믿었다. 시가를 선택하거나 버리는 과정에서 최성환은 시의 체격 우열을 판단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마음에 가까운 것만 선택하였다. 다시 말하면 최성환은 시를 선별할 때 시가의 체격은 염체시거나 정체시거나 이를 마음에 두지 않는 대신 오직 성정만 드러내면 된다고 견지하였다.

이상 최성환이 시가를 선별하는 범위 측면에서 원매와 그의 『隨園詩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다. 이제 시가를 선별하는 대상 측면에서 이런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원매는 남경 소창산(小倉山) 밑에 위치한 隨園에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흠모하여 찾아왔다고 한다. 따라서 원매도 삼교구류의 별의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따라 시를 배웠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하기도 하였다.[35] 원매의 교유관계가 이렇게 넓었던 까닭에 그가 시를 선별하여 자신의 시화에 넣을 때 굳이 시인의 신분과 성별을 구별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원매는 일찍이 자신의 채시 원칙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시를 채취하는 것은 구호 물자를 보내 구제하는 것과 같다. 차라리 지나칠망정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시는 아직 판목에 새기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채취하는 것은 좋고 이미 판목에 새기는 것을 누락하는 것이 있어도 무방하다.[36]

원매의 채시 원칙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寧濫毋遺"이다. 나아가 그는 시가의 유전과 보존에 입각

---

34) 최성환, 「性靈集序」, 『性靈集』. "燈夕花朝, 批閱古人卷, 有寫景者, 有言情者, 有正直者, 有婉媚者, 有俊秀者, 有博大者, 有玄遠者, 有真率者, 有鬼怪者, 有雕刻者, 有奥峭者, 有倔強者, 有徘諧者, 有富麗者, 有芬芳悱惻者, 有瓌瑋璀璨者, 以至司空表聖所謂二十四品者, 萬狀畢陳, 眩我之心目. 然未必皆合於我之性情矣, 其或遇我之性相近者, 則自然舞蹈之既而感歎之, 繼而恨不為我之有, 中心磈礧者, 亦屢日矣."

35) 袁枚, 『隨園詩話』 補遺 卷1, 앞의 책, 1960, 806쪽. "以詩受業隨園者, 方外緇流, 青衣紅粉, 無所不備."

36) 袁枚, 『隨園詩話』 補遺 卷8, 앞의 책, 1960, 773쪽. "采詩如散賑也, 寧濫毋遺, 然其詩未刻稿者, 寧失之濫, 已刻稿者, 不妨於遺."

하여 아직 세간에 유전하지 못하는 시가를 우선하여 선택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원매의 이와 같은 원칙은 분명히 전통적 선시 표준과는 현저한 차이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원매가『隨園詩話』에서 시인의 신분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시를 초록했다는 것을 비난한 여론도 있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원매는 "自高"와 "自狹"의 비유로 스스로 변명하였다. 채시의 표준이 "自高"하면 가파른 산벼랑에 비가 내릴 때 금방 흩어지고 스며들지 못하는 것과 같고, 또한 표준이 "自狹"하면 마치 항아리에 물을 담을 때 한 말을 담으면 바로 넘치는 것과 같으니 이는 시를 선별할 때 조건은 높고 범위는 비좁아야 된다는 논조를 반박하였던 것이다.[37] 이외에도 원매는 당대(當代)에 여자가 시를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논조에 대해 격렬하게 성토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원매는 여자가 시를 쓰는 것을 비난하는 편견에 맞서 이렇게 대응하였다. "(세간에) 흔히 여자가 시를 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참 천박한 것이다. 성인은『三百篇』맨 앞에「關雎」과「葛覃」편을 두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여자의 시들이었다. 바느질 하는 일 이외의 시간에 글재주 부릴 여유도 없는데 게다가 창화하고 제창하는 사람도 없으면 그냥 세상에 묻혀 살고 알려지지 못할까 걱정한다.[38]" 여기서 원매는 우선 여자가 시를 쓰는 것은 옛날부터 이미 있었던 일이고 또한『시경』맨 앞에 두었다는 사실을 열거하여 여성 시인의 정통성과 지위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음으로 원매는 보존과 유전의 각도에서 여자가 원래 집안 일 때문에 시를 쓰는 여유가 없는 것인데 만약 그들이 가까스로 쓴 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런 시들이 세상에서 실전(失傳)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원매는 "문호지견"을 버리고 "寧濫毋遺"를 강조하며 여성 시인의 가치를 긍정하는 바탕에서 "女子"와 "村氓" 시가의 가치는 시단 명수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39] 이로 인해 원매의『隨園詩話』를 보면 시인의 신분과 성별 차이 그리고 시가의 유파와 체격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원매가 시를 선별하는 경향은 자신이 스스로 강조했듯 "대개 시를 쓰는 것은 모두 각자의 신분이 있고 또한 각자의 마음이 있다"[40]는 취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성환이『性靈集』을 편찬하는 원리는 바로 원매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는 것에 있다.

『性靈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을 보면 그 신분과 성별을 구속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인의 신분은 대개 정단 名人과 시단 老手 이외에 畸士, 賤工, 商人, 青衣, 紅粉, 方外, 歌妓, 僧侶 등 많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삼교구류의 별의별 사람들을 모두『性靈集』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처럼 무명의 '하찮은' 이들이 모두 청대 부분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원매의『隨園詩話』에 있는 인물을 그대로 베껴 온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최성환은 일찍이「凡例」에서 말하기를, "역대 시인 가운데 명수라도 빠뜨리는 이가 있고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초록하는 이도 있다. 단지 그 시는

37) 袁枚,『隨園詩話』補遺 卷4, 앞의 책, 1960, 656쪽. "人有訾余詩話收取太濫者, 余告之曰: 余嘗受教於方正學先生矣, 嘗見先生手書, 贈俞子嚴溪喻一篇云: 學者之病, 最忌自高與自狹. 自高者, 如峭壁巍然, 時雨過之, 須臾溜散, 不能分潤; 自狹者, 如甕盎受水, 容擔容斗, 過其量則溢矣."

38) 袁枚,『隨園詩話』補遺 卷1, 앞의 책, 1960, 590쪽. "俗稱女子不宜為詩, 陋哉言乎. 聖人以關雎葛覃卷, 耳冠三百篇之首, 皆女子之詩. 第恐針黹之余, 不暇弄筆墨, 而又無人唱和而表章之, 則淹沒而不宣者多矣."

39) 袁枚,『隨園詩話』卷3, 앞의 책, 1960, 88쪽. "詩境最寬, 有學士大夫讀破萬卷, 窮老盡氣, 而不能得其閫奧者. 有婦人女子村氓淺學, 偶有一二句, 雖李杜復生, 必為低首者, 此詩之所以為大也."

40) 袁枚,『隨園詩話』卷4, 앞의 책, 1960, 101쪽. "凡作詩者, 各有身分, 亦各有心胸."

과연 선집의 체제와 맞는지를 보기만 하고 그 사람을 지명하는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41]고 하였다. 여기서 최성환이 말하는 "선집의 체제"란 그가 『性靈集序』에서 재삼 강조하는 "성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했던 것은 자신의 성령 심미 취향을 선언하는 동시에 역대의 성령시를 후대에 유전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고로 시를 선별할 때에 시인의 신분에 구속받지 않고 넓게 초록한 동시에 당대(當代)에 이미 쉽게 볼 수 없는 시가도 더불어 많이 초록해 두었다. 예컨대 원매는 『隨園詩話』에서 일찍 죽어 유명할 수 없었던 시인의 시와 시집이 이미 불타버린 바람에 원작자가 아닌 다른 이를 통해 어렵게 다시 알게 되는 시인의 시 등을 많이 기재했다. 최성환 역시 『性靈集』에서 이와 같은 "早亡"시인[42]과 "自焚詩稿"시인[43]의 시가를 그대로 베꼈다. 이외에도 원매는 『隨園詩話』에서 자신의 여동생 袁機, 袁抒, 袁棠과 愛姬, 兒媳, 外甥媳 그리고 남동생 袁樹와 侄兒, 妹婿 등 친족과 門生과 座主 등 우인에 관한 기사와 시가를 많이 수록하였다. 최성환은 『性靈集』에서 원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물의 시가를 선별하여 초록했던 점을 보면 그가 원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범위와 대상 두 측면 이외에 최성환은 시가의 풍격 측면에서도 원매의 『隨園詩話』 영향을 받았다. 원매는 상투적인 것을 답습하는 습속을 지양하여 "清新", "拔俗", "風趣"의 시가 창작 풍격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만약 오늘날에 음영하는 것은 내일도 음영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선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선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실속 없고 상투적이며 진부한 것이다."[44]라고 했고 심지어 "風趣專寫性靈"[45]라고 주장한 바도 있었다. 이에 원매는 『隨園詩話』에서 "清新", "拔俗", "風趣"의 풍격을 지니는 시가를 많이 수록한 동시에 이러한 시가를 높이 논평하기도 하였다. 최성환은 『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원매의 이와 같은 경향성을 수용하여 상투적인 형식을 버리고 풍취(風趣)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가를 많이 수록하였다. 아래와 같은 두 사례를 보자.

> 서로 바라볼 때 단지 한 강물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 까치가 다리를 채우지 않다면 감히 넘어갈 수 없네.
> 신선이 되어도 강물을 무서워하더니
> 헤아려 보니 있어도 많지 않겠네.

---

41) 최성환, 「凡例」, 『性靈集』. "歷代詩人有名手而見漏者, 有不甚表著而見錄者, 只看其詩之果合於此選體制也, 未其人之知名與否所不拘."

42) 이런 사례는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金兌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隨園詩話』 補遺 卷2 44條에 아래와 같이 기록한 바 있다. "蘇州桃花塢有女子, 姓金, 名兌, 字湘芝者, 諸生金風翔女也. 年甫十三, 有人錄其秋日雜興云: 無事柴門識靜機, 初晴樹上掛蓑衣. 花間小燕隨風去, 也向雲霄漸學飛. 秋來只有睡工夫, 水檻風涼近石湖. 卻笑溪邊老漁父, 垂竿終日一魚無." 최성환은 『性靈集』 續集之六에서 13세의 나이로 일찍 죽은 金兌 「秋日雜興」의 후 4구를 그대로 수록하였다.

43) 예를 들면 『隨園詩話』 卷2 67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竹筠女子早卒, 自焚詩稿, 僅傳其宮詞云: 中官宣詔按新箏, 玉指輕彈別恨聲. 恰被東風吹散去, 君王乍聽未分明." 최성환은 『性靈集』 續集之六에서 이 「宮詞」 시를 수록했는데 다만 高竹筠 딸의 이름을 "姚益鱗"으로 오기하였다.

44) 袁枚, 『隨園詩話』 卷1, 앞의 책, 1960, 19쪽. "若今日所詠, 明日亦可詠之, 此人可贈, 他人亦可贈之, 便是空腔虛套, 陳腐不堪矣."

45) 袁枚, 『隨園詩話』 卷1, 앞의 책, 1960, 2쪽.

相看只隔一條河 鵲不填橋不敢過
作到神仙還怕水 算來有巧也無多
(최성환,『性靈集』五集 卷之六, 燕以均「詠七夕」袁枚,『隨園詩話』補遺 卷10, 23條)

누구 집의 정원은 스스로 봄을 맞이하는데
창문턱에 태선이 있고 책상에 먼지가 많네.
하필 이웃집의 개가 관심을 기울이고
격벽에 꽃을 꺾고 있는 사람에게 짖네.

誰家庭院自成春 窗有苺苔案有塵
偏嗜關心鄰舍犬 隔墻猶吠折花人
(최성환,『性靈集』五集 卷之六, 李勉「廢園」袁枚,『隨園詩話』卷13, 20條)

원매는 일찍이 燕以均의「詠七夕」와 李勉의「廢園」에 대해 각각 "詩極風趣"와 "尖新"이라고 논평한 바가 있었다.[46] 燕以均은 음영한 화제는 널리 알려진 전설이지만 상투적인 서술적 태도를 지양하여 "戲虐"의 말투로 "풍취"의 효과를 만들어 상투적인 화제를 활기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李勉의 핵심 화제는 폐기한 정원을 묘사하는 것인데 여기서 직접 정원이 폐기한 모습을 중심으로 묘사하는 전통적 기법을 지양하고자 봄의 정원에 나타난 봄의 광경과 창문과 책상을 폐기한 모습을 대조하고 또한 이웃집의 개가 정원에 꽃을 꺾은 사람에게 짖고 있다는 묘사를 통해 정원의 황폐를 드러냈다. 이상의 시는 모두 전통적 의상(意象)과 상투적 기법을 지양하고 새로운 상상과 기법으로 시가를 창작하는 전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성환은 진부하고 상투적인 창작 방법을 버린 두 시의 창작 기법과 풍격을 긍정하고 선호하여『性靈集』에서 그대로 초록하였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보면 최성환은『性靈集』을 편찬할 때 "문호지견"을 타파하고 시인의 성분과 성별을 구속하지 않으며 시가의 "拔俗"과 "風趣"을 강조하는 이념에서 원매『隨園詩話』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매는 일찍이 시를 선별할 때 꼭 피면(避免)해야 된다는 7가지 사항을 당부한 적이 있다. 그 가운데 "한 시인을 시를 선별할 때에는 꼭 전면적으로 읽은 후 진행하되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시가의 체격은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야 하므로 일가에만 구속되면 안 된다. 이는 '문호지견'은 꼭 버려야 하며 시를 선별하는 유일한 표준은 오직 성정에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교관'을 고수하여서는 안 되고 사람을 교화하는 의도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47]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최성환은 원매의『隨園詩話』을 통

46) 袁枚,『隨園詩話』補遺 卷10, 앞의 책, 1960, 827쪽; 袁枚,『隨園詩話』卷13, 앞의 책, 1960, 441쪽.
47) 袁枚,『隨園詩話』卷14, 앞의 책, 1960, 465~466쪽. "選家選近人之詩, 有七病焉. 其借此射利通聲氣者, 無論矣, 凡人全集, 各有精神, 必通觀之, 方可定去取, 倘捃摭一二, 並非其人應選之詩, 管窺蠡測, 一病也; 三百篇中, 貞淫正變, 無所不包, 今就一人見解之小, 而欲該群才之大, 於各家門戶源流, 並未探討, 以己履為式, 而削他人之足以就之, 二病也; 分唐界宋, 抱杜尊韓, 附會大家門面, 而不能判別真偽, 采擷精華, 三病也; 動稱綱常名教, 箴刺褒譏, 以為非有關系者不錄, 不知贈芍采蘭有何關系, 而聖人不刪, 宋儒責蔡文姬不應登列女傳, 然則十七史列傳, 盡皆龍逢比幹乎, 學究條規, 令人欲嘔, 四病也."

독하여 성령시를 초록하고 『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원리를 따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성환은 원매가 당부했던 "내용을 함부로 개정하거나 가감하면 안 되고 금을 쇠로 변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사적인 감정과 청탁으로 시를 선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두 가지 주의 사항은 그만 따르지 못하였다. 물론 시를 선별할 때 사적인 감정을 배척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며 이런 사항을 제기했던 원매도 스스로 자신이 이를 따르지 못했다고 고백하였다.[48] 이렇게 볼 때 최성환이 원매와 그의 주변 인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역시 인정사리에 맞는 것이었다.

Ⅴ. 맺음말

19세기에 이르러 여항시인 사이에 원매를 수용하는 열기가 일어났다. 최성환의 『性靈集』은 19세기 조선 시학의 이러한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을 제공해 주었다. 본고에서는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하는 연기(緣起)와 원리를 고찰하는 것을 통해 19세기에 원매와 『隨園詩話』의 조선 전파와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18세기 말~19세기 초 원매의 『隨園詩話』가 조선으로 들어온 후 열독의 열기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조선 문인이 『隨園詩話』에 수록된 시론과 시에 대해 갖는 관심이 점점 증가했다. "성령" 시학을 이해하고 선언하는 측면에서 일부 문인은 『隨園詩話』의 내용을 선별하여 초록하였다. 최성환의 『性靈集』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둘째, 최성환은 원매 『隨園詩話』의 영향을 받아 『性靈集』을 편찬하여 시를 선별할 때 진부하고 상투적인 창작 풍격을 지양한 동시에 시인의 신분과 성별, 시가의 체제와 체격에 구속되지 않으며 성령을 드러내는 시가라면 모두 수록하였다. 이에 『性靈集』은 원매의 『隨園詩話』에 수록된 여성 시인과 염정시 뿐 아니라 "拔俗", "風趣"의 풍격을 지닌 시가를 많이 초록하였다. 이는 『性靈集』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으로 내세울 만하다.

셋째, 원매가 『隨園詩話』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시가의 후대 유전을 중시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隨園詩話』에 수록되어 있는 "早亡" 시인과 "自焚詩稿" 시인의 시가는 모두 『性靈集』에서 초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18세기 후기 조선 시의 자각을 강조하는 "조선풍" 시학 이념의 영향 하에서 최성환은 중국 역대 시가를 선별한 동시에 자신을 포함하여 조선 시인의 시가도 적지 않게 수록하고 있다. 전통 시론가는 비천한 사람과 여자는 모두 시를 쓰는 자질을 갖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따라서 이들에게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시가는 자연히

48) 이상 袁枚, 『隨園詩話』 卷14, 앞의 책, 1960, 466쪽. "貪選部頭之大, 以為每省每郡, 必選數人, 遂至勉強搜尋, 從寬濫錄, 五病也; 或其人才力與作者相隔甚遠, 而妄為改竄, 遂至點金成鐵, 六病也; 徇一己之交情, 聽他人之求請, 七病也. 末一條, 余作詩話亦不能免." 정리한 것이다.

가치가 떨어지므로 편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성환은『性靈集』에서 "红粉"뿐만 아니라 "青衣", "布衣", "方外" 등 하층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시가를 많이 선별하고 수록하였다. 이처럼 최성환은 시인의 신분과 성별의 구속을 타파하고 시인의 군체(群體)와 시가의 풍격을 해방하는 측면에서 진보적인 의의가 돋보인다. 최성환은『隨園詩話』를 통독하는 과정에서 원매의 채시관을 수용하고 전통 시론을 지양하고 도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박장암(역음),『縞紵集』上, 이우성(편),『楚亭全書』下, 亞細亞文化社, 1992.

崔瑆煥,『性靈集』, 國立中央圖書館 소장본(일산古3715-68).

王英志(編),『袁枚全集』第一冊 第二冊 第八冊, 江蘇古籍出版社, 1993.

錢泳(著),『履園叢話』丁福保(輯),『清詩話』下冊, 上海古籍出版社, 1978.

袁枚(著), 顧學頡(校點),『隨園詩話』, 人民文學出版社, 1960.

논저

금지아,「『性靈集』의 편성체제와 특징」,『中國語文學論集』46,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劉婧・金榮鎭,「清人 孫致彌가 편찬한『朝鮮採風錄』에 대한 고찰」,『溫知論叢』42, 2015.

이경수,『漢詩四家의 清代詩受容研究』, 택학사, 1995.

이우성,「金秋史 및 中人層의 性靈論」,『한국한문학연구』5, 한국한문학연구회, 1980.

이정선,『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정우봉,「19세기 性靈論의 재조명 - 崔瑆煥의 性靈論을 중심으로」,『한국한문학연구』35, 한국한문학연구회 2005.

童玲,「「百家詩話鈔」溯源小考」,『古代文學理論研究』33,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1.

張伯偉,『清代詩話東傳略論稿』, 中華書局, 2007.

張伯偉,「李鈺「百家詩話鈔」小考」,『域外漢籍研究集刊』3, 中華書局, 2007.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6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

Incoming of "Criticism of Poetry from the Garden of Leisure" in Later Period of Korea and Compilation of "Soul Set" by Choi Seonghwan

Han, Dong*

The Korean folk scholars appeared an acceptance phenomenon to Wonmae in the 19th century. The "Soul Set" which written by Choi Seonghwan was a specific performance. The study is to investigate his motivation and principle, to illustrate the influence on Korea of Wonmae and his "criticism of Poetry from the Garden of Leisure" in 19th century. the above research content is as follows: First, at the end of eighteenth Century and early nineteenth Century, Wonmae's poetry was introduced into Korea, and set off an upsurge of reading. In the process, for the sake of understanding and propaganda, a part of Korean literati began for sorting and copying the contents of the "Criticism of Poetry from the Garden of Leisure". Choi Seonghwan's "Soul Set" is produced in this context. Second, due to the influence of Wonmae, Choi Seonghwan compiling the Soul Set", not entangled in the poet's identity and gender, and poetry of the subject and style, as long as it is to express "the soul "will be included. Thus we find in the soul set reproduces many female poet and sentimental poetry, which can be considered a significant feature of his compile. The third, the compilation of Choi Seonghwan pay attention to the spread issues of poetry. Therefore, the poems of "early death" poets and "self Immolation manuscript" were included. At the same time, by the influence of Korean poetry literary consciousness and subjectivity emphasizes in the late 18th century, Choi Seonghwan elected poetry also included a lot of Korean people's poetry, contain Himself.

[Key Words] Choi Seonghwan(崔瑆煥), "Soul Set(性灵集)", Wonmae(袁枚), "Criticism of Poetry from the Garden of Leisure(隨園詩話)", poetics

* The Ph.D. Candidate, College of Humanities, Hanyang University

東洋學 第62輯(2016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영향관계로 본 이규영의 품사 분류

金 海 錦*

ㅣ국문초록ㅣ

이규영(1890~1920)은 네 저술에서 품사를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 『온갖것』은 22개의 품사를 설정하고, 『말듬』은 9개, 『한글적새』는 15개, 『현금 조선문전』은 9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품사의 분류를 주시경과 김두봉의 영향관계 속에서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를 '언', '억'에 포함했는지에 따라 이규영의 저술이 주시경과 김두봉의 어느 저술과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말듬』은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과 부분적으로 김희상의 『조선어전』(1911)의 영향을,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영향을, 『현금 조선문전』은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적으로 주시경의 영향을 받은 『말듬』과 김두봉의 영향을 받은 『현금 조선문전』을 제외한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하면서도 나름대로 이규영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예컨대, 주격 조사를 '만'에, 목적격 조사를 '금'에 포함시키는 이규영의 처리 방식이 주시경의 용어인 '만이'와 '금이'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이해한 기초 상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규영은 '만'에 목적격 조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금'에 포함시키지만 주시경과 김두봉은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하나로 묶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결어미를 '만'에 포함하고 있지만 주시경이나 김두봉은 '끗' 또는 '맺'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밖에 '입, 업, 웁'의 용례로 제시한 파생접사를 품사로 파악하고 있지만 주시경과 김두봉은 단어형성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 차이가 포착된다.

[주제어] 품사 분류, 영향관계, 문법 용어, 언, 억, 만, 금, 입, 업, 웁

ㅣ목 차ㅣ

Ⅰ. 서 론
Ⅱ.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한 저서별 분석
Ⅲ.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한 품사별 분석
Ⅳ. 결 론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snu201231253@snu.ac.kr

Ⅰ. 서 론

본고는 검돌 이규영(1890~1920)의 저술 중에서 『온갖것』(1913), 『말듬』(1913), 『한글적새』(1916~1919), 『현금 조선문전』(1920)을 중심으로 이규영의 저술에 보이는 품사 분류를 통하여 동시대의 한국어학자들의 저술과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한다.[1)]

이규영의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김민수(1980)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이규영의 저술과 주시경과 김두봉의 저술과의 영향관계를 대략적으로 밝히고 있다.[2)] 정혜린(2011)은 『말듬』, 『한글적새』와 김두봉의 『조선말본』 세 저술의 문법 용어를 비교하면서 『한글적새』 문법의 어학사적 위치를 조명한 논의이다.[3)] 『현금 조선문전』은 김두봉의 『조선말본』의 요약이라든가[4)] 배못문법에 근거한 제3의 문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5)] 이는 『현금 조선문전』과 김두봉의 『조선말본』은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문(2013)은 『말모이』를 주시경의 '씨난'과의 관계상에서 다룬 논의로 『말모이』는 주시경의 『말의 소리』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들 관계를 논의하는 과정에 『말모이』 편찬 과정에 참여한 이규영의 『온갖것』의 '우리말 씨 몯음의 갈래 곳 씨틀'과 '씨난의 틀 자세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김두봉의 『조선말본』을 결론 부분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조선말본』은 『말모이』의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의 소리』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6)]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말모이』의 편찬에 관련이 있는 『말의 소리』, 『온갖것』, 『한글적새』, 『조선말본』을 하나로 묶어 같이 영향관계를 다룰 가능성과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상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연구에서 이규영의 네 저술과 다른 학자의 저술 사이의 직접·간접적 영향관계를 검토한 바 있다. 아쉬운 점은 이규영의 네 저술에서 반영된 품사에 대한 인식을 동시대의 한국어학자들과의 영향관계를 고찰하여 상세하게 기술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온갖것』, 『말듬』,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을 면밀히 검토할 것인데 『온갖것』, 『한글적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왜냐하면 『말듬』은 주시경의 영향을, 『현금 조선문전』은 김두봉의 영향을 받았지만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하면서도 나름대로 이규영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갖것』과 『한글적새』에서 제시한 품사 분류를 통하여 동시대의 한국어학자들의 저술과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한다.[7)] 이는 역으로 이규영의 네 저술을 통하여 이와 영향관계에 있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이 어떻게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에게 수용되었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다.

---

1) 이규영의 문법 저술로는 이 네 저술 이외에도 『읽어리 가르침』(1918~1919)이 있으나 선본을 구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독본이라고 김민수에서 언급되었는바 여기서는 제외했다. 김민수, 「이규영의 문법연구」, 『한국학보』 19, 1980, 64쪽.
2) 김민수, 위의 논문, 1980, 57~86쪽.
3) 정혜린, 「稿本 『한글적새』 문법의 어학사적 위치에 대한 일고찰」, 『국어학논집』 7, 역락, 2011, 77~78쪽.
4) 김윤경, 『朝鮮文字及語學史』, 조선기념도서출판관, 1938, 470~471쪽; 강복수, 『國語文法史硏究』, 형설출판사, 1972, 8쪽.
5) 김민수, 위의 논문, 1980, 83쪽.
6) 김병문, 「주시경의 '씨난'과 『말모이』의 관계」, 『주시경과 그의 시대언어적 근대의 기획』, 소명출판, 2013, 330~352쪽.
7) 네 저술의 성격을 같게 볼 수 있는지 『한글적새』를 통하여 검돌의 문법관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본고의 구성은 2장에서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하여 저서별로 분석한다. 3장에서는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하여 품사별로 분석하여 이규영의 네 저술의 영향관계 및 다른 한국어학자들과의 영향관계를 살핀다. 4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핀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맺는다.

Ⅱ.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한 저서별 분석[8)]

이규영의 저술들로 『온갖것』, 『말듬』, 『읽어리 가르침』,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등이 있는데 『읽어리 가르침』은 독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품사 분류를 확인할 수 없지만 기타 저술들에서 이규영의 품사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온갖것』에서는 22가지를 설정하고, 『말듬』에서 9개, 『한글적새』에서 15개, 『현금 조선문전』에서 9개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온갖것』이 이규영의 기타 저술인 『말듬』,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과 다른 점이 포착된다. 즉, 『온갖것』의 품사 분류가 제일 많고, 학교문법의 '관형사'와 '부사'가 '임(제, 넛, 억, 언, 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기타 저술과 구분된다. 이밖에 『온갖것』의 '임'에 포함되어 있던 '언, 억, 드'가 『한글적새』에 와서는 '임'을 비롯한 다른 품사와 같은 층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문법의 '종결어미'를 포함하는 '만'은 『한글적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기타 두 저술인 『말듬』과 『현금 조선문전』의 품사 분류를 보면 전자는 주시경(1910), 후자는 김두봉(1916)과 같은 품사 분류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절을 달리 하여 살피겠다.

〈표 1〉 네 저술에서의 품사 분류

저술	품사 분류		
온갖것	몸	밋	임(제, 넛, 억, 언, 드), 움, 엇
		빗	입, 웁, 업
	토	밋	만(맺, 심), 금(둠, 갈, 손, 깁), 돕(잇, 둘)
		빗	때, 높, 솔
말듬	임, 움, 엇, 언, 억, 놀, 잇, 곁, 끗		
한글적새	몸	임, 움, 얻(입, 웁, 업)	
	모임	언, 억, 늑	
	토	잇, 금, 만(높, 때, 솔)	
현금 조선문전	몸	임, 얻, 움	
	토	겻, 잇, 맺	
	모임	언, 억, 늑	

8) 본고의 논문 구조를 목차에 잘 드러내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 『온갖것』의 품사 분류

『온갖것』은 全1卷의 필사본인데, 일종의 備忘錄으로서 책의 제목 그대로 온갖 것(내용에는 온갓것)을 적어 놓은 것이다. 『온갖것』은 '하나', '둘', '셋'으로 나뉘어 있는데, 문법에 관련된 내용은 '둘'에 언급되어 있다. 품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말의 씨몸듬의 갈래'와 '씨난틀의 자세한 것'에서 다루어지고 있다.[9]

'씨난틀'에는 '씨'를 22가지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데 먼저 몸과 토로 양분하고 나서 몸과 토를 각각 밋과 빗으로 양분하고 있다. 이어서 밋과 빗을 하위분류하여 몸밋은 '임, 움, 엇'으로 하위분류하고, 몸빗은 '입, 웁, 업'으로 하위분류한다. 토밋은 '만, 금, 돕'으로 나누고 토빗은 '때, 높, 솔'로 나눈다. 이어서 임은 다시 '제임, 넛임, 억임, 언임, 드임'으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움은 '안과 밖'으로 나눈다. 만은 '심과 맺'으로 양분한다. 금은 '둠, 갈, 손, 깁'으로 하위분류하고 돕은 '잇과 둘'로 나뉜다. 이처럼 『온갖것』에서는 품사를 2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말모이』의 분류와 같다.[10] 『온갖것』과 내용이 비슷한 『말모이』의 문법 항목을 김병문(2013)에서는 품사의 분류로 보고 있다.[11] 본고는 이에 따라 『온갖것』의 22개를 품사의 분류로 보고자 한다.[12]

『온갖것』의 품사 분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모이』의 문법 정보를 제시 순서에 약간의 수정을 하여 보이고 『온갖것』의 용례를 제시할 것이다.

(1) 『온갖것』의 품사 분류 및 그 용례

(임) (제) [名詞] 리슌신, 평양, 사람, 땅
(넛) [代名詞] 이, 그, 저, 나, 어, 제, 하나, 둘, 셋, 이, 것, 줄, 바, 누누, 무엇, 얼마
(언) [名詞 우에 쓰는 말] 한, 두, 세, 무릇, 왼, 딴, 다만, 왼, 첫, 새, 오래, 어느, 무슨
(억) [副詞] 더, 더욱, 곳, 늘, 각금, 거진, 겨우, 못, 왜, 엇지, 아마, 아주, 꼭, 반듯이, 왈칵, 출렁, 얼눅, 또, 다시
(드) [느끼고 부르고 對答하는 소리들] 아, 하, 구구, 돌돌, 오래, 예, 오냐, 어머, 글세, 암, 글엄
(움) (안) [內動詞]
(밖) [外動詞]
(엇) [形容詞] 어질, 착하, 무겁, 많, 재, 날내, 동글
(입) [名詞를 뜻바꾸게 하든지 形動을 名詞되게 하는 몸] 들, 뿐, ㅁ, 기, 이, 들레
(웁) [動詞를 뜻바꾸게 하든지 名形을 動詞되게 하는 몸] 이, 어지, 으리, 지
(업) [형용사를 뜻바꾸게 하든지 名動을 形容詞되게 하는 몸] 차, 앟, 롭, 스럽

9)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적고 띄어쓰기를 현대적 관점에서 제시하되 나머지는 원문의 것을 가급적 그대로 밝히기로 한다. 이하 다른 문헌도 한가지이다.
10) 김병문, 앞의 논문, 2013, 341쪽.
11) 김병문, 앞의 논문, 2013, 347쪽.
12) 『온갖것』의 서지 성격상 『말모이』를 기록한 비망록이어서 품사 체계라는 용어보다 품사 분류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기타 저술에 보이는 것도 품사 분류로 한다.

(만) (심) [主語되게 하는 토] 이, 가, 게서, 아, 야, 시여, 여, 에서, 서,
(맺) [說明語되게 하는 토] 도다, 냐, 나잇가, 니라, 아라, 어라, 소서, 어다
(금) (둠) [名代를 언되게 하는 토] 의
(갈) [形, 動을 언되게 하는 토] ㄴ, 은, 단, 이란, 으란
(손) [名代를 副詞되게 하는 토] 에, 에서, 보다, 처럼, 리, 을, 를
(깁) [形動을 副詞되게 하는 토] 어, 아, 면, 거든, 다가, 러, 게, 도록
(돕) (잇) [連續詞] 고, 면서, 니, 매, 와, 과
(둘) [範圍 定하는 토] 와, 과, 도, 는, 은, ㄴ들, 든지, 야, 만, 마다, 까지, 사록, 완대, 므로, 데
(때) [時間發表하는 토] 아야, 어야, 아, 앗, ㄴ, 든
(높) [尊稱하는 토] 시, 옵, ㅂ, 압
(솔) [소리 돕는 것] 이, 으

(1)의 『온갖것』의 품사 분류를 보면 『말모이』에서 독립적인 하나의 품사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상위 범주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 포착된다. 다시 말하면 '제, 넛, 언, 억, 드'를 '임'으로, '안, 밖'을 '움'으로 '심과 맺'을 '만'으로, '둠, 갈, 손, 깁'을 '금'으로, '잇, 둘'을 '돕'으로 묶고 있는 것이다. 이외의 내용은 『말모이』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하다.

'제, 넛, 언, 억, 드'를 '임'으로 묶어서 다루는 논의는 주시경(1914)의 『말의 소리』에서 포착된다. '안, 밖'이라는 용어는 한자어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3] 이는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의 기타 저술에서는 '제임, 남움'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하게 된다.

『온갖것』에서 사용되는 '만', '금'은 주시경(1910)에서 '겻'을 하위분류할 때 사용된 용어이다. '만'에 '심'과 '맺'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만'을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품사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온갖것』의 '통사론'에서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로 양분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을 문장에서 '관형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품사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 학교문법의 '을/를'을 '금'에 포함시켜 '주격 조사나 호격 조사'와 별도로 처리한 점은 문장의 해석에서도 평행되게 나타난다. 이규영은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로 양분하고 이외의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으로 파악하고 '을/를'을 '부사어'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특기할 점은 이규영이 주시경(1910)처럼 '갈', '손'과 '깁'을 '금'의 하위분류로 다루면서도 주시경(1910)과 달리 '갈'을 '언'의 하위로, '손'과 '깁'을 '억'의 하위분류로 편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규영이 '갈'은 선행 성분과 함께 '관형어'를 이루는 것으로, '손'과 '깁'은 선행 성분과 함께 '부사어'라는 통사론적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돕'에는 현행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연결어미와 보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말모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으로 현행 학교문법의 시제, 경어법 선어말어미도 있다. 매개모음의 '이, 으'도 언급하고 있다. '입, 웁, 업'과 같은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을 파생하는 접사도 품사로 분류하고 있다.

13) 이병근(「最初의 言語辭典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 1, 한국언어학회, 1977, 79쪽)은 "『온갖것』은 漢字語系統의 語法用語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말듬』의 품사 분류

『말듬』은 全1卷, 필사본으로 1913년경에 나온 간결한 국어문법책(小文典)이다. 품사에 관련된 부분은 '씨난갈'에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씨난틀'과 '씨난갈'에서 보이고 있다.

⑵ 『말듬』의 품사 분류 및 그 용례

임 : 일홈의 씨를 이름이니 일홈에 이와 ㅁ만을 떨어 겹하야 임이 됨.
(본) : 사람, 일, 집, 뫼, 물, 달, 운두, 나, 네, 우리, 그이, 저긔
움 : 움즉이는 씨를 이름이니 움즉임에 움만 떠어 움이라 함.
(본) : 티, 날, 흐르, 쓰, 울, 오, 가, 갈
엇 : 엇더하다는 씨를 이름이니 엇더함에 엇만 떠어 엇이라 함.
(본) : 푸르, 검, 히, 좋, 단순하, 똑똑하, 붉, 푸르
언 : 어더한의 씨니 어더한에 어와 ㄴ만을 겹하야 언이라 함.
(본): 좋은, 붉은, 맑은, 높은, 푸른, 흰, 검은
억 : 엇더하게의 씨니 어더하게에 어와 ㄱ만 떠어 겹하야 억이 됨.
(본) : 썩, 매우, 가장, 대단이
놀 : 놀내서 하는 씨니 놀내에 논만 떠어 놀이라 함.
(본) : 아, 응, 암, 에구
잇 : 두말을 이어서 주는 씨니 이어서에 이와 ㅅ만 겹하야 잇이라.
(본) : 와, 과, 고, 면
곁 : 임씨 같에 잇어 임씨로 임씨로는 하게 하는 씨니 곁에 잇음으로 곁이라 함.
(본) : 가, 이, 의, 에, 을, 를, 은, 는
끗 : 말 끗에 잇는 씨니 이러함으로 끗이라 함.
(본) : 라, 이라, 다, 이다, 오, 이오, 압소셔

(2)의 『말듬』의 품사 분류는 주시경(1910)의 『국어문법』과 같이 '임, 엇, 움, 겻, 잇, 언, 억, 놀, 끗' 등 9개로 되어 있다. '억씨'에 '대답억씨'를 두고, '언씨의 때'와 '놀씨의 갈래'를 새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엇', '언', '억'에도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14] 가령 '엇'에 '엇던 엇씨', '움의 엇씨', '헴의 엇씨'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주시경(1910)에서 '엇'을 '物品, 物貌, 行品, 行貌, 때, 헴'으로 분류한 것과 다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분류는 '의미'의 기준으로 분류하던 것을 부분적이나마 추상적인 명칭으로 명명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규영은 주시경(1910)과 같이 현행 학교문법의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조사', '위격 조사', '조격 조사', '공동격 조사'를 하나의 '곁'에 묶어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주시경(1910)과 다른 새로운 분류가 확인되는데 '주격 조사'를 '임이만'에, '목적격 조사'를 '씀이만'에, '보조사'를 '넓은만'에, '기타 격조사'를 '금이'에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말듬』은 주시경(1910)의 분류를 부분적으로 개편하였으나 전적으로

14) 김민수, 앞의 논문, 1980, 74~75쪽.

주시경문법을 바탕으로 하여 간결하게 겪은 기초문법인 것이다.[15]

3. 『한글적새』의 품사 분류

『한글적새』는 全6卷, 필사본으로 1916~1919년 사이에 저술한 文法表 및 國語資料集이다.[16] 현재 볼 수 있는 『한글적새』 중에 첫재떼 말본 ㄱ의 '씨갈래의 쓰임'이 품사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⑶ 『한글적새』의 품사 분류 및 그 용례

임 : 이름
사람, 이순신, 한울, 한울님, 나, 너, 저, 긔, 대, 그, 이, 저, 하나, 둘, 열, 온, 이, 것, 줄, 바, 무엇, 얼마, 누구

움 : 움즉임
자, 맞, 먹, 치, 시기, 먹이

얻 : 어떠함
어질, 무겁, 날래, 재, 둥글, 크, 작, 이르, 늦, 많, 적, 이러하, 저러하, 그러하, 어떠하

언 : 어떠한
요, 고, 고, 올, 새, 외, 첫, 맨, 한, 두, 왼, 어느, 웬, 무슨

억 : 더욱, 더, 곳, 늘, 각금, 거진, 겨우, 왜, 못, 어찌, 아마, 왈칵, 출렁, 얼룩, 또, 다시

늑 : 늑김
아, 하, 휴유, 글세, 암, 여보, 구구, 오래, 네, 오냐

만 : 으뜸감의 토
이, 가, 께서, 께압서, 아, 야, 시여, 이시여, 에서, 도, 는, 은, 만, 야, 냐, 나이까, 도다, 로다, 니라, 니다, 아라, 어라, 소서

금 : 붙음감의 토
의, 엣, 인, ㄴ, 은, ㄹ, 을, 에, 로, 보다, 를, 을, 게, 어, 브록

잇 : 잇어주는 토
와, 과, 고, 나, 며, 면서, 이고, 으나, 이며, 이면서

입 : 임씨의 빛몸
들, 뿐, ㅁ, 음, 이, 기

업 : 얻씨의 빛몸
앟, 엏, 브, 스럽, 답, 업, ㅂ

웁 : 움씨의 빛몸
이, 히, 지, 거리, 이, 아지, 어지

높 : 높이는 토

15) 김민수, 앞의 논문, 1980, 85쪽.
16) 김민수, 위의 논문, 1980, 78쪽.

시, ㅂ
때 : 때를 가르치는 토
는, ㄴ, ㄹ, 을, ㅁ, ㄷ
솔 : 소리보태는 토
이, 으

『한글적새』의 품사 분류를 보면 『온갖것』, 『말모이』와 비슷한 점을 많이 포착하게 된다. 이밖에 '언, 억, 드'를 '임'에서 분리하여 처리한 것은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의 품사 체계와 비슷한 일면이 포착된다. 또한 '만'의 용례를 보면 『한글적새』는 『온갖것』, 『말모이』의 '만'에 '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잇'을 『온갖것』에서 '돕'의 하위분류로 파악하던 것을 『한글적새』에서는 '임' 등 품사와 동등한 층위로 파악하고 있다. '입, 업, 웁' 등 '명사, 형용사, 동사'를 파생하는 접사를 『온갖것』, 『말모이』에서처럼 품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학교문법에서 '감탄사'에 해당하는 '늑'의 용례가 더욱 풍부해진 점도 포착할 수 있다.

4. 『현금 조선문전』의 품사 분류

『현금 조선문전』은 간행된 이규영의 유일한 遺著로 알려진 책이다. 이는 중등학교 초급용 文法教科書이다.[17] 제2편의 '씨'에 품사 분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4) 『현금 조선문전』의 품사 분류 및 그 용례

임 : 사람, 땅, 벼실, 날, 병, 신지, 한양, 막니지, 한가위, 고뿔, 맘, 슬기, 아츰, 가멸, 웃음, 나, 너, 저, 우리, 이, 그, 저, 곧, 긔, 대, 이, 것, 바, 줄, 수, 누구, 무엇, 얼마, 어대
엇 : 어질, 착하, 무겁, 무르, 곱, 밉, 날래, 재, 둥글, 검, 검엏, 푸르, 펄엏, 일, 늦, 오래, 많, 적, 흔하, 이러하, 저러하, 그러하, 어떠하
움 : 웃, 피, 가, 놀, 맞, 걸리, 먹, 입, 쓰, 쏘, 되
겻 : 가, 이, 께서, 야, 아, 여, 이여, 서, 의, 는, ㄴ, 은, ㄹ, 을, 던, 을, 를, 로, 으로, 에, 에게, 에서, 보다, 처럼, 아, 어, 이, 게, 러, 려, 도록, 니, 매, 면, 으면, 거늘, 어늘, 아서, 어서, 르록, 어니, 거니, 도, 만, 는, 은, 던지, 야, 이야, 마다, 까지
잇 : 와, 과, 고, 이요, 면서, 다가
맺 : 로다, 이로다, 도다, 구나, 는구나, ㅂ니다, ㄹ세, 에, 다, 어라, ㅂ니까, 리까, ㄴ가, ㄹ가, 나, 냐, 느냐, 소서, 게, 아라, 거라, 어라
언 : 고, 요, 조, 한, 두, 여러, 모든, 새, 외, 올, 돌, 어느, 무슨, 왼
억 : 늘, 곳, 가끔, 어찌, 못, 아니, 참, 아마, 잘, 가장, 출렁, 얼룩

17) 김민수, 앞의 논문, 1980, 83쪽.

늑 : 허허, 아이구, 암, 글세, 에그, 여보, 구구, 네, 오냐

(4)의 『현금 조선문전』은 품사를 9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주시경(1910), 김두봉(1916)의 9품사 체계를 방불케 한다. 『온갖것』, 『한글적새』에서 품사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 '때, 높, 솔'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즉, '높'의 청자높임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맺'에서 다루고 주체높임법의 '시'는 '동사의 바꿈'에서 다루고 있다. 매개모음에 해당하는 '솔'은 여러 품사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제시한 용례로 '로, 으로, 면, 으면, 여, 이여' 등이 확인된다. 또한 『온갖것』, 『한글적새』에서 '을/를', '의'를 주격 조사와 다른 품사에 소속시키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것'이라는 품사 하나로 묶고 있다. 격조사와 함께 분류되어 있던 종결어미를 따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한 점도 다르다. 이는 『온갖것』, 『한글적새』에서 보이는 이규영의 문법적 특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저술은 6판에 이른 中等學校 초급용 문법교과서이므로 이규영의 문법적 특성을 여실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규영의 저술별 품사 분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규영의 문법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온갖것』, 『한글적새』를 중심으로 장을 달리 하여 품사별로 다루도록 하겠다.

Ⅲ.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한 품사별 분석[18)]

앞장에서 이규영의 저술별 품사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품사별로 분석하겠는데 『온갖것』, 『한글적새』을 중심으로 여러 저술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부분, 다른 학자의 저술과 차이가 나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품사로 '임, 엇, 언, 억, 만, 금, 입, 웁, 업' 등이 있는데 이 용어는 『온갖것』에서 가져온 용어이다.[19)] 이유는 이규영의 최초의 저술인 『온갖것』에서 사용된 용어가 이규영의 기타 저술과 다른 학자들의 저술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임

'임'에 대한 하위분류로 『온갖것』은 '제임, 넛임, 언임, 억임, 드임'을, 『말듬』은 '제임, 대임'을,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제임, 넛임'을 포함하고 있다.

18)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여러 저술 간의 논증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데 감사드린다. 본고는 동시대의 한국어학자들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이규영의 문법의 특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는 논문이지만 주시경, 김두봉을 비롯한 어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저술을 통해 일정한 부분 표출되므로 하나하나 일일이 제시하여 논의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19)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지적한 바를 받아들여 품사별 분석으로 제시한 품사의 선별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주시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말듬', 김두봉의 인식을 많이 공유한 '현금 조선문전'과 달리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할 뿐더러 이규영 자신의 특성이 보이는 '온갖것'과 '한글적새'에서 앞의 두 저술과 차이가 포착되는 품사를 선택하였다.

〈표 2〉 임의 하위분류

현대 용어 \ 저술	온갖것	말듬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명사	제임			
	넛임	대임	넛임	
관형사	언임	언		
부사	억임	억		
감탄사	드임	놀	늑	

〈표 2〉에서 임의 하위분류가 겹치는 '제임, 넛임'만 다루겠다. '임'을 '제임'과 '넛임/대임'으로 나누어 각각 네 저술의 구체적인 하위분류를 보이겠다. 먼저 '제임'에 대하여 네 저술의 하위분류를 제시하겠다.

〈표 3〉 네 저술의 '제임'의 하위분류

용어	저술	하위분류					
제임	온갖것	홀로	두루				
제임	말듬	꼭둔 임씨	덩이 있는 임씨		덩이 없는 임씨	움즉이는 임씨	엇더한 임씨
제임	한글적새	홀로	두로	꼴있	꼴없		
제임	현금 조선문전	없음					

〈표 3〉에서 보면 현행 학교문법의 명사에 해당되는 '제임'을 『온갖것』과 『말듬』에서 보통명사, 고유명사로 크게 둘로 나누고 있다. 『온갖것』의 하위분류는 주시경의 『국어문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말듬』은 김희상의 『조선어전』의 용어를 순한글로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20] 다만 『말듬』은 『온갖것』에서 언급한 명사 이외에 "쓰기, 먹이, 꿈, 크기, 높이" 등 형태론적 단어와 "뛈, 둠, 무림, 푸르기, 똑똑하기, 큼, 높음" 등 통사론적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온갖것』과 차이를 보인다. 『한글적새』는 『온갖것』의 두 부류 이외에 '꼴있는임'과 '꼴없는임'도 명사에 포함시켜 명사를 넷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하위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제시한 용례를 보아 『말듬』과 비슷하다.

20) '제임'의 용어, 내용에 대하여 여러 저술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문법 (홀로, 두로) ⇩ 온갖것 (홀로, 두루)

조선어전 (고유, 유형, 무형, 행동, 형용) ⇩ 말듬 (꼭둔, 덩이 있는, 덩이 없는, 움즉이는, 엇더한)

↘ ↙

한글적새, 조선말본 (홀로, 두로, 꼴있, 꼴없)

다음으로 '넛임/대임'에 대하여 네 저술의 하위분류를 제시하겠다.

〈표 4〉 네 저술의 '넛임/대임'의 하위분류

용어	저술	하위분류					
넛임	온갖것	가르침	모름	이카름	헴	매임	
대임	말듬	가르침	모름	사람의 대임	헴의 대임	까닭 대임	때의 대임
넛임	한글적새	가르침	물음	사람	셈	매임	
넛임	현금 조선문전	없음					

〈표 4〉에서 보면 대명사에 해당되는 용어로 '넛임'과 '대임'을 쓰고 있다. 이중에서 '넛임'은 『말모이』, 주시경(1913), 김두봉(1916), 『한글적새』(1916~1919), 『현금 조선문전』(1920)에서 사용된 용어이고 '대임'은 주시경(1910), 『말듬』(1913)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네 저술에서 수사를 대명사에 포함하고 있는 점이 공통된다.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하위분류를 물론하고 제시한 용례도 비슷하다. 『현금 조선문전』에서 비록 하위분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 가르침, 때, 매임, 물음, 셈'의 용례를 들고 있어 『온갖것』, 『한글적새』와 인식이 비슷하다. 기타 저술에서 독립하여 처리하고 있는 '가르침', '모름/물음'을 『말듬』에서는 '사람, 몬, 곳, 때'의 대임의 하위분류로 처리하고 있다. 제시한 용례는 기타 세 저술과 비슷하다.

2. 엇

'엇'에 대한 하위분류로 『온갖것』은 '갈엇, 골엇'을, 『말듬』은 '넓은 엇씨, 헴의 엇씨, 못친 엇씨'를,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갈얻, 꼴얻, 때얻, 셈얻, 가리침얻, 물음얻'을 포함하고 있다. 네 저술의 구체적인 하위분류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5〉 네 저술의 '엇'의 하위분류

용어	저술	하위분류						
엇	온갖것	갈, 골						
엇	말듬	넓은 엇씨	못친 엇씨	꼭둔헴, 못친헴		못친헴		
얻	한글적새	갈, 꼴			때	셈	가리침	물음
얻	현금 조선문전	갈, 꼴			때	셈	가리침	물음

〈표 5〉에서 보면 형용사에 해당되는 용어로 '엇/얻'을 쓰고 있다. '엇'의 하위분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온갖것』은 '갈'과 '골'로 양분하고 있지만 『말듬』은 '넓은 엇씨, 헴의 엇씨, 못친 엇씨'로 삼분하고 있으며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은 '갈, 골, 때, 셈, 가르침, 물음'으로 6가지로 나누고 있다. 비록 하위분류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온갖것』의 '갈(性質)얻, 골(形狀)얻'과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의 '갈얻, 꼴얻, 때얻'은 『말듬』의 '넓은 엇씨'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말듬』의 '헴의 임씨'의 일부 용례는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의 '셈'에 대응된다. 『말듬』의 '헴의 엇씨' 중에 '꼭둔헴'의 전부 용례와, '못친헴'의 '멷, 여럿'와 같은 용례는 뒤에서 언급될 『말듬』의 '언'에도 귀속시키고 있다. 아울러 '꼭둔헴'은 앞서 살핀 '대임'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이 수사와 형용사, 관형사에 넘나드는 현상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명사를 수식하는 성분으로 취급하는 영어문법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못친 엇씨'에서 제시한 용례는 앞서 살핀 대명사에도 포함한 내용으로 이들이 대명사와 형용사에 넘나드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리방식과 달리 『온갖것』,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 와서는 '많-, 적-'과 같은 형용사만 '셈'에 포함시키고 있어 여러 품사 범주에 넘나드는 현상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경우, 『말듬』은 『온갖것』,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갖것』,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은 『말듬』보다 의미에 따른 분류를 더 선호하는 듯하다.

3. 언

'언'에 대한 하위분류로 『온갖것』은 '헴, 비롯, 뜻밖, 홀로, 덩이, 재리, 가림, 모름'을, 『말듬』은 '엇던 언씨, 움의 언씨, 헴의 언씨'를, 『한글적새』에서는 '가리침, 가림, 셈, 물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하위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앞 세 저술의 구체적인 하위분류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6〉 네 저술의 '언'의 하위분류

용어	저술	하위분류						
언임	온갖것	비롯		재리, 홀로, 뜻밖, 가림			헴, 덩이	모름
언	말듬		엇던 언씨		엇던 언씨	움의 언씨	헴의 언씨	
언	한글적새		가리침	가림			셈	물음
언	현금 조선문전	없음						

〈표 6〉에서 보면 관형사에 해당되는 용어인 '언'을 『현금 조선문전』을 제외한 다른 저술에서는 하위분류하고 있다.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하위분류를 하지 않고 용례만 제시하고 있지만 『한글적새』와 많이 비슷하다. 따라서 『한글적새』와 같다고 판단하고 처리하겠다. 『온갖것』은 비교적 상세하게 '언'을 분류하고 있다.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은 『온갖것』의 '헴, 가림, 모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온갖것』의 '덩이'에서 제시한 용례는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의 '셈'에 편입시키고, '재리'에서 제시한 용례를 '가림'에 편

입시키고 있다. 『온갖것』의 '언'의 분류에 없는 '가리침'이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 보이고 있다. 앞 세 저술에서 다 같이 설정하고 있는 '헴의 언씨'에서 『온갖것』과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 『말듬』이 갈리고 있을 뿐더러 앞 두 저술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말듬』에서 언급되고 있다. 제시한 용례로 "붉은, 큰, 얇은", "가는 오는, 먹은" 등이 보인다. 『말듬』에서 "언씨는 거진다 엇씨나 움씨에 ㄴ, 은, 는을 부치어 바구게 함"[21]이라고 하였다. 이는 '엇, 움'에 'ㄴ, 은, 는'을 붙이어 된 것은 '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말듬』의 '엇던 언씨'에 '이, 그, 저'와 '엇'에 'ㄴ, 은, 는'이 붙어서 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둘을 한데 묶은 것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기능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언'에 포함하고 있는 '이, 그, 저'를 주시경(1910)에서는 "이 저 그는 밋언이니 다른 기가 박구이어 언 몸이 된 것이 안이요 그 몸의 밋이 언이라 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서 『말듬』은 주시경의 해석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품사 분류를 보이는 『온갖것』의 내용을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온갖것』에서 '언'으로 보고 있는 '무릇'과 '다만'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사 또는 부사', '부사'로 기술하고 있어 당시 '언'에 분류한 단어의 선택에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억

'억'에 대한 하위분류로 『온갖것』은 '견줌, 때, 헴, 막이, 어림, 끓음, 짓골, 몬빗, 거듭'을, 『말듬』은 '엇던 억씨, 움의 억씨, 일인억씨, 때의 억씨, 곳의 억씨, 없안 억씨, 대답 억씨'를, 『한글적새』에서는 '견줌, 때, 셈, 막음, 어림, 짓꼴, 빛깔, 거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하위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 세 저술의 구체적인 하위분류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7〉 네 저술의 '억'의 하위분류

용어	저술	하위분류							
억임	온갖것	견줌, 헴 , 어림, 짓골, 몬빗, 거듭			끓음	때		막이	
억	말듬		엇던 억씨	움의 억씨	일인억씨	때의 억씨	곳의 억씨	없안 억씨	대답 억씨
억	한글적새	견줌, 셈, 어림, 짓골, 빛깔, 거듭				때		막음	
억	현금 조선문전	없음							

21) 이규영, 『말듬』, 『歷代文法大系』 1-113, 1913, 30ㄴ쪽. 직접 인용한 부분은 따옴표로 제시하고 편의를 위하여 인용된 부분은 현대의 띄어쓰기를 따랐음을 밝혀 둔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표 7〉에서 보면 부사에 해당하는 억을 『현금 조선문전』을 제외한 다른 저술에서는 하위분류하고 있다.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하위분류를 하지 않고 용례만 제시하고 있지만 『한글적새』와 많이 비슷하다. 따라서 『한글적새』와 같다고 판단하고 처리하겠다.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끊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다른 분류에서 일치한다. '아니'의 처리에서 『말듬』과 같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형사와 평행되게 처리되고 있는 '엇던 억씨'와 '움의 억씨'는 『말듬』이 『온갖것』,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과 현저하게 다름을 잘 보여준다. '엇던 억씨'에 대한 해석은 김희상의 『조선어전』(19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상(1911)에서는 '엇던 억씨'를 '形容副詞'로 부르고 『말듬』과 꼭같은 용례를 제시하면서 "形容의 義를 含有ᄒᆞᆫ 부사를 稱ᄒᆞ니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제시한 용례 중에 "매오, 잘, 퍽, 너무, 몹이, 가장"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이고, "붉게, 크게"는 형용사에서 부사로 전성된 것이므로 이들 용례를 한데로 묶은 것이다. 『말듬』에서 "억씨는 거진다 움씨나 엇씨에 게 도록 고저 들을 부치어 박구임과 임씨에에서, 으로, 에게 들을 부치어 바구임이 잇나이라"라고 해석하고 있다.[22] 이는 '엇, 움'에는 '엇, 움'에 '게, 도록, 고저'가 붙어서 된 것을 '억'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더러, '임'에는 '임'에 '에게'가 붙어서 된 것을 '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말듬』에서 보이는 부사의 용례에 통사적 단어가 존재함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용언에 관형사형과 부사형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통사적 구성을 하나의 단어로 보고 있으므로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를 아직 독립적인 단어로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주시경(1910)에서처럼 단어를 문장 기능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만

『온갖것』, 『말듬』과 『한글적새』 세 저술에서 보이는 '만/만이' 중에 '만이'는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에서 '겻'을 하위분류할 때 사용한 문법 용어이다. 주시경(1910)의 '만이'는 뒤에서 보게 될 '금이'와 '겻'을 이룬다. 이 세 저술에서도 주시경의 문법 용어인 '만이', '금이'을 쓰고 있다.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겻'을 쓰고 있는데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의 용어이다. 이는 앞 세 저술에서 보이는 '만이'와 '금이'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온갖것』, 『한글적새』에서는 '만'과 '금'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말듬』과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만이'와 '금이'를 묶어서 '곁'의 하위분류로 다루고 있다. 이는 분명히 같은 문법 용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갖것』, 『한글적새』에서 '만'은 '심'과 '맺'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처럼 '만'에 '심'과 '맺'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말모이』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는 이규영의 인식이 『말모이』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여기서는 『온갖것』의 '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루고 '맺'과 '금이'는 다음에 절을 달리 하여 다룰 것이다. 구체적인 하위분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2) 이규영, 앞의 책, 1913, 31ㄱ쪽.

〈표 8〉 네 저술의 '만/만이'의 하위분류

용어	저술	하위분류			
심만	온갖것	다만, 덩이, 나빔	부름		
만이곁	말듬	임이맘		씀이만	넓은만
심만	한글적새	다만, 덩이,	부름		같음, 다름, 홀로
겻	현금 조선문전	임자겻			돕음겻

〈표 8〉에서 보면 『온갖것』과 『한글적새』에서는 '만'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면서 그 하위분류에서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말듬』과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만이'를 '곁'의 하위분류로 처리하고 있다. 『온갖것』의 '심'은 『말듬』의 '임이만'에, 『한글적새』의 '다만, 부름, 덩이'에, 『현금 조선문전』의 '임자겻'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말듬』에서 보이는 '씀이만'은 다른 저술의 '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온갖것』과 『한글적새』에서 '심'의 하위분류인 '덩이'로 보고 있는 '에서'를 『말듬』과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금이'로 보고 있다. 『말듬』의 '넓은만', 『한글적새』의 '같음, 다름, 홀로', 『현금 조선문전』의 '돕음겻'은 대개 『온갖것』의 '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보이는 '둘'은 '돕'의 하위분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온갖것』에서는 '심'의 범위를 격조사에 한정하지만 다른 저술에서는 보조사도 포함시키고 있다. 네 저술 중에서 『말듬』이 제일 상세하다. '을/를'의 처리에서 보이는 차이는 통사론에서 문장 구조를 처리하는 것과 평행되게 진행되므로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를 제외한 점을 비교해 보면 『말듬』과 『현금 조선문전』이 상대적으로 같은 점이 더 많이 포착된다.

'맺'에 대한 하위분류로 네 저술에서 모두 '홀로, 물음, 이름, 시김'을 포함하고 있다.

〈표 9〉 네 저술의 '맺'의 하위분류

용어	저술	하위분류			
맺만	온갖것	홀로	물음	이름	시김
끗	말듬	이름	물음	시김	홀로
맺만	한글적새	물음	홀로	이름	시김
맺	현금 조선문전	홀로	이름	물음	시김

〈표 9〉에서 보면 『온갖것』, 『한글적새』에서 '심'과 함께 '만'을 이루는 '맺'은 『말듬』에서는 '끗'에, 『현금 조선문전』의 '맺'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끗', '만'은 『국어문법』, 『말모이』에서 사용한 주시경의 용어이고, '맺'은 『조선말본』에서 사용한 김두봉의 용어이다. 네 저술에서 '홀로, 물음, 이름, 시김'의 배열순서가 다르다. 배열순서로 말하면 『말듬』의 것이 현행 학교문법의 배열순서와 비슷하다. 『말듬』과 『현금 조선

문전』의 용례를 보면 시제와 청자높임법의 등급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즉, 『온갖것』, 『한글적새』에서 언급된 '맺'은 『말듬』, 『현금 조선문전』에서 언급하는 '끗/맺'과 다루는 층위가 다르지만 이들의 하위분류 및 그 용례는 비슷하다.

6. 금

『온갖것』, 『말듬』과 『한글적새』 세 저술에서 보이는 '금/금이' 중 '금이'는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에서 '겻'의 하위분류를 시도할 때 사용한 문법 용어이다. 앞서 살피어 본 '만이'와 함께 '겻'을 이룬다. '금이'에 대한 인식에서도 앞서 살핀 '만/만이'처럼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비슷한 점이 많으나, 『말듬』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는 '만/만이'처럼 현저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금 조선문전』에서 '겻'의 하위 개념인 딸림겻과 매임겻이 앞 세 저술의 '금/금이'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네 저술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겠다.

〈표 10〉 세 저술의 '금/금이'의 하위분류

용어	저술	하위분류			
금	온갖것	둠	갈	손	깁
금이곁	말듬	없음			
금	한글적새	둠이긋	그림긋	깁음돕	꾸밈돕
겻	현금 조선문전	딸림겻		매임겻	

〈표 10〉에서 보면 『온갖것』에서 하위분류로 둔 '둠, 갈, 손, 깁'은 『한글적새』에서 대체로 그대로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온갖것』과 『한글적새』의 '깁'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온갖것』에서 상위 범주로 존재하던 '깁'은 『한글적새』에 와서는 '꾸밈'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동시에 '돕'의 하위 범주로 존재한다. 이뿐만 아니라 용례를 통하여 『온갖것』의 '손'은 『한글적새』의 '깁음'에, 『온갖것』의 '깁'은 『한글적새』의 '꾸밈'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말듬』에서 '금이'를 더 이상 분류하지 않았지만 제시한 용례로 보아 대체로 『온갖것』의 '손', 『한글적새』의 '깁음'에 대응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온갖것』의 '손, 깁'과 『한글적새』의 '깁음돕, 꾸밈돕'은 『현금 조선문전』의 '매임겻'에 대응되는데 이들은 김두봉(1916)의 매임토(關係吐)와 비슷한 면을 보인다. 『온갖것』의 '둠, 갈'은 『한글적새』의 '둠이긋, 갈이긋'과 『현금 조선문전』의 딸림겻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또한, 『온갖것』, 『말듬』,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등 저술의 용례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을/를'의 처리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듬』에서만 '만이'에 분류하고 있고 기타 저술에서는 『말듬』의 '금이'에 분류하고 있다. 『말듬』은 주시경(1910)과 같이 '만이'를 '임이나 씀이'에 '직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을/를'을 '만이'에 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타 저술에서는 '만'을 '주어'를 되게 하는 토로 인식하므로 '을/를'을 '만'에서 배제하고 '금'에 편입시킨 것이다.

'금'의 하위분류에 포함시킨 '의'는 『온갖것』, 『한글적새』, 김두봉(1916)에서 확인되는데 『말듬』에서는 '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주시경(1910)의 '의'에 단어의 자격을 주지 않은 점을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시경(1910)의 '금'의 하위분류에서 '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주시경(1910)의 본드 八의 "저 븕은 봄꼿이 곱게 피오"에서 "봄(의) 꽃의 (의)는 속뜻으로 두어 임기 '봄'을 언기 되게 하는 것으로 볼 것이요. 또 임이의 뜻이 잇는 '봄'을 금이가 되게 하는 것으로 볼 것이니라."라는 해석을 통해 '봄의'는 '언'으로 풀이되므로 현행 학교문법에서 속격 조사에 묶이는 '의'는 주시경(1910), 『말듬』에서 단어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7. 입, 웁, 업

'입, 웁, 업'을 품사로 인정하고 있는 저술로 『말모이』, 『온갖것』, 『한글적새』가 있다. 앞서 2장에서 『온갖것』의 품사 분류 및 그 용례 중에서 7절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입) [名詞를 뜻바꾸게 하든지 形動을 名詞되게 하는 몸] 들, 뿐, ㅁ, 기, 이, 들레
(웁) [動詞를 뜻바꾸게 하든지 名形을 動詞되게 하는 몸] 이, 어지, 으리, 지
(업) [형용사를 뜻바꾸게 하든지 名動을 形容詞되게 하는 몸] 차, 앟, 롭, 스럽

'입, 웁, 업'에 대한 해석에서 이들은 '뜻바꿈, 몸바꿈'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갖것』의 '입'에는 '뜻바꿈'하는 '들, 뿐'과 '몸바꿈'하는 'ㅁ, 기, 이, 들레'가, '웁'에는 '뜻바꿈'하는 '이, 이지'와 '몸바꿈'하는 '으리, 지'가, '업'에는 '뜻바꿈'하는 '차, 앟'과 '몸바꿈'하는 '롭, 스럽'이 있다. 『온갖것』과 『한글적새』에서 보이는 용례를 통하여 '접사'를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의 다른 저술들에서는 단어의 형성요소로 파악하고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가령 『말듬』을 보면 '접사'를 '임씨의 갈래'에서 다루고 있어, 단어의 형성요소로만 파악되고 있다고 여겨진다.[23]

Ⅳ. 결 론

이규영의 품사 분류는 『온갖것』이 『말모이』와 같이 22개를 설정하고, 『말듬』에서 9개, 『한글적새』에서

23) 송철의(『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총서 35,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59쪽)는 "주시경 『말의 소리』(1914)에 와서도 'ㅁ, 기'는 여전히 품사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단어형성 요소로만 인식한 듯하다."고 언급하였다.

15개, 『현금 조선문전』에서 9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품사의 분류를 주시경과 김두봉의 영향관계 속에서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를 '언', '억'에 포함했는지에 따라 영향관계가 달리 파악된다. 『말듬』은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과 부분적으로 김희상의 『조선어전』(1911)의 영향을, 『온갖것』은 주시경(1910), 『말의 소리』(1914), 『말모이』의 영향을, 『한글적새』는 주시경(1910)과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의 영향을, 『현금 조선문전』는 김두봉(1916)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적으로 주시경의 영향을 받은 『말듬』과 김두봉의 영향을 받은 『현금 조선문전』을 제외한 『온갖것』과 『한글적새』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하면서도 나름대로 이규영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예컨대, 주격 조사를 '만'에, 목적격 조사를 '금'에 포함시키는 이규영의 처리 방식이 주시경의 용어인 '만이'와 '금이'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이해한 기초 상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이규영은 '만'에 목적격 조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금'에 포함시키지만 주시경과 김두봉은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하나로 묶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결어미를 '만'에 포함하고 있지만 주시경이나 김두봉은 '끗' 또는 '맺'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밖에 '입, 업, 웁'의 용례로 제시한 파생접사를 품사로 파악하고 있지만 주시경과 김두봉은 단어형성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 차이가 포착된다.

요컨대, 김민수(198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규영 문법은 주시경 문법에서 파생되어 김두봉 문법에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여 이루어진 제3의 문법이다. 이처럼 제3의 문법 인식을 담은 이규영의 품사 분류에 대한 인식은 동시대의 한국어학자들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이규영 나름대로의 문법적 특성을 자세하게 드러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복수, 『國語文法史硏究』, 형설출판사, 1972.
고영근 · 이현희, 『주시경, 국어문법』, 탑출판사, 1986.
김두봉, 『조선말본』(『歷代文法大系』 1-22), 탑출판사, 1916.
김윤경, 『朝鮮文字及語學史』, 조선기념도서출판관, 1938.
김희상, 『조선어전』(『歷代文法大系』 1-19), 1911.
이규영, 『온갖것』(『歷代文法大系』 1-112), 1913.
이규영, 『말듬』(『歷代文法大系』 1-113), 1913.
이규영, 『한글적새』 ㄱ(『歷代文法大系』 1-114), 1916~1919.
이규영, 『현금 조선문전』(『歷代文法大系』 1-27), 1920.
주시경, 『국어문법』(『歷代文法大系』 1-11), 1910.
주시경, 『말의 소리』(『歷代文法大系』 1-13), 1914.

김민수, 「이규영의 문법연구」, 『한국학보』 6: 2, 일지사, 1980.
김민수,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동양학』 13, 1983.
김병문, 「주시경의 '씨난'과 『말모이』의 관계」, 『주시경과 그의 시대언어적 근대의 기획』, 소명출판, 2013.
송철의,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총서 35,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유형선, 「근대 국어국문학자의 재조명: 김두봉의 문법관에 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87, 2004.
이병근, 「最初의 言語辭典 『말모이』(稿本)〈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 1, 1977.
정혜린, 「稿本 『한글적새』 문법의 어학사적 위치에 대한 일고찰」, 『국어학논집』 7, 역락, 2011.
최낙복, 『개화기 국어문법의 연구』, 역락, 2009.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7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

On Lee Gyu-yeong's Study about Parts-of-Speech of Korean in Relation with Other Contemporary Scholars

Jin, Haijin*

The Parts-of-Speech categorizing suggested by Lee Gyu-yeong(1890~1920) had changed through his lifetimes. In *Ongatgeot* and *Malmoi,* which are his early works, 22 parts-of-speech was suggested. In *Maldeum*, which is his third, 9 was suggested; in *Hangeuljelksae*, fourth, he added 6 more and suggested 15; in *Hyeongeumjoseonmunjeon*, his fifth and last, came back to 9. The motivation underlying these changes can be understood by comparing his works to works by Ju Si-kyeong and kim Du-bong. His explanation about adnominal and adverbial conjugation shows that *Ongatgeot* was influenced by Ju Si-kyeong's *Maluisori* (1914); *Maldeum* by Ju Si-kyeong's *Gugeomunbeop* (1910); *Hangeuljelksae* and *Hyeongeumjoseonmunjeon* by kim Du-bong's *Joseonmalbon* (1916). Although Lee Gyu-yeong was under influence of Ju Si-kyeong and kim Du-bong, he developed his originality in analyzing *Man* and *Geum*. He proposed different system from Ju Si-kyeong's, while he fully understood what his colleagues suggested. For example, he categorized final Ending as *Man*, while others categorized them as *Maet* or *Kkeut*.

[Key Words] parts of speech, correlation, grammatical terms, eon, eok, man, geum, ip, eop, up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n Language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東洋學 第62輯(2016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將軍族」의 表現技巧 分析*

黃 炫 國**

▌국문초록 ▐

陳映眞(1937~)의 「將軍族」은 1964년에 『現代文學』(第十九期)을 통해 발표된 작품으로 사회적 의의가 매우 깊은 작품이다. 「將軍族」은 발표된 당시에 대만에서 매우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대만과 중국에서 매우 주목을 받는 작품이다. 1999년 北京人民出版社에서 20세기 우수 문학 도서를 선정하여 『百年百種優秀中國文學圖書』를 출판하였는데 소설집 「將軍族」이 포함되었고, 『亞洲周刊』에서 선정한 20세기 중국소설 백선(「二十世紀中文小說一百强排行榜」)에 15위로 선정되었다. 대만 작가로는 白先勇의 소설집 『臺北人』(7위) 다음으로 선정되었다.

「將軍族」은 작품 속에 나타난 강렬한 의식형태와 강한 비극적인 주제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작가는 강한 비극적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의식의 흐름 등의 서술기법과 상징, 대비기법을 운영하였다. 작가의 창의적인 표현기교는 인물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강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 이것이 「將軍族」의 예술성과이다. 서술시점에 있어서 중국 전통 기법인 삼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속에 현대 기법인 인물의 일인칭 시점을 보탠 것으로 이 두 가지의 서술 시점이 서로 결합하거나 삽입하여 운용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 단편소설의 분량이 짧은 것을 감안하여 상징기법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출했으며 대비의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비극적인 소설 주제를 성공적으로 심화하여 당시 대만사회의 특유한 우울함과 비통한 정서를 잘 반영하였다.

본고는 소설 「將軍族」의 내용을 통하여 작가의 표현기교를 분석하여 그 예술적 성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표현기교를 통하여 돌출시키려하는 비극의식을 탐구하여 「將軍族」의 작품세계의 특징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

[주제어] 「將軍族」, 陳映眞, 敍述技巧, 象徵技法, 對比, 意識流

▌목 차▐

Ⅰ. 序 言 Ⅳ. 對比 技法
Ⅱ. 敍事 技巧의 運用 Ⅴ. 結 語
Ⅲ. 象徵 技法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 dkhhg@dankook.ac.kr

Ⅰ. 序 言

陳映眞(1937~)의 「將軍族」은 1964년에 『現代文學』(第十九期)을 통해 발표된 작품으로 사회적 의의가 매우 강한 작품이다. 「將軍族」은 발표된 당시에 대만에서 매우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대만과 중국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작품이다. 1999년 北京人民出版社에서 20세기의 우수 문학 도서를 선정하여 『百年百種優秀中國文學圖書』를 출판하였는데 소설집 「將軍族」이 포함되었고, 『亞洲周刊』에서 선정한 20세기 중국소설 백선(「二十世紀中文小說一百强排行榜」)에 15위로 선정되었다. 대만 작가로는 白先勇의 소설집 『臺北人』(7위) 다음으로 선정되었다.

陳映眞은 白先勇과 함께 중국에서 대단히 주목 받는 작가이다. 徐復觀은 陳映眞을 '海峽兩岸第一人'[1]이라 했다. 이런 평가는 물론 문학적 성취를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주로 사상적인 심도와 그 실천을 두고 한말이다. 이처럼 陳映眞의 문학 창작에 있어서 사상은 창작형식의 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강렬한 의식형태와 엄숙한 주제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2]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도 陳映眞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의 前期 작품인 「將軍族」을 주로 꼽는다.[3]

「將軍族」은 사회적 함의가 강한 작품이다. 「將軍族」은 밑바닥 인생을 사는 남녀 두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남자 주인공 '三角臉'은 국민당을 따라 혈혈단신으로 대만에 와서 康樂隊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퇴역 군인이다. 여자 주인공 '小瘦丫頭兒'는 대만의 빈민 가정의 딸로 유곽에 팔려갔으나 도망쳐 나와 康樂隊에 들어와 춤을 추거나 어릿광대 역을 맡고 있다. 두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거나 집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다. 서로의 처지를 알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진다. '三角臉'은 심지어는 '小瘦丫頭兒'에 대해 아버지 같은 심정이 싹트기도 했다. '小瘦丫頭兒'가 빚을 탕감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들은 '三角臉'은 그날 밤 전 재산인 퇴직금 삼 만원이 든 통장을 그녀의 베개머리 옆에 두고 떠난다. '小瘦丫頭兒'는 돈을 갚고도 다시 유곽에 팔려가고 몸을 팔지 않겠다고("我賣笑, 不賣身") 고집하다 왼쪽 눈을 잃는다. 온갖 풍파를 겪은 두 사람은 오 년 만에 만난다. 두 사람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순결한 결합을 위해 끝내는 동반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작가는 이렇게 강한 비극적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의식의 흐름 등의 서술기법과 상징, 대비기법을 운영하였다. 작가의 창의적인 창작기교는 인물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강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 이것이 「將軍族」의 예술성과이다.

본고는 소설 「將軍族」의 본문을 통하여 작가의 표현기교를 분석하여 그 예술적 성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표현기교를 통하여 표출하려는 비극의식을 탐구하여 「將軍族」의 작품세계의 특징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

---

1) 徐復觀, 「海峽兩岸第一人」: "……我承認他是 『海峽兩岸第一人』的說法。因爲他透出了中國絶對多數人是沒有根之人的眞實。"(『陳映眞作品集14』 臺北: 人間出版社, 1988), 114쪽.

2) 김원, 『陳映眞의 「將軍族」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제12집, 2004, 207쪽 참조.

3) 宋冬陽, 「縫合這一道傷口——論陳映眞小說中的分離與結合」: "這個短篇小說已成臺灣現代文學史上的一篇 『經典之作』, 幾乎討論陳映眞作品的批評家, 或者研究臺灣小說的學者, 都對 「將軍族」特別重視。"(『陳映眞作品集14』, 臺北: 人間出版社, 1988), 141쪽.

Ⅱ. 敍事 技巧의 運用

「將軍族」이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주목을 끄는 좋은 작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강한 주제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강한 주제만을 가지고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다. 「將軍族」에서 陳映眞은 강한 주제를 표출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서술방법을 교묘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將軍族」의 서술 방법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소설의 구성이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현실과 과거의 회상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꼭 필요치 않는 서술을 피하고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면서 인물들의 감정 표현이 심화될 수 있었다. 소설의 시작은 현실에서 시작하여 세 차례 회상을 하는 방식으로 남여주인공인 '三角臉'과 '小瘦丫頭兒'의 비극적인 애정을 효과적으로 그려냈다. 소설은 남녀 주인공의 세 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운명을 전개시켰고 마지막은 두 사람의 情死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소설의 전개 상황을 두 주인공의 대화를 위주로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화, 어느 달 밝은 밤에 유랑 악단(康樂隊)의 단원인 두 사람은 해변 가 모래사장에서 대화한다. 국민당 군인으로 전역한 '三角臉'은 돌아갈 집이 없고 '小瘦丫頭兒'는 창녀로 팔려갔지만 도망쳐 악단에 들어와 있어 집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할 처지인 것을 서로가 알면서 외로운 두 사람은 가까워진다.

두 번째 대화, 베니어판 한 장을 가지고 남녀 공간으로 나뉜 숙소에서 베니어판을 사이에 두고 '小瘦丫頭兒'가 「綠島小夜曲」을 반복하여 부른다. 곡조가 엉망이지만 갈수록 부드럽게 감정을 담아 불렀다. 그러다 대화가 시작된다. '小瘦丫頭兒'은 자기가 창녀로 팔려갔다가 도망쳐 나왔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자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집에서 밭을 팔아야 되고 결국에는 여동생도 팔려갈 것이라고 했다. '三角臉'은 그날 밤 퇴직금을 그녀의 베개머리 옆에 두고 떠난다.

세 번째 대화,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은 두 사람은 오 년 만에 만난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서 서로의 고초를 얘기하다가 '三角臉'가 트럼펫으로 「王者進行曲」을 흥이 나게 불고 '小瘦丫頭兒'은 웃으며 지휘봉을 흔들며 걸어간다. 다음날 두 사람은 사탕수수 밭에 똑바로 누운 체 죽어 있었다. 마치 장군처럼.

먼저 서술시점에 관해 살펴보자. 서술시점은 소설을 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要訣이다.[4] 시점의 적절한 운용은 문자의 風格을 결정하고, 인물의 개성을 결정하며 심지어 어떤 때는 주제의 의의를 결정하기도 한다.[5] 실제로 서술시점은 소설의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대소설의 기교 운용에 있어서 작품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소설에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꼭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이야기를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달려있다. 작가는 독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적절한 서술시점의 운용은 독자의 마음속에 더욱 바싹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將軍族」의 서술 시점의 운용은 중국 전통 기법인 삼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기본적인 시점으로 하고 현

4) 白先勇, 『驀然回首』, 臺北: 爾雅出版社, 1978, 77쪽 참조.
5) 위의 책, 128쪽. "觀點的應用非常重要, 因爲觀點決定了文字的風格, 決定了人物的個性, 有時甚至決定了主題的意義,……"

대 기법인 인물의 일인칭 시점을 보탠 것으로 이 두 가지의 서술 시점이 서로 결합하거나 삽입하여 운용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소설 속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다가 자연스럽게 비록 '나'라는 인칭을 쓰는 일인칭 서술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빈번하게 '三角臉'의 시점을 이용하여 주인공 일인칭 시점을 통하여 현장감을 더했다. 소설 시작부분에 '三角臉'은 '高個子'의 슬라이드 트럼펫을 고쳐주고서 시험 삼아 몇 개의 음을 불다가 '小瘦丫頭兒'을 발견하였다. 그가 긴 나무의자에 앉아서 그녀를 보는 장면을 보자.

> ……그는 긴 나무 걸상에 앉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를 못 본지 벌써 5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한 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햇빛 속에 서있었다. 몸의 무게를 왼쪽 다리에 놓았다. 엉덩이가 왼쪽을 향해 매우 아름다운 만돌린의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여전히 그런 모양으로 서 있구먼. 그렇지만 지금 그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다. 여러 해 전에도 그녀는 이런 모양으로 그의 앞에 서있었다.……6)

다시 소설에서 '三角臉'의 두 번째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자.

> 매우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 그런 모양으로 서서 그렇게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그녀에 대해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가 이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마지막엔 저절로 늙었다는 느낌이 생겨났다. 생각해보니, 그는 여태껏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다.……7)

"그녀를 못 본지 벌써 5년은 된 것 같네……", "……여전히 그런 모양으로 서 있구먼." "매우 똑똑히 기억한다." 등에서 비록 '나'라는 인칭을 쓰지는 않았지만 '三角臉'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중간 중간에 '三角臉'의 일인칭 시점을 삽입하였다. 「將軍族」은 기본적으로 삼인칭 전지시점으로 '그(他)'와 '그녀(伊)'를 사용하여 전체를 서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술은 '三角臉'과 '小瘦丫頭兒'가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줄거리의 전개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小瘦丫頭兒'의 오 년을 전후로 하여 그녀의 외모와 정신 상태의 대비, 그리고 '三角臉'의 악단에서 생활과 현재의 늙어가는 모습 따위 등을 전지적 시점으로 비교적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을 읽어보면 서술의 주체가 일정한 틀에 얽매인 채 그저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독자가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듯한 실제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만을 사용하여서는 현장감이 결여되기 쉽기 때문에 작가는 내적인 서술부분에서 일인칭 시점을 섞어 사용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三角臉'의 회

---

6) 陳映眞, 『將軍族』, 臺北: 洪範書店有限公司, 2001, 182쪽. "……他坐在一條長木櫈上, 心在很異樣地悸動着。沒有看見伊, 已經有五年了罷。但他却能一眼便認出伊來。伊站在陽光裏, 將身子的重量放在左腿上, 讓臀部向左邊畫着十分優美的曼陀玲琴的弧。還是那樣的站法啊。然而如今伊變得很婷婷了。很多年前, 伊也曾這樣地站在他的面前。……"

7) 위의 책, 182쪽. "記得很清楚 : 那時對於那樣地站着的並且那樣輕輕地淌淚的伊, 始而惶惑, 繼而憐惜, 終而油然地生了一種老邁的心情。想起來, 他是從未有過這樣的感覺的。……"

상 부분에서 '小瘦丫頭兒'의 말을 보자.

"아, 아! 이 달이였군요. 내가 밥을 다 먹고 나니 심상치 않았어요. 알고 보니 달이 커졌어요. 난 또 집 생각이 났어요."

"나 같은 사람은 집조차도 없어."

"집이야 있지요. 집이 있기는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날)데려가던 그 날, 나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방에 숨어서 울었어요. 아주 크게 울었어요. 일부러 내가 들으라고. 나는 끝까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흥!"

……"그때 내가 떠난 후, 만약 아내가 딸을 가졌다면 아마도 네 나이였을 거야."[8)]

이러한 서술은 주인공이 '나'를 사용하여 서술함으로써 줄거리에 주관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였고 소설 전개에서 많은 서스펜스(suspense)를 설정할 수 있고 독자로 하여금 줄거리의 복잡한 곡절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將軍族」에서 작가는 전통적인 단선적인 서술양식만으로 줄거리를 전개하지 않았다. 내적인 서술방식을 사용하여 마음속을 탐색하는 언어로써 인물의 마음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게다가 인물의 의식의 흐름으로 줄거리 전개의 계기와 동력으로 삼았다. 전체 전개 상황을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소설의 처음부분에 '三角臉'이 '小瘦丫頭兒'를 발견하고 그녀가 햇빛 속에서 "몸의 무게를 왼쪽 다리에 놓았다. 엉덩이가 왼쪽을 향해 매우 아름다운 만돌린의 곡선을 그리고 있는(將身子的重量放在左腿上, 讓臀部向左邊畫着十分優美的曼陀玲琴的弧。)" 모양을 보고는 "여전히 그런 모양으로 서 있구먼."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서있던 그녀를 회상하며 자연스럽게 오 년 전 달밤에 해변 모래사장에서 대화했었던 회상으로 들어간다. 회상 중에 징과 북소리로 인해 현실로 돌아와서 그녀가 지휘봉을 휘두르며 지휘하는 모습을 본다. 그녀의 지휘가 악기 연주와 반 박자 틀린 것을 발견하고는 그녀가 약간 음치였었던 것을 기억해내며("便發覺了伊的指揮和樂聲相差約有半拍。他這才記得伊是個輕度的音盲。"), 다시 오 년 전을 회상한다. 숙사에서 합판을 사이에 두고 '小瘦丫頭兒'가 반복하여 노래를 부르다 여동생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는 퇴직금을 그녀의 베개머리 옆에 두고 떠난다. '小瘦丫頭兒'의 지휘로 몇 곡의 연주가 끝나자("幾支曲子吹過去了")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이때 '小瘦丫頭兒'는 '三角臉'을 발견하고 두 사람은 오 년 만에 서로 만난다. 세상의 온갖 고초를 다 겪은 두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크게 웃고 즐겁게 행군을 하며 죽음으로 향했다. 소설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엇섞는 방법으로 줄거리를 전개해나갔다.

장면 배치에 있어서도 작가는 완전한 줄거리를 추구하는 전통소설과는 달리 스토리의 줄거리를 약화시켰다. 예를 들면 작가는 두 주인공이 오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몇 곡의 연주가 끝났다(幾支曲子吹過去了)."라고 간단히 여덟 글자를 써서 두 주인공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을 서술하였다. 작가의 서술 기

8) 앞의 책, 183쪽. "唉, 唉！這月亮。我一吃飽飯就不對。原來月亮大了, 我又想家了。", "像我罷, 連家都沒有呢。", "有家。有家是有家啦, 有什麼用呢？", "帶走的那一天, 我一滴眼淚也沒有。我娘躲在房裏哭, 哭得好響, 故意讓我聽到。我就是一滴眼淚也沒有。哼！", "要是那時我走了之後, 老婆有了女兒, 大約也就是你這個年紀罷。"

교가 특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三角臉'이 헤어진 오 년 동안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지만 대화중에서 간단한 두 마디의 말로 매우 처참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 "康樂隊에 있을 때가 살기가 좋았어"
> 그는 그녀의 손을 꽉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흔들흔들 나팔을 가지고 놀았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 "떠난 후에 밖에서 지내보고서야 진정으로 사람에게 팔려간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군."
> 그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의 실언으로 화난 듯이 느슨해진 얼굴을 찡그렸다.[9]

이전 康樂隊에 있을 때도 「거의 매일 덜컹거리는 큰 트럭을 타고 가는 곳마다 연주를 했고」,[10] 밤에는 베니어판 한 장 사이를 두고 남녀 공간으로 나뉜 허술한 숙소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생활을 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三角臉'이 오 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팔려가 본 적인 있는 '小瘦丫頭兒'에게 엉겁결에 '진정으로 팔려간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군.'[11]라고 말한 후에 '자신의 실언으로 화난 듯'이라고 서술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三角臉'이 당한 그동안의 고초를 잘 나타내었다. 이렇게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과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이 오 년 동안 당한 숱한 고생을 암시하여 주인공의 운명적인 비극성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었다. 이러한 서술 기교가 「將軍族」의 예술적 성취를 높였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서술시점의 운용과 의식의 흐름 기법의 유기적 운용은 작품의 제재와 강한 주제의식의 표출에 적절하였고 소설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Ⅲ. 象徵 技法

「將軍族」의 성공적인 서술 기교에 있어서 상징과 대비의 역할이 적지 않다. 우선 편폭이 짧은 단편소설에서 강한 의미를 표출하려면 상징과 대비의 기법을 운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將軍族」에서는 악곡들과 몇 개의 형상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등장한다. 작가의 고심이 덧보이는 부분이다. 우선 소설에서 현실 부분에서 악곡을 연주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 소설 시작부분에 색소폰으로 일본풍의 「荒城之月」을 연주하고, 악단 여단원들이 박자를 끌며 「馬撒永眠地下(Massa's In The Cold Ground)」를 연주하고 '高個子'가 슬라이드 트럼펫으로 역시 박자를 끌며 「遊子吟」을 연주한다. 그리고 소설 결미에 '三角臉'이 트럼펫으로 「王者進行曲」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시작부분에 색소폰으로 「荒城之月」을 연주하

9) 앞의 책, 201쪽. "'在康樂隊裏的時候, 日子還蠻好呢', 他緊緊地挾着伊的手, 另一隻手一晃一晃地玩着小喇叭。他接着說 : '走了以後, 在外頭兒'兒混, 我才眞正懂得一個賣給人的人的滋味。'他們忽然噤着。他爲自己的失言惱怒地彆着鬆弛的臉"。

10) 위의 책, 182쪽. "那時他們都在康樂隊裏, 幾乎每天都在大卡車的顚簸中到處表演。"

11) 소설 앞부분에서 두 주인공의 대화 중 '小瘦丫頭兒'가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사람이 팔려가는 것이 무슨 심정인지 알지 못해요.(可是你是斷斷不知道 : 一個人被賣出去, 是什麽滋味。)"(앞의 책, 182쪽)라고 하자 '三角臉'는 "난 알아(我知道)"라고 대답 한 적이 있었다.

는 것은 소설 전체 내용이 비극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三角臉'이 '小瘦丫頭兒'을 발견하고 그녀가 지휘하는 것을 보고 있는 장면에서 악단의 여단원들이 박자를 끌며 연주하는 「馬撒永眠地下」나 '高個子'가 슬라이드 트럼펫으로 박자를 끌며 연주한 「遊子吟」은 모두가 두 주인공이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소설이 비극으로 끝날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더불어 소설의 결미 부분에서 두 주인공이 죽음을 향해 걸어갈 때 '三角臉'이 「王者進行曲」을 연주하며 행진한다.

> 그는 「王子進行曲」을 불기 시작했다. 흥겹게 불었다. 제방 위를 바른 걸음으로 걸었다. 좌우로 흔들면서. 그녀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제모를 되돌려 받아쓰고 은색의 지휘봉을 휘두르며 그의 앞에서 걸어갔다. 같이 바른 걸음으로 걸었다. 젊은 농부와 시골 아이들이 밭에서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들을 향해 환호하고 있었다. 태양이 기울어 질 때, 그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기나긴 제방의 그쪽으로 사라졌다.[12]

이 장면은 전형적인 상징수법을 사용하였다. 트럼펫을 흥이 나게 불고 지휘봉을 휘두르며 큰소리로 웃으면서 걸어가는 즐거운 모습으로 운명적인 슬픔을 효과적으로 배가 시켰다. 소설 제목을 「將軍族」이라고 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주인공이 「王者進行曲」속에서 죽음으로 향하였고, 악단의 제복을 입은 두 주검을 농부의 입을 빌려 "마치 두 대장군 같더라!(像兩位大將軍呢!)"라고 하였다. 작가는 사회 밑바닥 계급 사람들에게 왕이나 장군과 같은 존엄을 지킬 수 있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원은 위의 본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 "소설의 결말부분에 이르러서는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하찮은 떠돌이 인생과 위엄과 존엄의 장군의 제복을 입은 주검을 재현함으로써 더욱 비극적 위엄의 실재계를 효과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바로 喪家에서 출상하고 있을 때, 남녀주인공도 이 삶과의 고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13]

소설에서 달, 비둘기 등의 형상이 반복하여 여러 차례 나타난다. 「將軍族」의 전체 서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장면을 연속적으로 연출하는 영화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영화에서 밝은 달, 하얀 비둘기, 찬란한 햇빛 등은 자주 나타나는 장면이다. 하지만 반복하여 서술하는 것은 작가의 다른 의도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특히 비둘기는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비둘기는 성령의 화신으로 영혼의 순결과 생명 평화를 상징하고 있다.[14] 달은 중국 전통 시가문학에서 團圓을 상징하고 있어서

---

12) 陳映眞, 앞의 책, 201~202쪽. "……吹得興起, 便在堤上踏着正步, 左右搖晃。伊大聲地笑着, 取回制帽戴上, 揮舞着銀色的指揮棒, 走在他的前面, 也走着正步。年輕的農夫和村童們在田野裏向他們招手, 向他們歡呼着。太陽斜了的時候, 他們的歡樂影子在長長的坡堤的那邊消失了。"

13) 김원, 「陳映眞의 「將軍族」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12, 2004, 230쪽.

14) 위키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EB%B9%84%EB%91%98%EA%B8%B0) "……노아가 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에서 비둘기를 내보냈고 비둘기는 올리브 가지를 물어와서 땅이 있음을 알려줬다. 마태 복음서 3:16과 누가 복음서 3:22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동안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비둘기를 써 왔다."

시가에서 달이 등장하면 가족과 고향을 그리는 주제가 대부분이다. 이런 영향으로 현대의 중국인들도 달과 團圓을 연상하고 있다. 소설에서 이런 형상들은 대부분 주인공의 눈을 통해 자연환경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소설 전체에서 달의 형상은 여덟 번 비둘기는 네 번 햇빛은 세 번 등장한다. 물론 모든 형상이 매번 상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형상의 서술은 배치와 반복에 있어서 작가의 고심이 보인다. 먼저 비둘기에 관한 서술을 보자. 비둘기에 대한 서술은 모두가 현실 부분에서 나타난다. '三角臉'가 '小瘦丫頭兒'를 처음 발견하고 그녀를 쳐다보는 장면을 시작으로 그녀가 '三角臉'를 발견하고 다가와 만나는 장면까지 얼마 되는 않은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서술이다. 처음 그녀를 바라보는 부분이다.

> 그녀는 골똘히 공중에서 타원을 그리는 비둘기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붉은 깃발 하나가 비둘기들을 향하여 흔들어 대고 있었다.[15]

그 다음은 '三角臉'이 오 년 전의 일을 회상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그녀를 보고 그녀의 변한 모습을 서술하다가 비둘기들의 모습을 서술한다.

> 비둘기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세 개의 지붕 위에 앉아있었다. 비둘기 기르는 그 사람이 아무리 붉은 깃발을 흔들어대도 날아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기울이고 멍하니 깃발을 보고 있다가 또 날갯짓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대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16]

곧 이어서 그녀의 얼굴이 그를 향하였고, 잠시 후 그녀가 다가오고 두 사람은 만난다. 서로 이름을 부르며 반가워할 때 '三角臉'은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웃음을 생각한다. 이어지는 서술이다.

> 별안간 한 바탕 날개 치는 소리가 났다. 비둘기들이 또 공중으로 날아올라 비스듬한 원을 그렸다. 그들은 모두 그 비둘기를 쳐다보며 침묵했다.[17]

잠시 후에 다시 두 마디 대화를 하고는 다시 침묵을 하면서 비둘기를 쳐다본다.

> 모두 원을 그리면 그릴수록 점점 멀어지는 비둘기의 원을 쳐다보았다.[18]

---

http://wol.jw.org/ko/wol/d/r8/lp-ko/1200001216#h=4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예수께 눈에 보이게 내려온 것은 비둘기가 그 횃대에 다가가면서 날개 치며 내려가는 것과 비슷하였을 것이다.(누 3:22; 마 3:16; 막 1:10; 요 1:32-34) 비둘기의 순진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적절한 상징이었다.—마 10:16."

15) 陳映眞, 앞의 책, 200쪽. "伊正專心地注視着在天空中畫着橢圓的鴿子們。一隻紅旗在向牠們招搖。"

16) 위의 책, 200쪽. "鴿子們停在相對峙的三個屋頂上, 恁那個養鴿的怎麼樣搖撼着紅旗, 都不起飛了。他們只是斜着頭兒', 楞楞地看着旗子, 又拍了拍翅膀, 而依舊只是依偎着停在那裏。"

17) 위의 책, 201쪽. "忽然一陣振翼之聲響起, 鴿子們又飛翔起來了, 斜斜地劃着圈子。他們都望着那些鴿子, 沉默起來。"

18) 위의 책, 201쪽. "都望着越劃越遠的鴿子們的圈圈兒。"

네 번의 서술 중에 세 번은 모두 비둘기가 공중에서 원을 그리는 동작을 묘사하였다. 첫 번째 '小瘦丫頭兒'가 공중에서 타원을 그리는 비둘기를 골똘히 주시하는 장면은 '三角臉'를 애타게 찾고 있으며 그와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나타냈다. 다음은 비둘기들이 지붕 위에 앉아서 멍하니 깃발을 보고 있다가 가끔 날개 짓을 하는 장면으로 비둘기가 앉아 있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대로 묘사하였다. 하지만 다음 장면과 연결해보면 두 사람이 응시하고 곧 만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자 비둘기들은 날아오르고 비스듬한 원을 그렸고 두 사람은 침묵을 한다. 그러다 다시 비둘기들이 원을 그릴수록 멀어져가는 비둘기의 원을 쳐다보고는 잠시 침묵하다 둘이 그 자리를 떠나 걸어가는 것이 비둘기의 마지막 서술이다. 네 차례의 서술이 일반적인 비둘기의 동작을 그대로 묘사하였지만 비둘기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다른 광경 중에서 서로 다른 기색과 자태로 서술하였고, 서술의 배치와 두 사람이 만나는 상황을 순차적으로 교묘하게 접목시켰다. 작자의 독특하고도 교묘한 구상이 덧보인다.

달은 소설 전체에서 가장 많이 서술된 형상으로 기존의 중국문학에서 團圓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형상이다. 團圓의 상징은 둥근달이다. 달의 묘사는 모두 회상부분에서 나온다. 비교적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서술은 다음과 같다.

"어느 달이 둥근 밤에 원숭이는 숲속의 고향집이 생각났다."[19]

"아, 아! 이 달이였군. 내가 밥을 먹고 나니 심상치 않았어요. 알고 보니 달이 커졌어요. 난 또 집 생각이 났네요."[20]

"그녀는 붉은 빛이 날 정도로 누런 큰 달을 마주하고 천천히 담배를 피웠다."[21]

"달이 동녘에 기울어져있었다. 유달리 둥글었다."[22]

이런 서술은 달이 분명하게 團圓을 상징하는 것이다. 작가는 같은 형상을 반복하여 사용하여 의미의 표출을 심화하였다. 처음에는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두 사람의 만남을 갈망하는 의미를 대신하였다. 이외에 달빛을 묘사하는 장면이 여러 개 더 있다.

"달빛은 바닷물에 부서져 수많은 반짝이는 생선 비늘이 되었다."

"달빛이 그녀의 마른 작은 얼굴을 부드럽게 칠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하여 숙소로 걸어갔다. 달빛이 익살맞은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또 두 줄의 고독한 발자국도 비추고 있었다."

"달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매우 고요히 길게 뻗은 백사장, 토치카, 그리고 몇 동의 병영들을 그렇게 밝게 비추고 있었다."[23]

---

19) 앞의 책, 202쪽. "有一個月圓的夜, 猴子想起了森林裏的老家。"
20) 위의 책, 203쪽. "唉, 唉！這月亮。我一吃飽飯就不對。原來月亮大了, 我又想家了。"
21) 위의 책, 203쪽. "伊對着那黃得發紅的大的月亮慢慢地抽起紙菸。"
22) 위의 책, 203쪽. "月在東方斜着, 分外的圓了。"
23) 위의 책, 195쪽. "月亮在海水中碎成許多閃閃的魚鱗。", "月光很柔和地敷在伊的乾枯的小臉", "他們於是向招待所走去。月

이상에서 보면 달빛은 매우 아름답지만 소설의 비극적인 주제에 걸맞는 처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 현실 부분에서의 "그녀는 햇빛 속에 서있다.(伊站在陽光裏)", "12월의 햇빛이 그녀를 씻고 있었다.(十二月的陽光浴着伊)" 등의 서술과 대조를 이루면서 비극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달은 비극의 두 주인공과 시시각각 함께하며 고독한 그들을 위로하는 형상이 되어 團圓의 의미를 상징하였다. 「將軍族」은 이러한 형상을 통해 작품 주제의 함의가 더욱 심화되는 기법을 잘 운용하였다.

Ⅳ. 對比 技法

「將軍族」은 '양극화'의 서술방식을 자주 사용하였다. 소설 속에서 서로 대비되는 요소가 많다. 과거와 현재, 젊음과 늙음, 슬픔과 기쁨, 숭고와 비천 등이 있다. 이런 대비의 요소가 본문에서 함께 표현되어 상호간에 강렬한 예술 張力을 이루어서 편폭이 짧은 단편소설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먼저 두 주인공이 헤어지기 전의 외모와 오 년 후 다시 만났을 때의 외모를 비교해보자. 두 주인공은 오 년을 전후로 외모에 큰 변화가 있었다. 오 년 전의 '小瘦丫頭兒'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보자.

> "마르고 작았다. 달빛 속에서 특히 우습게 보였다."
> "달빛이 부드럽게 그녀의 마른 작은 얼굴을 칠했다. 그녀의 발육이 아주 좋지 않은 몸이 우둔하게 보이게 했다."
> "말라빠져서 해골에다 옷을 입혀 놓은 듯했다."
> "빨간 칠을 한 깨진 탁구공으로 그녀의 유일하게 예쁜 곳인 코를 씌웠다. 비쩍 마른 몸으로 무대에 서서"[24]

이상에서 보면 그녀는 깡마르고 왜소한 체구에 예쁘지 않는 열네다섯 살의 소녀에 불과했다. 오 년이 지난 후에 '三角臉'의 시선으로 보는 그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그녀가 예뻐졌다."
> "그녀의 선글라스를 낀 얼굴은 이전보다 많이 풍만해졌다."
> "그녀는 검고 윤기 있는 머리를 길렀다. 아주 높게 쪽을 지었다. 얼굴에는 살이 많이 올라 그녀의 원래 예쁜 코가 더욱 돋보였다.[25]"

光照着很滑稽的人影, 也照着兩行孤獨的脚印。", "月亮眞是美麗。那樣靜悄悄地照明着長長的沙灘、碉堡、和幾棟營房。"

24) 앞의 책, 183쪽, 183쪽, 184쪽, 186쪽. "又瘦又小, 在月光中, 尤其的顯得好笑。", "月光很柔和地敷在伊的乾枯的小臉', 使伊的發育得很不好的身體, 看來又笨又拙。", "瘦楞楞地, 彷彿一具着衣的骷髏", "用一個紅漆的破乒乓球, 蓋住伊唯一美麗的地方……鼻子, 瘦板板的站在台上。"

25) 위의 책, 183쪽, 183쪽, 190쪽. "伊變得很婷婷了。", "伊的戴着太陽眼鏡的臉', 比起往時要豐腴了許多。", "伊留着一頭兒'烏

오 년이 지난 후의 그녀의 모습은 한창 아름다울 나이가 되었고 이전보다 얼굴에 살이 많이 붙었다. 게다가 "그녀는 약간 작은 듯한 제복을 입고 있었다.(伊却穿着一套稍嫌小了一些的制服)"로 봐서 몸도 이전에 비해 살이 많이 찐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高個子'가 "끝내주는 여잔데!(很挺的一個女的呀！)"라고 하는 감탄으로 봐서도 많이 예뻐진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小瘦丫頭兒'는 많이 예뻐진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나 대부분은 살이 쪘다는 묘사를 통하여 아름다워졌다고 표현하였다. 이점이 독자의 사고를 요하는 비극적인 사실이다. 다음으로 '三角臉'의 오 년 전후로 변화된 외모를 보자. 오 년 전의 외모 묘사는 "그는 이미 약간 벗겨지기 시작한 그의 머리를 만졌다.(他摸了摸他的已經開始有些兒發禿的頭兒')"라고만 묘사하였다. 그리고 변화된 외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과연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느꼈다. 낡은 북이나 여기 저기 때운 구리나팔처럼, 추하기도 하고 또 애처로웠다."
"이렇게 살짝 웃는 얼굴이라 해도 온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그는 태반이나 벗겨진 뾰족한 머리를 만지다 긁으며 웃기 시작했다."[26]

오 년 전의 외모묘사는 "……약간 벗겨지기 시작한 그의 머리"가 지금은 "태반이나 벗겨진 뾰쪽한 머리"라고 하여 오 년 사이에 머리가 많이 빠진 것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三角臉'의 느낌으로 "추하기도 하고 또 애처로웠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작가는 '三角臉'의 오 년 전후의 외모변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小瘦丫頭兒"의 변화된 외모와 현재 '三角臉'의 외모와의 대비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생각했다. '하나는 성장하고, 하나는 시드는구나. 겨우 5년 전후의 일에 불과한데!'
"사 오 년 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나 한 명은 해가 뜨고, 한 명은 해가 지는구나!"[27]

외모의 묘사는 대부분 '三角臉'의 시점을 사용하였다. '三角臉'의 눈에 '小瘦丫頭兒'는 성숙하고 풍만한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했고 자기는 늙고 쇠퇴해가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작가는 이러한 대비 묘사를 통해 桑田碧海의 처량한 감정을 표출했지만 그보다도 '三角臉'이 康樂隊를 떠난 오 년 동안 어떠한 비참한 생활을 하였는지를 효과적으로 서술하여 전체 작품에서 비극적인 색채를 더하였다. 더욱 비극적인 설정은 과거와 현재의 대비 중 크나큰 변화를 독자에게 보여주었지만 두 사람의 비극적인 운명은 근본적으로 바뀌지를 않았다는 점이 전체 소설에서 비극적인 주제를 심화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將軍族」에서 작가는 노련하게 대비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대비는 이 소설 속에서 그저 간단한 표현 수법

油油的頭兒'髮, 高高地梳着一個小髻。臉'上多長了肉, 把伊的本來便很好的鼻子, 襯托得尤其的精神了。"

26) 앞의 책, 184쪽, 190쪽, 191쪽. "他覺得自己果然已在蒼老着, 像舊了的鼓, 綴綴補補了的銅號那樣, 又醜陋、又淒凉。", "但卽便是這樣輕的笑臉', 都縐起滿臉'的縐紋來。", "他摸了摸禿了大半的, 尖尖的頭兒', 抓着, 便笑了起來。"

27) 위의 책, 198쪽, 200쪽. "他想着：一個生長, 一個枯萎, 才不過是五年先後的事！", "才不過四、五年。可是一個日出, 一個日落呀！"

이 아니고 작가의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문학창작에서 구현된 것이다. 대비는 소설 속의 주인공인 '三角臉'과 '小瘦丫頭兒' 등의 인물형상을 묘사하고, 소설의 주제를 심화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인물 자신의 상황 대비는 소설 속의 인물 마음속의 각종 모순을 묘사한다. 그들의 사회생활과 사상 감정은 매우 복잡하다. 때문에 인물 자신의 모순과 대립을 비교하여 인물의 개성과 특징을 더욱 돌출시킬 수 있고 또 형상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작가는 「將軍族」에서 여러 차례 이런 대비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三角臉'과 '小瘦丫頭兒'의 인물을 형상화하여 작품의 주제를 심화시켰다. '三角臉'의 인생태도에 관하여 살펴보자. 작가가 '三角臉'을 형상화할 때 먼저 康樂隊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서술하였다. '三角臉'은 康樂隊의 트럼펫을 담당하는 악사이다. 여자 단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주 마적 등의 얘기를 만들어 해주기도 하고 다른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집질과 도박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달밤에 '小瘦丫頭兒'와 해변 모래사장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三角臉'의 인생태도가 변하였다. "그 순간부터서야 그의 마음은 나이가 든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었다."[28] 그는 어른의 입장에서 '小瘦丫頭兒'를 대했고 마치 아버지 같은 느낌이 생겼다.[29]

그리고 '三角臉'은 중대한 선택을 한다. '小瘦丫頭兒'가 유곽에 팔렸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알고 또 그녀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퇴직금 삼 만원이 든 통장을 몰래 '小瘦丫頭兒'의 베개머리 옆에 두고 떠난다. 그의 결정은 매우 감동적이지만 그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다.

> "길을 가면서 그는 절대로 그 퇴직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왜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 없는지 알 수 없었다."[30]

그 후 그는 매우 곤궁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小瘦丫頭兒'를 만난다. 작가는 '三角臉'의 인생태도의 변화를 대비의 기법으로 선명하게 드러내어 주인공의 인물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하였다.

「將軍族」에서 작가는 노련하게 대비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대비는 이 소설 속에서 그저 간단한 표현수법이 아니고 작가의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문학창작에서 구현된 것이다. 대비는 소설 속의 주인공인 '三角臉'과 '小瘦丫頭兒' 등의 인물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소설의 주제를 심화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Ⅴ. 結 語

「將軍族」은 대만현대문학사에 있어서 한 편의 '經典之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작품 속에 나타난 강렬한

---

28) 앞의 책, 188쪽. "從那個霎時起, 他的心才改變成爲一個有了年紀的人的心了。"
29) 위의 책, 188쪽. "만약 그때 내가 떠나고 나서 마누라가 딸을 가졌다면 아마도 네 나이또래 일께야(要是那時我走了之後, 老婆有了女兒, 大約也就是你這個年紀罷。)"
30) 위의 책, 199쪽. "一路上, 他明明知道絶不是心疼着那些退伍金的, 却不知道爲什麼止不住地流着眼淚。"

의식형태와 진지한 주제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陳映眞 작품을 연구하는 비평가나, 陳映眞의 소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 작품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31] 陳映眞은 「將軍族」에서 강한 사회적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하여 서술방법을 창의적으로 잘 운용하였다. 표현기교에서 출중한 성과를 거둔 白先勇은 표현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 "물론 내용이 기교를 결정하지만 기교도 플롯(plot)의 성패를 결정한다. 플롯의 성패는 그 첫째가 가장 효과적인 기교로 그 주제를 표현하였는가에 달려있다."[32] ……"소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방식"[33]이며 작품이 좋고 나쁜가는 '표현기교'에 달려있다.

이처럼 「將軍族」은 표현기교에 있어서 매우 성공한 작품이다. 서술시점에 있어서 중국 전통 기법인 삼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속에 현대 기법인 인물의 일인칭 시점을 보탠 것으로 이 두 가지의 서술 시점이 서로 결합하거나 삽입하여 운용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 단편소설의 편폭이 짧은 것을 감안하여 상징기법을 사용하여 강한 주제의식을 잘 표출했으며 대비의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비극적인 소설 주제를 성공적으로 심화하여 당시 대만사회의 특유한 우울함과 비통한 정서를 잘 표출하였다. 「將軍族」이 발표 된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것은 작가의 뛰어난 표현기법의 운용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작자는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들에게 정식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다.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별명이나 생긴 모습으로 命名하였다. 혹자는 이것을 남녀주인공이 비천한 사람들이라 이름마저 없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지만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작가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將軍族」이 당시 사회의 특유한 우울함과 비통한 정서를 표출한 것이라면 이러한 모든 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 하겠다.

〈參考文獻〉

陳映眞, 『將軍族』, 臺北: 洪範書店有限公司, 2001.
陳映眞, 『陳映眞作品集』 8卷, 臺北: 人間出版社, 1988.
陳映眞, 『陳映眞作品集』 9卷, 臺北: 人間出版社, 1988.

31) 宋冬陽, 「縫合這一道傷口——論陳映眞小說中的分離與結合」: "這個短篇小說已成臺灣現代文學史上的一篇 『經典之作』, 幾乎討論陳映眞作品的批評家, 或者研究臺灣小說的學者, 都對「將軍族」特別重視。"(『陳映眞作品集14』, 臺北: 人間出版社, 1988), 141쪽.
32) 白先勇, 『驀然回首』, 臺北: 爾雅出版社, 1978, 139쪽. "當然內容決定技巧, 但是技巧決定故事的成敗。故事的成敗第一要看技巧, 是不是以最有效的技巧表現他的主題."
33) 위의 책, 122쪽 참조.

陳映眞,『陳映眞作品集』14卷, 臺北: 人間出版社, 1988.
陳映眞,『陳映眞作品集』15卷, 臺北: 人間出版社, 1988.
古繼堂,『臺灣文學發展史』, 臺北: 文史哲出版社印行, 1996.
古繼堂,『臺灣文學發展史』, 臺北: 文史哲出版社印行, 1996.
白先勇,『驀然回首』, 臺北: 爾雅出版社, 1978.
김원,「陳映眞의 「將軍族」연구」,『中國語文論譯叢刊』12, 2004.
黎湘萍,「臺灣的憂鬱」(中國, 生活, 讀書)(博士論文), 新知三聯書店, 1994.
管永仲,「陳映眞小說主題研究」(碩士論文), 臺灣: 華梵東方人文思想研究所, 1997.
劉依潔,「「人間」雜誌研究」(碩士論文), 臺灣: 東吳大學中文研究所, 1999.
朱玉如,「陳映眞文學作品思想探討」(碩士論文), 臺灣: 文化大學中文研究所, 2000.
劉依潔,「陳映眞在「人間」雜誌中所表現的媒體觀點與實踐方式」,『東吳中文研究集刊』, 2000.
周昆,「維納斯的回聲—試析陳映眞小說中的無意識」,『聯合文學』, 1995.6.
劉依潔,「從「人間」雜誌及其創始歷程探陳映眞的人文理念」,『中國現代文學理論』, 2000.6.
黃裳裳,「意趣神色—臺灣小說「將軍族」審美賞析」,『阜陽師院學報』第1期, 1985.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7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中文提要 ▐

Analysis of Writing Technique in *Jiangjunzu*(將軍族)
(「將軍族」的表現技巧分析)

黃 炫 國*

短篇小說「將軍族」發表於1964年「現代文學」(第十九期)。是臺灣作家陳映眞的早期代表作品之一。

這篇小說通過臺灣一對小人物由隔閡到眞誠相愛，因相愛而從容赴死的殉情故事，揭示了小人物悲慘的生活處境和命運，對黑暗、醜陋、不公的現世表達抗議，贊美了小人物高貴的品行和純眞的情感。

小說叙述了一個大陸去臺灣的退伍老兵與一個臺灣本省女孩的愛情悲劇。在小說中，作者幷未按照傳統的線性叙事模式推動故事情節的發展，而故事的情節隨着人物的意識流動，現實與回憶交叉切入,小說具有明顯的跳躍性。外省人"三角臉"在臺灣的"滄桑傳奇"，本省人"小瘦丫頭"的不幸經歷，不是隨着人物意識的流動而展示給讀者，就是通過人物的對話予以展示。這樣旣避免了叙述人不必要的交代，又在今昔聯系中增强了人物感情的濃度和歷史的滄桑感。

「將軍族」象征手法的運用也是魅力所在。如樂器和樂曲在小說中的象征，小說一開始就寫了出殯的日子里薩克斯吹奏的 「荒城之月」，就暗示了小說是一個具有悲劇色彩的故事。无論是女主人公吹奏的 「馬撒永眠地下」，還是男主人公用管樂器吹奏的 「游子吟」，都象征着故事主人公的各自悲劇命運和整個故事的結局。小說的最後，當兩個主人公沿着坡堤向甘蔗林深處走去時，男主人公吹起了「王者進行曲」，"吹得興起，便在堤上踏着正步，左右搖晃，伊大聲地笑着，取回制帽戴上，揮舞着銀色的指揮棒，走在他的前面，也走着正步。年輕的農夫和村童們在田野裏向他們招手，向他們歡呼着。" 這是典型的用象征手法以樂寫哀，倍增其哀。小說以「將軍族」爲題，也是有着象征意義的，作者讓主人公在 「王者進行曲」中自殺身亡，幷通過農民的口說出兩個人死後像"將軍"似的，王者和將軍正寄寓着作者對下層人的尊嚴的期望與呼喚。

除運用了時空交錯、象征等藝術手法外，還嫻熟地運用了精彩的對比藝術。對比在這篇小說中不只是一种簡單的表現手法，而是陳映眞先生極具匠心的思維方式在文學創作中的體現。它對刻畫小說中的男女主人公"三角臉""小瘦丫頭"等人物形象、深化小說的主題起到了十分重要的作用。

[關鍵詞]「將軍族」, 陳映眞, 敍述技巧, 象徵技法, 對比, 意識流,

* 檀國大學校 敎授

▌Abstract ▐

An Analysis of Writing Techniques in *Jiangjunzu*(「將軍族」)

Hwang, Hyunguk*

Chen Yingzhen(陳映眞 : 1937~)'s *Jiangjunzu*(「將軍族」) was presented in the 19th volume of *Xiandaiwenxue*(『現代文學』) in 1964 and has a very deep social meaning. When *Jiangjunzu* was presented, the novel broadly impacted Taiwan, and even till now attracts much attention in Taiwan and China. When Beijing Renmin Press selected best literary books of 20th century and published *Bainian Baizhong Youxiu Wenxue Tushu*(『百年百種優秀中國文學圖書』) in 1999, *Jiangjunzu* was one of the selections; and in *Yazhouzhoukan*(『亞洲周刊』)'s 'the 100 Best 20th Century Chinese Novels(二十世紀中文小說一百强排行榜)' Jiangjunzu ranked the 15th, and it was the second highest among Taiwanese writers behind Bai Shenyong's novel collection Taibeiren(『臺北人』) which ranked the 7th.

Jiangjunzu, for its exquisite perspective and fiercely tragic theme, attracted much attention. The author applied narrative techniques such as the stream of consciousness, symbolic techniques, and contrasts in order to express the fiercely tragic theme effectively. The author's creative expressive techniques successfully described characters' figures and effectively expressed the strong theme. These are the artistic achievement of *Jiangjunzu*. Regarding its narrative viewpoint, the author applied the traditional Chinese third person omniscient viewpoint and added the modern first person viewpoint onto it, so that these two viewpoints were jointed and mixed. Considering that the piece is a short story, he effectively expressed the theme through symbolic techniques, successfully described characters' figures with contrasts, and deepened the story's tragic theme; so he skillfully reflected the gloom and the bitterness of Taiwanese society of the tim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atch out the artistic achievement of *Jiangjunzu* by analyzing the author's expressive techniques in the contents of the novel. Also, by examining the tragic consciousness projected through such expressive techniques,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Jiangjunzu* more deeply.

[Key Words] *Jiangjunzu*, Chen Yingzhen, narrative technique, symbolic technique, contrast, the stream of consciousness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東洋學 第62輯(2016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東亞文化交流視野下的朝鮮譯官角色

——以譯官金指南的活動爲中心

羅 樂 然*

▌摘 要▐

近年，明(1368~1644年) 清(1644~1911年) 中國與朝鮮王朝(1392~1910年) 的交涉關係史研究方興未艾，隨著大量且資料豐富的『燕行錄』出版後，使得東亞不同地區的學者，紛紛採用有關資料，把中國與朝鮮之關係，以更嶄新的史料及角度，補充以往學術界的不足。除了擔任領導的燕行使臣外，一些於使團服務的人，例如擔任翻譯與禮節安排的譯官，其角色對兩地之間的交涉亦不可忽略。

以康熙年間活動的譯官金指南(1654~1718年) 為例，他曾於清廷穆克登(1664~1735年) 考查中朝兩地邊境之勘界團接待使團之中擔任譯官，負責與中國官員周旋兩地邊界的定案。又在燕行期間把一些韓國少有的書籍帶回朝鮮，並將之翻譯，方便國內士人或官員閱讀。除了協助各種對外使團及委派任務擔任譯官，方便朝鮮與東亞之間的文化交流，他在任職朝鮮負責翻譯工作的司譯院院正期間，開始負責紀錄譯官職掌及中朝兩地交流的重要書籍『通文館志』的編撰。由此可見金指南在各方面的對外工作之中，有相當重要的角色。

故此，本文嘗試利用朝鮮及中國兩地出版及未出版的資料，如『通文館志』、『譯官上言謄錄』、『北征錄』、『新傳煮砂方』、『東槎日錄』等，並以翻譯研究與東亞文化交流史的相關概念試圖探析18世紀朝鮮後期間，金指南等譯官在擔任朝鮮對外關係時所扮演的角色及帶來的影響，其影響不在於語文上的翻譯，亦是一個東亞文化交交流過程中的重要媒介。

[關鍵詞] 金指南 朝鮮譯官 燕行使 清－朝鮮關係

▌목 차▐

Ⅰ. 引 言
Ⅱ. 金指南所身處的康熙年間的朝鮮對外關係
Ⅲ. 金指南的生平與事功
Ⅳ. 翻譯規範與東亞文化交流史視野下的金指南
Ⅴ. 結 論

* 新加坡南洋理工大學中文系／香港大學饒宗頤學術館 / login.law@gmail.com
作者係新加坡南洋理工大學中文系博士研究生及香港大學饒宗頤學術館一級研究助理。本文初稿曾於2014年12月18-19日香港中文大學翻譯研究中心主辦的 ‘書寫中國翻譯史’第六屆中國譯學新芽研討會。在此，感謝會議期間負責拙文評論的老師復旦大學鄒振環教授、『東洋學』安排的匿名審查專家，均給予不少珍貴意見，使論文更為完備。當然，文責自負。

Ⅰ. 引 言

漢字文化圈各國之間的交流過程，因各國皆是漢字發展成熟的國家，筆談以及書信往來已成為了各地之間交流媒介，一直都未被太多學者關注到東亞文化交流之間的語言及翻譯問題。然而，以朝鮮半島與中國大陸的交往為例，自高麗王朝(918~1392年) 於13世紀，受制於元朝的威脅，並被迫成為元朝屬下的 '征東行省'，[1] 在這種外交必要下，高麗便於1276年成立通文館，專責訓練外語人材，處理有關事務。[2] 可見，漢字的交往有其不足，故高麗方面才有其必要訓練譯官來處理與中國交往的事務。這種譯官培訓制度，朝鮮王朝將之繼承，並沿用了高麗晚期改名的 '司譯院'，繼續培訓漢語等外語官員。[3] 而朝鮮王朝成立初期時，朝廷已明確表明，訓練這些譯官，最重要之目的是 '以小事大，古今之通義也，況我朝，僻處海陬，語音殊異，因譯以達，故司譯之任，誠為重矣。'[4] 因此，所謂事大以誠，實際上透過譯官完成各種任務及論述之表達，向明清中國示好。[5] 故透過對朝鮮譯官的了解，不但可認知朝鮮與中國的文化交流過程的關鍵轉變，並且從個案探討翻譯及語言等文化元素如何影響東亞文化交流的過程。[6]

朝鮮王朝(1392~1910年) 與明(1368~1644年) 清(1644~1911年) 兩朝的關係研究，一直有不少學者所觸及，[7] 特別是近年學者們採用各種朝鮮使節使行北京時所撰寫的『燕行錄』，[8] 探討不同面向的朝鮮與中國

---

1) 征東行省是高麗被元朝(1271~1368年) 多次入侵後，議和後的結果。表面上，元朝將高麗位併於版圖之內，與其他行中書省一樣。但實際上，高麗國王便是行省丞相，更掌管一切行省內行政及任命權，擁有高度的獨立自主。而元朝滅南宋(1127~1279年)，並統一中國後，有意征日，便以朝鮮半島作為跳板，故將朝鮮半島行省直接命名為「征東行省」。「征東行省」並不是在高麗持續成立，是當元朝有意向日本征伐時，就會在朝鮮半島成立「征東行省」，以便搜集軍需資源。關於此，參丁崑健，「元代征東行省之研究」，『史學彙刊』，第10期(1980年6月)，頁157-190。

2) 鄭麟趾，『高麗史』，서울：亞細亞文化社，1972，卷76「志30・百官1」，頁678-679。

3) 朝鮮太祖特別重視翻譯，故按高麗制度，沿設置司譯院。關於此，詳參林東錫，『朝鮮譯學考』(臺北：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1982)，頁86-89。

4) 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서울：國史編纂委員會，1986，『太宗實錄』卷8，太宗4年8月20日己丑，頁4b。朝鮮首任司譯院長官偰長壽亦解釋了司譯院成立的最主要目的，是為了世事中國。他指出：'臣等竊聞，治國以人才為本，而人才以教養為先，故學校之設，乃為政之要也，我國家世事中國，言語文字，不可不習，是以殿下肇國之初，特設本院，置祿官及教官、教徒生徒，俾習中國言語訓文字體式，上以盡事大之誠，下以期易俗之效……'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太祖實錄』，卷6，太祖3年11月乙卯，頁17a。

5) 關於事大以誠的內容，詳參范永聰，『事大與保國——元明之際的中韓關係』(香港：香港教育圖書，2009)，頁167-201。值得一提的是，事大以誠的觀念在清代有另外的論述，最明顯的是他們對於清朝的態度與明朝的態度實為天淵之別，對於原來的事大觀念已有所分別。有部份學者認為此為華夷觀之改變，關於華夷觀轉變之討論，詳參禹景燮，「朝鮮中華主義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한국사연구』，第159期(2012年12月)，頁237-263；禹景燮，「宋時烈의 華夷論과 朝鮮中華主義의 성립」，震檀學報』，第101期(2006年6月)，頁257-289。

6) 關於此，詳參黃俊傑，「作為區域史的東亞文化交流史：問題意識與研究主題」，『臺大歷史學報』，第43期(2009年6月)，頁187-218。

7) 中國大陸、臺灣、日本、韓國等東亞地區的學者都以他們熟悉的語言發表了不少論文，以中國為例，首推陳捷先、陳尚勝、孫衛國等，臺灣則可參見劉家駒、李光濤、張存武等學者之著作，而韓國方面則以全海宗及崔韶子的研究，最具代表性。日本方面，則比較值得關注的是中村榮孝及山口正之的研究。以上學者的研究不再一一羅列，可參考崔韶子，「明清時代對外關係史의 成果과課題」，『明清史研究』，第19期(2003年月份缺)，頁33-61。

8) 關於『燕行錄』訂名之問題及相關的討論，詳參張伯偉，「名稱・文獻・方法－－關於 '燕行錄研究的若干問題」，鄭光、藤本幸夫、金文京編，『燕行使와 通信使－燕行・通信使行에 관한 韓中日 三國의 國際워크숍－』，頁47-49；徐仁範，「조선전기 연행록 사료의 가치와 그 활용」，『명청사연구』，第30輯(2008年10月)，頁13-48；崔韶子，「"燕行錄" 연구를 위한 제언」，『명청사연구』，第30輯(2008年10月)，頁1-11。

關係的研究,[9] 呈現以往史料未所涉及的畫面，包括燕行使視野下北京社會面貌,[10] 傳教士活動,[11] 儒家文化發展等等,[12] 當中尤以17世紀以降，清朝成為中華帝國的管治者，朝鮮朝廷與士大夫對於清廷及其文化特別蔑視，但礙於實際需要，朝貢活動仍需持續。故在這種理想與現實考慮之間的張力比較之下，作為兩地文化交流之間媒介的朝鮮譯官，在清代有其特別的研究價值。

這些專責朝貢事務的譯官，在士大夫與朝廷不願多接觸中國事務的情感影響下，顯得特別重要。而且，他們是兩地之間交流過程中，最直接的參與者，從他們的經歷，可以更完整地觀察兩地關係的各種議題。因此，本論文就譯官的事務為切入，從中觀察他們如何影響著清與朝鮮之間的關係。

雖則譯官在中朝關係及東亞文化交流過程中具有重要的功能，但是譯官研究一直只保留在韓國國別史研究的課題之中，過往亦只有為數不多的相關文章及書籍於韓國出版，而且這些研究成果均是以譯官制度,[13] 中人身份及地位有關的制度史及社會史為研究方向,[14] 又或是以不同譯官家族的研究個案出發，來觀察當時的政治及社會。[15] 而且，不少譯官一直都涉及到對外往來的經歷，特別是前往北京的燕行使，譯官的工作不能忽視，是中韓交流甚或東亞文化交流圈之中的重要媒介。[16] 然而，學術界就此更探入探討的研究雖有一定的成果,[17] 但更多宏觀地討論他們參與的外交活動，或是不同的文化交流史研究之中說明到譯官在

9) 裴英姬，「『燕行錄』的研究史回顧(1933~2008年)」，『臺大歷史學報』，第43期(2009年6月)，頁219-255。

10) 范金民、羅曉翔，「朝鮮人眼中的清中期中國風情——以崔斗燦『乘槎錄』為中心」，『史學集刊』，2009年第3期(2009年5月)，頁56-64；楊雨蕾，「燕行錄所記的北京琉璃廠」，『中國典籍與文化』，2004年第4期(2004年9月)，頁55-63；王振忠，「朝鮮柳得恭筆下清乾嘉時代的中國社會——以哈佛燕京圖書館所藏抄本「泠齋詩集」為中心」，『中華文史論叢』 90(2008年6月)，頁133-177；並參楊雨蕾，『燕行與中朝文化關係』(上海：上海辭書出版社，2011)，頁46-47；원재연，「17~19세기 연행사의 북경 내 활동공간 연구」，『동북아역사논총』 26(2009年12月)，頁205-262。

11) 關於此，詳參羅樂然，「乾隆禁教期的耶穌會士在華活動——以劉松齡為研究中心」，『中國史研究』 82(2012年12月)，頁93-114；楊雨蕾，「朝鮮燕行使臣與西方傳教士交往考述」，『世界歷史』，2006年第5期(2006年10月)，頁126-131；鄭恩主，「燕行使節의 西洋畵 인식과 寫眞術 유입：北京 天主堂을 중심으로」，『명청사연구』 30(2008年10月)，頁157-199；장경남，「조선후기 연행록의 天主堂 견문기와 西學 인식」，『우리文學研究』 26(2009年2月)，頁77-177。

12) 儒家思想之中，朝鮮燕行使特別對實學有更深入的探究。關於此，詳參楊雨蕾，『燕行與中朝文化關係』，頁224-230。

13) 韓國方面例如分析早期譯官的身份、制度及考試方法的白玉敬：『朝鮮前期譯官研究』(서울：韓國研究院，2000)、簡述朝鮮時代譯學史的姜信沆，『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서울：塔出版社，1978)，關於譯官的試卷研究可參考鄭光，『朝鮮朝譯科試卷研究』(서울：成均館大學校出版部，1975)；還另尚有探析譯官在朝鮮與中國之間的貿易史貢獻及影響者如李哲成，『朝鮮後期對清貿易史研究』(서울：國學資料院，2000)，頁44-60。中國方面例如北京大學張敏，「韓國譯學源流考」，載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編，『韓國研究論叢』 22(上海：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2009)，頁319-334；另外，中國社科院歷史研究所的烏雲高娃博士論文以『明四夷館及朝鮮司譯院研究——以 '蒙古語學'為研究中心』為題，探析中朝兩地的翻譯機構及其歷史，其後並發表若干論文討論朝鮮司譯院的研究，特別是蒙學方面的教習活動。詳參烏雲高娃，「朝鮮司譯院蒙古語教習活動研究」，『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8卷第4期，總137期(2001年7月)，頁122-123。

14) 例如韓國研究朝鮮時代譯官的專家金良洙，他的博士論文就是探析譯官在朝鮮後期的身分研究。詳參金良洙，『朝鮮後期의 譯官身分에 관한研究』(서울：延世大學校歷史學科博士論文，1986)。

15) 金良洙，『조선후기 中人집안의 발전：金指南、金慶門 등 牛峰金氏事例』，서울：白山資料院，2008。

16) 最早把翻譯官員視為文化交流及外交媒介的研究可見於楊聯陞，「中國文化的媒介人物——聯合國中國同志會第一七○次座談會紀要」，『大陸雜誌』，第15卷第4期(1957年8月)，頁32-33。

17) 關於譯官作為文化交流、對外活動時作出的貢獻與角色的研究例子，可參考劉婧，「通過董文煥日記攷朝鮮詩文集流入 中國及朝鮮譯官的作用」，『동아인문학』 12(2007年12月)，頁255-276；이상규，「조선후기 川寧玄氏家의 譯官活動」，『한일관계사연구』 20(2004年4月)，頁197-239；金良洙，「朝鮮開港前後 中人의 政治外交：譯官 卞元圭 등의 東北亞 및 美國과의 활동을 중심으로」，『역사와 실학』 12(1991年1月)，頁311-366；장안영，「18세기 지식인들의 눈에 비친 역관 통역의 문제점 고찰：“노가재연행일기”·“을병연행록”·“열하일기”를 중심으로」，『어문론집』 62(2015年6月)，頁349-372，亦可參考不過，這些的研究大多聚焦在他們個人活動的描述，而忽略了譯官的活動如何形成擔當朝鮮與外界之間的媒介，以及朝鮮社會如何塑

介入兩地士人的交流，而卻沒有聚焦他們在文化交流過程之中的媒介角色以及他們的角色是如何反映著朝鮮朝廷的一些社會期盼，這些觀點均是學界所忽略的，似乎可利用不同的概念重新觀察朝鮮譯官的媒介角色。

眾多的譯官之中，出身於朝鮮仍蔑視清廷的康熙(1661~1722年) 年間的金指南(1654~1718年) 似乎有助我們去了解朝鮮譯官在東亞文化交流過程之中的角色。[18] 他曾參與多次燕行活動，並籌劃編印有關中國有關對外事務的書籍『通文館志』，並在穆克登(1664~1735年) 勘界團之中，發揮了媒介作用，亦為朝鮮朝廷在有關勘界過程佔得優勢，並決定了往後有利於朝鮮一方的中朝邊界安排。相對較少關注的華文學界,[19] 金指南在韓國學界已獲得一定認知,[20] 其中對於他參與穆克登勘界團的角色，이상태已著墨不少，特別提及到金指南如何使穆克登的想法有所改變，而得出了讓朝鮮滿意的邊界結果。[21] 與此同時，他於1688年處理漂流到濟州島的潮州漂流民的事情,[22] 以及參與1711通信使的考察過程,[23] 都獲得了充份的研究。故此，本文並非單純與過去的研究，重塑金指南的生平，以及探討他的責任與貢獻，而是希望以金指南參與各種朝鮮對外關係的活動過程之中，試圖以翻譯規範的概念以及東亞文化交流史的研究構想，了解朝鮮朝廷在康熙年間，如何期盼譯官擔當不同的角色。翻譯規範的觀念為翻譯研究現時經常採用討論的研究觀點，簡單來說是指當地的譯官或翻譯材料，或會受到各種的社會與文化規範，包括國家機構、贊助人以及政策等的氛圍，而影響了翻譯的態度與操作。雖然本文主要集中討論的是譯官的工作與活動，而非翻譯的文本，但是因譯官最基本的作用就是擔任不同語言之間的翻譯，故翻譯規範亦可應用於本文之中，試圖了解譯官擔當的角色如何受到社會上對譯官的期盼而作出相關的活動對應。[24] 此外， 本文亦希望從黃俊傑提

造他們成為媒介角色的社會與文化因素。不過，另一篇值得參考的留意到譯官在情報與知識收集的角色，是相當值得參考的研究成果，但他卻忽略了譯官除了情報收集以外的媒介功能。關於此，詳參진재교,「18세기 동아시아와 知識・情報의 메신저, 譯官」,『韓國漢文學研究』47(2011年月份缺)，頁105-137。

18) 17世紀以降，滿洲人於中國東北建立新政權，並對明朝與朝鮮帶來威脅，及後滿洲人更先後多次入侵朝鮮，並南下滅明，成立中華帝國新主人。朝鮮對於明清易代表現得十分反感，但是礙於實際政治考慮，被迫接受與清廷的朝貢關係而事實上，有關情感一直延續到康熙年間並未有明顯的改善。關於此，詳參徐東日,『朝鮮朝使臣眼中的中國形象——以『燕行錄』『朝天錄』為中心』(北京：中華書局，2010)，63-149。

19) 筆者曾撰有同領域但不同面向的拙作，分別是羅樂然,「燕行使團擔任文化媒介的朝鮮譯官——以金慶門為研究中心」,『漢學研究』 第33卷第3期，頁345-378；羅樂然，「作為東亞文化交流媒介的朝鮮譯官——以朝鮮中葉的金指南家族為研究個案」，載於周佳榮、范永聰編,『東亞世界：政治、軍事、文化』(香港：三聯書店，2014)，頁223-266。這些研究成果之中然有一定篇幅談及金指南的活動以及貢獻，但面向卻不同，發表於『漢學研究』的論文主要關心的是金指南的功績如何驅使到金慶門亦從事譯官工作，而且最終的探討目的是在於金慶門在燕行使團的工作，而後者則以宏觀的形式，向香港學界介紹有關譯官家族金指南在朝鮮的情況，重點在於說明朝鮮譯官的工作特性。然而，本文卻著重於金指南的譯官活動，如何在東亞的環境之中，代表著朝鮮社會的文化與期盼來發揮他們的影響力，成為了朝鮮與清廷或是東亞的文化媒介。

20) 김양수(金良洙) 曾以他為例，探討牛峰金氏的家族及擔任譯官的成員情況，詳參김양수,「조선후기 우봉김씨의 성립과 발전——계동공파의 김지남등 중인을 중심으로」,『실학사상연구』33(2007)，頁5-78。

21) 이상태,「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역사와 실학』第33期(2007年9月)，頁75-119。

22) 박현규,「1688년 조선 濟州島에 표착한 潮州 출항선 기록 검토」,『동북아문화연구』第14期(2008年3月)，頁29-46。

23) 백옥경,「역관 김지남의 일본 체험과 일본 인식: "동사일록"을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第10期(2006年10月)，頁169-198；另參李成厚,「金指南의 동사일록연구」,『金烏工科大學校論文集』第3期(1982年月份缺)，頁97-114。兩篇文章都對於金指南的『東槎日錄』作出詳盡分析以及金指南對日本的看法，而其中白玉敬的研究更發現金指南的日本觀是與其對於朝鮮繼承中國文化而認為日本的文化不及朝鮮的，但他們對於金指南的研究，在於他的個人經歷及對日本的想像，而卻非處理譯官在對外互動工作與活動期間，反映譯官群的媒介角色。

24) 關於翻譯規範的理論構想，可參考Andrew Chesterman, *Memes of Translation* (New York: John Benjamins, 1997); Gideon Toury, *The Nature and Norms in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2004)。

出所聚焦於交流過程的觀念，重構在東亞文化交流體系下的文化活動過程，金指南如何穿梭在各國之間，擔當朝鮮期盼他所扮演的政治、語言以及文化媒介的角色，不但可重新了解朝鮮社會與譯官之間的關係以及譯官在交流史之中的角色，為學界可更全面地了解朝鮮譯官研究的學術價值。

Ⅱ．金指南所身處的康熙年間的朝鮮對外關係

在了解金指南的身份以前，希必要這個時代背景，這種時代背景的掌握，有助了解當時朝鮮對外之間的關係如何建構期盼朝鮮譯官工作的翻譯規範，亦即朝鮮譯官處於一個甚麼樣的社會與文化環境下進行交流活動，而最後得出相關的行動。順治皇帝(愛新覺羅福臨，1638~1661年，1644~1661年在位) 入主北京，確認滿清正式繼承中華帝國的管治權後,[25] 朝鮮繼續與清廷進行朝貢活動，並將會出使地點，從瀋陽改為北京，繼續進行有關活動。[26] 清初的朝鮮士人對於燕行以及參與中國事務，呈現兩種思考上的面向。其一，朝鮮情感上不太願意與滿人交涉，不少士人不願意參與有關活動。另一方面，朝鮮希望利用朝貢的機會，掌握更多清廷的情報，了解這個外族政治以及社會現象，對於朝鮮王朝審視當時的局勢有關鍵的作用。[27]

由於實際的需要，他們仍需於當時維持朝貢關係，並每年派出若干數量的燕行使團出發到北京。然而，對於他們前往北京，除了是帶著一種被迫的情感前往以外，還是希望觀察中國士人如何理解明清易代的變化。[28]

另一方面，朝鮮自社會因壬辰倭亂、[29] 丙丁胡亂等戰亂嚴重破壞後,[30] 不少地區，特別是北方根本無法耕作或從事經濟活動。長白山以南的朝鮮半島土地並不十分適宜進行農業活動，故不少朝鮮人便籍滿洲人入主北京後，國防空洞的機會，移住到中國地區生活底從事伐木、採參等經濟活動。然而，問題日益嚴重，清廷亦覺得有必要作出整理，故特別向朝鮮一方經常爭論有關事宜。

從『同文彙考』的紀錄,[31] 於康熙年間，有十多次的紀錄,[32] 記載朝鮮人因各種原因，包括採集人蔘、伐

25) Immanuel C.Y. Hsu, *The Rise of Modern Chi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19-29.

26) 楊雨蕾，『燕行與中朝文化關係』，頁37。

27) 關於此，詳參葛兆光，「從 '朝天'到 '燕行'——17世紀中葉後東亞文化共同體的解體」，『中華文史論叢』，2006年第1期(總81期) (2006年6月)，頁29-58。

28) 谷小溪，「由『燕行錄』看清初朝鮮士人的華夷觀——以李宜顯『燕行雜識』為中心」，『哈爾濱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5卷第6期(2013年11月)，頁96-97。

29) 豐臣秀吉(1537~1598年) 於戰國時代統一全日本後，便希望利用此機遇進攻朝鮮半島，以達到最終挑戰大明帝國的政權以及解決國內的不穩問題。於是，日本便先後發動兩次的朝鮮戰爭，史稱為壬辰倭亂。最終明朝為保護朝鮮派兵助戰，成為了一場東北亞三國之間的一場國際性戰爭。關於此，詳參崔官，『壬辰倭亂：四百年前的朝鮮戰爭』(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3)。

30) 所謂丙丁之役，是指兩場後金(1616~1636年) 政權向朝鮮發動的戰爭，即丁卯之役(1627~1628年) 及丙子之役(1636~1637年)。丁卯之役，朝鮮不敵後金，在位不久的仁祖(李倧，1595~1649年，1623~1649年在位) 被迫逃難漢陽，在江華島避難，後來後金擔心明朝反擊，故立刻簽訂了『江華島條約』，朝鮮被迫成為兄弟之國，停止奉明朝年號。丁卯之役後，朝鮮只與後金成為兄弟，並未改變了明朝與朝鮮的關係。於是，在政治及軍事的需要上，後金認為需要向朝鮮發動多一場戰役去確保朝解 '事清', 而放棄 '事明'。有關此，詳參劉家駒，『清朝初期的中韓關係』(臺北：文史哲出版社，1986)，頁1-48，頁99-148。並參李光濤，『記明季朝鮮之 '丁卯虜禍'與 '丙子虜禍'』(臺北：中央研究歷史語言研究所，1972)，頁2-21。

木、狩獵、偷竊等原因，越江前往東北地區時，被清廷官員捉拿，然後禮部知會，而朝廷每次都需要對清國為這些問題作出解決辦法,[33] 而及後更引發了清廷有意釐清中朝邊界，希望籍此避免犯越問題再發生。

當中，又以李萬枝事件的越境為重要的導火線，亦引發了穆克登到當地處理有關事宜，並籍此到朝鮮邊界進行勘界。1711年，李萬枝(生卒不詳) 等人越江前往採蔘期間，被人發現，於是便將十多個清人殺掉，後被朝廷捉拿，並要求朝鮮派人前往會審。[34] 結果，刑曹參議宋正明(1670~1718年) 便前往鳳凰城參與有關會審，以及譯官金指南兒子金慶門(1673~1737年) 處理有關事務，維護朝鮮人的權益。[35] 而同時間打牲烏拉總管穆克登亦籍此機會到當地查案的同時，利用此機會前往朝鮮邊界進行勘界。

另一方面，在壬辰倭禍以後，朝鮮王朝(1392~1910年) 曾實行鎖國政策，嚴禁與日本進行交流。[36] 隨著日本政權的改變,[37] 朝鮮王朝有關的禁令亦慢慢解除。於是，朝鮮王朝因應各種的原因，先後向日本江戶德川政府， 派送了12次通信使團,[38] 一般文獻之中他們均稱對日之間的活動為交隣。無論是純粹的政治或是經濟的考慮，他們都按特定的路線與安排，前往日本，完成各種使行禮節及目的。由於行政與使行的需要，很多時候都需要譯官擔當溝通以及收集情報的工作。[39] 因此，譯官的培訓成為了朝鮮朝廷處理對事務的重要事項。

從以上背景的基本說明，可以了解到朝鮮譯官當時所經歷的國際環境以及他們往往需要處理參與各種對外的事務，維護國家的權益。而事實上，金指南正正出身於這個時代，為朝鮮一方，一方面維持朝貢體系的運作，解決各種社會問題，還是更重要的是，從外界取得各種有利朝鮮的資訊、書籍以及各種得益。故可看見的說明，可以更能理解到當時朝鮮譯官在該時代的特殊作用。

---

31) 『同文彙考』是朝鮮時代對外文書的重要輯錄。關於此，詳參鄭昌順等編，『同文彙考』(臺北：珪庭出版社，1978)；韓翠花，「一部研究中、朝關係史的珍貴資料——『同文彙考中朝史料』評介」，『東北史地』，2006年第2期(2006年4月)，頁80-81。

32) 有關的紀錄，詳參崔韶子的著作，關於此，詳參崔韶子，『清과 朝鮮——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서울：혜안，2005)，頁35-40。

33) 如康熙29年(1690年) 林戒先等朝鮮人越界偷參後，朝廷需處治那些朝鮮人外，亦特別提到將邊界官員作處治，以讓清廷放心。關於此，詳參鄭昌順等編，『同文彙考』，卷52，犯越，「禮部咨會遣官審擬咨」，頁15b-16a。

34) 崔韶子，『清과 朝鮮——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頁38-39；並參鄭昌順等編，『同文彙考』，卷53，犯越，「禮部知會再追查官會同前遣司官按查咨」，頁31b-32b。

35) 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肅宗實錄』，卷50，肅宗37年3月庚子，頁12a。

36) 金健瑞編，『增正交隣志』，首爾：首爾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2007，卷5，「通信使行」頁217-219。

37) 豐臣秀吉在1598年突然病逝，前線軍官決定撤軍，但這多年來的戰役，導致日本元氣大傷，讓德川家康利用這次機會擴大自己的勢力，最終一步一步地建立起幕府，自己成為控制日本全國大權的征夷大將軍。關於此，詳參羅麗馨，「豐臣秀吉侵略朝鮮」，『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第35期(2011年5月)，頁33-74。

38) 中村榮孝，『日鮮關係史の研究』，東京：吉川弘文館，1969，下冊，頁242-244。

39) 關於譯官，特別是學習日語，專門從事日語翻譯工作的 '倭學譯官'在對外關係的過程中扮演相當重要的角色的研究，詳參이상규，「17세기 전반 왜학역관 康遇聖의 활동」，『한일관계사연구』 24(2006年4月)，頁101-141；이상규，「17세기 초중반 왜학역관 洪喜男의 활동：통신사 파견시 수행역관 활동을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 26(2007年4月)，頁233-272。

Ⅲ. 金指南的生平與事功

金指南，字季明,[40] 號廣川先生,[41] 為岑城牛峰人。[42] 關於金指南的生平事蹟，已詳列於他本人與其兒子金慶門有份編撰的『通文館志』之中，而大致上，其經歷大致上可以分為出使日本、出使中國、翻譯文書以及擔任穆克登勘界團的朝鮮譯官代表及於濟州島擔當解決潮州漂流民事件的譯官。

與其他譯官一樣，金指南都需要通過雜科考試。在朝鮮時代，由於最高級的文科及次一等的司馬試是不容許兩班子弟以外身份的人參加。換言之，兩班以外的中人及平民，只能考再次一級的雜科考試。[43] 雜科考試包括醫科、籌科、律科及譯科等科，及格後，會按科目安排到朝廷，擔任非決策，但實際參與行政事務的吏員，如譯官、醫官、籌員等……換言之，這些雜科考試及第的人，都只是身份不高的中人。而事實上，金指南的父親，就是曾任戶曹籌士的金汝義(1598~1657年),[44] 而牛峰金氏是朝鮮典型的中人家庭。[45]

由於父親僅為社會地位不高的中人,[46] 故金指南亦只能參與雜科考試。他選擇了參加譯科考試。而他於康熙11年(1672年) 的譯科考試中，取得了二等及格的成績，並任命為漢學教誨資憲知樞,[47] 時年19歲。在擔任譯官期間，獲得了多種成就，最終被朝廷更被逐步從低位，慢慢走上司譯前正及司譯院正等重要職位。[48]

而從金指南的生平，可以窺探到一般譯官在對外關係活動之中，所扮演的角色及功能。首先，他在入職於司譯院後，便獲得朝廷的認許，安排了他於1682年，參與當年的通信使。自德川幕府建立後，每當將軍

---

40) 金指南，金慶門，李湛編，『通文館志』，서울：서울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2006，卷7，頁432。

41) 其號之名可見於和韓集中，日本人稱金指南為‘金廣川’。關於此，詳參金指南、金慶門、李湛編，『通文館志』，卷7，頁432。

42) 牛峰位於朝鮮八道的黃海道，鄰近開城，亦是往返中國與朝鮮漢城的必經之路。按『東國輿地勝覽』的記載，牛峰故名為牛岑，故亦稱為岑城，高句麗時期已設郡，後於朝鮮改為縣。關於此，詳參盧思愼、李荇等編，『新增東國輿地勝覽』(서울：東國文化社，1958)，第3冊，卷42「黃海道」，頁58-65。

43) 關於文科、司馬科及雜科的考生資格具體研究，詳參李成茂，『韓國의 科擧制度』(서울：集文社，2000)，頁187-210。

44) 金指南的墓碑已介紹金指南為金汝義之次子。關於此，詳參牛峰金氏繼仝公派宗中，『牛峰金氏繼仝公派世譜』(서울：족보나라，2012)，頁155。

45) 在朱子學思想影響下，朝鮮王朝為十分重視家族身份的國家。最上層者皆為士人組成的兩班階層，而兩班階層壟斷了朝廷多年來的政治權利，他們為國家的決策者。而次一等的平民或庶出的兩班後人，則只能參加雜科考試。雜科考試為各種行政及技術官僚的考試，當中包括譯學、醫學、算學等，入職於朝廷後，亦只能擔任堂下官，除非有特殊功績，否則很難改任為堂上官。關於朝鮮王朝的身份制度問題，詳參梨花女子大學校史學科研究室編，『朝鮮身分史研究——身分과 그移動』(서울：法文社，1987年)；另關於牛峰金氏的家門形成的討論，詳參白玉敬，「朝鮮 後期 牛峰金氏 가문의 門中形成과 宗稧 －繼仝公派를 中心으로－」，『역사민속학』46(2014年11月)，頁271-310。

46) 我們可以從『朝鮮王朝實錄』中的一些上言來說明譯官等中人階層在朝鮮時代地位低微的情況。例如世宗22年，譯官李興德(生卒不詳) 被批評 ‘出身譯語，常往來中原，多以彩帛納賂權門，雖以譯語之賤，常兼數任，時人鄙之。’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卷91，世宗22年12月3日壬申，頁15B。
除此之外，李興德亦於端宗(李弘暐，1441~1457年，1452~1455年在位) 年間曾自稱 ‘本係微賤’，可見譯官亦知道自己的身份低微。關於此，詳參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端宗實錄』，卷4，端宗即位年12月29日丁巳，頁28A。
成宗13年4月時，亦有言官上言表示：‘醫、譯之流，皆出賤微，非士族也。’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成宗實錄』，卷140，成宗13年4月13日辛亥，頁13A。

47) 司譯院編，『譯科榜目』，서울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藏(編號：古4650-4-v.1-2)，頁37。譯科考試一般最高等為一等合格，最低等為三等，而當屆合格者僅有19人，其中一等3人，二等5人，三等11人。

48) 金良洙，『조선후기 中人집안의 발전——金指南、金慶門등牛峰金氏事例』，頁42。

更替後，德川幕府均派對馬島的代表前往朝鮮半島，通知有關變動,[49] 而朝鮮朝廷亦打破壬辰倭禍以後停止與日本交往的慣例，重新與日本人接觸。1681年，當第四任將軍德川家綱(1641~1680年) 因病去世，由他的弟弟德川綱吉(1646~1709年) 繼任大將軍職位，成為第五任幕府將軍。[50] 獲悉有關消息後，當時的朝鮮肅宗(李焞，1661~1720年，1674~1720年在位) 便決定籌備使團前往日本。於是，在1682年，由戶曹參議尹趾完(1635~1718年) 擔任正使、司僕寺正李彥綱(生卒不詳) 擔任副使及前校理朴慶後(1644年~？) 擔任從事官，合共總數四百七十三人前往江戶的通信使使團,[51] 於1682年5月出發。時任漢學前正的金指南在當次使團，負責擔任押物通事,[52] 並協助使臣使團中的各種需要，主要協調各個小通事的工作及處理禮節性工作。[53]

另外，作為漢學譯官的金指南，雖然在行程中，他主要工作不在翻譯，又不通日語，但是當他接觸到語言相關疑難，他便有特別考察。當時，他在江戶附近的品川時，在附近的佛寺，遇到一位懂得漢語的僧人。於是，與他有一段的對話。

> 余偶以漢音私謂曰：'人同話不同。'其倭聽之，喜而漢語曰：'字同音不同。'余甚訝之，更問：'你從來理會華語麼？'
>
> 對曰：'略略學些，試問數句，粗能酬對。'
>
> 余仍攜來所館，問其學語之由。
>
> 曰：'大君之從祖水戶候門下，多有醫師畫工方術之類，而尤留意於諸國言語，轉譯朝鮮琉球安南暹羅彷語之人，並皆處以別館，厚廩尊奉，而俺乃西京之人也，自幼從學於避世唐僧土木子，稍有所悟，故昨年赴其召，而土木子既死，無路進益，水戶心常慨惜，寤寐不置，今逢尊公，幸莫大焉，願乞煩教，俾之發蒙。'
>
> 余曰：'事大交隣，有國之不可已者，環人之職，寄象之官，自古有之，則你國何獨不然，而水戶之私蓄技藝之人，抑亦何意耶？且所謂土木子，以中國何地僧，避何人難，自何年從何路來居倭京乎？今其死經幾歲，而年又幾許耶？'
>
> 曰：'獘邦與中國，不啻如風馬牛也。剖判以來，迄不相通，而琉球暹羅安南，則相去遠近，帆有利鈍，往來無常，有似一域，而貴國之語則馬島之人，多能通曉，用是國無置員講習之規矣。然水戶宰以吾君至親，富貴無比，倚任且重，捐俸養士，為國盡誠，俺之來此，亦荷三聘之眷

49) 金健瑞編，『增正交隣志』，서울：서울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2007，卷5，「通信使行」，頁282-283。

50) 金健瑞編，『增正交隣志』，卷5，「通信使行」，頁282。

51) 雖然日本實行天王制，理應通信使只應前往京都。但是，在日本歷代天王都被掌握實權的大將軍架空，故通信使實際目的地是大將軍的居住地。而德川幕府當時建府於江戶，故通信使前往的地方便是江戶。關於此，詳參李元植，『朝鮮通信使』(서울：民音社，1991)，頁334-336。

52) 漢學前正為司譯院為漢學譯官中最高級的官職，而由於當時通信使需一位漢學出身，擔任押物通事，即負責協調貢品及禮品安排的譯官。金指南，『金譯士東槎日錄』，民族文化推進會編，『國譯海行摠載』(서울：民族文化推進會，1981)，頁40。

53) 另一點值得留意的是，金指南的『東槎日錄』是一個日記式的行程記載，相對於該團的首譯洪禹載(1644年~？) 同一次的記載中，金指南所展示的，是將使團每一天的經過，全部鋪陳出來。而洪氏則將自己在使團中的感受呈現。因此，可以說金指南紀錄了這次通信使的安排及情況。關於此，詳參金指南，『金譯士東槎日錄』，頁41-53；並參洪禹載，『洪譯士東槎錄』，民族文化推進會編，『國譯海行摠載』(서울：民族文化推進會，1981)，頁25-39。

> 耳，土木子則本非出家之類，而因明世政亂，始以強壯之年，來此為僧。寄身於西京黃蘗山萬世菴及其死也。年已八十七，而茶毗之後，已經三歲矣，其為人，與人寡合，言亦慎默，住蘗山五十年，不一日與人戲謔菴僧數百，無一人得其容接者。俺一人獨見親愛，而亦不詳其始終，相以孤介之性，不忍官吏之暴，住舟所泊，於此藏身云。信如此倭之言，則土木子，似乎賢焉者也。雖然避世藏名，自有其道，山南水北無處不可，而乃忍離親戚棄墳墓道海陸萬千里，必居於跣足涅齒之鄉，而祝髮毀冕。苟活八十者，亦獨何心哉。'
>
> 貢使之行，解倭語者隨之，信使亦有漢學通事。此乃朝廷之深思遠見也，水戶倭之培養重譯之人，其亦希甩乎此耶，但不於公而於私則未知其可也。[54]

金指南在這次的對話中，發揮了他作為漢學譯官的功能。我們可以看到在日本之中，這些懂得漢語的僧人，往往也能夠讓使節對日本有更多的認知。在金指南這次的對話之中，不但能夠了解到水戶藩與德川幕府的關係,[55] 特別是擔當對外連繫的責任，亦能夠了解到當時有一部份中國人，就像文中所提及的土木子一樣，因逃避明末戰亂，而遷至日本。使團成員與日本人的對話並不是一日就結束，由於語言上的無阻，所以 '其倭連日來候，條事質問。'[56]

語言是朝鮮士人與外界關係的隔閡，儘管筆談可解決問題，但是更細緻的對話，還是能夠以口語相傳更為直接及實際。因此，往往一些更深入的對談，譯官還是有其關鍵作用，以金指南與日本僧人的對話為例，可讓我們了解到明清易代後，一群流亡於日本的中國人生活情況以及日本人的對外語言培訓策略。可見，金指南作為通信使譯官，不但成為這麼龐大的使團其中一名，懂得各種安排的重要人員，而且也打開了日本與朝鮮之間的非官方文化交流，亦能呈現出朝鮮當時對外溝通的方法。[57]

金指南不但前往過日本，他還參與過多次中國有關的事務。1688年，廣東漂流民漂至濟州島，他亦獲朝廷委派到全羅道的海南處理漂流民遣送的工作。[58] 當時有數十位的南方商民坐船先從潮州南出港購買物資，經浙江普陀澳，欲往南京蘇州等地方，但從普陀澳起航後，中途遇上海難，故漂流至濟州島，其中63名船民之中，只有15人獲得生存。在接待的同時，金指南亦不忘從這些南方船民了解當時的海洋形勢，其中金指南從他們得知鄭克塽歸順清廷後，海禁重開，並且特別紀錄了關於臺灣的事情，並將有關手本呈上。[59] 由此可見，在處理各種語言上的對話，譯官仍相當重視相關的對外情報，利用機會掌握之中。

---

54) 金指南，『金譯士東槎日錄』，頁49。

55) 水戶藩與德川幕府有親密關係的大名之一，當大將軍無嗣時，往往需由水戶藩入嗣任大將軍，故其地位超然。因此，他們協助幕府處理各種國內外事宜是理所當然的。關於此，詳參安德魯・戈登著，李朝津譯，『二十世紀的日本：從德川時代到現代』(香港：中文大學出版社，2006)，頁49。

56) 金指南，『金譯士東槎日錄』，頁49。

57) 關於金指南是次通信使參與的過程，已有不少學者對之作出了研究。有關研究，詳參白玉敬，「역관 김지남의 일본 체험과 일본 인식："동사일록"을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第10期(2006年10月)，頁169-198；Eunji Jung, "Korean Clothing and the Emperor of Japan in the 1682 Korea Embassy to Japan," *Acta Koreana* 13.1(2010): 35-51.

58) 「備邊司啟濟州漂流漢人的發遣與支給」，國史編纂委員會編，『備邊司謄錄』，서울：國史編纂委員會，1982，第42冊，肅宗14年9月20日。

59) 金指南，『金譯士東槎日錄』，頁；此外，關於該次漂流的研究，可參考박현규，「1688년 조선 濟州島에 표착한 潮州 출항선 기록 검토」，頁29-46。

於1692年，他亦曾擔當了當年由燕行使團的朗原君李侃(1640~1699年) 及閔就道(1633~1698年) 率領的冬至使行。[60] 在此次燕行期間，金指南特別被閔就道委任，要求他搜索煮硝之法。據『通文館志』記載 '本國煮硝,素無善方，用功多而所得少，壬申隨閔尚書就道赴燕，尚書命公購求其方試之，所得倍蓰品，又精猛藥泉。'[61] 而他亦在『新傳煮硝方』中的〈得硝法始末〉亦記載到,[62] 閔就道特別向金指南要求取得煮硝方之重要性。'煮硝一方自祖宗朝，欲得其妙，而終不能致之，爾若求得幸莫大也。'[63] 在閔就道的要求下，金指南以其個人的能耐，查訪中國各地，尋找有關書籍。最終金指南於東北遼東城之中，查訪一老人而獲得，並在多次往中國後取得全書內容。「得硝法始末」有記載金指南搜索煮硝之方法。

> 指南於是購求其方，靡不用極，而無處不腕。歸抵遼陽，潛叩村舍，得一人焉遺之，金而問之始得其術。[64]

在燕行的過程中，他得了這本朝鮮一直期待獲得的書籍，並在回國後，被南九萬(1629~1711年) 要求下，將之翻譯為諺文，以供軍人以及製造軍火的人員閱讀。而金指南這項事功，獲得了朝廷的高度認許。

> 南相國啟令武庫，按方窯取，仍令公撰次成書，名曰『新傳煮硝方』，刊布中外，自是其法。[65]

另外，他於1711年擔任當年的冬至使使團譯官期間，特別向朝鮮朝廷匯報，有關清廷希望調查犯越事宜的情況。

> 回還冬至使，到瀋陽狀啓曰：譯官金指南、醫官李時弼等，聞瀋陽將軍之言，禮部郎以主事河順，爲查官，今聞以主事秩卑，郎中一員竝來，故瀋陽改以副都統托六，爲初定差官蘇馬拉之代。且聞北京差官，三月十日離發，四月四五日間到瀋陽，與瀋陽官，初十日間當往鳳城。皇上分付差官，必令住在鳳城，查得殺人處，而勿爲過江，貽弊於朝鮮，犯越事查奏後，仍往白頭山，而皇旨使從大國地方作行，或不得已自朝鮮地方過去，勿令朝鮮支待云矣。[66]

從上述的『朝鮮王朝實錄』記載，有兩點值得注意。首先，獲悉朝廷派京官到瀋陽查犯越事宜，並非由一般的朝鮮使團在禮部與禮部官員見面，或在北京交遊期間獲知。相反，視事大使行為工作一部份的譯官，

60) 金指南，金慶門，李湛編，『通文館志』，卷9，頁45b。
61) 金指南，金慶門，李湛編，『通文館志』，卷7，頁432-433。
62) 『新傳煮硝方』現藏於서울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2013年7月，筆者獲得該院的資助，進行檔案研究，特此向該院致謝。金指南，『諺解新傳煮硝方』(서울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藏，古 662.2-G421s)。
63) 金指南，『諺解新傳煮硝方』，「碍硝法始末」，頁19。
64) 金指南，『諺解新傳煮硝方』，「碍硝法始末」，頁19。
65) 金指南、金慶門、李湛編，『通文館志』，卷7，頁433。
66) 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肅宗實錄』，卷50，肅宗37年3月16日，頁12b。

經常於北京以外的地區與官員接觸，讓他們能夠知道更多中國朝廷的事情以及官方活動無法獲得信息。此外，由於他及早得知康熙皇帝(愛新覺羅玄燁，1654~1722年，1661~1722年在位）有意前往朝鮮邊界,[67] 故及早有所準備，以使後來的勘界團，金指南參與接伴期間有特別充足的準備。

雖然表面上，清廷派出打牲烏拉總管穆克登,[68] 以調查當年所發生的朝鮮邊民越境殺人的事件,[69] 但實際上康熙皇帝希望他‘乘此便至極盡處詳加閱視，務將邊界查明來奏。’[70] 曾嘗試於1711年，事前未有知會朝鮮，朝鮮領土登山勘界，但被朝鮮官員以各種籍口，成功阻止了他前往長白山天池的勘界計劃。[71] 於是，1712年，清廷正式發出通知予朝鮮。

1712年的查界，得到了正式的咨文而獲得了查界的機會。[72] 接伴使由議政府右參贊朴權(1658~1715年）擔任，熟悉當地事務的咸鏡道觀察使李善溥(生卒不詳）一同陪同。此外，熟悉清與朝鮮之間情況的譯官金指南被任命為穆克登(1664~1735年）查界團的隨團譯官。[73] 其中，任命他的主要原因，可從『朝鮮王朝實錄』的一段記載窺探。

> 備邊司啓言：譯官金指南，當初親聞瀋陽將軍之言，以爲：“皇上分付差官，必令住在鳳城，勿爲過江，貽弊朝鮮。”今遣金指南，以口語詰責，似可得力。[74]

由此可見，對於朝廷而言，能操流利漢語，與清廷官員對話，最為優勢。然而，金指南由於年老關係，與朴權及李善博一樣，未有實際陪同穆克登到白頭山的天池，改由金指南兒子金慶門及年輕的譯官金應瀗陪同前往。[75] 不過，金指南卻為整次查界的種種，著下了重要的『北征錄』，記載了整件事的發生經過,[76]

---

67) 康熙皇帝查界的原因主要有兩點，第一中朝邊界不清，以致私相越界從事各種伐木、採參等經濟活動。但更重要的是，1707年起，康熙著手派人編纂『皇輿全覽圖』期間，並在傳教士張誠(Jean-François Gerbillon，1654~1707年），白晉(Joachim Bouvet，1656~1730年）等人協助下，在傳教士雷孝思(Jean Baptiste Regis，1663~1738年)、杜德美(Pierre Jartoux，1668~1720年)，費隱(Ehrenbert Xavier Fridell，1673~1743年）等人實際進行探查地形，完成了『盛京全圖』、『烏蘇里江圖』『黑龍江口圖』、『熱河圖』等。然而，朝廷卻發現長白山地區，特別是鴨綠江、圖們江之間不甚詳細。為了解決有關地理勘查的問題，朝廷決定派人前往當地進行勘界。關於此，李花子，『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以越境交涉為中心』(延吉：延邊大學出版社，2006年)，頁88-93；並參秦國經，「18世紀西洋人在測繪清朝輿圖中的活動與貢獻」，『清史研究』，1997年第1期(1997年2月)，頁38-39。

68) 穆克登，是滿洲鑲黃旗官員，曾在京城擔任皇帝侍衛，及後調遷到吉林擔任總管，並奉康熙帝之命處理朝鮮人越境以及中朝之間邊界問題。關於他的生平，詳參趙爾巽，『清史稿』(北京：中華書局，1976~1977)，卷283，列傳70，「覺羅武默訥」，頁10177。

69) 李花子，『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以越境交涉為中心』，頁67-75。

70) 『清聖祖實錄』，北京：中華書局，1985，卷25，康熙50年5月癸巳，6b-7b。

71) 當時派往接待的宋正明，引領穆克登走入地勢絕險的道路，促使穆克登認為無法前往長白山天池進行勘查，只好回國覆命，再從長計議。詳參李花子，『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以越境交涉為中心』，頁96-100。

72) ‘平安監司兪集一，以勅使牌文出來事啓聞。其文曰：“欽差正使頭等侍衛阿齊圖護獵摠管穆克登，奉命前往朝鮮國，五月初二日起行。詔書一道、御杖一對、欽差牌貳面、回避肅靜牌四面、黃傘貳柄、五官司曆。六品通官三員、跟役十九名。”’關於此，詳參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第40冊，『肅宗實錄』，卷53，肅宗39年5月壬辰，頁499。

73) 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肅宗實錄』，卷51，肅宗38年6月壬戌，頁32b。

74) 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肅宗實錄』，卷51，肅宗38年4月丙戌，頁22a

75) 『萬機要覽』是19世紀初著名學者沈象圭(1766~1838年）及徐榮輔(1759~1816）所編的著作，是一本朝鮮晚期重要的百科全書，在「軍政篇5」的白頭山定界提到：‘我國遣接伴使朴權，咸鏡道巡察使李善溥(1646~1721年)，譯官金慶門等，接應

可見作為譯官對於涉及朝鮮與對外關係時，即使未能親身參與，仍需處理若干重要的工作。[77] 由此可見，譯官在對外使團以及接待外使兩種對外處理的事務中都需要協助其中。

此外，雖然是次接伴使為朴權，但似乎朴權對於如何爭論卻無從入手，可以從『朝鮮王朝實錄』的資料提及到他只是臨危受命,[78] 儘管委以重任，但亦不知如何以有力的證據與清廷一方爭論邊界。他曾嘗試提出以『盛京通志』作證明，白頭山以南為朝鮮境之說。但是，及後卻被朝廷其他官員質疑，此為禁書，不可讓清廷得悉有關事情，故只好再從長計議。[79]

那麼，朝鮮一方由誰與穆克登爭論？『朝鮮王朝實錄』曾提到朴權在接伴穆克登期間，'使譯官越去候問'。[80] 但到底是甚麼譯官負責與穆克登呢？然而，再考察金指南所撰寫的『北征錄』，便會發現，與穆克登討論兩國界線的人，提出朝方主張，正是熟悉中國事務的金指南及其兒子金慶門。

在行程期間，金指南努力向穆克登表示朝鮮王朝就江源及邊界的主張。在金指南的『北征錄』中，我們可以看到金指南如何代表王朝去爭取朝鮮的主張。當時，金指南表示：'總官招余謂："我們此行，專為看審邊界而已。雖上天入地，當依你們所指示而往。你今明說你國邊界，果何如耶？"余答曰："長白山巔大池之南，是吾邊界之意，當初有訴，今何改說。" 總官曰："然則勢將登山以去。"'[81]

當穆克登決定登山勘界時，金指南卻因年老關係，穆克登不讓他陪同，以使他未有親身前往天池。但是穆克登在天池的觀察及最終的決定，正正就是當初金指南通知他的說法，他沒有過份質疑。結果，穆克登到達天池後，認同長白山天池正是鴨綠江與圖們江之間的分界，並決定於當地立碑。[82] 可見，這種說法，

克登。克登以權與善溥年老不許偕行，率慶門等，上白頭山……'關於此，詳參沈象圭、徐榮輔編，『萬機要覽』(京城：朝鮮總督府中樞院，1938年)，頁621；並參李花子，「清代長白山踏查活動及對三江源的記述」，『韓國研究論叢』 23(2011年)，頁421-422。

76) 金指南引錄了當時陪同穆克登的金慶門、金應瀗(김응헌，1663年~？) 等馳報及手本而組成的資料，故金指南雖然未有親自前往天池，但是仍然對於整件事件起了重要的作用。關於此，詳參李花子，「康熙年間穆克登立碑位置再探」，『社會科學輯刊』 197(2011年12月)，頁189。

77) 關於金指南在穆克登登山的過程之中的貢獻與作用的討論，詳參이상태，「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歷史와實學』 33(2007年9月)，頁75-119。

78) 朝廷原定任命接伴使權尚游，但 '接伴使權尚游，巡撫湖南時，重傷水土，疾病不輕。似當許遞，而宰臣中朴權，明敏善應變，請代送。'
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肅宗實錄』，卷51，肅宗38年3月戊戌，頁16a。

79) '接伴使朴權辭陛啓言："淸國『盛京誌』，明有白頭山南，是朝鮮境之說，請齎往行中，如有爭端，以此書爲證。"上從之。其後議者多言，"『盛京誌』是禁物，彼若詰問其從何得來，則生事可慮。"上又從其言，命勿爲出示。'
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肅宗實錄』，卷51，肅宗38年3月丁未，頁17b。

80) 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肅宗實錄』，卷51，肅宗38年5月丁亥，頁22a。

81) 金指南，『北征錄』(京城：朝鮮史編修會，1945年)，頁101。另外，金慶門亦以相同的論調，嘗試與穆克登交涉。『朝鮮王朝實錄』與金慶門口述，洪世泰撰之『白頭山記』均有記載有關啟狀。
總管曰：'爾能明知兩國界耶？'
答以：'雖未目見，而長白山巔有大池，西流為鴨綠江，東流為豆滿江，大池之南即我國界。上年皇帝招同時，亦以此仰對矣。'
又問：'有可據文書耶？'
答以：'立國以來，至今流傳，何待文書耶？'
又問：'白山之南，連有把守耶？'
答以：'此地絕險，人跡不至，故荒廢無把守，有同大國柵門外之地耳。'
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肅宗實錄』，卷51，肅宗38年5月丁亥，頁22a；洪世泰，『柳下集』，서울：民族文化推進會，1988，第167冊，『白頭山記』，卷9，頁15b-16a。

是與金指南及其兒子金慶門的想法有相當地的關係，亦確認了長白山以南的皆為朝鮮領土。[83]

此外，朴權與金指南等官員因年老不能上山，故特別向穆克登要求登山後的'山圖'，以便向朝廷交代，免除責任，這是作為接伴使領導朴權也沒有想得這麼仔細的一件事。[84] 還有的是，考察期間，穆克登發現大批朝鮮平民，紛紛到中國所屬地方，大規模伐木，而穆克登本有意向朝廷匯報。但金指南的解釋讓他改絕主意。

前日臣權，到茂山時，首譯金指南來言：'侍衛以佃獵事，越往彼邊，還後密言曰："大國境樹木，無數斫伐，車載船運之跡，極其狼藉。爾國吏民，可謂不畏法禁矣。"指南答以江邊無識之民，有此可駭之事誠極寒心，而此事一發，當死者甚多，以老爺惻隱之心，何忍爲此耶？侍衛曰："吾當含默，但隨行人之口，恐難盡掩也。'"[85]

上述的例子可見，無論作為使團的成員，還是接伴使的助手，金指南都是一個盡責的譯官。不但在語言上的翻譯，協助朝鮮解決了若干疑難，還按其長處，協助朝鮮取得了，當時認為是相當重要的成就。而事實上，他更被推恩加階至 '知中樞府事'。[86]

後來，金指南更被相國崔錫鼎(1645~1715年) 委以重任，負責展開編製『通文館志』的工作。[87] 由於司譯院與承文院等禮曹機構收集了大批與燕行相關的資料，但未有作出任何整理。對於處理對外關係，似乎需要一本書籍，以供後來的譯官及外交人員作參考。於是，朝廷委以金指南參與編撰工作，然而，全書未能完成，他先後離世，並最終由其子金慶門完成。[88] 但是，當中不少部份皆由金指南所撰寫，且他對於燕行及對中事務有親身參與的經歷，讓『通文館志』對於後世的譯官及相關人員使用，帶來了莫大的方便，亦為學界研究明清兩代與朝鮮關係的建立及特殊性，有很大的幫助。

觀其一生，雖然他不幸於撰寫『通文館志』期間去世，未能完成有關任務，但可從中發現他對於朝鮮康熙年間與中國事務的運作，有相當大的貢獻，從他的數十年生平事蹟，可以窺探出譯官並非單純的技術官僚，朝鮮對外的關係聯繫的建構中，特別是政治及文化等領域，他們的角色都不分忽略。與此同時，他們擔當的媒介角色，正正是朝鮮社會對譯官的一種期盼而得出的結果。

Ⅳ. 翻譯規範與東亞文化交流史視野下的金指南

上文討論過他任職譯官期間的各類事功以及對朝鮮的貢獻，現將其所作出的貢獻並置於翻譯規範的概念

82) 後世對於立碑的正確位置有很大的爭論，有學者認為朝鮮人故意讓穆克登到小白山頂，後來才移至長白山。因為長白山是鴨綠江與松花江的分水嶺。然而，這種說法並沒有足夠的史料支撐，而本文亦只集中討論譯官的意義，故不詳述爭論。關於此，詳參李花子，『明清時期中朝邊界史研究』，頁183-184。
83) 李花子，『明清時期中朝邊界史研究』，頁45。
84) 李花子，『明清時期中朝邊界史研究』，頁40-41。
85) 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肅宗實錄』，卷51，肅宗38年6月壬戌，頁32b。
86) 金指南、金慶門、李湛編，『通文館志』，卷7，頁435。
87) 金指南、金慶門、李湛編，『通文館志』，上冊，卷7，頁435。
88) 金指南、金慶門、李湛編，『通文館志』，上冊，序，頁1-3。

之中去了解與分析，並解構在東亞文化交流史的視野下，朝鮮譯官的活動與舉動是如何同時背負著朝鮮社會對譯官工作的期盼，以及同時展示出他們作為文化之間對話互動過程之中，不可忽略的媒介。

首先，於1692年，閔就道要求金指南參與燕行期間，尋找有關煮硝的書籍，以供朝廷使用。硝是當時重要的火藥原材，對於朝鮮軍事發展有很有幫助的，但是朝鮮國內的煮硝法品質不高，亦花費不少，故對火藥發展帶來障礙。[89] 然而，金指南因其語言的優勢，能夠深入鄉郊，於遼東城附近，找得一位中國老人有相關書籍。這個事例，可反映譯官協助朝鮮士人擴闊了以往的獲取中國書籍的渠道，不再單純於北京琉璃廠，而是更實際地深入民間。而且，使行正、副使往往一生只有一兩次機會參與出使活動，但譯官能多次出入中國。由於得知有老人還收藏此書後，由於一次的，未能盡得其書內容，故金指南在閔就道的要求下，多次往返中國，最終取得了有關書籍。

> 閔公歸奏筵席，別遣指南於癸酉歲使之行，使盡其詳而後，中令嚴法重，故人亦畏，而秒之前後訪問之際，幾死者數矣。朕而盡心得間，反覆質正，一再往來，盡傳而法，歸而試於私，隨手即成真妙方也。[90]

而他們又由於能操流行的漢文與諺文，自然可以讓書籍流通於兩班士人階層以外的人，皆能夠閱讀各種從中國搜獲的漢文書籍。而事實上『新傳煮硝方』就是一個很好的例子，金指南取得該書後，並獲得朝廷高度認許。而當時的相國南九萬為了使內容更為流通，便向朝廷要求讓金指南將『新傳煮硝方』進行翻譯，他認為透過翻譯成諺文，將可讓更多人有機會接觸該書，亦可令此書流傳更長久。

> 金指南所學煮硝之法，若以文字作為方文，傳示中外，則可以廣其學習，亦可傳諸之久。令指南作為文字備述其法令，軍器寺刊布中外何如？[91]

而事實上，雖然朝鮮王朝大部份文獻皆以漢字撰寫，但是朝鮮人使用的語言是韓語，而低下階層能容易理解的文字亦只有諺文。[92] 故漢字文化圈之中，並不能單純以漢字或筆談能夠全面地表達出文化交流的過程，相反，中國知識傳遞至朝鮮社會或其他漢字文化圈地區，譯官擔當了重要的角色。然而，值得一提的是，縱使譯官擔當著這樣的重要媒介工作，將知識進行傳播與普及化，但問題來自的是當時的社會期盼，是朝廷渴望從中國取得相關知識，而需要依賴譯官作出相關的行動作出對應，故譯官之媒介行為的構成往往關乎到當時的社會需求，而有所改癟。

此外，在關係到朝鮮與清廷的政治問題之中，譯官的角色也非常重要。『通文館志』的記載，充份反映了朝鮮王朝在穆克登登山的過程中，十分依賴金指南完成有關使行，亦可從中看見當中朝鮮朝廷微妙之關

89) 詳參朱晶，「古朝鮮引入與改進火藥和火器的歷史研究」，『東疆學刊』，第25卷第1期(2008年1月)，頁37。
90) 金指南，『諺解新傳煮硝方』，「碉硝法始末」，頁20。
91) 金指南，『諺解新傳煮硝方』，「碉硝法始末」，頁23。
92) 林東錫，『朝鮮譯學考』，頁77-78。

係，是重要的功臣。

> 壬辰，帝令烏喇總管穆克登行審鴨綠江，以上至土門江入海處查明邊界。先是我東雖知兩江為界，而白頭[中原人則謂此山為長白]以南，長白以北幅員幾千餘里，自古荒廢。輿志所載語多謬誤，故朝野駭惑多過慮。至於交章論說，接伴使朴尚書權啟帶公(注：金指南) 往與論辨。公謂穆曰，夫兩江作界，自古已定，而兩江之源出自白頭山頂潭水，潭之北為上國之界，其南即吾地。反覆曉告，穆果大悟，遂導至山巔立碑，潭畔以為界，又畫山形疆域作為二本一進 皇帝，一置本國，以為左契。[93]

雖然『通文館志』為司譯院內部文件撰寫而成的資料，自然對金指南有所追捧。[94] 但是，從上文所提及過的勘界經歷，亦不能否認的是，金指南擔當了關鍵的角色。而事實上，金指南在與中國交涉期間，他不但只是僅僅的接伴團員，而是按照朝鮮的期盼，與中國代表穆克登爭論有關邊界，而完成任務的關鍵人物。而事實上，譯官因各種公務能多次往返中國,[95] 且在其教科書上，對於中國方面的知識，以及邊界的實際情況有豐富的知識。[96] 在這種文化背景之下，金指南自然能夠代表朝鮮，與中國爭論邊界的具體安排。而由於中國官員礙於東北地區知識的困乏，無徵可信，亦只能信任朝鮮譯官的主張，形成了當日的邊界結果。

而且，高級士人礙於語言限制以及思想上的排斥，在接伴的過程中，根本沒有機會安坐於桌前，以筆談與中國官員對話，爭取朝鮮朝廷期望的權益。在這樣文化空間下，譯官的角色更為重要，而金指南以及其兒子金慶門在穆克登勘界的每一刻皆陪伴著，並與穆克登作出不同的對話，亦為朝鮮的立場努力爭辯，最終取得了朝鮮朝廷預期看見的成績。由此可見，這都顯示出譯官在關係到疆界的議題之中，發揮了顯著的功用。

從金指南上述的經歷，讓我們可以了解到譯官從多個面向建構及影響著朝鮮在17世紀末到18世紀初的對外關係。從語言上來說，金指南等譯官為朝鮮與清廷或是日本之間的各種對外事務帶來種種的方便。由於他們語言上的支援以及文書上的翻譯，以金指南為例，他將中國的書籍翻譯，又在語言上為朝鮮的立場據理力爭，可見當中之間他們作出的作用，為朝鮮帶來期望的結果。此外，譯官會按朝鮮朝廷希望了解中國各方面情況的因素之下，經常從不同地方收集對外的知識情報，例如金氏在通信使團或是濟州的任務期間，也不忘將中國社會的情報收集，並呈上手本，讓朝廷了解。從這些角度的觀察下，也可看見到譯官的行為因朝廷的需求，不再單純擔當語言上溝通或翻譯的工作，也涉及到文化傳播、情報收集以及爭取朝鮮權益更多層次的作用。其中一個金指南的一次的使行工作，足可印證朝鮮譯官的工作如何為朝鮮在一些對外事務的交道之中取得有利的條件。金指南曾被政府委派於1710年，到當年的燕行使入京途中，與盛京將軍松柱(中國資料稱之為嵩祝，1657~1735年) 見面，並就歲貢問題，與他積極與之對談。[97] 據通文館志記載：

---

93) 金指南、金慶門、李湛編,『通文館志』，上冊，卷7，頁433-434。

94) 而事實上，主要作者就是其兒子金慶門。

95) 以金指南為例，他曾於1692至1711年期間，有多種紀錄提及他曾往返北京、東北地區及朝鮮半島，又曾於濟洲島處理漂流漢人的事，故能夠有特別多機會接觸漢人和理解中國事務，關於此，詳參金指南,『金譯士東槎日錄』,「戊辰九月初四日濟州漂漢人處問情手本」，頁53。

96) 專責訓練譯官的司譯院，不只是單語的外語訓練機構，而且是一個專責協調各種對外的‘事大’或‘交鄰’事務。而他們所編的『同文考略』、『通文館志』均反映他們有足夠的資料，去理解有關各種中國事務，特別是邊界事宜。

庚寅，隨東平尉鄭輪崙赴燕，偶與瀋帥松柱語數日，盛陳我國家恪謹侯度柱後入面奏 皇帝，自是帝多蠲省於本國。[98]

而事實上，據中國方面的紀錄，嵩祝於康熙50年(1711年) 完成盛京將軍職務後，便回京擔任禮部尚書。[99] 而按大清會典事例，'五十一年(1712年) 諭，朝鮮國慎守封圻，恪循儀度。四十餘年來，未嘗稍懈。朕用嘉美，將該國貢典，屢加裁減。'[100] 故金指南的意見得以改變了朝鮮的朝貢安排，也符合了朝鮮的期盼，可見朝鮮譯官在媒介的角色發揮的時候，是考慮著朝鮮社會的需求，而作出了各種貢獻，這一較少學者曾關注的例子，似乎足以證明相關的論述。

從朝鮮對外活動的脈絡下，可以理解到朝鮮譯官的工作，有別具意義的存在價值，特別是金指南等漢語譯官能精通漢語，使臣都自然不刻意去收集資訊或去認識中國，轉移依賴譯官與中國官員周旋、對話或辯論，並取得朝鮮期待取得的信息。而金指南的經歷，協助我們了解關係的建立及其具體操作，並非由兩班階層的朝鮮士人參與，而只是當中的報告者及負責者而已。從朴權的啟狀可看見，雖然朴權為穆克登勘界團接伴使，但是他向朝廷匯報朝方的主張及部署都是引述金指南或其兒子的工作。換句話說，與中國官員溝通，代表朝鮮爭取朝鮮情況，甚至書籍的搜購，都是譯官處理及參與。故士人固然提供了不少理據，讓我們理解到朝鮮人對清廷的觀感以及策略的變化，但是關係的維持及建構，似乎不可忽略譯官的語言及外交手段。而這種手段亦可轉移為了解在朝鮮社會在17~18世紀的華夷觀轉變的社會之下，如何採用了不同的譯官作為重要的媒介，處理對外的事務。過去只從文獻看的或許讓我們忽略當中交流過程的具體建構。

V. 結 論

朝鮮譯官的研究，在過去當然已獲得不少學者很多的關注以及肯定他們的學術價值，但似乎發展的空間仍然有不少，其中值得理解的是譯官如何擔當這些媒介角色，與此同時這些媒介角色是受著甚麼的因素而作出相對的行為，均是過去學術研究未有特別留意的問題。但隨著翻譯研究中的規範觀念使大家對於翻譯行為背後的社會與文化期盼有所重視，並且東亞文化交流史的新視野提出等多方面的學術研究方法的發展幫助下，讓研究文化交流史的視野，更為關注在具體的運作與過程之中，亦因此使譯官的媒介形象，能以各種交流過程的例子之中得以形象化的說明，並且了解到有關的媒介的形成，與朝鮮社會與國家政策是不

97) 金良洙，『조선후기 中人집안의 발전 : 金指南、金慶門 등 牛峰金氏事例』，頁42。
98) 金指南、金慶門、李湛編，『通文館志』，上冊，卷7，頁433。
99) 清史稿載：「四十八年，署奉天將軍。海盜舟泊雙島，挾火器出掠，遣兵擊殺三十餘人，得其舟一。疏請山東水師兼巡奉天屬金州鐵山，又請選盛京滿洲兵千人習鳥槍，設火器營，皆從之。遷禮部尚書。」，趙爾巽等撰，『清史稿』(北京：中華書局，1976年)，卷267，「列傳54・嵩祝」，頁9973。
100) 崑岡等修、劉啟端等編，『欽定大清會典事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第6冊，卷503，禮部214 「朝貢2・貢物1・康熙51年」，頁822。

可分開的。

此外，臺灣學者黃俊傑留意到不少現時的東亞文化交流史的研究，大多關注的是文化交流後的成果，以朝鮮為例，北學、西學在朝鮮半島的發展正是這樣的研究趨向，但他卻提出這樣的文化交流研究應轉向為重視交流的過程及當中的細節，當中人與人之間交往、物品的交易等，都是值得商討，並引發更多的討論的角度。而事實上，透過了解譯官金指南的活動，卻可了解到在文化交流的過程之中，擔當媒介的譯官們如何掌握資訊，並扭轉結果，甚至是促進了彼此文化之間人物交往更為緊密，這些都是對於細節的掌握，有助認識文化交流脈絡發展與變化的關鍵。而金指南無論在擔任何外交以及翻譯的任務時，他的行動及相關細節，往往對事情起予關鍵的作用，這亦是如若研究只探討著文化交流結果，而忽略文化交流過程會所忽略的研究，而本文藉著黃俊傑的想法，確認了譯官在文化交流過程中的作用，並探討這些對於東亞文化互動所帶來的影響。

本論文透過了解研究個案中，朝鮮譯官金指南的各種對外活動的經歷以及其身處的時代背景，了解朝鮮譯官在擔任各種重要的職務，特別是協助朝臣時，如何以漢語與中國官員周旋，以達成各種目標，又翻譯朝鮮社會需求的書籍，並實際參與各種影響朝鮮日後國家發展的關鍵事件，這些的翻譯行為正正符合當時朝鮮社會的需求與期盼。故此，透過東亞文化交流史與翻譯研究的新視野切入重新了解朝鮮譯官，不但使大家重新關注東亞文化之間，除了文化交流的結果之外，譯官的媒介角色是在朝鮮社會對於朝鮮社會因應當時環境而所期盼的結果，而且，也使學界可以透過新史料發掘與新視野的切入，為東亞文化交流史研究仍存在的空白填補。

〈參考文獻〉

一、原始史料

『清聖祖實錄』，北京：中華書局，1985。

李宜顯，『庚子燕行雜識』，林基中編，『燕行錄全集』，서울：東國大學校出版部，2001。

沈象圭、徐榮輔編，『萬機要覽』，京城：朝鮮總督府中樞院，1938。

林東錫，『朝鮮譯學考』，臺北：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1982。

金指南，『北征錄』，京城：朝鮮史編修會，1945。

金指南，『金譯士東槎日錄』，民族文化推進會編，『國譯海行摠載』，서울：民族文化推進會，1981。

金指南，『諺解新傳煮硝方』，서울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藏，古 662.2-G421s。

金指南、金慶門、李湛編，『通文館志』，서울：서울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2006。

金健瑞編，『增正交隣志』，서울：서울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2007。

洪世泰，『柳下集』，서울：民族文化推進會，1988。

洪禹載，『洪譯士東槎錄』，民族文化推進會編，『國譯海行摠載』，서울：民族文化推進會，1981。

國史編纂委員會編,『朝鮮王朝實錄』, 서울 : 國史編纂委員會, 1986,『太祖實錄』、『太宗實錄』、『世宗實錄』、『端宗實錄』、『成宗實錄』、『肅宗實錄』。

崑岡等修、劉啟端等編,『欽定大清會典事例』,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5。

趙爾巽,『清史稿』, 北京 : 中華書局, 1976~1977。

鄭昌順等編,『同文彙考』, 臺北 : 珪庭出版社, 1978。

鄭麟趾,『高麗史』,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72。

盧思愼、李荇等編,『新增東國輿地勝覽』, 서울 : 東國文化社, 1958。

二、近人論著－專著

Chesterman, Andrew. *Memes of Translation*. New York: John Benjamins, 1997.

Hsu, Immanuel C.Y.. *The Rise of Modern Chi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Toury, Gideon. *The Nature and Norms in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2004.

牛峰金氏繼仝公派宗中,『牛峰金氏繼仝公派世譜』, 서울 : 족보나라, 2012。

白玉敬,『朝鮮前期譯官研究』, 서울 : 韓國研究院, 2000。

安德魯・戈登著, 李朝津譯,『二十世紀的日本 : 從德川時代到現代』, 香港 : 中文大學出版社, 2006。

李元植,『朝鮮通信使』, 서울 : 民音社, 1991。

李光濤,『記明季朝鮮之 '丁卯虜禍' 與 '丙子虜禍'』, 臺北 : 中央研究歷史語言研究所, 1972。

李成茂,『韓國의 科擧制度』, 서울 : 集文社, 2000。

李花子,『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以越境交涉為中心』, 延吉 : 延邊大學出版社, 2006。

李哲成,『朝鮮後期對清貿易史研究』, 서울 : 國學資料院, 2000。

金良洙,『조선후기 中人집안의 발전——金指南、金慶門등牛峰金氏事例』, 서울 : 백산자료원, 2008。

姜信沆,『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 서울 : 塔出版社, 1978。

徐東日,『朝鮮朝使臣眼中的中國形象——以『燕行錄』『朝天錄』為中心』, 北京 : 中華書局, 2010。

崔官,『壬辰倭亂 : 四百年前的朝鮮戰爭』,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崔韶子,『清과 朝鮮——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清與朝鮮——近世東亞的相互認識), 서울 : 혜안, 2005。

梨花女子大學校史學科研究室編,『朝鮮身分史研究——身分과 그移動』, 서울 : 法文社, 1987。

楊雨蕾,『燕行與中朝文化關係』, 上海 : 上海辭書出版社, 2011。

劉家駒,『清朝初期的中韓關係』, 臺北 : 文史哲出版社, 1986。

鄭光,『朝鮮朝譯科試卷研究』, 서울 :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75。

鄭光、藤本幸夫、金文京編,『燕行使와 通信使——燕行・通信使行에 관한 韓中日 三國의 國際워크숍』。

三、近人論著－單篇論文

Jung, Eunji. "Korean Clothing and the Emperor of Japan in the 1682 Korea Embassy to Japan." *Acta Koreana* 13.1(2010): 35-51.

王振忠,「朝鮮柳得恭筆下清乾嘉時代的中國社會——以哈佛燕京圖書館所藏抄本〈泠齋詩集〉為中心」,『中華文史論叢』90(2008年6月)。

朱晶,「古朝鮮引入與改進火藥和火器的歷史研究」,『東疆學刊』,第25卷第1期(2008年1月)。

李花子,「康熙年間穆克登立碑位置再探」,『社會科學輯刊』197(2011年12月)。

谷小溪,「由『燕行錄』看清初朝鮮士人的華夷觀——以李宜顯『燕行雜識』為中心」,『哈爾濱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5卷第6期(2013年11月)。

金良洙,「朝鮮開港前後 中人의 政治外交 : 譯官 卞元圭 등의 東北亞 및 美國과의 활동을 중심으로」,『역사와 실학』12(1991年1月)。

禹景燮,「宋時烈의 華夷論과 朝鮮中華主義의 성립」,『震檀學報』101(2006年6月)。

禹景燮,「朝鮮中華主義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한국사연구』159(2012年12月)。

范金民、羅曉翔,「朝鮮人眼中的清中期中國風情——以崔斗燦『乘槎錄』為中心」,『史學集刊』,2009年第3期(2009年5月)。

徐仁範,「조선전기 연행록 사료의 가치와 그 활용」,『명청사연구』30(2008年10月)。

烏雲高娃,「朝鮮司譯院蒙古語教習活動研究」,『中央民族大學學報(人文及社會科學版)』,第28卷第4期,總137期(2001年7月)。

崔韶子,「明清時代對外關係史의 成果과課題」,『明清史研究』19(2003年月份缺)。

崔韶子,「"燕行錄" 연구를 위한 제언」,『명청사연구』30(2008年10月)。

張敏,「韓國譯學源流考」,載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編,『韓國研究論叢』22,上海 :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2009。

黃俊傑,「作為區域史的東亞文化交流史 : 問題意識與研究主題」,『臺大歷史學報』43(2009年6月)。

楊雨蕾,「燕行錄所記的北京琉璃廠」,『中國典籍與文化』,2004年第4期(2004年9月)。

楊聯陞,「中國文化的媒介人物——聯合國中國同志會第一七○次座談會紀要」,『大陸雜誌』,第15卷第4期(1957年8月)。

葛兆光,「從 '朝天'到 '燕行'——17世紀中葉後東亞文化共同體的解體」,『中華文史論叢』,2006年第1期(總81期) (2006年6月)。

裴英姬,「『燕行錄』的研究史回顧(1933~2008年)」,『臺大歷史學報』43(2009年6月)。

劉家駒,「康熙皇帝的集權與激變」,『東吳歷史學報』2(1996年3月)。

劉婧,「通過董文煥日記攷朝鮮詩文集流入 中國及朝鮮譯官的作用」,『동아인문학』12(2007年12月)。

鄭恩主,「燕行使節의 西洋畵 인식과 寫眞術 유입 : 北京 天主堂을 중심으로」,『명청사연구』30(2008年10月)。
韓翠花,「一部研究中、朝關係史的珍貴資料——『同文彙考中朝史料』評介」,『東北史地』, 2006年第2期(2006年4月)。
박현규,「1688년 조선 濟州島에 표착한 潮州 출항선 기록 검토」,『동북아문화연구』14(2008年3月)。
백옥경,「역관 김지남의 일본 체험과 일본 인식 : "동사일록"을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10(2006年10月)。
羅樂然,「乾隆禁教期的耶穌會士在華活動——以劉松齡為研究中心」,『中國史研究』82(2012年12月)。
羅樂然,「燕行使團擔任文化媒介的朝鮮譯官——以金慶門為研究中心」,『漢學研究』, 第33卷第3期(2015年9月)。
원재연,「17~19세기 연행사의 북경 내 활동공간 연구」,『동북아역사논총』26(2009年12月)。
이상규,「17세기 전반 왜학역관 康遇聖의 활동」,『한일관계사연구』24(2006年4月)。
이상규,「17세기 초중반 왜학역관 洪喜男의 활동 : 통신사 파견시 수행역관 활동을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26(2007年4月)。
이상규,「조선후기 川寧玄氏家의 譯官活動」,『한일관계사연구』20(2004年4月)。
이상태,「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역사와 실학』33(2007年9月)。
장경남,「조선후기 연행록의 天主堂 견문기와 西學 인식」,『우리文學研究』26(2009年2月)。
장안영,「18세기 지식인들의 눈에 비친 역관 통역의 문제점 고찰 : "노가재연행일기"·"을병연행록"·"열하일기"를 중심으로」,『어문론집』62(2015年6月)。
진재교,「18세기 동아시아와 知識·情報의 메신저, 譯官」,『韓國漢文學研究』47(2011年月份缺)。

四、近人論著－學位論文

金良洙,『朝鮮後期의 譯官身分에 관한研究』, 서울 : 延世大學校歷史學科博士論文, 1986。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4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12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국문초록 ▐

동아시아문화교류관점에서 조선역관의 역할
- 역관김지남의 활동을 중심으로 -

나락연*

요즘 수많은 “연행록”과 관련된 자료들이 정리와 출판하고 나서 동아시아 각 국에서 명청시대와 조선시대의 교류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과 조선에 대한 교류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역관에 대한 연구도 점차 주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나라 康熙 때 활동하였던 조선 역관인 金指南은 청인 穆克登이 주도한 勘界團에서 역관으로서 많이 활동하였다. 또한 김지남이 외교 사절로 외국에 가는 동안 한반도에서 찾기 어려운 서적들을 한반도에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 지식인이 관원에게 더욱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도 많이 하였다. 이외에 그는 司譯院 院正에 재직하였을 때 “通文館志”도 편찬하였다. 이로 인해 김지남이 여러 방면에서 중국과 조선 외교 교류할 때 큰 역할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한국과 중국에서 출반된 “通文館志”·“譯官上言謄錄”·“北征錄”·“東槎日錄”과 아직 출반되지 못한 “新傳煮砂方”을 통해서 김지남 등 역관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대외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긴지 그들의 영향을 어디까지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서 김기남 등 역관들이 그 당시에 끼친 영향은 언어의 통·번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맡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김지남, 조선역관, 연행사, 조선-청나라 관계

* 홍콩대학 요종이학술관 /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교 중문학과

▌Abstract ▐

The Role of Chosŏn Interpreter by the Perspectives of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The Study of Kim Chi-nam's Activities

Lok-yin Law*

Recently, history of the interaction between Qing and Chosŏn was flourishing in the field of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because of the publication of *Yŏnhaengrok* providing a lot of valuable historical sources. Scholars in East Asia can utilize the sources by the new perspectives to farther more information to solve the pervious limitation in the academia. Besides the leaders of *Yŏnhaengsa*, the contribution on the interaction between China and Korea of the mission members, such as *Yŏkkwan* (Official Interpreters), cannot be ignored.

This article aims to study on the case of Kim Chi-nam(1654~1718) to identify how his works influenced the relationships between Qing China and Chosŏn Korea. He was appointed as the accompanying interpreter for the Mukedeng(1664~1735) mission of demarcation in the border between Chosŏn and Qing. In this duty, he was assigned to deal with the decision of the border with the Chinese officers. He was also demanded by the leaders of *Yŏnhaengsa* to collect some precious books during his duty in China. He also translated those books in Hangul to help the local officers to read it. Since he was promoted to be the head of ministry of interpretation because of his good records of the duty, he started to collect the information for the interpreters for editing *T'ongmunkwanchi* to help all of us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the interaction between Qing and Chosŏn. It can be found that, Kim Chi-nam was the good case to understand how Interpreters were significant for the historical relationships between China and Korea in Qing period.

Therefore, this article will try to investigate the documents which has already published or unpublished Chinese and Korean documents, such as *T'ongmunkwanchi*, *Yŏkkwansangŏn dŭngrok*, *Pukchŏngrok*, *Sinchŏnchasapang*……etc. to grasp the knowledge about the role of Kim Chi-nam and other Chosŏn interpreters in the Kangxi period by the theory of translation studies and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to re-understand the agent role of Chosŏn interpreters.

[Key Words] Kim Chi-nam, Chosŏn interpreters, *Yŏnhaengsa*, Qing and Chosŏn Relations

* Ph.D, Program, Division of Chines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Researcher, Jao Tsung-I Petite Ecole, University of Hong Kong

東洋學 第62輯(2016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조선시대 外交儀禮의 특징*

김 문 식**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조선시대의 外交儀禮를 통해 동아시아 삼국의 국가적 위상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문에서는 동아시아 삼국이 외교문서를 교환하는 절차와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에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외교의례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다.

중국 황제와 조선 국왕은 철저하게 君臣 관계에 있었다. 조선 국왕은 황제에게 외교문서를 보낼 때나 황제의 외교문서를 받을 때 반드시 군신의 예를 거행하였다.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에서도 군신 관계가 잘 나타났다. 예부상서가 조선 사신을 접대할 때에는 두 사람이 군신 관계에 있었고, 조선 국왕이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는 대등한 항례를 했다.

중국에서 조선 사신의 지위는 명대보다 청대에 더 격하되었다. 조선 사신을 위한 연회는 장소가 숙소에서 禮部로 바뀌었고, 황제에게 더 어려운 예를 거행한 후 더 적은 술잔을 받았다. 황제가 주는 선물을 받을 때에도 사신은 황제의 궁궐이 아니라 궁궐 입구에서 받았다.

조선 국왕과 일본 關伯은 대등한 항례를 했다. 국왕과 관백은 사신을 파견하여 國書를 전달하였고, 이 때 사신은 국왕과 관백에게 군신의 예를 거행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도 대등했다. 일본에서 조선 사신은 대마도주, 막부의 관리들과 항례를 했고, 일본 사신이 조선에서 대접받은 의례도 이와 비슷했다.

조선에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는 전기와 후기가 달랐다. 조선후기에는 대마도주가 사신을 파견했으며, 이 사신은 동래부사를 만나고 국왕을 만나지는 못했다. 조선전기에는 예조판서와 일본 사신이 항례를 했지만, 조선후기에는 동래부사와 일본 사신이 항례를 했다.

1864년 일본의 天皇이 복권되면서 동아시아 삼국의 국가적 위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 조선에서 일본의 천황과 대등한 항례를 한 것은 大韓帝國의 황제가 등장한 이후였다.

[주제어] 외교의례, 외교문서, 국왕, 황제, 關伯

▌목 차▐

Ⅰ. 머리말
Ⅱ. 外交文書에 나타나는 특징
Ⅲ. 使臣의 接待 儀禮에 나타나는 특징
Ⅳ. 맺음말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 사학과 교수 / kmsik@dankook.ac.kr

Ⅰ. 머리말

조선시대의 국제관계는 중국과는 事大 관계, 일본과는 交隣 관계를 맺었다.[1] 조선은 중국의 황제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朝貢이라 불리는 方物을 보냈고, 중국의 황제는 이에 대응하여 回賜라 불리는 답례품을 주었다. 조선에서 새 국왕이 결정되면 황제는 그를 국왕으로 책봉하면서 국왕의 임명장이라 할 誥命과 국왕이 사용할 印信을 주었다.[2] 조선의 국왕은 황제에게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자신을 '臣'이라 불렀다. 한편 조선은 일본에 대해 조공을 보내거나 국왕의 책봉을 받는 절차가 없었다. 조선의 국왕과 일본의 국왕으로 간주되는 關伯(將軍)은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國書를 교환하면서 우호 관계를 지속할 뿐이었다. 조선 국왕은 관백에게 보낸 외교문서에서 朝鮮國王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고 상대방을 '日本國大君'이라 불렀다. 조선의 국왕과 일본의 관백은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3]

필자는 조선시대의 外交儀禮를 살펴보면 조선이 주변국들과 가졌던 事大·交隣 관계의 실상과 동아시아 三國의 국가적 위상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조선을 기준으로 하여 조선과 중국, 조선과 일본이 외교문서를 발급하고 접수하는 과정이나 자국을 방문한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를 비교해 보면 삼국 사이에 존재하는 국가적 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고는 조선시대의 외교의례를 통해 韓·中·日 삼국의 국가적 위상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外交文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외교문서를 발급하고 접수하는 주체와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의례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중·일에서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와 조선에서 중·일의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본고의 자료로는 주로『國朝五禮儀』를 비롯한 國家典禮書와『通文館志』『同文彙考』등을 활용하였고, 年代記 자료와 외국을 방문한 使臣이 남긴 여행기를 보완적으로 검토하였다.

Ⅱ. 外交文書에 나타나는 특징

1. 외교문서의 발급자와 접수자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낸 외교문서에는 表文, 箋文, 狀文, 奏文, 咨文, 啓文, 申聞, 呈文, 單子 등이 있었다.

---

1) 동아시아 국가의 朝貢·冊封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성과를 참조.
全海宗,『韓中關係史硏究』一潮閣, 1970, 26~112쪽.
김한규,「전통시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역사비평』2000년 봄호, 2000, 282~298쪽.

2) 필자는 청 황제가 英祖를 조선의 王世子와 國王으로 책봉하는 절차를 검토한 바 있다(「英祖의 國王冊封에 나타나는 韓中 관계」,『韓國實學硏究』23, 2012).

3) 조선과 일본의 외교의례에 대해서는 하우봉,「조선시대의 통신사외교와 의례문제」,『朝鮮時代史學報』58, 2011을 참조.

이와 별도로 조선 사신이 현지에서 이동하면서 작성한 문서가 있었다. 조선 사신이 파견된다는 사실을 명대의 遼東都司나 청대의 盛京에 알리는 先文, 압록강을 건널 때 요동도사의 관원에게 알리는 渡江狀, 柵門을 들어설 때 제출하는 入柵報單, 중국 內地를 이동할 때 필요한 票文을 발급받으려 제출하는 咨文이 이에 해당하였다.[4]

모든 외교문서에는 발급자와 접수자가 있었다. 19세기 전반에 정약용은 조선에서 청으로 보내는 외교문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외교문서의 접수자를 중심으로 한 발언이었다.

> 황상(皇上)에게 올리는 것을 '표(表)'라 하고[섭정왕(攝政王)에게 올려도 '표(表)'라 한다], 황태자(皇太子)에게 올리는 것을 '전(箋)'이라 하며, 황후(皇后)에게 올리는 것을 '장(狀)'[방물장(方物狀)만 있다]이라 한다. 일이 있어 황상에게 알리는 것을 '주(奏)'라 하고, 일이 있어 예부(禮部)에 보고하여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을 '자(咨)'라 한다. 진주(陳奏)할 때에 황태자에게 올리는 것을 '계(啓)'라 하고, 황후에게 올리는 것을 '단(單)'[방물단(方物單)만 있다]이라 한다. 대상(大喪)이 있을 때 정부의 대신이 예부에 보고하는 것을 '신문(申文)'이라 하고, 사신(使臣)이 일이 있어 예부에 알리는 것을 '정문(呈文)'이라 한다. 그 문체가 각각 다르다.[5]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낸 외교문서의 발급자와 접수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表文 : 朝鮮 國王 → 中國 皇帝
箋文 : 조선 국왕 → 중국 皇太子, 皇后
狀文 : 조선 국왕 → 중국 황후
奏文 : 조선 국왕 → 중국 황제
咨文 : 조선 국왕 → 중국 禮部(會同館 提督 → 禮部 → 儀制司)
啓文 : 조선 국왕 → 중국 황태자
申文 : 조선 議政
呈文 : 조선 使臣 → 해당 衙門
單子 : 조선 국왕 → 중국 황후

이를 보면 조선에서 보낸 외교문서의 발급자는 國王, 議政, 使臣이 있고, 접수자는 皇帝, 皇后, 皇太子, 衙門이 있었다. 다만 황태자에게 보내는 문서의 경우 淸 康熙帝 이후로는 儲位祕建法이 시행되어 황태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실제로 발급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조선에서 새 국왕이 즉위하면 王大

4) 김경록, 「朝鮮初期 對明外交와 外交節次」, 『韓國史論』 4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0, 35쪽.
5) 『事大考例』 권24, 「表咨考」 1.
"進於皇上曰'表'[進於攝政王, 亦稱'表'], 進於皇太子曰'箋', 進於皇后曰'狀'[只有方物狀]. 有事而陳於皇上曰'奏', 有事而報於禮部, 冀其轉達曰'咨'. 其陳奏之時, 進於皇太子曰'啓', 進於皇后曰'單'[只有方物單]. 大喪之時, 政府大臣, 報於禮部曰'申文'. 使臣有事, 陳於禮部曰'呈文'. 其體各殊."
6) 김경록, 「조선시대 事大文書의 생산과 전달체계」, 『韓國史硏究』 134, 2006, 41~42쪽.

妃가 발급자가 되어 새 국왕과 왕비의 책봉을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가령 1724년 10월에 대왕대비로 있던 仁元王后는 청 황제에게 영조를 국왕으로 책봉하고 그 부인인 徐氏를 왕비로 책봉해 줄 것을 요청하는 奏文을 보냈다.

> 첩(妾)이 이때 부인(婦人)으로 피혐(避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삼가 전례(典禮)를 따라 주문(奏文)을 갖추어 세제(世弟) 이금(李昤)을 책봉하여 국왕을 승습(承襲)하게 하고 처 서씨(徐氏)를 왕비로 책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7]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외교문서는 使臣의 임무에 따라 종류가 다양했다.[8] 조선에서 파견한 사신에는 '節行'과 '別行'이 있었다. 먼저 節行은 元旦, 冬至, 聖節, 千秋와 같은 節日에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사절로 처음에는 正朝使, 冬至使, 聖節使, 千秋使 등이 있었다. 이 중 천추사는 崇德 연간(1636~1643)에 폐지되고 그 대신 歲幣使를 두었고,[9] 1645년(인조 23)에는 청 황제의 명령으로 元朝使, 冬至使, 聖節使와 歲幣使를 합하여 '冬至使'라 했다. 동지사는 반드시 正使, 副使, 書狀官 3員을 갖추었고 일 년에 한 번씩 파견했다.[10] 다음으로 別行은 일이 있을 때마다 파견하는 사절로 謝恩使, 奏請使, 進賀使, 陳慰使, 傳香使가 있었고, 辨誣使와 問安使가 추가되었다.[11]

다음의 〈표 1〉은 조선 사신들이 가져가는 외교문서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조선 사신의 외교문서 (단위: 通)[12]

문서 \ 사신		冬至 正朝	聖節	謝恩 陳賀	奏請 陳奏	陳慰	告訃	問安
表文	御前	2[13]	2	2	2	2	2	2
	方物	2	2	2				2
箋文	皇太子前	2		2		2	2	
	方物	2		2				

7) 『同文彙考 原篇』 권2, 封典2, 甲辰(1724), 「請世弟嗣位奏 互陳奏」(1724. 10. 6).
"妾於斯時, 有不可以婦人嫌避者, 謹遵典禮, 具奏欽請冊世弟諱, 承襲國王, 妻徐氏爲王妃. 伏惟皇上, 天地父母, 特令該部, 誕降誥命, 使小邦臣民, 獲覩寵光, 不勝幸甚."

8) 1780년 乾隆帝의 칠순을 축하하는 陳賀謝恩使가 주고받은 외교문서에 대해서는 구범진, 「조선의 건륭 칠순 진하특사와 『열하일기』」, 『인문논총』 70,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9~17쪽 참조.

9) 1632년(인조 10)에는 冬至兼聖節千秋使가 파견되었다(『仁祖實錄』 권26, 仁祖 10년 6월 乙酉(19일)).

10) 『大淸會典』 권39, 禮部, 「主客淸吏司」.
"凡入貢, 各定其期. [朝鮮每年四貢, 於歲初, 合進.]"

11) 『通文館志』 권3, 事大上, 「赴京使行」.
陳慰使는 관례상 進香使를 겸하였다. 正使는 陳慰使가 되고 副使는 進香使가 되었다. 問安使는 중국 황제가 巡幸을 하다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국경에 이르면 보내는 사절을 말한다.

12) 『通文館志』 권3, 事大上, 「文書賚去摠數」.

13) 正本 1통과 副本 1통을 합한 것이다.

문서 \ 사신		冬至 正朝	聖節	謝恩 陳賀	奏請 陳奏	陳慰	告訃	問安
狀文	皇太后前	1	1	1				
奏本	年貢		1					
	方物				1			
咨文	禮部	3[14]	3	3	4	2	2	1
單本	皇太后前				1			
啓本	皇太子前				1			
祭文	進香					1		
揔單	禮物		1	1	1			1

한편 중국에서 조선으로 보내는 외교문서는 발급 주체에 따라 皇帝文書와 官府文書로 구분되었다. 황제가 보내는 황제문서에는 詔, 誥, 制, 勅, 冊文, 諭, 書, 符, 令, 檄 등이 있었고, 주로 翰林學士가 작성했다. 여기에서 符, 令, 檄은 황제의 명의를 위임받는 관청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황제가 발급한 문서는 아니었다. 조선에서 받은 황제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왕을 책봉하는 誥命이었고, 황제가 조선 국왕을 책봉할 때 내리는 문서에는 冊封詔와 頒誥命彩幣勅이 있었다.[15] 이와 별도로 중국 관청에서 발급하는 관부문서에는 奏本, 啓本, 照會 등이 있었다.

중국에서 조선으로 보낸 외교문서의 발급자와 접수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6]

詔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천하에 포고하는 것
誥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5품 이상 관리에 대한 封典
制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조정 백관에게 宣示하는 것
勅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6품 이하 관리에 대한 封典, 특정 사안을 특정 지역에 내림
冊文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諭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書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旨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14) 御前 表文과 方物表文에 대한 禮部咨文 1통, 皇太后前 狀文에 대한 예부자문 1통, 皇太子前 箋文과 方物箋文에 대한 예부자문 1통을 합하여 3통이다. 이때의 예부자문은 해당 문서를 황제, 황태후, 황태자에게 전해달라고 예부에 요청하는 進呈咨에 해당한다.

15) 『大淸會典』 권39, 禮部, 「主客淸吏司」.
"○ 凡封外國, 必錫之詔勅[朝鮮奏請襲封, 勅下部議, 應封世子或世弟世孫某爲國王. 妻某氏爲王妃, 題請頒詔勅各一道. 遣使持節往封.]. 初內附, 則錫之印[崇德二年, 朝鮮國王李倧內附, 賜龜鈕金印.]."
여기서 "題請頒詔勅各一道"는 冊封詔 1道와 頒誥命彩幣勅 1道를 의미한다.

16) 金暻綠, 「朝鮮後期 事大文書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2005, 185~188쪽; 金暻綠, 「明代 公文制度와 行移體系」, 『明淸史硏究』 26, 2006, 126~131쪽.

奏本 : 해당 아문
啓本 : 해당 아문
照會 : 해당 아문

이를 보면 중국에서 보낸 외교문서의 발급자는 皇帝와 衙門이고, 접수자는 대부분 조선의 국왕이었다.

다음으로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외교문서의 위상도 대등했다.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외교문서에는 國書와 書契가 있었다. 조선후기의 국왕은 일본의 실제 통치자인 關伯에게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3차례에 걸쳐 國書를 보냈고,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국서를 받았다.[17] 書契는 조선의 禮曹參判과 막부의 老中, 禮曹參議와 대마도주, 釜山鎭 僉使와 대마도주 사이에 주고받은 외교문서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對馬島宗家文書'를 보면,[18] 1614년부터 1872년까지 조선에서 대마도로 보낸 각종 서계의 원본이 9,442점이나 남아있다.[19] 서계는 양국이 서로 주고받는 문서였으므로 대마도에서 조선 예조에 보낸 서계까지 고려한다면 총 2만점에 가까운 분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0]

조선과 일본이 교환하는 외교문서는 발급자와 접수자의 위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음의 〈표 2〉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 상대와 호칭, 교환한 외교문서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조선과 일본의 외교 상대와 외교문서[21]

조선	일본	호칭	외교문서
國王	關伯	殿下	國書
禮曹參判	老中(執政)	閣下	書契
禮曹參議	對馬島主(對馬太守)	足下 → 閣下	
禮曹佐郎	萬松院	足下	
	以酊庵	足下	
	兒名圖書使	閣下	
	長老	足下	

한편 동래부와 倭館 사이에는 국서나 서계와 같이 공식문서는 아니지만 실무문서로 주고받은 傳令이나 覺이 있었다. 이는 실무자끼리 교환하는 실무문서에 불과하지만 조선 정부에서 내린 결정이나 지침을 왜관에

17)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國書는 『同文彙考』에 수록되어 있다.
18) 對馬島宗家文書는 1926년(大正 15)과 1938년 두 차례에 걸쳐 朝鮮史編修會가 대마도 종가에서 구입한 자료이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記錄類 6,592점, 繪圖類 1,485점, 古文書類 11,200점, 書契 9,442점, 印章 22점을 합하여 총 28,741점이 있다(泉澄一, 「對馬島宗家文書의 分析 연구」, 『국사관논총』 7, 1989).
19)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9,442점의 書契 가운데 原本은 9,325점, 寫本은 117점이며, 1685년의 書契는 산일되었다.
20) 孫承喆,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硏究』, 국학자료원, 1999, 134쪽.
21)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174쪽;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景仁文化社, 2011, 8쪽.

전달하여 외교적 사안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넓은 의미의 외교문서라 할 수 있다.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외교문서의 발신자와 접수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2]

國書 : 조선 國王 ⇄ 일본 關伯
書契 : 조선 禮曹參判 ⇄ 일본 老中
조선 禮曹參議 ⇄ 對馬島主
조선 釜山鎭 僉使 ⇄ 대마도주
傳令 : 東來府使, 接慰官 → 倭館 館守
覺 : 동래부사 ← 왜관
東來府 譯官 ⇄ 倭館 館守, 裁判, 代官

다음의 〈표 3〉은 동아시아 삼국이 교환한 외교문서를 조선을 중심에 두고 정리한 것이다.

〈표 3〉 조선시대 동아시아 삼국의 외교문서

중국	외교문서	조선	외교문서	일본
皇帝	表文, 奏文(←) 詔, 誥, 制, 勅, 冊文, 諭, 書, 旨(→)	國王	國書(⇄)	關伯(將軍)
皇太子	箋文, 啓文(←)	국왕		
皇后	箋文, 狀文(←)	국왕		
禮部	咨文(←)	국왕		
	申文(←)	議政		
衙門	呈文(←) 奏本, 啓本, 照會(→)	使臣		
		禮曹參判	書契(⇄)	老中
		禮曹參議	書契(⇄)	對馬島主
		接慰官 東萊府使	傳令(→) 覺(←)	倭館
		釜山僉使	書契(⇄)	대마도주
		東萊 譯官	覺(⇄)	왜관

〈표 3〉을 보면 조선과 중국이 교환한 외교문서는 종류가 다양했지만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외교문서는 매우 제한되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했고 황실 가족에게 吉事

22)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景仁文化社, 2011, 150~239쪽.

나 凶事가 있을 때에도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일본으로는 關伯의 경사나 교체,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사신을 파견했으므로 외교문서의 종류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외교문서에서 국왕문서는 國書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실무 관리들 사이에 교환하는 문서였다.

조선 국왕은 중국의 禮部와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문서를 보냈고, 중국의 황제와 황후, 황태자에게는 君臣 관계로 외교문서를 올렸다. 이에 비해 조선 국왕은 일본의 關伯과 대등한 지위에 있었고, 일본의 老中은 조선의 예조참판, 대마도주는 예조참의와 부산첨사, 왜관의 館守는 동래부사 및 동래부 소속의 역관과 문서를 교환할 수 있었다. 일본의 老中이 예조판서가 아닌 예조참판과 문서를 교환한 것은 조선 관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조선과 일본의 외교문서는 국왕과 관백의 國書를 제외하면 모두가 실무 문서였다. 이를 보면 조선과 중국의 관계가 의례적으로 정형화된 관계라면 조선과 일본은 실무적인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명·청 교체기를 전후하여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國書와 書契는 연호의 표기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의 국서에서는 1643년까지 명의 연호인 崇禎을 사용했지만 1645년 정월 이후로는 干支만 사용했다. 1644년 청이 북경을 장악한 상황에서 조선이 명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했고 그렇다고 청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도 곤란했기 때문이다. 1645년 3월에 조선 정부에서는 당분간 간지를 사용하다가 일본 측에서 청이 중원을 장악한 사실을 알게 되면 청의 연호를 사용하자고 결정했다.[23] 그러나 실제로 조선에서 보낸 국서와 서계는 1645년부터 1872년까지 간지만 사용하고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24]

2.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의례

조선의 외교문서를 중국으로 보낼 때에는 출발할 때부터 특별한 의례가 있었다. 조선 국왕이 중국 황제에게 表文이나 箋文을 보내면서 君臣 의례를 거행했기 때문이다.[25] 이 때 국왕은 식장의 서쪽으로 이동하여 계단 위 중앙에 있는 拜位에서 表文이나 箋文을 향해 절을 하였고, 표문이나 전문은 식장의 中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또한 표문은 黃儀仗이 배치된 가운데 黃屋龍亭에 실려 이동하였고, 전문은 紅儀仗이 배치된 가운데 靑屋龍亭에 실려 이동하였다.[26] 국왕이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이나 전문은 황제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조선 사신이 북경에 도착하면 그 다음날 禮部로 가서 외교문서를 제출했다.[27] 외교문서를 제출할 때 조선 사신은 公服을 갖추었다. 조선 사신이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은 명대와 청대에 차이가 있었다. 명대에는 조선 사신이 禮部尙書를 만나 무릎을 꿇고 咨文을 올렸고, 通事는 儀制司로 가서 表文을 전달했다. 청대에는 조선 사신이 예부상서나 禮部侍郎을 만나 표문과 자문을 한꺼번에 전달했다. 이때에도 조선 사신은 무릎을

23) 『仁祖實錄』 권46, 仁祖 23년 3월 壬辰(9일).
24)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景仁文化社, 2011, 54~55쪽.
25) 『世宗實錄·五禮』 권132, 嘉禮儀式, 「拜表儀」; 『國朝五禮儀』 권3, 嘉禮, 「拜表儀」; 『春官通考』 권46, 嘉禮, 「拜表儀」.
26) 『春官通考』 권46, 嘉禮, 「拜表儀」[拜箋附. 如千秋節別行拜箋, 則設宮庭, 陳紅儀仗如儀.].
27) 1712년 11월에 서울을 떠나 이듬해 3월에 귀국한 金昌業은 『燕行日記』 권1의 첫 부분에서 表咨文呈納, 鴻臚寺演儀, 朝參儀를 정리했다. 이는 북경에 도착한 조선 사신에게 이 세 가지 의례가 중요한 절차였음을 의미한다.

꿇고 표문과 자문을 올렸다. 외교문서를 전달할 때 중국의 예부상서나 예부시랑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섰고, 조선 사신이 올리는 표문이나 자문을 받은 사람은 禮部郎中이었다. 이때 조선 사신은 예부상서에게 君臣의 예를 했고, 예부낭중에게는 抗禮를 하였다.[28]

예부에 제출한 외교문서는 조선 사신이 황제의 조회에 참석했을 때 황제에게 전달되었다. 조선 사신이 황제의 조회에 참석하는 의례는 명대와 청대가 달랐다. 먼저 조회에 참석하기 전 의례를 연습하는 장소가 달랐다. 명대에는 조선 사신이 朝天宮의 中門 안에서, 청대에는 鴻臚寺의 牌閣 앞에서 조회에 참석하는 의례를 연습했다. 이 때 조선 사신의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늦은 밤까지 연습을 거듭해야 했다.[29]

명대의 조회 의례에 참석한 사신은 午門 앞에서 명의 13省 관리들과 함께 반열을 이루어 대기했으며, 御路 위에서 五拜三叩頭를 거행하고, 右掖門으로 들어가 황제를 만났다. 황제를 만날 때 조선 사신은 어로 위에 꿇어앉았고, 홍려시 관원이 황제에게 사신을 소개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三叩頭를 했고, 황제가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다시 삼고두를 한 다음 우액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이후 조선 사신은 光祿寺로 가서 차와 술, 밥을 대접받았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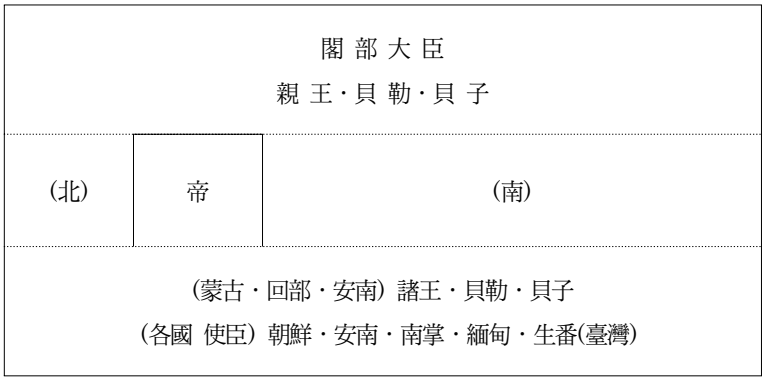
이에 비해 청대의 조회에 참석한 조선 사신은 청의 文武 관원들과 함께 서쪽 掖門을 통해 들어가 西班의 末席에 섰다. 조선 사신은 뜰에 있는 拜位에서 황제에게 三跪九叩頭를 하였고, 사신의 위치는 각국 사신의 윗자리였다. 다만 황제가 사신을 우대하려고 하면, 조선 사신은 황제가 있는 殿內로 들어가 大臣의 末席에서 茶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31]

다음의 〈그림 1〉은 1790년(정조 14) 북경을 방문한 徐浩修가 황제의 예우를 받을 때 조선 사신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한편 중국 황제의 외교문서를 받는 의례는 조선 국왕이 서울 교외에 있는 慕華館으로 나가서 직접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국왕은 詔書를 맞이할 때 冕服을 입었고, 勅書를 맞이할 때에는 翊善冠과 衮龍袍를 입었다. 중국 사신이 가져온 조서와 칙서는 黃屋龍亭에 안치되어 궁궐로 이동하였고, 용정이 이동할 때 그 앞에는 黃儀仗과 香亭이 배치되었다. 궁궐에 도착하면 국왕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들어오는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였고, 중국 사신에게 조서와 칙서를 받을 때도 뜰 중앙에서 四拜한 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받았다.

국왕이 詔書와 勅書를 받는 의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국왕이 조서를 받을 때에는 뜰의 중앙에 위치하지만 칙서를 받을 때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남쪽 가까이에서 받았다. 국왕의 위치가 변하면서 조서는 중

28) 『通文館志』 권3, 事大上, 「表咨文呈納」.
29) 『通文館志』 권3, 事大上, 「鴻臚寺演儀」.
30) 『通文館志』 권3, 事大上, 「朝參」.
31) 『大淸會典事例』 권505, 禮部, 朝貢, 「朝儀」.
"恭遇萬壽聖節・元旦・冬至・朝賀, 及皇帝陞殿之日.……如待以優禮, 是日入班會集之韓滿大臣, 咸蟒袍補服, 按翼侍立. 禮部堂官, 引貢使, 至丹墀行禮畢, 引由西階升, 入殿右門, 立右翼大臣之末. 通官隨入, 少後立. 皇帝降旨賜坐, 領侍衛內大臣・內大臣・入班會集之滿漢大臣, 及禮部堂官, 一叩頭, 序坐. 貢使隨跪一叩頭坐. 賜茶, 尙茶進皇帝茶, 衆跪叩. 侍衛徧授大臣及貢使茶, 咸跪受一叩頭, 飮畢, 跪如初. 皇帝降旨慰問, 禮部堂上承旨俱如前儀, 禮畢. 禮部堂上, 引貢使出, 至朝房, 承旨賜貢使尙房飮食訖, 館卿率以退. 翌日黎明, 午門外謝恩. 鴻臚寺傳贊西班, 引貢使就丹墀西北面, 行三跪九叩頭禮如儀."



〈그림 1〉 서호수가 서술한 조선 사신의 위차[32]

국 사신으로부터 여러 사람을 거쳐 국왕에게 전달되었지만, 칙서는 사신으로부터 바로 국왕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조선전기에는 조서를 받은 후 국왕이 三叩頭와 山呼를 했지만 칙서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국왕이 칙서를 받을 때에도 三叩頭와 山呼가 추가되어 의례가 강화되었다. 국왕이 황제에게 외교문서를 올리거나 황제의 외교문서를 받을 때에는 君臣 의례가 철저히 적용되었다.[33]

조선의 국왕과 일본의 관백이 외교문서를 교환할 때에는 서로 抗禮를 하였다.[34] 江戶(東京)에 도착한 조선 사신은 궁성 안으로 들어가 관백에게 외교문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조선 사신은 9개의 문 가운데 7번째 문에서부터 걸어서 들어갔고, 조선 국왕의 國書는 8번째 문에서 龍亭에서 내려 일본 측 首堂上이 손으로 받들고 들어갔다. 이 국서는 사신이 관백을 마주한 상황에서 수당상에서 對馬島主와 執政의 손을 거쳐 관백에게 전달되었고, 조선 사신은 가져온 폐백을 진열한 앞에서 관백에게 四拜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국서를 전달하는 의례가 끝났다.[35]

조선에서 일본 관백의 국서를 접수하는 의례는 조선전기와 조선후기가 달랐다. 전기에는 일본 사신이 조선 국왕의 조회에 참석하여 외교문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때 일본 사신은 뜰의 서쪽에 있는 武班 자리에서 국왕에게 四拜를 올렸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꿇어앉은 상황에서 일본 국왕의 안부를 묻고 사신을 위로하는 국왕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후 일본 사신은 다시 뜰로 내려와 사배한 후 물러나는 것으로 의례는 끝이 났다.[36] 조선 사신이 관백의 正堂 안으로 들어가 국왕의 국서를 전달했다면, 일본 사신은 국왕의 조회에 참석하여 관백의 국서를 전달했다.

조선후기가 되면 일본 사신은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금지되었고, 관백의 국서는 일본을 방문하여 국서를

32) 徐浩修, 『燕行紀』 권2, 7월 16일.
33) 詔書를 받는 의례는 『國朝五禮儀』 권3, 嘉禮, 「迎詔書儀」; 『春官通考』 권46, 嘉禮, 「迎詔書儀」. 勅書를 받는 의례는 『國朝五禮儀』 권3, 嘉禮, 「迎勅書儀」; 『春官通考』 권46, 嘉禮, 「迎勅書儀」 참조.
34) 1711년 통신사행의 國書 전달식에 대해서는 박화진·김병두, 『에도 공간 속의 통신사』, 한울, 2010, 133~155쪽.
35) 『通文館志』 권6, 交隣下, 「傳命儀」; 하우봉, 「조선시대의 통신사외교와 의례문제」, 『朝鮮時代史學報』 58, 2011, 84~85쪽.
36) 『國朝五禮儀』 권5, 賓禮, 「受隣國書幣儀」.

전달한 조선 사신에게 바로 내려졌다. 조선 국왕이 보낸 국서에 회답하는 형식의 국서였다. 일본 관백의 국서는 집정과 대마도주가 조선 사신의 숙소로 가져와서 전달하였고, 이후 양측 관리들은 동쪽과 서쪽에서 마주보고 茶禮를 거행했다.[37] 조선 후기에 조선과 일본의 국서 교환은 조선 사신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조선 국왕과 일본 사신의 직접적인 접촉이 사라진 것은 임진왜란 이후 양국의 외교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해졌음을 의미한다.

Ⅲ. 使臣의 接待 儀禮에 나타나는 특징

1. 朝鮮 사신의 접대 의례

조선 사신이 북경에 도착하면 중국 측에서 이들을 접대하는 의례가 있었다. 사신이 북경에 도착한 직후 거행하는 下馬宴, 사신에게 선물을 주는 賞賜, 사신이 북경을 출발할 때 거행하는 上馬宴, 사신이 북경을 출발함을 알리는 辭朝가 그것이다.

下馬宴은 중국의 예부상서가 조선 사신을 위해 개최하는 연회로, 명대와 청대에 차이가 있었다.[38] 명대의 하마연은 사신의 숙소인 會同館에서 진행되었고, 황제에 대한 禮로 회동관의 서쪽 계단 위에 설치된 龍亭에 一跪三叩頭를 거행한 후 시작되었다. 예부상서가 북쪽, 정사가 동쪽, 서장관이 서쪽에 위치한 상황에서 조선 사신이 예부상서에게 再拜하고 揖禮를 하면 예부상서는 읍례로 답하였다.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음악이 연주되고 공연이 베풀어졌으며, 양측은 7잔의 술잔을 나누고 용정 앞에서 일궤삼고두를 하는 것으로 잔치가 끝났다. 청대의 하마연은 禮部에서 거행하였고, 황제에 대한 예로 예부의 月臺 위에서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며 三跪九叩頭를 하였다. 연회장에서 조선 사신이 예부상서에게 一跪三叩頭를 하면 예부상서는 답으로 揖禮를 하였다. 청 예부의 郎中은 동쪽에 앉고 조선 사신은 서쪽에 앉은 상황에서 술잔을 돌렸고, 연회가 끝나면 다시 월대 위에서 삼궤구고두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를 보면 중국의 예부상서와 조선 사신은 君臣 의례를 거행하였다. 두 사람이 만날 때 예부상서는 북쪽에서 南面하고, 조선 사신이 상급자에게 올리는 예를 거행하면 예부상서가 읍례를 답하는 것이 그러했다. 다만 황제에 대한 의례에서 명대에는 일궤삼고두이던 것이 청대에는 삼궤구고두로 늘어났고, 연회장에서 사신의 자리가 명대에는 동쪽에서 청대에는 서쪽으로 바뀌었다. 또한 명대에는 조선 사신이 7잔의 술을 받았지만 청대에는 駝酪茶 1잔과 술 3잔에 다시 1잔을 받았다. 하마연에서 조선 사신의 위상은 명대보다 청대에 더 격하되었다.

賞賜는 중국 황제가 조선의 사신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다.[39] 명대에는 사신이 朝參禮에 참석한 후 다시

37) 『通文館志』 권6, 交隣下, 「受回答儀」; 『增正交隣志』 권5, 「受回答儀」.
38) 『通文館志』 권3, 事大上, 「下馬宴」.
39) 『通文館志』 권3, 事大上, 「頒賞」.

황제의 조회에 참석하여 상을 받았다. 명 황제에게 직접 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조회에 참석하여 황제에게 인사한 후 主客司의 郎中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이었다. 이때 조선의 정사는 주객사의 낭중과 대등한 抗禮를 하였지만, 上通事 이하는 상하의 예를 거행했다. 황제의 상을 받은 사신들은 이튿날 궁궐로 가서 상을 준 은혜에 감사하는 謝恩禮를 거행했다. 청대에는 조선 사신이 皇宮의 午門 밖에서 예부 관리가 참석한 가운데 通官을 통해 상을 받았다. 상을 받는 방식은 조선 국왕에게 회송하는 선물을 받은 다음 三使臣(正使, 副使, 書狀官), 大通官 3인, 押物官 24인, 從人 30명이 차례로 받았다. 선물을 받은 후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은례를 거행했다.[40] 상사에서 명대와 청대를 비교하면 의례는 더 간소화되고 사신에 대한 예우는 더 격하되었다

조선 사신이 북경을 출발할 때에는 上馬宴이 개최되었다. 사신이 북경에서 머무는 기간은 명대에는 40일로 한정되었지만 청대에는 정해지지 않았다. 1683년에 파견된 謝恩使는 북경에서 60일을 머물기도 하였다.[41] 상마연 의례에 관한 기록은 청대에만 나타난다. 상마연은 조선 사신이 머물던 館所에서 진행되었고, 의례 절차는 예부에서 거행된 상마연과 같았다. 다만 座次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하마연에서 북쪽에 있던 예부상서가 동쪽에 위치하고 예부 郎中은 그 뒤에 자리했다. 예부상서가 동쪽에 위치하여 上位이긴 했지만 예부 관리와 조선 사신이 동서에서 마주 봄으로써 대등한 위상이 되었다. 청대의 상마연은 조선 사신이 북경에 도착한 이후 가장 예우를 받는 자리가 되었다.

金昌業은 1713년(숙종 39) 2월 13일에 북경의 館所에서 거행된 상마연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예부시랑(禮部侍郎)이 오자 사신은 중문(中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예부시랑은) 들어와 동벽(東壁)에 앉았고 예부의 낭관(郎官)들은 그 뒤에 앉았다. 사신은 서벽(西壁)에 앉고 군관(軍官)과 역관(譯官)은 사신의 뒤에 앉았다. 먼저 차 한 잔씩을 마신 다음에 찬(饌)을 올렸는데, 사람마다 각각 한 탁자를 차지했다. 과실 이외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탁자를 물린 뒤에는 삶은 양고기 한 덩이가 들어오고, 술을 세 분배씩 돌렸다. 연회를 마칠 때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려 감사하는 예(禮)를 하고 끝이 났다.[42]

이를 보면 상마연을 주관한 관리는 예부상서가 아니라 예부시랑이었다.

辭朝는 조선 사신이 황제의 궁궐로 가서 하직 인사를 올리는 의례이다.[43] 명대에는 鴻臚寺에 참석자 명단을 單子로 보고하고 다음날 궁궐로 가서 사조 의례를 거행하였다. 의례를 마치면 조선 사신은 光祿寺로 가서 차와 술, 음식을 먹었고, 예부로 가서 堂上官에게 拜禮를 했다. 그러나 청대에는 이러한 의례가 모두 면제되고 조선 上通事가 예부에 가서 回咨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상에서 조선 사신이 북경에서 접대 받는 의례를 보면, 의식의 절차는 청대가 간소화되었지만 사신의 위

40) 중국 황제의 賞에는 조선 국왕에게 주는 回送賜物과 사신들에게 주는 一行賜物이 있었다. 국왕에게 주는 회송사물은 조선의 上通事가 받아가지고 와서 承政院에 납부했다(『通文館志』 권3, 事大上, 「賚回數目」; 『春官通考』 권46, 嘉禮, 「賚回賜物數」).
41) 『通文館志』 권3, 事大上, 「留館日子」.
42) 金昌業, 『燕行日記』 권6, 2월 13일.
43) 『通文館志』 권3, 事大上, 「辭朝」.

상은 상대적으로 격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조선 사신이 일본에 도착하면 크게 세 차례의 연향이 있었다.[44] 사신이 대마도에 도착했을 때의 下船宴, 江戶에 도착했을 때의 別宴, 대마도에 돌아와 부산으로 떠나기 전에 上船宴이 거행되었다. 세 가지 연향은 대마도주가 주관하며 대마도주의 집에서 거행되었다. 대마도주는 1633년부터 參勤交代制가 시행되면서 1년은 대마도에 살고 1년은 에도에 살았다. 따라서 대마도주의 집은 대마도와 에도에 있었고, 그의 妻子들은 에도에서 살았다.

대마도주가 주관하는 연회에서 조선 사신과 대마도주는 서로 揖禮를 하였고, 사신은 동쪽, 대마도주는 서쪽에 앉았다. 연회에서 모두 아홉 잔의 술잔을 돌렸고, 戱子가 나와 재주를 부리고 舞童이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조선 사신은 대마도주와 항례를 하였지만 동쪽에 앉는 것으로 우대를 받았다.

1624년(인조 2)에 姜弘重이 경험한 대마도 하선연은 대마도주의 집에서 交椅에 앉아 진행되었다. 연회가 시작될 때 대마도주(義成)는 중앙 계단에 서서 일행을 맞이하였고, 堂 위에 올라 揖禮를 했다. 조선 사신은 동쪽에 앉고 주인은 서쪽에 앉았으며, 술이 반쯤 취했을 때 어린 戱子가 나와 풍악을 울리고 재주를 부렸다. 또 舞童이 열을 지어 나왔는데, 모두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는 가면을 썼으며, 손에는 금부채를 쥐고 절조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강홍중은 이때의 잔치가 흥미를 돋울만하다고 했다.[45]

조선 사신이 대마도주의 인도를 따라 江戶로 이동하는 동안 현지의 藩主가 주관하는 연향이 있었다. 처음에는 赤間關, 大坂城, 江戶, 尾張, 駿河 등 5곳에서 연향을 베풀었고, 중간에 赤間關 연향을 牛窓으로 옮겼다. 사신이 돌아올 때에도 5곳에서 연향이 있었다. 그러나 1719년(숙종 45)부터 藩主가 주관하는 연향은 大坂城과 江戶 두 곳으로 줄어 들었다.[46]

일본에서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關伯이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이다. 조선 사신이 관백을 만나 국서를 전달하면, 관백은 조선의 三使臣(正使, 副使, 從事官)에게 술을 한 잔씩 내리는 酒禮가 있었다. 관백이 주관하는 주례는 관백이 正堂의 3층에 앉은 상황에서 조선 사신이 次堂의 동쪽에 앉았다. 관백이 술 1잔을 마신 다음 정사에게 술을 권하면 정사가 2층으로 올라가 이를 받아 마시고 再拜하며, 부사, 종사관의 순서로 술을 마셨다. 관백이 주관하는 주례가 끝나면 사신은 자리를 옮겨 일본의 세 納言이 주관하는 연향에 참석했고, 술 석 잔을 돌리는 것으로 끝났다.[47]

1764년(영조 40)에 趙曮은 관백에게 국서를 전달한 후 酒禮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이때 조선의 사신들은 관백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시지 못했다. 英祖의 엄격한 禁酒令 때문이었다. 국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조엄은 그 절차를 의논하면서 관백의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했고, 관백의 술잔을 받지만 술을 따르지는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

44) 『通文館志』 권6, 交隣下, 「彼地宴享」; 「中路問安」; 『增正交隣志』 권5, 「彼地宴享」; 「中路問安」.
45) 姜弘重, 『東槎錄』, 1624년 10월 10일(辛亥).
46) 『通文館志』 권6, 交隣下, 「彼地宴享」; 『增正交隣志』 권5, 「彼地宴享」.
47) 『通文館志』 권6, 交隣下, 「傳命儀」.

> 우리나라의 주금(酒禁)은 지극히 엄하므로 조선의 신하로서 감히 입에 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히 술잔을 들지도 못한다. 이는 의리에 관계된 것이니, 관백이 만약 술을 권하더라도 결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대마도주는 불화한 일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차라리 잘 주선하여 애당초 갈등이 없게 하는 것만 못하다.[48]

앞서 보았듯이 조선 사신이 중국 황제의 조회에 참석했을 때에는 특별한 명령이 있어야 사신이 황제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茶를 마실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조선 사신이 關伯의 술잔을 직접 받았으므로, 상대적으로 대접이 극진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를 보면 조선 사신은 중국의 예부상서와 일본의 관백에 대해 君臣의 예를 거행하였다. 또 조선의 사신은 중국의 禮部 郎中이나 主客司 郎中과 抗禮를 했고, 일본의 納言이나 대마도주와도 항례를 했다. 이는 조선 국왕이 일본의 관백이나 중국의 예부상서와 항례를 하는 상대임을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 禮部 尙書 ⇄ 조선 사신(君臣禮) ⇄ 일본 關伯
> 중국 禮部 郎中 ⇄ 조선 사신(抗禮) ⇄ 일본 納言
> 중국 主客司 郎中 ⇄ 조선 사신(抗禮) ⇄ 일본 對馬島主

2. 外國 사신의 접대 의례

중국 사신이 파견되면 조선 정부는 이들을 맞이하는 儐使를 파견했다.[49] 빈사의 명칭은 사신의 위상에 따라 달라졌다. 사신의 지위가 正卿이면 빈사를 遠接使라 했고, 사신이 差官이면 接伴使라 했다. 중국 사신이 돌아갈 때는 원접사가 伴送使로 바뀌었다.

중국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오면 원접사와 평안감사는 義州의 義順館까지 나가 맞이하였다. 처음에는 평안감사가 安州까지 나갔지만 1675년(숙종 1)부터 의주로 바뀌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사신이 통과하는 의주, 定州, 安州, 平壤, 黃州, 開城 등 6곳에 迎慰使를 파견하였다.

황제의 칙서가 도착하면 조선의 관리들은 칙서를 맞이하는 의례를 거행한 다음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見官禮를 거행했다.[50] 조선 관리가 중국 사신을 만날 때에는 사신이 북쪽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관리들이 차례로 名帖을 드린 후 再拜하고 揖을 하였으며, 사신은 이에 읍례로 답하였다. 조선 정부에서 파견한 영위사가 국왕의 御帖을 전달하면 중국 사신은 그때에만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받았다.

의주에서 연향을 베풀 때 중국 사신은 북쪽, 원접사와 영위사는 서쪽에 앉았다. 영위사는 正使와 副使에게 연속해서 두 잔의 술을 올렸고, 정사와 부사는 그 답으로 영위사에게 한 잔 술을 주었다. 다음으로 원접사가

48) 趙曮, 『海槎日記』 권4, 甲申(1764) 2월 17일(己亥).
49) 『通文館志』 권4, 事大下, 「儐使差遣」.
50) 『通文館志』 권4, 事大下, 「鴨綠江迎勅 見官禮附」.

두 사신에게 두 잔의 술잔을 올린 후 답으로 한 잔의 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원접사는 영위사에게 한 잔의 술을 주었다. 이 날의 연향은 원접사와 영위사가 다시 두 사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 끝났다. 중국 사신이 서울로 오는 동안 의주 이외에 정주, 안주, 평양, 황주, 개성, 弘濟院 등에서도 사신을 위한 연향이 있었다.

중국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면 下馬宴, 翌日宴, 仁政殿 초청연, 會禮宴, 別宴, 上馬宴, 餞宴 등 7차례의 연향이 진행되었다. 사신 접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迎接都監을 설치하여 연향을 미리 연습하기도 했다.[51] 1537년(중종 32)에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 龔用卿은 총 7차례의 연향에 참석했다. 6번은 국왕이 주관한 연향이었고, 1번은 왕세자가 주관하였다. 다음의 〈표 4〉는 龔用卿 일행의 서울 일정과 연향을 정리한 것이다.[52]

〈표 4〉 龔用卿 일행의 서울 일정과 연향

일	날짜	연회	연회 장소	참석자	비고
제1일	3. 10	下馬宴	太平館	國王, 陪臣	
제2일	3. 11	翌日宴	태평관	국왕	土産 기증
제3일	3. 12				成均館 謁聖, 한강 유람
제4일	3. 13		태평관	王世子	
제5일	3. 14	勤政殿 초청연	慶會樓	국왕, 王子	後苑 산보
제6일	3. 15	會禮宴	勤政殿	국왕	換茶禮 후 연회
제7일	3. 16	上馬宴	태평관	국왕, 議政, 判書, 承旨	望遠亭 유람
제8일	3. 17	餞別宴	慕華館	국왕, 왕자, 議政, 陪臣	

중국 사신을 위로하는 연향은 대부분 사신의 숙소인 太平館에서 이뤄졌다. 조선 국왕이 태평관으로 가서 연향을 열 때 중국 사신은 동쪽, 국왕은 서쪽에 앉았다. 중국 사신은 조선 국왕과 抗禮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았다.

조선 국왕이 사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酒禮는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53] 국왕이 正使에게 첫 번째 술잔을 주고, 정사가 술을 마시는 동안 국왕은 잔대를 들고 있었다. 이어서 정사가 국왕에게 술잔을 주고 국왕이 마시는 동안 정사가 잔대를 들었다. 다음으로 국왕은 副使에게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술잔을 주고받았다. 王世子는 중국 사신에게 두 번째 술잔을 올리고 나서 국왕에게 술잔을 올렸고, 다음으로 宗親이 중국 사신에게 세 번째 술잔을 올렸다. 이날은 총 7잔의 술잔을 돌렸다. 중국 사신을 위한 연향에는 王世子, 宗親, 議政府, 六曹가 주관하는 것도 있었다.[54] 이를 보면 조선 국왕과 중국 사신은 抗禮를 했고, 중국 사신이 상대적으로

51) 『通文館志』 권4, 事大下, 「入京宴享儀」.
52) 김문식, 「明使 龔用卿이 경험한 外交儀禮」, 『朝鮮時代史學報』 73, 2015, 213~218쪽.
중국 사신이 서울의 成均館을 방문하여 謁聖禮를 거행하는 것은 명대에만 있었다.
53) 『國朝五禮儀』 권5, 賓禮, 「宴朝廷使儀」.

국왕보다 우위에 있었다.

조선에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는 전기와 후기가 달랐다. 조선전기에는 일본에서 파견되는 사신의 종류가 많아 사신을 파견하는 주체에 따라 사신을 접대하는 방법이 달랐다. 여기서는 일본 국왕이 파견한 사신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55]

일본 사신이 도착하면 조선 정부에서 3품 朝官인 宣慰使가 通事와 함께 내려가 사신을 맞이하였다. 일본 사신에게는 浦所(乃而浦, 釜山浦, 鹽浦)에서 3차례, 경상도에서 3차례, 충청도에서 1차례, 경기도에서 1차례 연회를 베풀었다. 서울에 도착한 일본 사신은 南部의 樂善坊에 위치한 東平館에 머물며, 禮賓寺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일본 사신이 조선 국왕에게 肅拜하는 날과 拜辭하는 날에는 대궐 안에서 연회를 베풀고, 사신이 돌아갈 때에는 예조에서 연회를 베풀고 餞別宴을 내려주었다. 사신이 돌아가는 길의 연회는 올 때와 같았으며, 포소에서 餞別宴을 1차례 열었다.

조선전기에 일본 사신이 조선 국왕에게 국서를 올리면, 국왕이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가 진행되었다.[56] 일본 사신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남쪽에서 동쪽을 향해 앉은 채 국왕이 내리는 술잔을 받았다. 이 때 국왕이 사신에게 술을 주는 방식은 일본 關伯이 조선 사신에게 술을 주는 방식과 비슷했다. 다만 조선 사신은 관백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일본 사신은 국왕을 마주보지 못하고 동쪽을 바라보는 점이 달랐다.

조선 국왕이 일본 사신을 대접할 때 연향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399년(정종 1) 6월에 정종은 일본 사신을 만난 후 날이 저물자 軍器監에서 불꽃놀이를 벌여 구경하게 했다. 이를 관람한 일본 사신은 "이것은 人力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天神이 시켜서 그런 것이다."라고 감탄하였다.[57]

조선의 예조판서가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도 있었다.[58] 조선의 押宴官, 예조판서, 예조참의가 동쪽에 있고, 일본의 정사와 부사는 서쪽에 서서 抗禮를 했다. 연회가 시작되면 압연관이 정사에게 술잔을 주었고, 정사는 그 답으로 압연관에게 술잔을 주었다. 다음으로 압연관은 부사와 종사관에게 차례로 술잔을 주었고, 부사와 종사관은 압연관에게 술잔을 주었다. 그 다음에 압연관은 예조판서와 예조참판에게 술잔을 돌렸다. 이날 양측 관리들은 총 5잔의 술잔을 돌렸다.

조선 국왕이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와 조선전기에 예조판서가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는 매우 유사했다. 다만 국왕이 주관하는 연회는 중국 사신에게 7잔의 술잔을 주었지만 예조판서가 주관하는 연회는 일본 사신에게 5잔의 술잔을 준 점이 달랐다. 조선 국왕과 중국 사신, 예조판서와 일본 사신은 서로 抗禮를 하면서 조선을 방문한 사신을 대접하였다.

조선후기에 파견된 일본 사신은 서울까지 오지 못했으므로 조선 국왕이나 예조에서 접대할 기회가 없었다.[59] 일본 사신이 배에서 내리면 釜山의 客舍로 가서 조선 국왕을 상징하는 殿牌에 四拜를 올렸다. 조선전

54) 『國朝五禮儀』 권5, 賓禮, 「王世子宴朝廷使儀」; 「宗親宴朝廷使儀」[議政府, 六曹宴同. 唯執事者, 以錄事爲之.].
55) 『通文館志』 권5, 交隣上, 「接待日本人舊定事例」.
56) 『國朝五禮儀』 권5, 賓禮, 「宴隣國使儀」.
57) 『定宗實錄』 권1, 定宗 1년 6월 庚子(1일).
58) 『國朝五禮儀』 권5, 賓禮, 「禮曹宴隣國使儀」.
59) 『通文館志』 권5, 交隣上, 「接待對馬島人新定事例」.

기에 일본 사신이 서울로 올라와 궁궐의 서쪽 뜰에서 국왕에게 四拜를 올렸듯이 부산 객사의 마당에서 국왕의 전패를 향해 사배를 올린 것이다. 이후 사신은 宴享廳으로 이동하여 東萊府使가 주관하는 茶禮에 참석하였다.[60]

동래부사가 주관하는 다례는 대마도주의 書契를 받은 후 거행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君臣의 예를 거행하였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북쪽에 앉고, 일본 사신이 남쪽에서 再拜하면 그 답으로 揖禮를 하였다. 그러나 1610년(광해 2) 이후 의례가 변하여 서로 抗禮를 하였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동쪽에 서고 일본 사신은 서쪽에 서서 함께 읍례한 후 자리에 앉았다.[61] 동래부사가 주관하는 다례에서는 총 5잔의 술잔을 돌렸다.

동래부사가 주관하는 다례 다음에는 연향이 있었다.[62] 동래부사가 일본 사신에게 술 한 잔을 주면, 일본 사신이 동래부사에게 술잔을 주었다. 이후 동래부사가 都船主, 押物, 侍奉에게 한 잔씩 돌렸고, 처음부터 다시 한 잔씩 돌렸다. 다음으로 부산진 첨사가 동래부사와 같은 방식으로 술잔을 돌렸다. 이 연향에서는 총 9잔의 술잔을 돌렸다. 조선후기에 동래부사가 주관한 연향은 조선전기에 예조판서가 주관한 연회에 해당하였다.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는 전기와 후기가 비슷했지만 연회를 주관하는 관리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조선 국왕이나 예조판서가 주관하는 연회가 없어지고 동래부사와 訓導, 別差가 주관하는 것만 남았다.[63] 일본 사신은 모두 대마도주가 파견한 差倭였으므로 부득이한 일이었다. 德川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 업무를 대마도주에게 일임했고, 조선 정부는 그 위상에 맞게 의례를 조정하였다. 조선후기에도 조선과 일본의 교섭은 계속되었지만,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의례는 일본을 방문한 조선 사신만 거행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동아시아 삼국이 교환한 외교문서와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외교의례의 특징을 정리한다.

첫째, 중국 황제와 조선 국왕은 철저하게 君臣 관계에 있었으며, 事大 관계란 바로 군신 관계를 의미했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낸 외교문서에는 국왕이 황제와 황후, 황태자에게 보내는 것이 있었다. 이 문서들은 조

"[定約時(1609), 玄蘇等請上京如舊例, 不許. 天啓壬戌(1622), 玄昉又請上京, 不許. 崇禎己巳(1629), 倭酋因西釁, 復遣玄昉來請上京, 口陳數款事, 破格姑許, 而仍令後不得爲例.]"
이를 보면 1629년(인조 7) 대마도주가 파견한 玄昉이 서울을 방문한 이후 일본 사신은 서울까지 오지 못했다.

60) 『通文館志』 권5, 交隣上, 「倭使肅拜式」.

61) 『通文館志』 권5, 交隣上, 「茶禮儀」.

62) 『通文館志』 권5, 交隣上, 「宴享儀」.

63) 『通文館志』 권5, 交隣上, 「晝奉盃式」.
訓導와 別差는 동래부사가 주관하는 다례에 참석한 하급관리이다. 訓導는 釜山浦에 배치된 倭學訓導 1인을 말하며, 別差는 司譯院에 소속된 倭學敎誨나 譯科에 급제한 聰敏한 사람으로 동래에 파견된 관리를 말한다.

선에서 출발할 때부터 황제와 같은 대우를 받았고, 북경에 도착한 이후에는 禮部를 통해 황제에게 전달되었다. 중국 황제와 조선 국왕은 대등하게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이에 비해 조선 국왕이 황제의 문서를 받을 때에는 서울의 교외에서 맞이하였고, 궁궐에 도착하면 무릎을 꿇고 君臣의 예를 거행한 후 문서를 받았다.

조선 사신과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에서도 君臣 관계가 확연히 나타났다. 중국에서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관리는 예부상서였고, 예부상서와 조선 사신의 위상은 군신 관계였다. 조선 사신이 중국 황제의 술을 직접 받는 경우는 없었고, 황제가 사신을 예우할 때 황제가 있는 殿內로 들어가 중국 大臣들의 末席에서 茶를 한 잔 받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는 국왕과 사신이 同格이고, 그나마 上席에 해당하는 동쪽 자리를 사신에게 양보하였다. 중국 사신은 의주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국왕의 御帖을 받을 때만 좌석에서 일어났고 그 외에는 항상 앉아 있었다.

둘째, 중국을 방문한 조선 사신의 지위는 명대보다 청대에 더 낮아졌다. 조선 사신을 위한 下馬宴을 보면 연회 장소가 사신의 숙소인 會同館에서 禮部로 바뀌고, 연회 전에 황제를 향해 올리는 예도 一跪三叩頭에서 三跪九叩頭로 강화되었다. 또한 연회 중에 조선 사신이 앉는 자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뀌었고, 사신이 받는 술잔은 7잔에서 술 4잔과 駝酪茶 1잔으로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사신이 황제의 賞을 받을 때 명대에는 황제의 조회에서 받았지만 청대에는 皇宮의 午門 앞에서 받았다. 명대에는 상을 받은 후 다시 궁궐로 가서 謝恩禮를 올렸지만 청대에는 상을 받은 자리에서 바로 사은례를 올렸으므로, 그 의례는 간소화되었다. 그렇지만 조선 사신이 받은 예우는 더 격하되었다.

셋째, 조선 국왕과 일본 관백은 철저하게 抗禮를 하였고, 交隣 관계란 바로 대등한 관계를 의미했다. 조선 국왕과 일본 관백이 주고받은 외교문서는 國書 뿐이었다. 양국이 교환한 외교문서에 書契가 있었지만 이는 조선의 禮曹參判 이하 관리와 일본 막부의 老中과 대마도주 사이에 오간 문서에 불과했다. 사신이 國書를 전달할 때에는 국왕이나 관백을 직접 만나 전달했고, 이 때 국왕이나 관백에게는 君臣의 예를 거행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조선 사신이 국서를 전달한 후 일본 국서를 직접 받았으므로, 조선 국왕이 일본 사신을 만날 일은 없었다.

조선과 일본의 사신을 접대할 때에도 대등한 抗禮였다. 일본에서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관리는 대마도주였고, 조선 사신과 대마도주는 대등한 가운데 사신이 우대받았다. 조선 사신이 국서를 전달할 때에는 관백이 주는 술잔을 받았고, 幕府의 관리(納言)와 어울릴 때에는 抗禮를 하였다. 여기서 조선 사신에 대한 접대를 기준으로 할 때, 일본 關伯의 지위는 중국의 禮部尙書와 같았고, 일본의 納言은 중국의 禮部郞中에 해당했다. 조선에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는 일본에서 조선 사신이 받았던 의례와 대동소이했다.

넷째, 조선전기와 후기에는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가 확연히 달랐다. 조선전기에는 일본 관백이 파견한 사신이 조선 국왕을 만났지만, 조선후기에는 대마도주가 파견한 사신이 동래부사를 만났다. 이에 따라 사신을 접대하는 관리도 달라졌다. 조선전기에는 예조판서가 일본 사신과 항례를 했다면, 조선후기에는 동래부사와 일본 사신이 처음에는 君臣의 예를 하다가 抗禮로 바뀌었다. 일본 사신이 동래부사에게 항례를 한 것은 1610년부터였다.

조선시대의 외교의례를 보면 중국과 조선은 군신 관계였고,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관계였다. 조선 국왕은 중국의 황제에게 군신의 예를 거행하고 일본의 관백에 대해서는 항례를 하였으며, 그들의 신하에서도 위상의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나 외교의례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1864년 일본의 天皇이 복권되면서 동아시아 삼국의 국가적 위상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이제 일본에는 황제에 해당하는 天皇이 존재했고, 조선의 국왕은 천황에게 군신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받았다. 조선에서 중국 황제나 일본 천황과 대등한 抗禮를 하는 것은 大韓帝國의 황제가 등장한 이후에야 가능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國朝五禮儀』
『通文館志』
『增正交隣志』
『同文彙考』
『春官通考』
『大淸會典』
『大淸會典事例』

姜弘重,『東槎錄』
金昌業,『燕行日記』
趙曮,『海槎日記』
徐浩修,『燕行紀』
丁若鏞,『事大考例』

구범진,「조선의 건륭 칠순 진하특사와『열하일기』」,『인문논총』70,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김경록,「朝鮮初期 對明外交와 外交節次」,『韓國史論』4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0.
金暻綠,「朝鮮後期 事大文書의 종류와 성격」,『한국문화』35, 2005.
김경록,「조선시대 事大文書의 생산과 전달체계」,『韓國史硏究』134, 2006.
金暻綠,「明代 公文制度와 行移體系」,『明淸史硏究』26, 2006.
김문식,『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김문식,「英祖의 國王冊封에 나타나는 韓中 관계」,『韓國實學硏究』23, 2012.
김문식,「明使 龔用卿이 경험한 外交儀禮」,『朝鮮時代史學報』73, 2015.

김한규,「전통시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역사비평』2000년 봄호, 2000.
박화진 · 김병두,『에도 공간 속의 통신사』, 한울, 2010.
이훈,『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景仁文化社, 2011.
하우봉,「조선시대의 통신사외교와 의례문제」,『朝鮮時代史學報』58, 2011.

孫承喆,『近世朝鮮의 韓日關係硏究』, 국학자료원, 1999.
全海宗,『韓中關係史硏究』, 一潮閣, 1970.
泉澄一,「對馬島宗家文書의 分析 연구」,『국사관논총』7, 1989.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7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The Character of a Diplomatic Ritual Appeared in Joseon Dynasty

Kim, Moonsik*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national status of three East Asian nations by studying the distinct feature of Joseon Dynasty's diplomatic ritual. I consider the character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three East Asian nations exchanging the diplomatic documents and the protocol of treating envoys. So I can find the distinct feature of Joseon Dynasty's diplomatic ritual as this.

A Chinese emperor and a king of Joseon we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exhaustively. The king should perform the ceremony of the ruled's when he sent a diplomatic document to a Chinese emperor. Treating envoys, the Chinese minister of the Office of Protocol and Joseon's envoy we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But when a king of Joseon treated a Chinese envoy, the king and the envoy were on the same status.

The status of a Joseon envoy in China was more downgraded in the Ching Dynasty than in the Ming Dynasty. When a Chinese government official arranged a banquet, a Joseon envoy should go to the Office of Protocol and receive fewer drinking cups after performing harder ceremony to a Chinese emperor in the Ching Dynasty. Receiving a Chinese emperor's prize, the envoy received the prize on the front of the Imperial Palace's gate not in the Palace.

A king of Joseon and a Shogun were on the same status. They sent an envoys and exchanged diplomatic documents each other, their envoys performed the ceremony of the ruled's to the king or the Shogun. The protocols of treating Japanese envoy and Joseon's envoy were equal too. In Japan, a Joseon envoy and the Lord of Daemado and a Shogun's bureaucrat were on the same status. A Japanese envoy could be given a same reception in Joseon too.

During the former and the latter half of Joseon Dynasty, the protocols to treat a Japanese envoy were different. The Lord of Daemado sent an envoy and the envoy could meet an Dongnae Magistrate but he couldn't meet a king of Joseon during the latter half. During the former half of Joseon Dynasty, the Joseon's minister of the Office of Protocol and a Japanese envoy were on the same status, but during the latter half the status of an Dongnae Magistrate and

* Professor, Dept. of History, Dankook University

a Japanese envoy were equal.

As a emperor of Japan was reinstated in 1864, there happened a big change on the status of three East Asian nations. After the emperor of Korean Empire came on the scene in 1897, the two emperors could be on the same status.

[Key Words] diplomatic ritual, diplomatic document, king of Joseon, Chinese emperor, Shogun

東洋學 第62輯(2016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백범 김구의 자주독립·통일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의 꿈*

한 시 준**

▌국문초록 ▐

백범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그리고 해방 후 국토와 민족이 분단될 위기를 살아가면서 당면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 지도자였다. 그의 활동에는 목표가 있었다.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과 민족의 분단을 저지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화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꿈도 갖고 있었다.

백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가 건설하고자 한 자주독립국가는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국가를 유지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943년 미국과 영국사이에 전후 한국문제를 국제공동관리로 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또 해방 후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제공동관리와 신탁통치는 일제에 이어 또다른 열강들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백범은 국토와 민족이 분단되는 상황을 보면서, 통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일제 패망과 더불어 소련군과 미군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또 이승만을 중심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추진되면서, 국토와 민족이 분단될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통일국가 수립을 추진하였다.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면, 북에서도 정부를 수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족은 분단된다는 것이다. 민족분단의 결과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소의 앞잡이가 되어 전쟁을 하게 되는 민족적 참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백범은 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소 양군 철퇴 → 남북요인회담 → 남북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 수립이 그 방안이었다. 백범은 김규식과 함께 이를 추진하였고, 유엔위원단에게도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북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협의하자며,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요인회담을 제의하는 서신을 보냈다. 1948년 4월 평양으로 올라가 남북협상을 전개하였고, 미소 양군 철퇴 → 전조선정치회의 소집 → 임시정부 수립 → 통일적 입법기관 설립 →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방안과 절차에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백범은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백범의 꿈은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 즉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우선 남의 간섭없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국가를 세워 수준 높은 문화를

* 이 논문은 2015년도 단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 / seejhan@dankook.ac.kr

창조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민족마다 최선의 문화를 갖는 문화국가를 세우자고 하였다. 문화국가를 세워 각 민족이 서로 돕고 사는, 즉 지구상의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 백범의 꿈이었다.

[주제어]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주독립국가, 신탁통치, 통일국가, 남북협상, 문화국가, 세계평화

ㅣ목 차ㅣ

Ⅰ. 머리말
Ⅱ. '국가'와 '정부'를 운영한 경험
Ⅲ. 해방 후 임시정부의 봉환 방침과 과도정권 수립 추진
Ⅳ. 자주독립·통일국가 건설 추진
Ⅴ.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에 대한 꿈
Ⅵ. 맺음말

Ⅰ. 머리말

白凡 金九(1876~1949)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해방과 민족분단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당면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그의 활동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시기에는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고, 민족의 분단을 맞아서는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일제의 식민지지배는 극복하였지만, 백범 김구(이하 백범으로 약칭)가 목표로 삼았던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민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우리보다 앞서 이를 추진하였던 지도자들의 경험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지혜와 방안을 찾는 일이다. 그러한 대상 중 대표적 인물이 백범이 아닐까 한다.

백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으로 '국가'와 '정부'를 유지 운영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는 지도적 인물이다. 그리고 자주독립국가와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그 방안을 제시하고 활동하였으며,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평화에 대한 방안도 피력하였다. 백범의 이러한 활동과 경험은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 아닐 수 없고, 그동안 주요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1)]

선학들의 연구에 의해 백범이 구상하고 추진하였던 해방 후 신국가건설, 즉 자주독립국가·통일국가·문화국가 건설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백범의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면서,[2)] 기존의 연구성과를 보완할 필요가 생겨났다.

1) 도진순, 「해방 직후 김구·김규식의 국가건설론과 정치적 의미」,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95; 김삼웅,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건설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 백범학술원, 2003; 한시준, 「백범 김구의 신국가건설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3, 2005; 신용하, 「백범 김구의 새 민주문화국가 건설론과 세계평화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6, 2008; 정병준, 「해방 후 백범 김구의 건국노선과 평화통일 사상」,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7, 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 글은 선학들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백범의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계획과 방안, 그리고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평화에 대한 그의 꿈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백범은 해방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국가'와 '정부'를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민들에게 봉환하려 하였다는 점과 자주독립·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는 점, 그리고 문화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국가'와 '정부'를 운영한 경험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백범을 이해할 때, 특히 그의 독립국가 건설 구상을 이해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백범은 해방 이전에 '국가'와 '정부'를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백범이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다는 것을 말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계기가 있었다. 1919년 3월 1일 발표된 독립선언이 직접적 계기였다. "吾等은 玆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되는 독립선언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부정하고 '독립국'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그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상해로 모여 들었다. 상해로 모인 데는 목적이 있었다. 독립선언을 통해 천명한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먼저 요즘 국회와 같은 임시의정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대한민국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3] 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란 국가, 그리고 이를 유지 운영하기 위한 임시정부를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로 약칭)의 수립은 한국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한국민족이 대한제국에 이어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세웠다는 점이다. 둘째는 수립과 더불어 제정 공포한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하여,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한국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세워졌다. 그리고 한국민족의 역사가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뀌게 되었다.

---

2) 오대록의 「해방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가 발표되었고, 해방 후 국내에서 속간되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도 대부분 수집되어 『(환국속간)독립신문』(백범학술원, 2012)이란 이름으로 영인 간행되었다. 『환국속간 독립신문』은 1946년 12월 27일 제1호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1949년 3월 31일에 발행된 제388호까지 대부분 수집되었다.

3)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상해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57~62쪽.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 새롭게 출발하였다.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후 상해 이외에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가,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세 곳의 임시정부는 통합을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위치는 상해에 둔다는 데 합의하고 통합을 이루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 등을 선출하여,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이후 임시정부는 1945년 8월 해방을 맞아 국내로 환국할 때까지 27년여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였다. 이동안 임시정부는 '국가'와 '정부'로 역할하며, 동시에 독립운동을 지휘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독립운동 최고기구로서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극복해 가면서, 임시정부는 27년여 동안 존립하며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2. 행정수반으로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

임시정부를 이끈 대표적 인물이 백범이다. 백범은 1919년 4월 13일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임시정부에서 그가 처음 맡았던 직책은 경무국장이었다. 수립 직후 내무총장 안창호를 찾아가 '문지기를 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안창호가 백범을 경무국장에 임명한 것이다.[4] 이후 백범은 내무총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다 1926년에 國務領, 1940년에는 主席으로 선출되었다. '국무령'과 '주석'은 대통령의 칭호를 바꾼 것으로, 행정수반의 명칭이었다. 백범은 국무령과 주석으로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한 최고 책임자였다.

1925년 임시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었다. 바꾼 이유는 대통령 李承晩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승만은 1919년 9월 11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상해에 부임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해에 있는 국무총리 李東輝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 이승만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고,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파란을 겪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1920년 12월 상해에 부임하였지만, 5개월만에 미국으로 돌아갔고, 파란은 수습되지 못하였다.[5]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사퇴하고 상해를 떠났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들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朴殷植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대통령에 취임한 박은식은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만주지역의 지도자인 李相龍·梁起鐸, 이어서 安昌浩·洪震을 국무령으로 선출하였다. 국무령제로 파란을 수습하려 하였지만, 선출한 국무령이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취임하지 않았다. 이로써 임시정부의 난국은 수습되지 못하였다.

임시정부가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수습 책임을 맡은 것이 백범이었다. 백범은 李東寧 등의 권유로 1926년 12월 국무령에 취임하였다.[6] 이로써 백범은 임시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행정수반이 되었

4) 김구, 『백범일지』(백범학술원총서2), 나남출판, 2002, 304쪽.
5) 한시준,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승만연구』, 연세대 출판부, 2000, 195쪽.

다. 국무령에 취임한 백범은 내무·외무·군무·재무·법무 등 행정부서 책임자를 임명하여 정부의 조직을 갖추었다. 이로써 임시정부의 무정부상태가 수습되었다. 이후 백범은 1927년 4월 국무령을 중심한 단일지도체제를 국무위원회를 중심한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헌법을 개정하고, 안정적인 정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임시정부는 1940년까지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회제로 운영되었다. 이동안 사실상 임시정부를 이끌어 간 것은 백범이었다. 1932년 李奉昌·尹奉吉의사의 의거를 추진하여, 정부의 존재를 되살려냈다. 그리고 1935년 5개 정당 및 단체가 통일하여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면서 존립위기를 맞았을 때도,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여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해 나갔다. 수립 초기에 파란에 휩싸이고, 또 여러차례 존립위기를 맞았지만, 임시정부가 유지 운영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백범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역할과 공헌으로 백범은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었다. 임시정부는 1940년 重慶에 정착하면서,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확대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로 바꾸는 헌법을 개정하였고, 주석에 백범이 선출되었다.[7] 주석은 행정수반으로 국가 원수의 위상이었다. 이후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백범은 주석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Ⅲ. 해방 후 임시정부 봉환 방침과 과도정권 수립 추진

1. 임시정부를 국민에게 봉환

백범이 일제의 패망 소식을 접한 것은 西安에서 였다. 광복군과 미국의 전략첩보기구인 OSS의 국내진입작전을 협의하기 위해 서안에 왔다가 일제의 항복소식을 접한 것이다. 일제의 항복소식이 알려진 것은 8월 10일이었다. 중국의 방송들은 이날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일제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고,[8] 백범도 이 소식을 서안에서 들은 것이다.

일제의 항복소식을 접한 백범이 중경으로 돌아온 것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백범은 서안에서 일제의 항복소식을 듣고 곧바로 광복군 제2지대 본부로 향했다. 총사령 李靑天, 제2지대장 李範奭 등과 광복군의 국내진입작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협의에서 백범은 OSS훈련을 받은 광복군대원들을 국내에 진입시킬 것을 결정하고, 8월 17일 중경으로 돌아왔다.[9]

백범이 돌아왔을 때, 임시정부는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일제의 항복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무회의에서는 '귀국해서 정권을 국민에게 봉환한다' '국민에게 반포할 당면정책을 기초한다'는 것과 함께 임시정부 그대로

6)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5호(1926년 12월 17일).
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임시의정원2), 2005, 8~9쪽.
8) 양우조·최선화, 『제시의 일기』, 혜윰, 1998, 239쪽.
9)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6, 1999, 738쪽.

입국한다는 방침을 결의하고,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7일 제39차 임시의회가 열렸다. 그러나 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야당측에서 '국무위원의 총사직'과 '임시정부 개조'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주석인 백범이 돌아온 후, 휴회에 들어갔던 임시의정원 회의가 속개되었다. 8월 21일이었다. 백범은 회의에 출석하여 서안에 다녀온 경과를 보고하고, 야당측의 요구에 대해 "현직 국무위원은 총사직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27년간 우리가 대행하던 임시정권을 해방된 국내 인민에게 봉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10] 현 임시정부 그대로 귀국하고, 국내의 국민들에게 임시정부를 봉환한다는 것이었다.

야당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족혁명당을 비롯하여 신한민주당 · 조선민족해방동맹 소속 의원들이 "현 국무위원이 총사직하기 전에는 여하한 제의안도 결의할 수 없다"며,[11] 퇴장한 것이다. 야당측 의원이 퇴장하면서 법정의원수가 부족하게 되었고, 회의는 그대로 휴회되고 말았다.

백범은 임시의정원에서 밝힌 대로 임시정부는 국내의 국민들에게 봉환하고, 이를 위해 현 임시정부 그대로 귀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이란 성명서와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가 추진할 정책을 '당면정책'이란 이름으로 작성하고, 이를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다음 날인 9월 3일 주석 명의로 발표하였다. 당면정책은 모두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임시정부는 최속 기간내에 입국할 것(제1항)
- 전국적 보선에 의한 정식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영수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제6항)
-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에 본정부의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인하고 본정부의 일체 직능 및 소유물건은 과도정부에 교환할 것(제7항)
-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신헌장에 의하여 조직할 것(제8항)
- 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 질서와 대외 일체 관계를 본정부가 부책 유지할 것(제9항)[12]

당면정책의 핵심은 임시정부를 국민들에게 봉환한다는 데 있었다. 그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가 과도정권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과도정권은 국내외 각 계급 · 혁명당파 · 종교집단 · 지방대표 · 저명한 민주영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통해 수립한다는 방안이었다. 그리고 과도정권이 주도하여 정식정부를 수립하고, 수립된 정식정부에 임시정부의 모든 것을 인계한다고 하였다.

이는 정식정부를 수립하기까지의 과정과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즉 임시정부 → 과도정권 수립 → 보통선

1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임시의정원3), 2005, 163쪽.
1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임시의정원3), 164쪽.
12)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5, 1999, 670쪽.

거 실시 → 정식정부 수립 → 정식정부에 임시정부 인계라는 절차였다. 다만 과도정권이 수립될 때까지는 임시정부가 정부로서 활동한다는 것이고, 정식정부는 독립국가·민주정부·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가 임시정부를 국민에게 봉환한다는 계획은 뜻대로 이루지지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임시정부 그대로 입국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미군정의 요구에 의해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입국 후에도 미군정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비상국민회의를 통한 과도정권 수립 시도

백범은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였다. 개인자격으로 입국한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 미군정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로 입국한 후, 백범은 임시정부로 활동하고자 하였다. 기자들이 귀국 소감을 묻자,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자격이지만 국내동포의 입장에서는 정부"라 하였고, 임시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선전부장 嚴恒燮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자격이지만 국내에 있어서는 정부자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13]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임시정부를 연호하며 환영하였다. 12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귀국을 환영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봉영회가 개최되었을 때, 3만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 그리고 수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을 방문하거나 귀국을 환영하는 담화를 발표하였고, 전국 곳곳에서 임시정부의 귀국을 환영하는 행사도 열렸다.

백범이 거주하던 경교장은 임시정부 청사나 마찬가지였다. 제2진이 도착한 후, 12월 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경교장에 모였다. 이 모임에는 제1진과 제2진으로 귀국한 임시정부 국무위원 전원, 그리고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도 참석하였다. 당시 신문들은 이날의 모임을 '還國 후 全閣僚가 모여 最初의 國務會議'를 개최한 것으로 보도하였고,[14] 임시정부는 이후에도 경교장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백범은 귀국 후, 당면정책을 통해 천명한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조직한 것이 이를 위한 활동이었다. 정치공작대는 임시정부의 조직을 확대하고 국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행정연구위원회는 과도정권 수립에 필요한 행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내무부 산하에 설치하였고, 내무부장 申翼熙가 그 책임을 맡았다.[15]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부 역할을 수행하고자 시도한 것은 신탁통치반대운동을 계기로 해서였다. 12월 28일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결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범은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반탁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13) 『조선신보』 1945년 11월 25일자.
14) 『자유신문』 1945년 12월 4일자.
15) 박진희, 「해방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21, 1996, 170~180쪽.

때 신익희가 서울시내 9개 경찰서장을 불러 반탁운동에 호응할 것을 명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정부가 정부로 역할할 것이라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한 것이다.

國字 제1호
현재 전국행정청 소속의 경찰기관 및 한인직원은 전부 본 임시정부 지휘하에 예속케 함

國字 제2호
此 운동은 반드시 우리의 최후 승리를 취득하기까지 계속함을 요하며, 일반 국민은 금후 우리 정부 지도하에 제반 사업을 부흥하기를 요망함.[16]

이는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당시는 미군정이 통치하던 때였고, 미군정은 "38선 이남의 조선 땅에는 미군정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정부가 존재할 수 없다"며,[17] 한국인에 의한 어떠한 정부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다.

임시정부가 정부로 역할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다. 이에 대해 미군정이 크게 반발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이를 임시정부가 정권을 탈취하려는 '임시정부의 쿠데타'로 받아들였고, 백범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처단하거나 중국으로 추방하려고 했다. 1946년 1월 1일 백범이 미군정 사령관 하지를 만나 수습되기는 하였지만, 포고문을 발표한 신익희는 미군정에 연행되어 신문을 받았다.[18] 그리고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는 미군정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되었다.

백범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다. 1946년 1월 4일 "남의 손을 기대할 것 없이 우리의 손으로 신속히 강고한 과도정권을 수립하자"고 하면서, 각계각층의 혁명당파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주영수들을 망라하여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의한 것이다.[19] 백범의 이러한 제의는 당면정책에 있는 '국내외 각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족영수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었다.

백범의 이러한 제의는 비상국민회의로 결실을 맺었다. 1946년 2월 1일 각계 인사 195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동 천주교회당에서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한 것이다. 비상국민회의는 임시정부의 국회 역할을 하던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기구였다. 의장과 부의장도 임시의정원 의장과 부의장인 洪震과 崔東旿를 그대로 선출하였다.

백범은 비상국민회의를 통해 과도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비상국민회의가 활동을 시작하자, 미군정에서 이를 막았다. 사령관 하지는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전에 임시정부를 분쇄해야 한다"며, 지금이 임시정부의 권위를 빼앗을 적절한 시기라는 내용의 훈령을 내린 것이다.[20] 그리고 비상국민회의를 미군정의 자문기구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가 알려지면서 김원봉·장건상·성주식·김성숙 등 국무위원들이 임

16)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1, 1968, 722~723쪽.
17) 김광욱, 「해방직후 미군정의 유일정부적 권위의 확립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9, 1998, 288~289쪽.
18) 한시준, 「해공 신익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41, 2007, 118쪽.
19) 『서울신문』 1946년 1월 5일자. 「비상정치회의를 즉시 소집하자」.
20) 도진순, 「1945~1946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우익진영의 분화」, 『역사와 현실』 7, 1992, 361쪽.

시정부를 떠났다.

비상국민회의는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해 나갔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초로 하여 헌법·선거법·의정원법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기로 하고, 김병로·이인·김준연·신익희 등을 기초위원으로 선정하였다.[21] 법률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주도하에 제정한 법률을 근거로 선거를 실시하여 과도정권을 수립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최고정무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좌절되고 말았다.

최고정무위원회 문제는 비상국민회의 설립 당시에 제기되었다. 최고정무위원회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회와 같은 것으로,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임시정부의 권위를 빼앗으려는 미군정과 이승만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를 반대하였지만, 최고정무위원회 설치안은 가결되었고, 위원의 선정은 이승만과 김구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최고정무위원회는 설치와 더불어 명칭이 바뀌었다. 2월 13일 28명의 최고정무위원 명단이 발표되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명칭이 달라졌다. 2월 14일 결성식을 거행하면서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명칭만 아니라 성격도 달라졌다. 백범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결성식에서 이승만은 민주의원이 미군정의 자문기관임을 강조한 것이다.[22]

민주의원의 성격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지만, 조직은 갖추어졌다. 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규식, 국무총리 김구가 임명된 것이다. 그리고 산하에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문교부, 법무부, 치안부, 농림부, 상공부, 광무부, 교통부, 우정부, 후생부, 공보부 등 14개 부서가 설치되었다.[23] 이는 외형적으로 과도정부의 형태를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4개 부서 책임자는 선임되지 않았다.

민주의원을 과도정부 수립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백범과 임시정부 요인들은 민주의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국민회의 의장 홍진은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은 서로 다른 것임을 선언하였고,[24] 이를 과도정부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과도정권을 수립하려면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좌우합작을 추진한 것이다.

3. 국민의회 설립과 과도정권 수립

백범은 1947년을 맞아 다시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정국에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미소공동위원회의 걸림돌이었던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를 협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데 대해 미소가 합의를 이루었고, 중단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움직임이 일어나자, 백범은 다시 반탁운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비상국민회의와

21) 오대록, 「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09쪽.
22)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529쪽.
23) 정병준, 「해방 후 백범 김구의 건국노선과 평화통일 활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백범학술원, 2009, 252쪽.
24)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탐구당, 2006, 325쪽.

민족통일총본부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3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1947년 1월 24일 우익진영의 35개 정당 및 사회단체가 참여한 반탁독립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반탁독립투쟁위원회는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기구로 설립한 것이었다. 위원장은 백범이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조소앙 · 조성환 · 김성수가 선임되었고, 이승만은 최고 고문으로 추대되었다.[25)]

백범은 반탁운동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국민회의를 중심으로 민족세력의 결집을 추진하였다. 비상국민회의가 수십년 독립운동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니, 이를 확대 강화하여 최고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자는 논리였다. 그리고 자신의 민주의원 참가, 미소공위 제5호 성명에 서명한 것, 좌우합작지지 등에 대한 과오를 자책하고, 비상국민회의 · 민족통일총본부 · 독립촉성국민회의 통합을 촉구하였다.[26)]

3단체의 통합은 비상국민회의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비상국민회의는 2월 14일 백범을 비롯한 87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독립촉성국민회측에서 미국에 가 있던 이승만이 통합에 대해 보류하라는 전문이 있었다며,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월 17일 속개된 세 번째 회의에서 비상국민회의의 명칭을 대한민국국민의회로 개칭하기로 하고, 통합문제는 상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되었다.[27)]

국민의회는 임시정부의 입법기구였던 임시의정원과 비상국민회의를 이은 것으로, 과도정권 수립을 위한 입법기구이자 국회였다. 국민의회 스스로도 그 조직대강을 통해 "국민의회는 대한민국의 국회로서 국가의 최고결의기관임"(총칙 제1조)이라고 하였다. 국민의회 의장은 조소앙, 부의장은 유림이 선출되었다.

백범은 국민의회를 통해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비상국민회의를 통해 시도한 데 이어 두 번째였다. 과도정권 수립은 임시정부를 확대 강화하고 봉대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비밀리에 추진되어 그 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당시 과도정권 수립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이 남긴 글을 통해 그 실상은 대략 짐작할 수 있다.[28)]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한 별도의 기구가 있었던 것 같다. 한국혁명위원회라는 단체가 그것이다. 한국혁명위원회는 독립촉성국민회의 주요 간부인 조성환 · 정인보 · 김석황 · 김승학 · 조상항,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의 이을규 · 이정규 · 유정렬 등이 연계하여 조직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국혁명위원회 산하에 전위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특별행동대총사령부라는 조직을 두었던 것 같다. 특별행동대총사령부는 독립촉성국민회 지방조직원 중에서 선발하였고, 전국적 규모의 행동조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도정부 수립은 반탁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리고 3 · 1절을 기해 임시정부를 봉대하는 형식으로 계획되었다. 반탁독립투쟁위원회의 주도로 대규모 반탁운동을 전개하고, 3 · 1절기념식 때 독립촉성국민회가 전국국민대표자대회를 소집하여 임시정부 봉대와 임시정부의 과도정부 추대를 결의한다는 것이었다. 한국혁명위원

25) 『동아일보』 1947년 1월 28일자. 「全愛國的인 各團體를 糾合코 反託運動을 積極展開」; 『독립신문』 1947년 1월 30일자. 「鐵筒같은 反託陣營 反託獨立鬪爭委員會遂結成」.
26) 『독립신문』 1947년 2월 20일자. 「金九主席의 獅子吼 右翼陣營强力化」.
27) 『조선일보』 1947년 2월 18일. 「國民議會로 改稱 統合案은 常任委員一任」.
28) 유정렬, 「임시정부 봉대운동 경위」, 『國民文化硏究所五十年史 - 自由共同體運動의 발자취 -』, 국민문화연구소, 1998, 38~55쪽; 이문창, 『해방공간의 아나키스트』, 이학사, 2008, 232~288쪽.

회는 이러한 계획하에 3월 1일 임시정부 봉대와 임시정부의 과도정부 추대를 결의하고, 이를 국민의회에 건의하였다.[29]

국민의회는 한국혁명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과도정권을 수립하였다. 국민의회의 과도정권 수립은 임시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민의회는 1947년 3월 3일 제41회 임시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원이 된 국무위원을 보선하고, 다음과 같은 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주 석 : 이승만
부주석 : 김 구
국무위원 : 이시영, 조소앙, 조완구, 조성환, 황학수, 박찬익, 이청천, 조경한, 유림, 조만식, 김창숙, 박 열, 이을규, 오세창[30]

과도정부의 주석은 이승만, 부주석은 김구였다. 그리고 기존의 국무위원이었다가 탈퇴한 김원봉·장건상·김성숙·성주식과 결원이 된 차리석·김붕준 대신에 오세창·김창숙·박열·이청천·조만식·이을규 등 6명을 새로이 국무위원으로 보선하였고, 각 부서 책임자는 주석과 부주석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임시정부를 봉대하는 형식으로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국민의회는 이를 3월 6일에 공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과도정권 수립은 공포되지 못하였다. 미군정의 저지와 이승만의 반대 때문이었다. 미군정이 3월 5일 엄항섭과 김석황을 체포하고, 정부 수립을 선포하면 반란행위로 처벌할 것이며, 임시정부가 행동을 개시하면 조소앙·조성환·조경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31] 그리고 미국에 가 있던 이승만도 김구에게 "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전보를 보내왔다.

백범은 미군정의 탄압과 이승만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과도정부로 활동하였다. 중국에 있는 주화대표단에 명령하여 미국·영국·중국·프랑스·소련 등 5개국에 "한국인이 자주적으로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승인하라"는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미소 양군의 철수와 신탁통치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미군정의 브라운 소장을 방문하여 통치권을 임시정부로 이양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32]

과도정권을 수립하였지만, 과도정부는 '정부'로 역할하지 못하였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이 주석에 취임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과도정부를 내세우지 말고 잠복상태로 있다가 정식정부가 수립된 후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전임시키자'고 주장하고,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며 주석직을 사임하였다.[33] 이로써 과도정부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29) 오대록, 「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130쪽.
30) 『동아일보』 1947년 3월 5일자.
31) 정병준, 「해방 후 백범 김구의 건국노선과 평화통일 활동」, 『백범 김구와 민족운동연구』 7, 2009, 258쪽.
32) 『조선일보』 1947년 3월 9일자. 「金九氏等 '부'小將會見 臨政問題와 布告文問答」.
33) 『동아일보』 1947년 9월 17일자. 「國議主席을 拒否, 李承晩博士宣言書發表」.

Ⅳ. 자주독립 · 통일국가 건설 추진

1. 자주독립국가

백범이 가장 큰 소원으로 삼았던 것이 있었다. 자주독립이었다. 백범은 해방 후 국내에 돌아와 '나의 소원'이란 글을 쓰면서, 자신의 소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 밖에는 없다.
>
> (중략)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70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34]

백범의 소원은 자주독립이었고, 자신의 삶을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바쳤다. 그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도, 또 해방 후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전개한 것도 자주독립을 위해서였다. 백범이 소원한 자주독립은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국가를 유지 운영하는 것이었다.

백범은 자주독립에 방해가 되는, 즉 외세의 간섭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였다. 해방 전 연합국 사이에 전후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한다는 논의가 있을 때, 이를 반대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1942년부터 미국과 영국 사이에 전후 한국문제를 '國際共同管理'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소식을 접한 백범은 즉각 반대운동에 나섰다. 외무부장 명의로 전후 한국문제에 대한 국제공동관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민족은 절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35]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제공동관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중경에서 활동하던 좌우익 진영의 독립운동 세력들을 집결시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를 在中自由韓人大會라고 불렀다. 재중자유한인대회는 1943년 5월 10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 독립을 요구하며 소위 國際監護나 다른 어떠한 형식의 외래간섭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36] 각 동맹국 원수들에게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과 즉각적인 독립을 촉구하는 전문을 발송하였다.

카이로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in due course'라는 단서에 반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1943년 12월 1일 미 · 영 · 중 3국 정상들이 '한국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후 한국독립을 보장받은 것이었지만, 여기에 '적당한 시기'

---

34) 김구, 『백범일지』(백범학술원 총서2), 나남출판, 2002, 433~434쪽.
35) 「戰後韓國獨立問題不能贊同國際共管」(三均學會, 『素昂先生文集』 상, 횃불사, 1979, 178쪽).
36) 『獨立新聞』 창간호, 1943년 6월 1일. 「大會決議案」.

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백범은 한국의 독립보장은 환영하였지만, 단서에는 반대하였다.

> 우리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통치하며 우리 조국을 지배할 지력과 능력을 동등으로 가졌으며, 우리는 다른 족속이 우리를 다스리며 혹은 노예로 삼는 것은 원치 아니하며, 또 우리는 엇던 종류의 국제지배를 원치 않는다.
>
> 우리는 당연한 순서라는 말을 엇더케 해석하던지 그 표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일본이 붕괴되는 그때에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치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이다.[37]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게 된 데에는 백범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백범은 장개석이 회담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1943년 7월 26일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장개석을 찾아가 한국의 독립을 관철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38] 그리고 장개석은 회담에서 이를 관철시켰고, 이것이 카이로선언으로 발표된 것이다.

그렇지만 백범은 '적당한 시기' '적절한 절차'라고 번역된 'in due course'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리고 조건부 독립에 반대하고, 한국은 일제가 패망하면 그 즉시 독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공동관리'나 '신탁통치'라는 명의로 또 다른 지배가 이어질 경우, 그 상대가 누구이던지 독립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해방 후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각 반탁운동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주독립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백범은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각계 인사들과 함께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고 반탁운동에 나섰다.[39] 반탁운동에 나선 데는 별다른 고려가 없었다. 중경에서 전개한 국제공동관리 반대운동의 연장이었다. 국제공동관리에 반대하였듯이, 신탁통치문제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백범의 반탁운동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인 동시에 자주독립국가 수립운동이었다. 독립국가 건설에 있어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제하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신탁통치가 이러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그 나라에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고 하였듯이,[40] 백범의 염원은 오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었다.

2. 통일국가

자주독립국가와 더불어 백범은 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소

37) 『신한민보』 1943년 12월 9일자(『백범김구전집』 5, 334쪽).
38)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95주년기념 학술회의 발표요지), 2014, 10~18쪽.
39) 이완범, 「백범 김구의 신탁통치 반대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7, 백범학술원, 2009, 205~206쪽.
40) 김구, 『백범일지』, 434쪽.

련군과 미군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하면서 국토와 민족은 분단되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소간의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여기에 1946년 6월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며,[41]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제의하였다. 국토와 민족의 분단,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 문제가 대두되면서, 백범은 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백범은 38선을 경계로 한 분단도, 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는 임시정부를 이끌며 독립운동을 전개한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일제가 패망하면 그 즉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자주독립국가는 당연히 통일된 국가였다. 또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민족을 분단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면, 북쪽에서도 정부를 수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백범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47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단독정부 수립 문제가 구체화되어 갔다. 냉전체제가 성립되면서 미소가 대립관계로 돌아섰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이로써 한국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한국문제는 유엔으로 넘겨졌다. 여기에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은 국민의회에서 설립한 과도정부를 부정하고, '38이남은 고사하고 다만 한 道에나 한 郡 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한다'며,[42]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백범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통일국가 건설 문제는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그 방향을 잡았다. 1947년 10월 15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남북대표회의를 조직하여, 미소 양군 철퇴 → 남북통일선거 실시 → 국민회의 완성 → 중앙정부 조직 → 우방국과의 교섭을 결의한 것이다.[43] 이는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방안과 단계를 정립한 것이었다.

이 무렵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도파에서도 남북총선거, 남북지도자회의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백범은 김규식과 연계를 추진하였다. 1947년 11월 한독당은 민주독립당·근로인민당 등 중도파의 정당과 함께 12정당협의회를 결성한 것이다. 그리고 11월 5일 12정당협의회는 '자주독립의 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38선 철폐·남북교류 보장·전국적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미소 양군의 철병과 남북정당대표회의 구성을 결의하였다.[44]

백범은 김규식과 함께 남북요인회담을 추진해 나갔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만나 이를 제시한 것이다. 유엔위원단은 1948년 1월 8일 서울에 도착하였고,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였다. 백범은 1월 26일 유엔위원단과 만났다. 유엔위원단을 만나기 전 백범은 김규식을 방문하여 의견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유엔위원단에 미소 양군 철퇴 → 남북요인회담 → 남북총선거 →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1월 28일에는 6개항의 의견서를 보내 전국총선거 및 통일정부 수립·남한단독선거

41)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564쪽.
42) 정병준, 「해방 후 백범 김구의 건국노선과 평화통일 활동」, 261쪽.
43) 『동아일보』 1947년 10월 19일자(『백범김구전집』 8, 278쪽).
44) 『경향신문』 1947년 11월 7일자(『백범김구전집』 8, 281쪽).

반대·양군철퇴·남북지도자회담을 제의하였다.[45]

백범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던 세력들이 비난을 퍼붓기도 하였다. 한국민주당이 중심이 된 한국독립수립대책협의회에서 "우리는 금후에는 김구를 조선민족의 지도자로는 보지 못할 것이고 크레믈린궁의 한 신자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46]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백범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2월 4일에는 김규식과 만나 북한의 김일성·김두봉에게 남북요인회담을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하고, 2월 6일에는 유엔위원단의 메논 의장을 만나 남북요인회담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리고 2월 10일 「3천만 동포에게 泣告함」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독정부 수립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과 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니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남북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민족을 死坑에 넣는 극악극흉의 위험일 것이다.
> (중략)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一身의 구차한 안일을 取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47]

백범은 북한의 김일성·김두봉에게 남북요인회담을 제의하였다. 2월 16일 백범은 김두봉에게 남북요인회담을 제의하는 서신을 작성하고, 이를 유엔위원단 캐나다 대표를 통해 영국-소련-북한으로 전달하였고, 서울에 있는 소련군대표부에게도 전달한 것이다.[48] 북한에서 연락이 온 것은 한달이 지나서였다. 3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 평양에서 남북조선의 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였고, 김일성·김두봉 명의로 된 답신서한도 도착하였다.

이동안 유엔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하였다. 2월 26일 유엔소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권고한 미국측의 제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리고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3월 4일 특별성명을 통해 5월 9일(후에 10일로 정정)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었다.

백범은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다. 3월 12일 김규식·조소앙·김창숙·조완구·홍명희·조성환 등과 '7거두성명'을 발표한 것이 그것이었다. 이를 통해 남한만의 총선거와 북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정을 비판하면서, 남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면 민족적 참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 미소양국이 군사상 필요로 일시 설정한 소위 38선을 국경선으로 고정시키고 양정부 또는 양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남북의 우리 형제자매가 미소전쟁의 前哨戰을 개시하여 銃劍으로 서로 대하게 될 것이 明若觀火한 일이니 우리 민족의 참화가 이에서 더할 것이 없다.

45) 『동아일보』『조선일보』 1948년 1월 28일(『백범김구전집』 8, 306쪽).
46) 『동아일보』 1948년 1월 31일자(『백범김구전집』 8, 308쪽).
47) 「삼천만동포에게 泣告함」, 『백범김구전집』 8, 564~571쪽.
48) 서중석, 「남북협상과 백범의 민족통일노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3, 2005, 147쪽.

(중략) 반쪽이나마 먼저 독립하고 그 다음에 반쪽마저 통일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듯 하되 실상은 반쪽 독립과 나머지 반쪽 통일이 다 가능성이 없고 오직 同族相殘의 참화를 激成할 뿐일 것이다.[49]

백범에게는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하면서 가졌던 경험이 있었다. 좌우익 독립운동 단체들이 서로 분립하여 대립하였던 실상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남북에 각기 정부가 수립되면, 우리 민족의 의도와는 달리 미소의 앞잡이가 되어 전쟁을 일으키는 민족의 참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통일국가 건설은 민족의 참화를 막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 주석으로 있을 때, 좌익진영의 세력들과 통일을 실현하고,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한 경험도 있었다.[50] 이러한 경험이 남북요인회담을 추진하게 한 것이다.

백범은 4월 19일 평양을 향해 떠났다. 그리고 5월 5일 서울로 귀환할 때까지 평양에서 북한의 지도자들과 만나 남북협상을 전개하였다. 남북협상에는 김규식을 비롯하여 조소앙 · 홍명희 등 많은 인사와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남북협상은 크게 두 개의 회의로 열렸다. 하나는 남과 북의 정당 및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였고, 다른 하나는 남북요인 15명이 참가한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였다. 그리고 김구 · 김규식 · 김일성 · 김두봉이 참여한 '4김회담'도 가졌다.

백범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4월 22일이었다. 회의는 남한에서 올라간 인사들의 입장으로 시작되었고, 백범은 조소앙 · 조완구 · 홍명희와 함께 주석단으로 보선되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략으로 고난을 받았던 일과 민족이 단합하여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남쪽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또 북쪽에서 단독정부를 세우는데도 반대한다고 하였다.[51]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전조선동포에게 檄함〉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공동성명서〉 등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이 중 '공동성명서'는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1.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즉시 철거하는 것이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2. 외국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음을 확인
3.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적 입법기관을 선거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
4.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52]

이것이 남북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통일정부 수립 방안이다. 방안은 미소 양군 철퇴 → 전조선정치회의 소집 → 임시정부 수립 → 통일적 입법기관 →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이었다.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정부 수립 방안이 결정되었지만, 이는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남과 북에서 이를

49) 「통일독립달성을 위한 7거두성명」, 『백범김구전집』 8, 641~644쪽.
50)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Ⅲ(중경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59~63쪽.
51) 김신, 『김신회고록 : 조국의 하늘을 날다』, 돌베개, 2013, 127쪽.
52) 송남헌, 『우사 김규식의 생애와 사상 : 몸으로 쓴 통일운동사』 3, 한울, 2000, 116쪽.

실행할 의지가 없었고, 별도로 정부 수립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북쪽에서는 남북협상이 진행되던 4월 29일 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초안통과회의를 가졌고, 남쪽에서는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한 것이다.

Ⅴ.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에 대한 꿈

1. 문화국가 건설

백범이 건설하고자 하였던 또 하나는 '문화국가'였다. 문화국가를 건설해야 하겠다는 것은 문화의 힘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백범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53]

백범이 원한 것은 부강한 나라도 아니고, 강력한 나라도 아니었다. 그가 원하였던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았기 때문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백범의 생각이었다.

백범은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제도였고, 다른 하나는 국민교육의 완비였다. 백범은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자신의 정치이념을 '자유'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이며,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 인류의 가장 크고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하나는 교육을 꼽았다. 백범은 청년시절 황해도 장련에 光進學校를 세우기도 하고, 西明義塾과 楊山學校 교사로도 활동하였으며, 해서교육총회 학무총감으로 황해도 각 군을 순회하며 환등회·강연회 등 교육활동에 남다른 정열을 쏟기도 하였다.[54] 그리고 중경에서 임시정부의 광복 후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계획인 건국강령을 발표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국비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그 제도와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놓았다.

---

53) 김구, 『백범일지』, 442쪽.
54) 최기영, 「백범 김구의 애국계몽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 백범학술원, 2003, 36~37쪽.

환국한 이후에도 백범은 국비의무교육을 강조하였다. 1945년 12월 27일 서울 중앙방송국에서 「삼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방송을 한 일이 있다. 이는 환국한 후 처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었다. 이를 통해 백범은 자신의 여러 가지 포부를 언급하였는데, 그 중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하여 신민주국을 건설"하자고 하면서, "교육의 균등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조속히 의무교육을 국비로서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55] 국비의무교육 주장하였다.

백범이 주도하고 있던 한국독립당도 교육정책의 핵심을 국비의무교육에 두고 있었다. 한국독립당은 1945년 8월 25일 제5차 대표대회를 개최하고, 해방 후 당이 추진해나갈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 중 교육과 관련하여 "국비교육시설을 완비하여서 기본지식과 필수기능을 보급할 것", "국민의 각종 교육의 경비는 일률로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하여,[56] 국비의무교육을 당의 기본정책으로 삼았다.

백범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수준 높은 교육이 있어야 수준 높은 문화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문화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것은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민족의 문화를 사모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백범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진대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고 하였다.[57]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기초는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것이었다.

2. 세계 평화에 대한 꿈

백범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이 있었다. 우리 민족이 세계 평화에 공헌하자는 것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을 가진 것이다. 백범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한마디로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집이 되어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58] 이를 위해 우리 문화가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였고,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 세계에 실현되기를 바랐다.

백범은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으로서 하여야 할 최고의 임무는, 첫째로 남의 절제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도 아니하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자유로 발휘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55)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8, 111~112쪽.
56)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8, 30~31쪽.
57) 김구, 『백범일지』, 445쪽.
58) 김구, 『백범일지』, 435쪽.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59]

백범이 문화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평화였다. 각기 민족마다 최선의 문화를 갖고, 그 문화의 기초위에 각 민족이 서로 돕고 사는 그러한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 단계는 우선 남의 간섭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하고, 민족의 정신력과 문화를 발휘하는 문화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지구상의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백범은 이러한 꿈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이에 대해 쉽게 공감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이를 '공상'이라 여길 수 있다는 염려도 갖고 있었다.

>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마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60]

백범은 세계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보았다. 그 길은 각각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발휘하는 국가를 세우고, 서로 돕는 데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아무도 못하였다고 해서 '공상'이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도 한 일이 없으니, 우리가 하자는 것이었고, 백범은 우리 민족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61]

백범은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고, 그 일을 우리 민족이 하자고 하였다. 그 길은 높은 문화를 가진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이 먼저 문화국가를 건설하고, 이를 세계에 모범이 되도록 하면,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백범은 세계평화가 우리나라에서 비롯되기를 원하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59) 김구, 『백범일지』, 435~436쪽.
60) 김구, 『백범일지』, 436~437쪽.
61) 김구, 『백범일지』, 443쪽.

Ⅵ. 맺음말

백범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그리고 해방 후 국토와 민족이 분단될 위기를 살아가면서 당면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그의 활동에는 목표가 있었다.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과 민족의 분단을 저지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화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꿈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백범의 활동을 이해하려고 할 때, 유념할 것이 있다. 백범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백범은 1926년 국무령으로, 1940년 주석으로 선출되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경험, 그리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킨 지도자였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백범은 자신이 주도해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민에게 봉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과도정권에 임시정부를 인계한다고 하였다. 백범은 이러한 방침을 1945년 9월 3일 당면정책으로 발표하였고, 이를 추진해 나갔다. 1946년 2월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비상국민회의를 설립하고 최고정무위원회라는 기구를 조직하여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의 작용으로 최고정무위원회의 명칭은 민주의원으로, 성격은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바뀌어 버렸다.

비상국민회의를 통한 과도정권 수립이 좌절된 후, 백범은 다시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1947년 3월 비상국민회의를 잇는 국민의회를 설립하고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보선하는 형식으로 주석 이승만·부주석 김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권을 수립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승만이 이를 부정하고 주석에 취임하지 않음으로써, 과도정권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백범은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자주독립국가는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국가를 유지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은 연합국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던 국제공동관리·신탁통치 등을 배격하는 것이었다. 1943년 미국과 영국사이에 전후 한국문제를 국제공동관리로 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무부장 성명을 통해, 또 중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 세력들과 함께 재중자유한인대회를 개최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카이로선언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적절한 시기'라는 조건부를 반대하며, 일제가 패망하는 즉시 한국은 독립되어야 하고, 만일 일제에 이어 또다른 형태의 지배가 이어질 경우 그 상대가 누구이던지 독립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해방 후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반탁운동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백범은 통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일제 패망과 더불어 소련군과 미군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또 이승만을 중심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추진되자, 백범은 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백범은 일제가 패망하면 그 즉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자주독립국

가는 당연히 통일된 국가였다. 그리고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면, 북에서도 정부를 수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족은 분단된다는 것이다. 민족분단의 결과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소의 앞잡이가 되어 전쟁을 하게 되는 민족적 참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것이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한 이유였다.

백범은 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소 양군 철퇴 → 남북요인회담 → 남북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 수립이 그 방안이었다. 백범은 김규식과 함께 이를 추진하였고, 유엔위원단에게도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북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협의하자며,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요인회담을 제의하는 서신을 보냈다. 1948년 4월 평양으로 올라가 남북협상을 전개하였고, 미소 양군 철퇴 → 전조선정치회의 소집 → 임시정부 수립 → 통일적 입법기관 설립 →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방안과 절차에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백범은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백범의 꿈은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집이 되어 사는 것", 즉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우선 남의 간섭없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국가를 세워 수준 높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민족마다 최선의 문화를 갖는 문화국가를 세우자고 하였다. 문화국가를 세워 각 민족이 서로 돕고 사는, 즉 지구상의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 백범의 꿈이었다.

〈참고문헌〉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凡金九全集』, 1999.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196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自由新聞』
『(환국속간)독립신문』, 백범학술원, 2012.

김구, 『백범일지』(백범학술원총서2), 나남출판, 2002.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이문창, 『해방공간의 아나키스트』, 이학사, 2008.

도진순,「해방 직후 김구・김규식의 국가건설론과 정치적 의미」,『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95.
박진희,「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역사와 현실』21, 1996.
한시준,「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이승만 연구』, 연세대 출판부, 2000.
김삼웅,「백범 김구의 문화국가건설론」,『백범과 민족운동연구』1, 백범학술원, 2003.
서중석,「남북협상과 백범의 민족통일노선」,『백범과 민족운동연구』3, 백범학술원, 2005.
한시준,「백범 김구의 신국가건설론」,『백범과 민족운동연구』3, 백범학술원, 2005.
신용하,「백범 김구의 새 민주문화국가 건설론과 세계평화론」,『백범과 민족운동연구』6, 백범학술원, 2008.
정병준,「해방 후 백범 김구의 건국노선과 평화통일 사상」,『백범과 민족운동연구』7, 백범학술원, 2009.
이완범,「백범 김구의 신탁통치 반대운동」,『백범과 민족운동연구』7, 백범학술원, 2009.
오대록,「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6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Baikbum KimKoo's Dream for Building an Autonomic Independent Unified Nation and for the World Peace

Han, Seejun*

Baikbum was a great leader who lived through the Japanese empire's aggression and colonial rule and the crisis of national and territorial division after the liberation, and who attempted to resolve the urgent national problems. His activities had goals: the first was to regain the territory and the sovereignty stolen by the Japanese empire and build a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and the second was to foil the national division and found a unified nation. He also had another goal to found a civilized nation and serve for the world peace.

Baikbum, developing the independent movement centering arou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ried to build an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The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that he tried to build meant a nation governed by our own people without any foreign interference. When he learned that the US and the UK in 1943 agreed to resolve the matter of Korea within international joint supervision, and when he learned that the Moscow Conference of 3 Foreign Ministers in 1945 decided the trusteeship over Korea, he held opposition movement. It was because the international joint supervision and the trusteeship meant another interference of foreign powers succeeding the Japanese empire.

As Baikbum experienced the territorial and national division, he tried to establish a unified nation. As the Soviet army and the US army separately occupied the Korean peninsula by the 38th parallel, and as Syngman Rhee propelled the South to establishing separate government, Korea faced the crisis of the territorial and national division. Baikbum in this situation tried to found a unified nation. He thought that if the South established a separate government, the North would do so as well; and then the nation would be divided. He believed that the result of the division would be a nationally disastrous war regardless of our nation's own will, as the two would become the informants of the Soviet and the US.

Baikbum proposed the way for founding a unified nation: the pullout of armies of the Soviet

* Professor, History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and the US → the South and North key-figure meeting → the South and North unified general election →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government. Baikbum, with Kim Gyushik, propelled it, and proposed it to the UN committee. And then, he sent Kim Ilsung and Kim Dubong letters suggesting the South and North key-figure meeting to discuss the matter. April of 1948, he went to Pyeongyang, held the South-North negotiation, and achieved an agreement for the way and the steps to establish a unified democratic government: the pullout of armies of the Soviet and the US → the convocation of All-Joseon Political Meeting → building a provisional government → founding a unified legislature → founding a unified democratic government. However, as the South and the North separately established governments, it could not be realized.

Baikbum had a dream for building a civilized nation and for world peace. Baikbum's dream was "all people in the world living together without you-me discrimination": building a country all people in the world can live peacefully. The way was to build a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without any foreign interference, to build a nation confirming people's liberty in order to create high-level culture, and for each people to build a civilized nation with its best culture. It was Baikbum's dream that each people would build a civilized nation and help each other, and that all people on the earth could experience peace and happiness within the world peace.

[Key Words] KimKoo,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trusteeship, unified nation, south-north negotiation, civilized nation, world peace

東洋學 第62輯(2016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한국독립운동세력과 CC파 · 역행사의 공동 첩보활동*

梁 志 善**

▌국문초록 ▐

중일전쟁 발발 후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좌우익 독립운동진영은 이를 독립전쟁의 절호의 기회로 여겨 한중공동항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일전쟁 당시 한국독립운동세력이 정규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한중 공동항전은 실전에 참가하는 것 보다는 첩보활동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구와 주로 연대활동을 전개한 기관은 CC파이다. 김구는 중일전쟁 후 후방교란 작전을 수행할 적합한 인물을 찾았고, 그가 찾은 사람이 바로 조상연이다. 그는 1938년 천진으로 파견되어 이 지역의 일본군 정보를 수집해 김구와 CC파에게 보내는 일을 하다가 일본에 피체되어 순국하고 말았다.

김원봉과 관계를 맺고 함께 천진, 상해 등 각 주요 도시에서 일본군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한 기관은 삼민주의역행사이다. 이들은 적 정세 자료의 번역, 일본전쟁포로의 관리와 훈련, 일본군 내 한인에 대한 선동과 탈출, 일본군에 대한 심리작전 진행, 중국군대에 협조해 선전활동 및 유격전쟁 참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중일전쟁 후 한중 간 공동항일투쟁은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 항전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1931년 일본의 만주침공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대부분의 관내지역이 부일, 친일화 되어 독립운동이 전개되지 못했다고 하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는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았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결코 중국 측으로부터 받은 일방적 수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중국군 내부에 일본군 정보 수집을 담당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인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중국항일전쟁사의 의미를 세계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한중이 함께 활동했던 역사적 연대감은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한중연합, CC파, 삼민주의역행사, 부흥사, 남의사, 조상연

* 이 논문은 2015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硏究專擔助敎授 / liangzhishan@naver.com

ㅣ목 차ㅣ

Ⅰ. 머리말
Ⅱ. 중일전쟁 전 중국의 지원과 한인의 첩보활동
Ⅲ. 중일전쟁 후 한중의 대응과 연대 모색
Ⅳ. 중일전쟁 후 공동 첩보활동 추진
Ⅴ. 맺음말

Ⅰ. 머리말

한국독립운동은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중국대륙, 러시아·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이 중에서도 독립운동의 주요한 근거지는 중국이었다.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한국인들은 서간도와 북간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 그리고 上海·北京·天津·廣州 등 중국대륙 각 지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상호 연대와 연합을 이루며, 공동으로 대일항전을 전개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중의 공동항전은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 1910년 나라를 빼앗겼고, 중국도 1931년 '滿洲事變', 1932년 '上海事變', 그리고 1937년 蘆溝橋事件 등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한중은 일본의 침략을 받은 공동의 운명이었고,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상호 연대와 연합을 도모하면서 공동으로 항전하였다.

한중의 공동항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동북과 중국관내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서 중국 측과 연대 및 연합을 맺었던 사실을 언급하였고,[1] 중국에서도 항일전쟁 시기에 한국의 독립운동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편의 저서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2] 이로써 일본

1) 관내지역에서 전개된 한중 연합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구 성과로는 김정현, 「제1·2차 國共合作期의 한·중 연대활동-黃埔軍官學校 인맥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6, 2012; 이재령, 「抗戰時期(1937~1945) 國共兩黨의 韓國觀」, 『中國學報』 56, 2007; 張世胤, 「中日戰爭期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對中國外交-光復軍 問題를 中心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한상도,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중국공산당」, 『歷史學報』 174, 2002; _____, 「국제적 반제국주의 연대투쟁으로서의 한국독립운동-중일전쟁 전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6, 2006; 韓哲昊, 「1930년대 전반기 한중연대와 항일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김영범, 「조선의용대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창간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石源華, 『中韓文化協會研究』, 世界知識出版社, 2007;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 2001; _____,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 지성사, 1994; _____,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시기-)』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가 있다.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한중 연합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구 성과로는 장세윤,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2005; 추헌수,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위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황민호, 「남만지역 중국공산당의 항일무장투쟁과 한인대원-한인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고건 외, 『한국 독립운동과 대전자령 전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이 있다.

2) 石源華, 「论中日战争期间的韩国临时政府」, 『复旦学报(社会科学版)』1993年6期, 复旦大学, 1993; _____, 「论抗日战争期间国民政府的援朝政策」, 『抗日战争研究』 1994年2期, 中国抗日战争史学会, 1994; _____, 「韩国独立运动与中国 1945~1995」, 『抗日战争胜利五十周年纪念集』, 1995; _____, 「论中国共产党与朝鲜义勇军的关系」, 『军事历史研究』 2000年3期, 南京政治学院, 2000; _____, 「抗战时期中国国民党援助越南与韩国独立运动的比较研究」, 『复旦学报(社会科学版)』 2003年1期,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한중이 공동으로 항전하였던 사실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한중 공동항전에 대해서는 연구하여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중한호조사·중한문화협회 등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에서부터 무장투쟁, 재정적·외교적 지원 등 한중 공동항전의 형태와 방법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한중 공동항전 중에서 거의 관심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있다.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이 중국의 CC파와 역행사에서 활동한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개된 한중 공동항전의 한 사례,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이 중국의 CC파와 역행사에서 활동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일전쟁에 대해 한중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언급하고, 한국독립운동세력이 CC파 및 역행사와 연계하여 활동한 사실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중일전쟁 전 중국의 지원과 한인의 첩보활동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대공황은 1930년 봄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이었고, 농촌 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대외팽창정책을 추진해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우선 일본인들을 滿洲로 집단 이주시켜 개발하도록 했으며, 1931년에는 이들을 내세워 동북지역 침공을 단행한다. 그러나 당시 공산당 토벌에 힘을 쏟던 장개석은 일본 東北軍에게 저항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약 4개월 후 중국 동북은 일본에게 함락당하고 말았다.

다음해 1월 28일 일본이 만주국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자 상해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제19로군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이것이 바로 1·28 上海事變이다. 그러나 19로군이 패하면서 일본의 대륙 침략은 가속화되었다. 일본은 상해 虹口公園에서 '天長節' 축하대회와 淞滬戰爭 승리기념대회를 거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중국인들은 더욱 분노했고, 일제의 병탄 후 중국으로 망명해 활동하던 한국 독립운동세력들 역시 큰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러한 위기감은 결국 1932년 4월 29일 尹奉吉 의거로 표출되었다.

중국인들은 이때부터 한국독립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윤봉길 의거 이후 민간단체적인 지원은 점차 중국국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었다.[3] 장개석은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국민당의 비밀기관이 전담하도록 했다. 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의 비밀기관 가운데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각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國民黨 中央組織部 계열의 CC파는 金九가 이끌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국민정부 軍事委員會의 三民主義力行社가 金元鳳(김약산, 중국명 陳國斌)이 이끌고 있던 義烈團에 대한 지원을 책임졌다.

复旦大学, 2003; _____, 「论二战后中国国民政府的朝鲜半岛政策」, 『复旦学报(社会科学版)』2006年3期, 复旦大学, 2006; 徐有威, 「1931~1937年間國民政府與朝鮮獨立運動」, 『抗日戰爭研究』 第2期, 中國抗日戰爭史學會, 1994; 射俊美, 「金九與中國國民黨交往述論」, 『韓國研究論叢』 15, 復旦大學 韓國研究中心, 2007.

3) 胡春惠 著·辛勝夏 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단대출판부, 1987, 47쪽.

CC파는 중국국민당의 핵심세력인 陳果夫(Chen Guofu)와 陳立夫(Chen Lifu) 형제를 중심으로 조직된 기관이다. 陳其美와 蔣介石은 의형제 관계였고, 진립부・진과부 두 형제도 장개석과 매우 가까운 개인적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1926년 이후 국민당조직 내에서 우세한 지위를 장악하였고, CC파라고 하는 中央俱樂部(Central Club)를 조직하였다.[4] 이 비밀정치결사가 조직된 것은 남경정부 수립 석 달 뒤인 1927년 7월의 일이었다.[5] CC는 진과부・진립부 형제를 가리키는 Chen Chen의 약자로도 알려져 있다.[6]

장개석은 윤봉길 의거 이후 한인들을 위한 군관학교 설립과 한인장교 양성을 승인하였다. 한인특별반의 정식 명칭은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第2總隊 第4大隊 육군군관훈련반 제17대'로,[7] CC파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했다. 이 외에도 장개석은 CC파를 통해 비밀리에 별도 액수의 기밀활동비를 김구에게 지원함으로써 이것을 이용해 革命同志를 구제하는 임시 경비로 쓰거나, 또는 비밀리에 사람을 戰區 혹은 한국으로 파견시키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했다.[8]

CC파가 김구 계열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게 된 것은 진기미 등과 한국독립운동인사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1911년 武昌起義의 소식이 알려지자 신규식과 박찬익 등은 중국 인사들과의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新亞同濟社를 결성하였다. 당시 신아동제사에는 중국의 주요 혁명파 인사 宋教仁・胡漢民・戴季陶・진과부 등 30여 명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혁명파 인사들이 국민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게 되면서 한국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었던 것이다. 진기미는 '첫째, 한국독립운동인물 김구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일본인의 추적을 피한다. 둘째, 김구 계열 간부인재의 배양을 돕는다. 셋째, 김구를 위수로 하는 한국임시정부에 경비를 원조한다'는 세 가지를 원칙으로 김구 계열을 지원하였다.[9]

蕭錚이 진기미와 진과부를 도와 실질적으로 김구 측 지원을 맡았다. 윤봉길 의거 이후 褚輔成에게 부탁하여 그의 고향집으로 김구를 피신하도록 주선한 사람 역시 소쟁이었다. 浙江省 黨部의 主任委員을 지낸 소쟁은 자신이 김구를 만나 저보성의 집을 자주 드나들 경우 김구의 신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독일에서 함께 유학했던 貢沛誠으로 하여금 김구와 접촉하게 하였다.[10] 진과부・소쟁・저보성 등의 보호 하에 김구 측에서도 박찬익을 진과부의 중앙조직부 직원으로 파견해 김구・이동녕과의 연락을 담당하도록 했다.[11]

그러나 김구가 CC파의 일방적인 지원만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김구는 1932년 국민당 중앙조직부를 위하여 일본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비밀 첩보활동을 맡겠다고 자원하였다. 국민당은 김구의 뜻을 받아들여 CC파

4) 範少方, 『二陳和CC』, 河南人民出版社, 1993, 113쪽.
5) 波多野乾一, 『中國國民黨通史』, 大東出版社, 1943, 463~466.
6) 蕭錚, 「中國國民黨과 金九」,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박영사, 1983, 150~151쪽.
7) 韓相禱, 「金九의 韓人軍官學校(1934~35) 운영과 그 입교생 :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의 계열화과정과 관련하여」, 『韓國史硏究』 58, 한국사연구회, 1987, 91쪽.
8) 「中央組織部 李永新處長至張壽賢函」, 1945년 8월 10일자, 黨史會 藏(胡春惠 著 辛勝夏 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105쪽).
9) 蕭錚, 「中國協助韓國光複之回憶」, 『傳記文學』 第44卷5期~第45卷6期(林能士 國民黨派系政治與韓國獨立運動 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 14, 1997년, 203쪽).
10) 蕭錚, 「中國國民黨과 金九」,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박영사, 1983, 150~151쪽.
11) 胡春惠 著, 辛勝夏 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55쪽.

첩보활동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남경에서 공급하는 전용전화를 김구 측에 고정시키도록 지시했다. 김구는 CC파와의 이러한 특무활동 관계로 인해 중국의 주요 인물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과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었으며, 국민당은 이후에도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의 최대 지지자로 자리하였다.[12]

국민정부는 김구 계열뿐만 아니라 의열단의 김원봉 역시 함께 지원하고 있었다. 의열단에 대한 지원은 삼민주의역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1932년 5월 何應欽의 비서 劉健群이 장개석에게 무솔리니의 黑衫黨, 褐衫黨과 같은 소위 '남의사(구성원들이 남색 옷을 입고 있어 사회에서의 반향이 컸다)'의 설립을 건의했다. 당시 공산당 세력의 확대와 지방군벌의 수립, 국민당 내에 있는 파쟁 등등의 대내적 사정으로 비밀결사 조직의 필요를 통감하고 있던 장개석은 설립안에 크게 동의했다. 이 당시 장개석은 국민당 대내외적 난국을 切拔하기 위한 유력한 정치적 권력기관의 설립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행사라는 이름이 너무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중화민족을 부흥시킨다는 명분에서 조직명을 中華民族復興社라 고치고, 간칭으로 復興社라 하였다.[13] 장개석 본인이 직접 사장직을 맡았으며, 장개석으로부터 경제적 원조와 지도를 받았다. 강령으로는 '중화민국의 危亡을 만회하고, 삼민주의를 역행하며, 국민혁명의 완성을 기할 것'을 채택하였다. 또한 '허위의 민주집권제를 방기'하고 상급자와 하급자에 대해 하등의 의무를 가지지 않으나,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해 절대적 복종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조직원칙으로 삼았다.[14] 역행사는 장개석의 지도하에 극단적 민족주의, 장개석 숭배, 사회군사화의 표방,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敵視를 강조하였다.[15]

역행사는 조직 직후부터 남경과 상해를 시작으로 각 중요 도시에 빠르게 설립되었고, 1930년대 중국의 유력한 한 계파로서 군대 내 정치훈련을 조종하고, 각지의 보안대 내에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역행사는 하부에 조직·선전·훈련·특무 네 개의 처(추후에 군사와 총무 양 처가 증설됨)를 두고, 國民政府軍事委員會調查統計局(이하 군통)을 장악하였다. 군통 특무 2처장에는 黃埔軍官學校(이하 황포) 6기 출신인 戴笠이,[16] 부처장에는 鄭介民이 임명되었다. 황포 졸업생 약 삼천 명이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포 졸업생 연락조직(黃埔同學連絡小組)이 특무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역행사와 김원봉의 관계 역시 황포를 통해 시작되었다. 1919년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의열단은 1920년대 중기 의열투쟁을 전개하며 투쟁역량 소모와 한계를 자각하고 군관학교 입학으로 투쟁노선을 전환해 단원들을 군사간부로 양성하고자 했다. 이후 孫斗煥의 추천으로 의열단원들의 황포군관학교 입교가 실현되었다. 손두환은 廣州에서 한국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留粵韓國革命同志會를 조직하고 회장직을 역임했던 인물로 1926년 초 의열단장 김원봉과 함께 황포군관학교 교장인 장개석을 만나 의열단원의 중국 군관학교 입교를 허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17]

김원봉은 역행사가 조직되자 1932년 3월 8일, 황포군관학교 제4기 동창인 역행사의 책임서기 藤傑과 연

12) 蕭錚,「韓國光復運動之鱗爪」,『中央日報』1953년 8월 25일자(胡春惠 著, 辛勝夏 譯,『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55쪽).
13) 본문에서는 조직 당시의 명칭인 '삼민주의역행사'의 간칭인 역행사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14) 朝川錄銳 編,『北支!!난징事情』, 天津出版社, 1938, 198쪽.
15) 林能士,「國民黨派系政治與韓國獨立運動」,『國立政治大學 歷史學報』14, 1997, 201쪽.
16) 위와 같음.
17)「第四期同學姓名籍貫表」,『黃埔軍校史料』, 廣東革命曆史博物館, 1982, 553~587쪽.

락해 의열단의 책임자 명의로[18] 〈중한합작에 관한 건의〉, 〈조선혁명계획서〉 등을 건넸다. 이 문서들은 등걸을 통해 장개석에게 전달되었다. 김원봉은 문서에서 반만항일을 위한 한중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지원을 요청하였다.[19]

김원봉의 서한을 받은 장개석은 역행사 간부 및 황포군관학교 동창회 간부에 지시를 내려 의열단장 김원봉과 연락하도록 했다.[20] 그는 역행사 연구반에게 김원봉이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하게 한 후,[21] 김원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승인하였다. 장개석은 "위만주국을 교란하고, 일본과 위만주국의 공방을 유발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면 조선독립혁명운동에 용이하다"[22]는 말로 김원봉에 대한 지원과 연계활동의 의지를 밝혔다.

김원봉을 지원하는 일은 역행사의 民族運動委員會가 책임졌다. 민족운동위원회는 장개석이 孫文主義의 장기혁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접 약소민족에 데한 원조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위원으로는 간국훈, 桂永清, 任覺五 葉維, 정개민 등을 선출하고, 역행사의 후보간사 겸 혁명청년동지회의 상임간사이자 조직처장인 간국훈을 주임위원으로 삼았다.[23] 주요업무는 중국 주변의 피압박 민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선·대만·베트남·인도 등이 지원 대상에 속했다. 장개석은 위원회에 매달 고정 활동비용을 주고 이를 통해 약소국을 지원하도록 했다.[24] 김원봉에게도 대일전선준비비의 명분으로 매월 삼천 원이 지원되었고, 김원봉 계열의 청년들을 훈련시켜 간부로 양성하고자 했다.

장개석이 직접 한인들을 훈련시켜 군사 간부로 양성하고자 한 것은 반만투쟁에 이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장개석은 이미 일본의 만주침공 이래 간부훈련반 제6대를 창설해 만주국의 독립과 환수에 효과적인 반일공작을 위한 정책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마침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자, '한인 청년들을 제일전선의 투사로서 이용하는 것이 반만투쟁에 가장 효과적이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25] 직접 한인 청년들을 군사 간부로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민족운동위원회는 김원봉을 지원해 湯山의 한 사찰에서 비밀리에 간부훈련반을 조직하고 1기생으로 한인학생 26명을 모집해 훈련을 실시하였다.[26] 군사교육의 목적은 군사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이들을 수시로 작전에 투입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전체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훈련생들은 군사지식 외 정보, 폭탄과 돌격성기능을 훈련 받았다.[27]

1933년 3월 남경 탕산훈련반 한인학생들의 첫 졸업식이 있었다. 김원봉은 이 당시 의열단의 공작목표를

---

18) 干國勳,「朝鮮義烈團員의 軍事教育(1932~1936) - 中國 國民黨政府의 韓國獨立運動」,『軍事史研究總書』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82, 138쪽.
19) 金正柱 編,『조선통치사료』10, 한국사료연구소, 1971, 705쪽.
20)「義烈團及金九等ノ行動」,『外務省警察史 支那ノ部』, 7748~7751쪽.
21) 干國勳,『三民主義力行社與民族復興運動』, 干苓苓, 1986, 55~56쪽.
22)「李活 訊問調書」,『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0(義烈鬪爭 3)에 간부학교 입학부터 교육내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3) 干國勳,「朝鮮義烈團員의 軍事教育(1932~1936) - 中國 國民黨政府의 韓國獨立運動」,『軍事史研究總書』5, 138쪽.
24) 干國勳,『三民主義力行社與民族復興運動』, 54~55쪽.
25)「義烈團及金九等ノ行動」,『外務省警察史 支那ノ部』, 7748~7751쪽.
26) 위와 같음.
27) 徐有威,「1931~1937年間國民政府與朝鮮獨立運動」,『抗日戰爭研究』第2期, 80쪽.

'反日'과 '倒滿'의 두 가지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졸업생들을 상해·천진·북경·동북지역은 물론 조선에까지 파견하였다.[28] 의열단이 주장한 세부 원칙은 1. 일본과 만주국 요원에 대한 암살 진행 2. 동북지역 항일단체에 대한 제휴와 지원 3. 조선과 동북지역 인민의 반일정신 고취 4. 위폐를 발행해 위만주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림 5. 기타 정보첩보활동에 종사 한다는 것이었다.[29]

그러나 1932년 8월 개교 이후 경비문제로 인해 간부 간 의견 충돌로 감정이 악화되면서 1933년 말 졸업과 동시에 한인훈련생들은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다. 이에 安光泉·韓偉健 등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일부는 馮玉祥의 기병에 참가하기 위해 북경으로 떠나게 되었다. 기타 조선으로부터 온 학생들도 귀향하거나 혹은 중국 측으로부터 고용되어 반만항일투쟁을 위해 조선·미주·중국 동북에 파견되었다.[30]

이처럼 장개석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던 자금이 각 계열 간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면서 점차 국민당 측에서도 한국독립운동단체 간 노선의 통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등걸이 김원봉의 의열단을, 진과부가 김구에게 각각 통일과 단결을 권고하였다. 이는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당의 지원 경로의 통일을 의미하였다.[31] 그러던 중 노구교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장개석은 역행사의 해체를 결정하게 되었다.

역행사는 중국 전 지역에 지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심인물만도 수백 명 이상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었다. 장개석은 전국의 역행사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백만 원의 비밀비를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장개석이 양 결사대의 해산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일항전의 개시 때문이었다. 西安事變 후 대일항전을 공동목적으로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이에 양당의 밀담에서 공산당이 토지분배정책과 자본가의 재산몰수를 중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당 역시 비밀결사를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이 "제2차 대일항전의 중대시기에 비밀결사가 존재하는 것은 國共兩黨提携合作抗日戰의 전도를 위험하게 한다"고 강경히 주장하였기 때문에 두 단체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32]

1938년 공식적으로 역행사가 해체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역행사는 三民主義靑年團을 통해 인사·조직의 승계를 이룸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유지하며 활동하였고,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당의 지원은 여전히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국민당 내에서 점차 반공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원봉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요인들이 늘어났다. 의열단원 중 공산당원이 상당수 있었으며, 이들의 화북이동이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國民黨祕書長 겸 中央調査統計局長으로서 김구 계열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고 있던 朱家驊가 장

28) 鄧元忠, 『三民主義力行士史』, 實踐出版社, 1984, 344쪽.
29) 胡春惠 著, 辛勝夏 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50쪽.
30) 「義烈團及金九等ノ行動」, 『外務省警察史 支那ノ部』, 7748~7751쪽.
31) 김구와 김원봉은 종래의 수배에 이르는 경비를 국민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이전에 비해 재정적으로 매우 윤택하였다(「治安狀況(昭和 12年) 第26報~第43報」, 『國外情報－上海情報』, 1937년 9월 14일자). 그러나 장개석으로부터 반만활동을 위해 지원받고 있던 실행자금은 각 계열 간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지원자금을 둘러싼 문제가 독립운동세력의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운동자금을 원조 받는 데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천진일본총영사의 외무대신 앞 보고, 「不逞鮮人金元鳳의動靜」, 1934년 2월 22일자). 국민당 측에서도 한국독립운동단체 간 노선의 통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등걸이 김원봉의 의열단을, 진과부가 김구에게 각각 통일과 단결을 권고하였다. 이는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당의 지원경로의 통일을 의미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장개석은 方覺慧에게 양 방면에 대한 통일협조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藤傑, 「三民主義力行士援助韓國獨立運動之經過」, 百益印刷事業有限公司, 1980, 12~14쪽).
32) 「蔣介石, 禦用テロ機關 籃衣社, C·C團解散」, 『東京日日新聞』, 1938년 2월 22일자.

개석에게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중심의 지원을 주장했고, 1940년 장개석도 이를 승인하였다.[33] 결국 1942년 김원봉이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참여를 선언하기 전까지 김원봉 계열에 대한 지원과 연계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Ⅲ. 중일전쟁 후 한중의 대응과 연대 모색

1. 한국 독립운동 진영의 대응과 항전 노선

1937년 7월 7일 일본이 북경 교외의 노구교에서 중국군을 공격하면서, 소위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중일전쟁은 행방불명된 일본군을 찾겠다며 수색을 요구하던 일본군이 중국군을 공격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군이 중국군을 공격하자 중국군이 전면전으로 대응한 것이다.

중일전쟁의 발발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바라던 일이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이 1910년 한반도를 차지한 후 계속해서 세력팽창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이러한 예견 하에 독립군을 양성하였다가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중국과 함께 일본과 대일항전을 전개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었다. 독립운동가들이 예견한 대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였다. 1931년 9월에 동북을 침략하였고, 이에 이어 중국대륙을 침략한 것이다.

당시 중국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 세력은 크게 좌우익 양대 진영을 이루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과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좌익진영을 이루며 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좌우익 진영은 모두 중일전쟁의 발발을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고, 각각 이에 대응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군사활동을 계획·추진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국무회의에서는 "중일전쟁은 대일독립전쟁을 개시하여 雪恥報國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하면서, 군사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군사위원회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설립하였다. 1937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柳東說·李靑天·李復源·玄益哲·安敬根·金學奎 등 6명을 위원으로 한 군사위원회를 설립한 것이다.[34] 위원 6명 중 안경근을 제외한 5명은 일본육군사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등을 졸업하고 동북에서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을 조직하여 대일항전을 전개했던 군사인재들이었다. 이러한 군사인재들로 하여금 군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했다.

33) 林能士, 「國民黨派系政治與韓國獨立運動」, 『國立政治大學 歷史學報』 14, 203쪽.
34) 『임시정부공보』, 대한민국 19년 7월 16일(제62호).

군사위원회는 군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군사활동은 군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대일항전을 전개한다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고, 구체적 방안으로 "速成군관학교를 설립하여 최단 기간 내에 우선 1기로 초급장교 2백 명을 양성하고, 기본 군대로 1개 연대를 편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35] 이러한 계획에 대해 임시정부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초급장교 양성과 1개 연대 규모의 군대를 편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37만원을 책정한 것이다.[36]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일본군이 1937년 8월 상해를 점령한데 이어 남경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되자 임시정부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이후 임시정부는 일본군의 점령지역이 대륙 깊숙이 확대됨에 따라 진강 · 장사 · 광주 · 유주 · 기강 등지를 거쳐 1940년 9월 重慶에 정착할 때까지 피난처를 옮겨 다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군관학교를 설립할 수 없었고, 책정된 군사사업비도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의 피난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 것이다.[37]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 3당과 미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이 연합을 이룬 것이다. 당시 민족주의 계열은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국민당, 조소앙을 중심으로 한 한국독립당, 이청천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당으로 분립되어 있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3당은 중국이 일본과 전면적 전쟁에 돌입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며 연합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미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단체들도 연합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미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의 대한인국민회, 대한인단합회, 대한부인구제회, 동지회, 대한인애국단의 6개 단체와도 연합을 모색하여 1937년 8월 17일 9개 단체가 연합을 이룬 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를 결성하였다.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 및 단체들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란 연합체를 결성한 것은 중일전쟁 발발이 그 계기였다. 중일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중할 필요 때문이었다. 이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하면서 발표한 〈韓國光復運動團體對中日戰局宣言〉에 잘 나타나 있다. "중일전쟁은 우리 한중민족의 생사존망 최후의 문제", "우리한국민족은 群起하여 중국을 위해 항일전선에 참가함", "중한 양민족은 연합하여 왜적을 섬멸 응징할 것"을 연합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민족주의 계열의 세력은 연합을 이루어 중국과 함께 공동항전을 전개하고자 했다.

중일전쟁 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민족주의 세력의 결집은 중경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는 것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임시정부를 비롯한 민족주의 계열과 3당은 일본군의 점령지역이 확대되면서, 항주 · 진강 · 장사 · 광주 · 유주 · 기강 등지로 옮겨 다니다가 1940년 9월 중경에 정착하였다. 중경은 당시 중국국민당 정부의 임시수도였고, 비교적 전란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었다. 전란으로부터 안정적인 곳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한국광복군의 창설이었다.

임시정부는 중경에 정착하면서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한 것은 중국과 일본 간에 전면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군과 함께 항일

35) 大韓民國國會圖書館 編,『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大韓公論社, 1974, 746쪽.
36) 국사편찬위원회 편,『독립운동사』6, 국사편찬위원회, 1990, 144~145쪽.
37) 大韓民國國會圖書館 編,『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247쪽.

전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조선민족혁명당[38] 역시 중일전쟁 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시체제 마련에 들어갔다. 民族革命黨은 중일전쟁을 '중화민국 역사 뿐 아니라 전 동방 민족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대한 관건'으로 평가하였다. 객관적으로 현재 우리의 역량이 비록 부족하나 우방국과의 연합을 통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우방국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항전 승리가 곧바로 조선민족혁명의 성공이며, 반대로 중국의 항전 실패는 곧바로 조선혁명의 실패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39] 이에 중국의 항전을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대일 전면전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된 것이다.

대일전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좌익진영의 연합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정견과 당파관념을 버리고 하나의 기치 아래 혁명역량을 집중·강화시키기로 했다. "적 앞에 서있는 우리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지 못하겠느냐"[40]는 반문을 통해서 모든 독립운동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켜 중국과 함께 일본에 대항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중국의 전면항전이 시작되면서 대일항전의 노선으로 정했던 한중연합의 결성과 효과적인 항전에 대비한 전시체제 마련을 위한 좌익진영의 통일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11월 연합에 찬동한 민족혁명당·朝鮮民族解放運動者同盟·朝鮮革命者聯盟의 대표들이 남경에 모여 통일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朝鮮民族戰線聯盟(이하 민족전선) 결성에 합의하였다. 유자명은 민족전선의 기관지인 ≪朝鮮民族戰線≫에 〈조선민족전선연맹 결성과정〉을 싣고 민족전선의 창립 배경에 대해 "민족의 총 단결을 강조하게 된 역사적 조건의 변화 때문이었다."[41]고 설명했다. 민족전선은 反滿항일투쟁과 같은 특무활동에 주력할 것과 중국의용군과 연합할 것 등 전체 7綱 20目의 투쟁강령을 결정했다.[42]

항전 준비는 곧 군대창설로 이어졌다.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장개석은 김원봉 측에 "……물질적, 정신적 지원, 국제 반일연합전선의 결성, 중일 전선에의 참전"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원봉은 조직적 항전체제 마련을 위해 1938년 성자분교 출신 한인간부들과 民族戰線聯盟의 단원들을 중심으로 朝鮮義勇隊를 조직하였다.[43] 결성선언문에서 그는 "중국혁명이 완성되지 못함으로써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압박 착취가 더욱 심하며, 한국민족이 해방되지 못함으로써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이 더욱 포악해졌음이 사실이다.……조선의용대의 기치를 높이 달고 중국형제들과 굳게 손잡고 최후의 일각까지 분투하자"[44]며 조선의용대의 창설 목적이 독립 달성을 위한 한중 공동항전에 있음을 밝혔다.

---

38) 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신한독립당·미주 대한독립단 등이 자기 조직을 해체하고 남경에서 민족혁명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독립당과 신한독립당이 탈당하였다.

39)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7·7"을 기념하는 선언」, 1938년 7월 7일(독립기념관 소장, -004417-043).

40) 『申報』, 1937년 11월 3일자.

41) 『朝鮮民族戰線』 창간호, 1938년 4월 10일(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2, 151~152쪽).

42)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7·7"을 기념하는 선언」, 1938년 7월 7일(독립기념관 소장, -004417-043).

43) 중국 각지에서 한인 청년 83명을 선발해 中國中央軍官學校 星子分校 제6기 특별훈련반에 편입시켜 훈련받도록 했다. 성자분교는 본래 중일전쟁 발발 전 중국간부를 훈련하기 위해 설립해 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3개 성의 역행사원들이 주로 훈련받던 곳이었다. 역행사 상무간사 중의 한 사람이던 康澤이 훈련반 주임으로 있었다. 성자분교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은 한인간부들은 다음해 5월 졸업 후 武漢으로 향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중국인사증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박영사, 1983, 69~71쪽).

44) 조선의용대후원회, 『의용보』 제3호 로스앤젤레스, 1940. 3. 10(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2, 359~366쪽).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자 장개석은 이를 즉시 군대 조직으로 승인하였다. 다만 군은 규모가 크므로 隊로 조정하도록 하고,[45] 역행사 계통의 第1廳 청장이자 정치부 비서장이던 賀衷寒에게 조선의용대와 관련된 업무를 맡겼다.[46] 조선의용대는 창설 후 국민당정부 군사위원회 정치부 제2청 소속으로 편제 되어 중국군과 함께 전면항전에 참가하였다.[47]

조선의용대의 창설은 한중공동 항전을 목적으로 한만큼 중국 국민들 역시 이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조선의용대의 항전 참전은 국제중국지원의료단, 소련공군지원군의 중국지원 작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국민이 항일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다.[48]

2. 중국 진영의 대응과 한중연대 모색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을 계기로 장개석은 "전쟁의 시작은 중도타협을 허용치 않으며, 전 국민의 희생과 항전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盧山談話를 발표함으로써 전면 대일항전의 시작을 알렸다. 국민당 군대는 항전 제1기(1937~1938 11) '以空間煥時間'의 지구소모전략을, 항전 제2기(1938년 11~1941태평양전쟁 발발) '有限功勢與反擊'의 전략을 채택했다. 1937년 8월 20일 국민당군사위원회는 〈戰爭指導方案〉을 반포하고 국민의 운용은 지구전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확정지었다. 공간으로 시간을 확보한다는 이 방침은 적의 역량을 소모시켜 형세를 전환시킴으로써 최후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이었다.[49] 따라서 항전 초기 국민당정부는 전략적으로 상해와 남경을 포기하고 武漢으로 후퇴하였다. 이 같은 전략은 중국인들에게는 반민족적인 모습으로 매도되기도 했지만, 효과적인 항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기도 했다.[50]

중국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과의 엄청난 국력 차이와 영국 · 미국 등의 일본에 대한 완화정책 때문에, 대일작전 상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며, 많은 국토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 시기에 만약 국제적인 우호인사들이 중국을 지지하고 함께 전쟁에 참가한다면 대일항전에 큰 격려가 될 것이었다.[51] 따라서 국민정부는 항전 개시 후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모든 국가와의 연대 활동을 염두에 두었다.

특히 오랜 시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일본에 저항해 온 한국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장개석은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며,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 의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52] 그것은 일본의 대륙침략이 조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중국인사증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46쪽.
46)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 2001, 42쪽, 66쪽.
47) 조선의용대장은 김원봉이 맡았고, 제1구대장은 樸孝三으로 대원은 43명, 제2구대장은 李益星이고, 대원은 41명이었다(김영범, 「조선의용대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483쪽).
48)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편, 김승일 역,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시대의창, 2005, 19~20쪽.
49) 何應欽, 『八年抗戰之經過』 國家圖書館出版社, 1946, 13쪽.
50) 한상도,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시기－)』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93쪽.
51)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편, 김승일 역,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시대의창, 2005, 19쪽.
52)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편, 김승일 역,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19~20쪽.

생각한 때문이었다.

국민정부는 1940년 1월 8일 중경『大公報』에 "중일전쟁의 기점은 조선이다. 즉 그 종점 역시 반드시 조선이 된다. 중국항전의 '끝'은 어디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조선이라고 답할 수 있다. 우리가 북방을 수복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동북을 수복하고자 한다면, 또 대만을 조국으로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마지막으로 조선을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선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항전은 끝이 나는 것이다"는 내용의 〈爭取東亞解放〉을 실어, 중국 항전과 한국 독립 간의 불가분 관계를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한국에 대한 침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항전 역시 한국이 독립되어야 비로소 끝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중일전쟁이 중국만의 전쟁이 아니며, 한국의 독립운동이 한국만의 일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중 간 연대의 개연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국민정부 立法院長이자 손문의 아들인 孫科 역시 같은 이유에서 한국의 독립이 곧 일본의 침략 야심의 종결임을 피력한 바 있다.[53]

이러한 이유에서 장개석은 중일전쟁 발발 3일 만인 7월 10일 한국독립운동세력의 지도자들을 전격적으로 국민당정부 하기훈련단이 있는 江西省 盧山으로 초대해 한·중연합 항일전선의 구축 및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54]

한중 공동투쟁을 제의한 장개석은 1941년 10월 중국군사위원회에 재중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원조방안을 제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1942년 7월 20일 중국국민당 中央常務委員會 제206차 회의에서 한국원조문제가 논의되었고, 軍事委員會參謀總長 何應欽, 國防最高委員會祕書長 王寵惠, 國民黨中央組織部長 주가화, 國民黨中央黨部祕書長 吳鐵城, 진과부 등 7명이 참석해 한국원조정책의 조정과 강화를 연구하였다. 이후 두 차례의 회의를 더 거친 후 오철성은 장개석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였다. 장개석은 한국에 대한 지원방안 제출을 지시하였고, 하응흠, 주가화 등과 상의해 〈扶助朝鮮複國運動指導方案〉을 결정하였다. 이는 중국측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방안이자 한중연합의 추진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打入敵冠軍隊, 煽動韓籍士兵
2 與韓國本部及旅外韓僑設法聯絡
3 招致韓籍有志青年, 予以訓練
4 經常在韓國本部及敵寇軍隊中, 散播複國運動之文告[55]

중국의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지원형태는 주로 적군 안에 들어가 한인 병사들을 선동하고, 한국 본부

53) 손과는 동방문화협회, 국제반침략분회, 국민외교협회 등 단체가 주관한 한국문제강좌에서 장편의 연설문〈조선독립문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이 시기 우리는 마땅히 다시 한 번 한국독립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大戰 이후 한국이 반드시 독립해야만 일본 수십 년이래 동아시아를 獨霸하고 세계를 침략한 끝이 없는 야심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역사상 관찰된 결과이다(秋憲樹 編,『(資料)韓國獨立運動』1, 延世大學校出版部, 1971, 531~536쪽).

54) 朝鮮總督府警務局,『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昭和13年), 巖南堂書店, 1966, 270쪽.

55) 中國國民黨黨史 所藏,「軍事委員會第6948號快郵代電」, 1942년 12월 27일(石源華,『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論集』上, 民族出版社, 2009, 33쪽).

및 해외 한교들과 연락하며, 한인 청년들을 모집해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또 한국과 일본군 내에 독립운동 선전문을 산포하는 일도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점령지역 내에 침투해 연락망을 구축하고, 한인 청년들을 초모해 훈련시키며, 일본군 혹은 한국군과 중국군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활동들이 있었다. 병력과 재정상 한국독립운동 세력과 중국의 대등한 연합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연대활동은 한국독립운동세력으로 하여금 후방에서의 선전활동 지원이나 후방 병력을 훈련시켜 중국의 전면 항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한인독립운동세력의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또한 중국 내 반파시즘 세력을 주목하고, 피압박민족과의 연대를 지시했다. 중국공산당은 한중연대를 논의하기 위해 毛澤東, 周恩來, 朱德 등 23명이 출석한 政治局擴大會議를 陝西省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일본의 전력이 강한 상황에서 〈전민족의 전면 항전 노선과 지구전의 전략 총방침〉을 정식으로 확정지었다. 뿐만 아니라 〈中國共産黨抗日救國十大綱領〉을 발표해 영토주권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에 반대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반침략동맹을 맺어 항일 군사활동을 서로 돕자고 제안하였으며, 조선 · 대만 및 일본 국내의 농민 · 노동자들과 연합해 일본에 저항할 것을 강조하였다.[56] 이에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즉시 "민족자결 · 민족독립 · 공동항일의 슬로건 아래 조선인 · 蒙古人 · 回族을 무장시켜, 대일항전에 참가시키라"고 지시하였다.[57] 1938년 11월 제6기 擴大6中全會에서 채택된 〈신단계를 논함〉에서 역시 "중일 양대 민족의 군인 · 대중과 한국, 대만 등의 피압박민족이 공동의 반침략 통일전선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피압박민족과의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처럼 중일전쟁 이후 본격화 된 한중 공동투쟁과 중국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은 오랜 시간 다방면에서 전개한 한국독립운동의 성과를 인정한 결과인 동시에 중국 자신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58]

Ⅳ. 중일전쟁 후 공동 첩보활동 추진

1. CC파 계열과의 적 후방 교란활동

한국국민당은 1937년 중일전쟁을 중화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알리는 서막이자, 한국민족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중국 측과의 조속한 연계를 맺기 위한 교섭을 추진하였다. 우선 김구는 중국국민당 조직부장 주가화에게 편지를 보내 한중이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였다.[59]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독립운동 진영은 일본군에게 군사적으로 결정적 타격

56) 軍事歷史硏究部 編,『中國 抗日戰爭史』中, 解放軍出版社, 1993, 57쪽.
57) 日本國際問題硏究所 中國分會,『中國共産黨史資料集』8, 485쪽(한상도,『한국독립운동사』24, 195쪽).
58) 양우조 · 최선화 지음, 김현주 정리,『제시의 일기』, 혜윰, 1998, 176쪽.

을 가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김구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중 연대활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군사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대방법을 제시하였다. 김구는 "항전의 방법도 무력항쟁 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제 중국방면에서도 한인의 항전역량을 주목하고 긴밀한 연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0]

한국국민당은 당시에 처한 현실로 볼 때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적 후방 교란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시기를 놓칠 경우 관내와 동북, 국내의 교통로가 막히므로 최소한도의 후방 교란작전을 세워 우선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광복을 앞당기기 위해 전면적인 국권회복운동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다수의 유능한 인원을 적 후방에 침투시켜 군사시설에 대한 파괴 등 중국항전 당국과 공동항전을 전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61] 그 방법은 동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들을 동원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것, 그리고 개인 혹은 소규모 단체에 의한 첩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62] 김구는 1937년 12월 당원들을 상해 부근에 집결시켜, 제1분대는 동북, 제2분대는 조선, 제3분대는 일본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일본 정보기관은 "이들의 임무가 주요 일본 침략기관의 폭파 및 침략원흉의 암살 등을 결행하고, 치안교란을 통해 이를 동양의 혁명으로 이끌어 한국독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고 분석하였다.[63]

적 후방지역 가운데에서도 화북지역은 가장 중요한 작전지역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일본이 중국 관내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복해야 할 지역이 바로 화북이기 때문이었다. 또 중국에게는 동북을 수복해야 한국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지원할 수 있었는데, 동북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화북의 항전태세를 공고히 해야 했다.[64] 장개석의 冀東, 冀察 政權에 대한 압박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후방 특무활동에 있어서 역시 화북전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김구는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고 있던 주가화를 찾아가 화북지역 적군에 끌려온 韓人 사병들의 탈출을 적극 유도하고 훈련시켜 항전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주가화가 이에 동의하였고, 이 내용을 장개석에게 보내 비준을 청하였다.[65] 이후 김구는 김원봉과 함께 휘하의 공작대를 保定과 천진으로 파견해 宋哲元 29군의 항일행렬에 참가시키고 북경과 천진 당국의 일본에 대한 정보공작에 협조하도록 했다.[66]

또한 김구는 화북지역의 시국혼란을 이용해 후방 교란작전을 수행할 인물을 탐색하며, 비밀공작을 계획하였다. 그는 우선 安敬根과 嚴恒燮에게 국민당 중앙당부의 적군의 정보 수집활동을 담당하도록 했다.[67] 안경

59) 「중한 두 나라 국민당의 조속한 연계를 청하는 편지」(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5, 136~137쪽).
60) 「한국독립과 동아평화」, 『韓民』(중문판) 제1기 제1호(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4, 16쪽).
61) 「한국광복전선 소식」, 『韓民』(중문판) 제1기 제1호(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4, 41쪽).
62) 「한국국민당의 전시 후방 교란계획 책략」, 1937년 7월 30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5, 45쪽).
63) 內務省警報局保安果, 『特高外事月報』 2월호, 1938, 196쪽.
64) 趙西山, 「華北民衆은 어떻게 日寇에게 打擊을 加하였나?」, 『韓民』(중문판) 제1기 제1호(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4, 52쪽).
65) 「朱家驊 謹啓」(『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5, 141~142쪽).
66) 內務省警保局, 「1937年の在支不逞朝鮮人の不穩策動狀況」, 『朝鮮獨立運動』 2, 1938.
67) 徐有威, 「1931~1937年間國民政府與朝鮮獨立運動」, 『抗日戰爭研究』 第2期, 10쪽.

근은 안중근의 사촌동생으로 김구 및 安恭根이 지시한 첩보활동 임무를 맡고 있었고, 엄항섭은 1935년 김구가 설립한 학생훈련소의 澄光寺 시절 훈련소를 관장하던 인물이다.[68] 김구의 지시에 따라 천진에서 중국 측 군정 각 방면의 정보 수집을 수행하던 엄항섭은 천진 프랑스조계 공부국 정치부차장 러시아인 에무리야노브와 장기간 회담을 가진 후 김구와 함께 먼저 남경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안경근은 金東宇, 文逸民 등과 함께 계속 천진에 남아 활동하였다.[69] 이들은 국민당으로부터 매월 수천 원을 지원받아 첩보활동비로 사용하였다.[70]

안경근 등과 함께 CC파와 연계해 적 후방지역에서 특무활동을 전개할 인물을 물색하던 김구는 趙相淵[71]이라는 인물을 발견하고, 그를 천진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조상연을 CC파에서 추천한 것인지 김구가 선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천진파견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평가 받았던 것 같다. 일찍부터 CC파의 진립부·진과부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韓國國民黨靑年團의 부단장을 맡는 등 김구를 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를 졸업한 후 천진지역에서 직접 일본군과 전투를 했던 경험도 있어 천진 지리와 정세에 밝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8년 2월 5일경 조상연은 김구와 엄항섭으로부터 한국국민당 印支特派員으로 임명되어 일본군 기밀조사의 지시를 받고 홍콩을 경유해 천진에 잠입하였다. 이후 프랑스조계에 거처를 마련하고 韓淵, 李元一 등 십여 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일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72] 이 과정에서 그는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일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73] 또한 천진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68) 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 8, 國學資料院, 1994, 471쪽.
69) 「國外情報-上海情報」, 『治安狀況(昭和 12年)』 第26報~第43報, 1937년 9월 14일.
70) 徐有威, 「1931~1937年間國民政府與朝鮮獨立運動」, 『抗日戰爭研究』 第2期, 10쪽.
71) 조상연은 平安北道 定州郡 玉泉面 출생으로 중국에 건너와 中東鐵道 제6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다가1932년 7월 박찬익의 아들 박영준과 함께 상해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대련으로 떠났다. 조상연은 빠른 시간 내에 정식으로 군사교육을 받고 항일 투쟁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조상연은 남경으로 와 안휘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1933년 9월 안휘중학을 중도 퇴학하였다. 이후 浙江省 杭州·嘉興 등지에서 당시 장개석의 비호 아래 중국 국민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陣果夫·陣立夫가 조직한 비밀결사 C.C파에 가담하여 군자금을 지원받아 활약하였다. 조상연의 C.C파 가담은 진과부, 진립부와 오랜 시간 교유해 오던 친구 박준영의 아버지 박찬익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찬익은 일찍이 신규식을 따라 중국에 건너와 진과부, 진립부 등 중국 국민당의 주역들과 동고동락하였다. 중국 국민당의 요인들도 박찬익을 북벌의 선배로 또는 동지로 대접했다(박영준, 『한강물 다시 흐르고(朴英俊 자서전)』,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05, 45쪽). 그는 1934년 중국 국민당정부 장개석의 후원하에 중국 河南省 洛陽의 中央陸軍軍官學校 낙양분교 내에 한인특별반을 조직하자, 동년 1월 嚴恒燮의 권유로 낙양군관학교에 입교하여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구의 명으로 남경 중앙육군군관학교로 전학하여 1936년 7월 16일 제10기생으로 졸업하였다(「朝鮮思想事件豫審終結決定竝判決 在支民族主義者の外患事件」, 『사상휘보』 제20호, 1939년 9월 1일). 졸업 후 삼일 후인 19일 김구·엄항섭·車利錫 등이 주도하는 韓國國民黨 예비당원으로 입당하였고, 다시 일주일 후인 26일 엄항섭·安椿生·盧泰俊 등과 더불어 한국국민당 靑年團을 결성하여 부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7월 28일 중국 국민당정부로부터 육군 소위로 임명된 그는 중앙군 제14군 제10사단에 소속되어 8월 泳縣으로 출동하여 약 1개월간 京漢線 지역에 소속되어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하였다(「南京軍官學校出身 趙相淵控訴公判 平壤覆審에서 開廷」, 『東亞日報』 1939년 11월 19일자). 그 후 1937년 8월 김구의 명으로 중국 군대를 이탈하여 그 해 9월 한국국민당 정당원으로 입당한 그는 1938년 2월 5일 김구로부터 한국국민당 印支特派員으로 임명되어 같은 달 26일 천진으로 잠입하였다. 천진에서 활동하던 그는 1938년 11월 4일 천진의 영국조계 런던교 부근에서 천진 일본영사관 경찰에 의해 피체되어 압송되어, 다음 해 12월 순국하였다(國家報勳處, 『大韓民國 獨立有功者功勳錄』 第13卷, 國家報勳處, 1996, 554~555쪽).
72) 「天津에 潛入暗躍턴 朝鮮靑年을 護送 金九의 部下로 蔣直系의 少尉 定州出生의 趙相淵」, 『東亞日報』 1939년 1월 29일자.
73) 「한국광복전선 소식」, 『韓民』(중문판) 제1기 제1호(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4, 41쪽).

東北義勇軍과의 연락을 목적으로 다수의 부하를 동북에 파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74]

김구와 CC파는 조상연이 천진에서 수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였다. 그는 그 동안 수집한 天津義勇隊特別班員名[75] 및 천진조계 봉쇄의 형세 등을 漢口 거주 동지 등에게 타전하였다.[76] 또 일본군의 작전지대, 일본 경찰의 조직과 거류민 상황 등에 관한 정보도 한구의 김구와 장개석 정권에 제공하였다.[77] 이것은 조계 내의 陰家에 마련된 CC파의 단파 무전기를 통해 암호로 전송되었다.[78] CC파의 무선시설을 이용해 한구로 정보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조상연의 활동이 한중 공동항전의 일환이었음은 보다 분명해진다.

조상연 외에도 CC파와 연계되어 활동하던 김구 계열 사람이 있다. 바로 樸世烈이다. 조상연은 천진 영국조계 天樂飯店에서 비밀리에 천진 일본군의 병력 이동 상황 등의 조사를 그에게 의뢰하고자 했다.[79] 이를 위해 영국조계 런던교 부근에 박세열을 만나러 갔다가 천진일본영사관 경찰에게 피체되고 말았다.[80] 조상연이 박세열에게 정보 수집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아 박세열도 조상연과 같은 임무를 띠고 활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81]

CC파와의 연대활동은 일본 패망 때까지 계속되었다. 1945년 1월 일본군을 탈출한 학도병들과 함께 중경 임시정부에 도착한 鮮于鎭 역시 CC파와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중경에 머물던 어느 날 閔弼鎬의 소개로 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調查統計局(이하 中統)[82]에 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두 사람 외 김구뿐이었고, 민필호는 중앙조사통계국에게 선우진을 王一舟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고 한다. 이후 그들로부터 왕일주라는 신분증명서를 받게 되었고, 신변에 위험이 있어도 절대 신분증명서를 보이면 안 된다는 당부를 받았다. 그들은 중국 내 임시정부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83] 독립운동가들이 중통의 첩보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이들을 도와 해방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무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

74) 「天津에 潛入暗躍턴 朝鮮靑年을 護送 金九의 部下로 蔣直系의 少尉 定州出生의 趙相淵」, 『東亞日報』, 1939년 1월 29일자.
75) 일본의용대는 거류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안위와 안녕을 제일로 설정하고 이를 국민들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군국주의적 성격을 띤 단체이다. 중일전쟁 발발 후 천진일본의용대 내에 한인을 대원으로 하는 특별반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일본의용대를 도와 軍의 送迎接待와 貨物運輸 등을 맡았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緊張局面으로 접어들면서 조선인특별반의 임무도 확대되어, 大和公園의 塹壕와 바리케이트 제작, 탄약과 식량의 운반 및 부상병사의 운반, 중국병사 시체 운반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결국 이들은 일본의 천진 점령 후 일본에 협력해 활동했던 부일 혹은 친일 성향의 조직이었다 할 수 있다.
76) 「朝鮮思想事件豫審終結決定竝判決 在支民族主義者の外患事件」, 『사상휘보』 제20호, 1939년 9월 1일.
77) 「天津에 潛入暗躍턴 朝鮮靑年을 護送 金九의 部下로 蔣直系의 少尉 定州出生의 趙相淵」, 『東亞日報』 1939년 1월 29일자.
78) 「朝鮮思想事件豫審終結決定竝判決 在支民族主義者の外患事件」, 『사상휘보』 제20호, 1939년 9월 1일.
79) 위와 같음.
80) 「南京軍官學校出身 趙相淵控訴公判 平壤覆審에서 開廷」, 『東亞日報』 1939년 11월 19일자.
81) 「한국광복전선 소식」, 『韓民』(중문판) 제1기 제1호(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4, 41쪽).
82) CC파를 모체로 하는 중국국민당의 전국적인 특무조직으로 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調查統計局의 간칭이기도 하다. 1938년 8월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그 전신은 1928년 설립된 國民黨中央組織部調查科로, 1935년 國民黨中央組織委員會黨務調查處로 확대되었고, 1937년 軍事委員會調查統計局(軍通)第一處로 편입되었다. 진과부, 진립부의 직접 통제 하에 있었으며, CC파의 중요 기지였다.
83) 선우진 저, 최기영 편, 『백범 선생과 함께한 나날들』, 푸른역사, 2009. 326쪽.

2. 역행사 계열과의 정보수집 활동

중일전쟁 이후 비록 역행사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기는 했으나, 역행사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역행사 세력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계열을 초월한 한중공동의 첩보활동은 계속되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장개석은 한인 독립운동세력을 역행사에 가입시켜 함께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항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김원봉 역시 공적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대원들을 직접 중국 역행사에 가입시켜 활동하게 하는 문제를 고려하였다. 이에 金殿榮, 金承志를 직접 각지 국민당 시·당부 내에 파견해 중국인 역행사원과 함께 대일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이들은 주로 일본군의 정보 수집 및 파괴임무를 수행하였다.[84]

1938년 한중 공동항전 수행을 목표로 창설된 조선의용대는 조직 후 중국군과 직접 대일항전에 참전하며 많은 전적을 세웠다. 조선의용대는 중국군의 항일전선을 따라 무한에서 桂林, 중경으로 이동하며 활동했다. 중국 역행사 측은 다액의 자금을 조선의용대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85] 조선의용대원이 주로 담당했던 것은 정치훈련 방면, 군중의 정보공작, 적후에서의 첩보활동 등이다.[86] 구체적으로는 일본군의 정보수집, 적 정세 자료의 번역, 일본전쟁포로의 관리와 훈련, 일본군 내 한인에 대한 선동과 탈출, 일본군 병사 심리작전 진행, 중국군대에 협조해 선전활동 및 유격전쟁 참가 등이다.[87] 조선의용대는 중국군 6개 전구, 남북 13개省 戰地에 배속되어 대원 다수가 관내의 천진, 북경, 상해 및 대만으로 파견되었으며, 동북에도 파견되어 국경지역의 후방 교란작전을 펼쳤다.[88]

중국 역행사원과 조선의용대의 활동은 일본에 의해 곧바로 탐지되었다. 일본은 '중일전쟁 후 김원봉이 민족혁명당 계열 소속청년들을 화북지역에 파견했다'고 보고하였다.[89] 실제로 당시 이들은 중국 정치부공작원과 정보 수집 및 파괴공작을 진행하였고, 이 밖에 적진의 한인병사를 초모하는 임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90] 이에 일본은 관내지역과 동북지역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한중 역행사원들이 대거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던 화북지역에 대한 취체를 강화하였다.

특히 천진은 북경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상해, 동북 방면과의 교통 요충지에 해당해 요인들이 빈번히 왕래하며 활동을 전개하던 지역이다.[91] 또 8국 조계 내에서의 치외법권으로 정치적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워 각국 첩보활동의 본거지로 평가되었다. 이 때문에 역행사의 지방지부 역시 일찍이 천진에 설치되었다. 한중 역행사원들이 주로 선박을 이용해 천진으로 잠입했기 때문에 천진과 일본 및 인천을 운항하는 정기 일본선박에 대한 일본의 감시와 조사가 강화되었다. 천진과 인천을 운항하는 정기선박에 대해서도 塘沽에서 출항 전 충분한 검색을 실행하고 필요시에는 일본 경찰관을 승선시키도록 하였다.[92]

---

84) 「義烈團及丙寅義勇隊ノ復沽狀況」, 『外務省警察史 支那ノ部』, 7742~7743쪽.
85) 內務省警保局, 「最近の在支不逞朝鮮人(韓國獨立運動家)策動狀況」, 1941년 12월.
8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중국인사증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71~72쪽.
87)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論集』 上, 30~31쪽.
88) 廉仁鎬, 『朝鮮義勇軍研究』, 국민대박사학위논문, 1994, 41~42쪽.
89) 「上海情報」, 『治安狀況(昭和 12年)』 第26報~第43報, 1937년 10월 29일.
90) 徐有威, 「1931~1937年間國民政府與朝鮮獨立運動」, 『抗日戰爭研究』, 82쪽.
91) 朝鮮總督府警察局, 『高等警察報』第二號, 巖南堂, 1962, 35쪽.

화북이 일본 점령구로 편입되고, 역행사원들에 대한 일본의 취체가 강화되자 종래 천진의 華街를 근거로 활동하던 역행사원들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 영·프 양 조계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타국 조계에 대한 취체권이 없던 일본은 프랑스조계 공부국에 조계 내 역행사의 '철저적 취체'를 요청하였다.[93] 이처럼 화북이 일본에 함락 당하고 조계가 회수 되는 등의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행사 파견 및 이들과의 연대활동은 오히려 확대·강화되었다.

李雲邦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이 북경에 파견되어 본부를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후 다시 40명의 역행사원이 북상해 기찰, 기동정부 요인의 동정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94] 김원봉 역시 열 명의 대원들을 선발해 화북에 파견하고 일본군의 陣容, 編成, 實力 등을 조사하게 한 후 내용을 중국 역행사 측에 제공하였다.[95]

이들의 활동은 중국 각 계의 찬사를 받았다. 등걸이 기억하기에 "조선의용대의 두려움 없는 공작정신은……사람으로 하여금 경탄하고 존경하게 만들었다" 또 "이들은 적 후방 혹은 전구 어느 곳에 파견되어도 마다치 않았으며, 어떠한 성격의 임무를 맡더라도 마다치 않았다. 다만 그들의 임무는 모두 극도로 힘든 일이었고, 대우는 매우 열악했으며, 임무는 중요했다……. 그러나 그들의 공작 성적은 매우 양호했다"[96]고 이들의 독립에 대한 열의와 특무활동의 성과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김구 역시 역행사와 함께 활동하였다. 역행사와 조선의용대원과의 연대활동이 주로 화북지역에서 이루어진 반면 華南지역에서는 한국국민당 계열과의 연대활동이 주축을 이루었다. 대일항전이 제일의 목적이던 상황에서 노선과 계열을 초월한 광범위한 연대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중일전쟁 발발 후 한국국민당은 특무대를 대신할 한국국민당청년단을 조직하고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7월 중순부터 청년들을 화북 및 상해에 파견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일전쟁 당시 한국국민당은 본부를 남경에 두고 조사·행동·특무·교통·연락부를 상해와 화북 등지에 설치하고, 당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였다. 김구는 한국국민당원 金英浩 이하 6명을 화북에 파견해 북경시장 秦德純의 보호 하에 中韓互助社의 부활 및 일본 측의 군사, 기타 일반정보의 수집에 힘쓰게 하였다. 이들은 '한족항일동지회지행위원회'의 명의로 〈화북 거주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작성, 산포하기도 했다. 김구로부터 일본인 및 중국인의 암살과 일본군사시설의 파괴 등 화북에서 '후방교란'을 지시 받은 한국국민당원 李元益도 다섯 명의 중국 역행사원과 함께 천진 영국 조계 내 일본 병기공장과 군수품 저장창고 파괴의 사전공작으로 그 장소와 수량을 조사하는 등 일본군사시설의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97]

중국 역행사와 함께 특무활동에 종사하는 한국국민당원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또 다른 지역은 바로 상해였다. 일본의 정보 문서에 의하면 '10월 12일 중일전쟁 발발 후 한국국민당이 당원들을 상해에 파

92) 「滿洲國皇帝禦度日警戒ニ對スル署長訓達」, 『外務省警察史 支那ノ部』 第2, 天津總領事館, 1934.
93) 「抗日分子 取締 佛工部局에 嚴重勸告 天津의 我當局強硬決意表明」, 『東亞日報』 1938년 5월 10일자.
94) 「北平天津地方에 藍衣社員이 潛入 反日테로 行爲形勢」, 『每日申報』 1937년 4월 8일자.
95) 內務省警保局, 「최근의 재지 불령조선인(한국독립운동가) 책동상황」, 1941년 12월.
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중국인사증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71~72쪽.
97) 東亞局, 『外務省執務報告』, 東亞局, 1938, 368쪽.

견해 프랑스조계 高山路에 지부를 두고 상점으로 위장해 활동하였다. 이들은 남경정부 군사위원회 특무대의 대립과 연락하고 있었다. 또한 역행사 상해지사와도 연락을 유지하였다. 특히 조사부원은 虹口·楊樹浦·吳淞·江漢羅店·楊行·劉行의 전구에 들어가 일본군의 진용·편성·실력 등을 조사하고 무기·탄약·식량·비행기·대포의 저장소 등을 보고하였다. 중국군 비행기의 야간출동 성과는 이에 기인한다'면서[98] 한국국민당원들의 정보수집 활동의 높은 성과를 인정하였다.

한국국민당에서 파견한 한인 역행사원들의 일본군 정보수집공작의 성과가 뛰어나자 국민당정부는 정보인원들의 훈련비용과 활동경비 일체 그리고 전용통신대(電臺)를 김구 측에 제공하였다. 소쟁과 당시 中統局공작을 주도하던 徐恩曾는 김구에게 전용통신대와 인원을 제공해 주었다. 전용통신대의 중국 측 요원들은 전신업무를 훈련 받은 인물들로 김구 계열의 특무활동을 돕기 위해 김구 측에 직접 파견되어 활동했다.[99]

한편, 1943년 일본 관동군 密山헌병대에 재직하던 趙璘植[100]은 일본군을 탈출해 역행사에 가입한 뒤 山西省 일대에서 직접 항일전에 참여하는 등[101] 이들의 활동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Ⅴ. 맺음말

중일전쟁 발발 후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좌우익 독립운동 진영은 이를 독립전쟁의 절호의 기회로 여겨 한중 공동항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들은 각 진영을 통일하고, 독립전쟁 수행을 위해 군대를 창설하였다. 중국 역시 일본의 대륙 침략이 가속화 될수록 조선과의 연대가 필수불가결한 일임을 자각하고, 공식적으로 한중연대를 제안하였다.

장개석의 전면항전 선언 후 한중은 다양한 방면에서 공동항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중일전쟁 발발 당시 한국독립운동세력이 정규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한중 공동항전은 실전에 참가하는 것 보다는 첩보활동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중국 측의 지원으로 한인장교들이 양성되고 있었지만, 중국군과 연대하여 전면전을 치를만한 역량은 되지 못했다. 또한 중일전쟁 당시 중국군 내부에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군은 일본어에 정통한 한국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한 적 후방 교란활동, 일본군 정보수집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우익 진영의 김구와 주로 연대활동을 전개한 기관은 CC파이다. CC파는 중국국민당의 핵심세력인 진과부와 진립부 형제를 중심으로 조직된 기관으로, 중앙구락부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이들은 오랫동안 김구 계열을 지원하며 함께 활동한 사람들이었다. 김구는 중일전쟁 후 후방교란 작전을 수행할 적합한 인물을 찾았고, 그가 찾은 사람이 바로 조상연이다. 그는 1938년 천진으로 파견되어 이 지역의 일본군 정보를 수집해

98) 「한국국민당(김구파)」(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5, 63~65쪽).
99) 「韓國光復運動之隣爪」, 『中央日報』 1953년 8월 25일자.
100) 1912. 2. 13~1985. 6. 15 이명은 白峰, 麟植이다.
101) 國家報勳處 編, 『大韓民國獨立有功者功勳錄』 第5卷, 國家報勳處, 1988, 789쪽.

김구와 CC파에게 보내는 일을 하다가 일본에 피체되어 순국하고 말았다.

좌익 진영의 김원봉과 관계를 맺고 함께 천진, 상해 등 각 주요 도시에서 일본군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한 기관은 바로 삼민주의역행사이다. 역행사 역시 국민정부의 특무기관에 속한다. 역행사는 별칭으로 남의사라고도 불리었는데, 그 이름이 너무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중화민족을 부흥시킨다는 명분에서 조직명을 중화민족부흥사라 고치고, 간칭으로 부흥사라 하였다. 역행사와 김원봉의 관계는 황포군관학교를 통해 시작되었다. 역행사가 황포군관학교 4~6기생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김원봉은 역행사원들과 함께 주로 일본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집중했다. 이들은 적 정세 자료의 번역, 일본 전쟁포로의 관리와 훈련, 일본군 내 한인에 대한 선동과 탈출, 일본군 사병의 심리작전 진행, 중국군대에 협조해 선전활동 및 유격전쟁 참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윤봉길 의거에서 시작된 CC파, 역행사와 한국독립운동세력의 연계는 중일전쟁 이후 그들과의 공동 항전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 항일전쟁사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1931년 일본의 만주침공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대부분의 관내지역이 부일, 친일화 되어 한국독립운동이 전개되지 못했다고 하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일전쟁 후 일본이 완전히 점령한 천진과 상해 등지에서도 조상연, 박세열, 조선의용대 등이 중국 특무기관과 함께 적 후방 교란활동, 정보수집 활동 등을 전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았던 정신적 · 물질적 지원이 결코 중국 측의 일방적 수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측이 제공한 지원 내용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러한 지원에 대해 고마워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지원을 요청한 것과 중국 측이 그러한 요구를 들어준 것은 대일항전에서 한인독립운동세력이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과의 국력 차이, 미국 · 영국 등의 일본에 대한 완화정책 등으로 중국의 대일작전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며, 많은 국토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중국군 내부에 일본군 정보 수집을 담당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인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세 번째 중국 항일전쟁사의 의미를 전 세계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중국은 항일전쟁 시기 많은 아시아 피압박민족과의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시아 식민지국가들이 중국의 지원을 받았고, 또 연대를 이루어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다. 한국과의 공동항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한중의 공동항전이 단순히 한국과 중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반제국주의 투쟁의 일환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함께 활동했던 기억은 한중 우호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오랜 시간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국교 수립 후 한중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가 쉽게 복원될 수 있었다. 이는 일본에 대항해 공동으로 투쟁했던 역사적 경험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앞으로 동반자로서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항전의

역사적 연대감은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재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영범,「조선의용대 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창간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염인호,『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 2001.
張世胤,「中日戰爭期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對中國外交-光復軍 問題를 中心으로-」,『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_____,「국제적 반제국주의 연대투쟁으로서의 한국독립운동-중일전쟁 전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한국독립운동사연구』26, 2006.
韓哲昊,「1930년대 전반기 한중연대와 항일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2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중국인사증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박영사, 1983.

干國勳,『藍衣社復興社力行社』, 中華書局, 2014.
鄧元忠,『三民主義力行社史』, 實踐出版社, 1984.
範少方,『二陳和CC』, 河南人民出版社, 1993.
射俊美,「金九與中國國民黨交往述論」,『韓國研究論叢』15, 復旦大學 韓國研究中心, 2007.
徐有威,「1931~1937年間國民政府與朝鮮獨立運動」,『抗日戰爭研究』第2期, 中國抗日戰爭史學會, 1994.
石源華,『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論集(上)』, 民族出版社, 2009.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7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12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Joint Espionage Activities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and CC Group · Lixingshi

Yang, Jisun*

After the outbreak of Sino-Japanese War, the independence movement camps of the left and right wings which defected to China to prepare for independence war took such outbreak as an opportunity for the independence war, and actively promoted the joint resistance by Korea and China. However, the Korean forces of independence movement didn't have a regular military at the time of Sino-Japanese War, and thus the joint resistance by Korea and China focused on special duties rather then participating in actual battles.

Central Club was the organization which mostly launched united activities with Kim Gu of the right wing's camp. After the Sino-Japanese War, Kim Gu looked for the right person who can execute the confusion operation at the rear, and finally found Cho Sang-hyeon. Cho was sent to Tianjin in 1938 to collect inform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send it to Kim Gu and Central Club. However, he was later caught by the Japanese Empire and sacrificed.

Meanwhile, the organization which made ties with Kim Won-bong of the left wing's camp and launched activities of collecting Japanese military information at major cities including Tianjin, Shanghai etc was sanminzhuyi lixingshe. Sanminzhuyi lixingshe executed duties such as translating information on the enemy's circumstances, managing Japanese POW, training, instigating and extricating Koreans in the Japanese military, launching psychological operations against Japanese government troops, conducting propaganda activities by cooperating with the Chinese military and participating in guerilla wars.

The joint resistance against Japan by Korea and China after the Sino-Japanese War has great significances in the histories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s well as the Chinese resistance movement.

First, it is the basis of changing the recognition assuming that independence movements couldn't take place because most of the areas turned pro-Japanese starting from the Japanese

* Non-ta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invasion of Manchuria in 1931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Second, it means that the mental and physical support received from China after the heroic deed of Yun Bong-gil was not one-sided benefits. Under the situation where manpower collecting information from the Japanese military was insufficient inside the Chinese military, the role of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was very important.

Third, the significance of the history of Chinese resistance movement could be extended to the fight against global imperialism.

Finally, the historic bond of joint resistance is a powerful force that can deal with the drastic conservative swing of Japan, helping greatly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Key Words] Resistance by Korea and China, Central Club, sanminzhuyi lixingshe, fuxingshe, The Blueshirts, Cho SangYoen

東洋學 第62輯(2016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음양오행론에서 『淮南子』와 『五行大義』의 위상과 상이점

강성인* · 김만태**

▌국문초록 ▐

秦漢代의 음양오행론을 대표할 수 있는 『淮南子』와 隋代 『五行大義』의 음양오행론을 비교 · 분석하였다. 『회남자』는 時令을 기술한 「時則訓」을 포함하여 「天文訓」 · 「墜形訓」 · 「泰族訓」 등에서 음양오행 이론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한대까지의 문헌 중 음양오행론이 가장 발전하였고, 『오행대의』는 古代의 음양오행 이론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음양오행론의 대표적인 전적이다.

『회남자』의 음양오행론 중 오행의 생극과 왕상휴수사, 諸事物의 오행배속 등 대부분의 음양오행론이 『오행대의』와 상동하다. 그러나 오행의 生剋制化에서 『회남자』는 相生과 相剋을 설명하면서 合沖에 대한 논의가 없는데, 『오행대의』에서 干合과 支合, 그리고 干沖과 支沖의 합충이론을 기술하면서 생극합충 이론이 완성되었으며, 나아가 刑害 이론도 성립되었다. 그리고 『회남자』에서 토의 會合을 午戌寅이라 한 것을 『오행대의』에서 辰戌丑未로 정리하였고, 『회남자』에서는 토가 일 년을 관장하는 기간이 정리되지 않아 四季月說 · 72日季夏說 · 30日季夏說로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나, 『오행대의』에서 四季에 해당하는 辰未戌丑月을 토가 주재하는 달로 정하였다.

[주제어] 회남자, 오행대의, 음양오행론, 生剋合沖, 오행배속

▌목 차▐

Ⅰ. 머리말
Ⅱ. 음양오행론에서 『회남자』의 위상
Ⅲ. 『회남자』의 주요 음양오행론
Ⅳ. 음양오행론에서 『오행대의』의 위상
Ⅴ. 『회남자』와 『오행대의』의 음양오행론 비교
Ⅵ. 맺음말

* 제 1 저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박사과정 / luceen502@daum.net
** 교신저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조교수 / ware4u@hanmail.net

Ⅰ. 머리말

음양오행론은 전국시대 齊나라의 鄒衍에 의해 이론적인 형태를 갖추고, 광범위하게 유행하여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었다. 『尙書』「洪範」을 비롯하여 많은 문헌에 음양오행론이 기술되지만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淮南子』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근거한 음양오행론이 필요한 時令을 다룬 「時則訓」을 포함하여 天地四方의 음양오행에 관한 이론을 「天文訓」·「墜形訓」·「泰族訓」 등에 다방면으로 수록하고 있어, 한대까지 음양오행론이 가장 발전되고 다양하게 기술된 문헌이 『회남자』이다. 그 이후 음양오행론이 『春秋繁露』·『白虎通義』·『漢書』「五行志」 등에 단편적으로 전해오다가, 『五行大義』에서 隋代 이전까지 전하여 오던 음양오행론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였는데, 古代에 음양오행학설을 전문적으로 해석한 저작으로 음양오행론이 완전히 보존된 것은 『오행대의』만이 있을 뿐이다.

『회남자』는 한대 초기 회남왕 유안(B.C.179~B.C.122)이 B.C.139년에 漢武帝(B.C.156~B.C.87)에게 헌상한 책으로, 제자백가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저술하고 유안이 주편한 것이고, 『오행대의』는 隋代에 蕭吉(529~606)이 諸典籍에서 오행과 관련된 글을 발췌하고 찬술하여 開皇14년(594년)에 隋文帝(581~604)에게 올린 책이다.

『회남자』는 道家 黃老學이 중심 사상이었고, 황로학에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통한다는 천인감응론과 자연변화의 순리에 따르는 음양오행론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음양오행론은 한대 초기에 정치·사회 등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회남자』에서 오행의 生剋 관계와 오행의 성쇠를 판단하는 旺相休囚死와 十二運星法이 성립되고, 오행의 相治이론이 기술되었으며, 그리고 오행 중 토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오행의 用事를 정하였고, 시령을 통하여 諸事物을 오행에 배속하였다.

『五行大義』는 소길이 諸文獻에 나타난 오행론을 취합하여 정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저작하였다는 것보다는 문헌에 수록된 음양오행론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래서 음양오행론이 전반에 걸쳐 기술되었으며, 특히 진한대에는 성립되지 않았던 合沖理論이 완성되었다.

『회남자』의 선행연구가 道家·無爲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많은데,[1] 음양오행론에 대해서는 이석명의 「『회남자』의 時令思想과 음양오행론」, 그리고 강성인의 「『회남자』의 음양오행사상과 명리학의 연관성 고찰」과 「『회남자』에 나타난 음양오행론의 특징」이 있다.[2] 이석명은 시령사상을 중심으로 음양오행론에 접근하였고, 강성인의 「『회남자』의 음양오행사상과 명리학의 연관성 고찰」은 명리학의 근원과 음양오행론의 상관성 연구

1) 윤찬원, 「『회남자』에 있어서 도가적 계기와 도교적 계기」, 『동아문화』 27,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89; 이석명, 「『회남자』의 무위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박승현, 「『회남자』에 나타난 도가사상의 경향」, 『중국학보』 45, 한국중국학회, 2002; 김용수, 「『회남자』에 나타난 莊學사상」, 『도교문화연구』 20, 한국도교문화학회, 2004; 박문현, 「『회남자』의 무위의 정치사상」, 『통일전략』 9,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윤지원, 「『회남자』와 도가」, 『도교문화연구』 32, 한국도교문화학회, 2010; 박승현, 「『회남자』에 나타난 무위개념의 특징」, 『동양철학』 35, 한국동양철학회, 2011.

2) 이석명, 「『회남자』의 시령사상과 음양오행론」, 『大東文化硏究』 7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강성인, 「『회남자』의 음양오행 사상과 명리학의 연관성 고찰」, 『도교문화연구』 40, 한국도교문화학회, 2014; 강성인, 「『회남자』에 나타난 음양오행론의 특징」, 『동양학』 5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에 치중하였으며, 「『회남자』에 나타난 음양오행론의 특징」에서는 『회남자』에 포함된 고유한 음양오행론을 다루었다. 『오행대의』의 선행연구는 이동아의 「오행의 원리와 取象歸類의 방법(소길의 『五行大義』를 중심으로)」(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과 장종원의 「소길의 『五行大義』에 나타난 오행설 연구」(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가 있다. 위 두 논문은 주로 『오행대의』의 해석에 치중하면서, 이동아는 『오행대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행의 사유와 취상귀류의 방법을 논하였고, 장종원은 음양오행설의 성립과 변용과정을 논술하면서 『오행대의』를 해설하였다.

이에 논자는 『회남자』를 통하여 진한대의 음양오행론을 논의하면서, 『회남자』가 타 문헌에 비해 음양오행론이 다양하게 수록된 이유를 설명하고, 음양오행론이 총괄된 『오행대의』에서 오행의 생극제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700여년의 시차를 둔 『회남자』와 『오행대의』에 내재된 음양오행론의 상이점을 찾고자 하였다.

『회남자』의 음양오행론 중 오행의 생극과 왕상휴수사, 諸事物의 오행배속 등 대부분의 음양오행론이 『오행대의』와 상동하다. 그러나 『오행대의』에는 『회남자』에서 밝히지 못한 중요한 이론을 수록하고 있다. 음양오행론의 핵심이 生剋制化인데 『회남자』는 생극에 대하여 「천문훈」과 「지형훈」에서 相生과 相剋을 설명하면서 생극이론은 완성했으나 합충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오행대의』에서 天干合과 地支合 뿐만 아니라, 天干沖과 地支沖이 성립되어 「論合」과 「論衝破」에서 합충을 설명하면서 생극합충 이론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오행대의』는 생극합충 외에 刑害 이론도 기술하였고, 『회남자』의 토의 會合과 토의 用事를 이치에 합당하게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음양오행론에서 진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회남자』와 수대의 『오행대의』 두 문헌을 통하여 그들의 위상을 밝히고 상이점을 논의함으로서 음양오행론이 성숙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음양오행론에서 『회남자』의 위상

1. 음양오행론에서 『회남자』의 비중

『회남자』에 음양오행론이 다른 문헌에 비하여 다양하고 풍부하게 기재된 것은, 고대에 음양오행론이 시령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회남자』의 「시칙훈」을 통하여 『禮記』 「月令」과 『呂氏春秋』 「十二紀」와 더불어 시령에 나타나는 음양오행론을 함축할 수 있었고, 한대 『회남자』 이후 음양오행론을 중요하게 다룬 『춘추번로』와 『백호통의』 등에 수록된 음양오행론은 대부분 「天文訓」·「墜形訓」·「泰族訓」을 중심으로 二十一訓 전반에 걸쳐 기술되면서, 진한대에 성행한 음양오행론이 『회남자』에 포함되어 한대의 음양오행론을 대표할 수 있다.

전국시대 음양오행가의 주요한 저작 중의 하나가 '월령'이었다. 고대에 중시한 시령사상이 『詩經』 「豳

風·七月」에 단편적이나마 처음 기술되고,『여씨춘추』「십이기」와『예기』「월령」에 12개월 전체의 '월령'이 수록되었는데,『예기』「월령」은『管子』「幼官」과 후대에『大戴禮記』속에 편입된「夏小正」을 종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3] 시령은 자연법칙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양오행론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시령에 수록된 음양오행론은『회남자』「시칙훈」이 포함하고 있다.

『陰陽五行及其體系』에서「시칙훈」이『예기』「월령」과『여씨춘추』「십이기」가 동일한 저작에 근원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 음양오행설은 한대에 와서 이미 매우 유행하는 사상체계가 되었는데, 예컨대 동중서의『春秋繁露』와『淮南子』의「天文訓」·「墜形訓」·「時則訓」(「시칙훈」은『禮記』「月令」,『呂氏春秋』「十二紀」의 첫머리 편과 근원이 동일한데, 이는 마찬가지로 추연의 저작에서 초록했을 가능성이 있다.)·「主術訓」[4] 이 있고, 이 외에 또『白虎通』과『黃帝內經』이 있다.[5]

한대에 음양오행론이 중시되어 저명한 문헌인『春秋繁露』·『淮南子』·『白虎通』·『黃帝內經』에 음양오행론이 기술되었고,『회남자』「시칙훈」과『예기』「월령」, 그리고『여씨춘추』「십이기」의 서두 부분이 상동한 것은 추연의 글을 초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회남자』「시칙훈」에 정월의 시령이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 맹춘의 달, 초요는 寅을 가리키고, 저녁에는 參宿가 南中하고 새벽에는 尾宿가 남중한다. 그 위치는 동방이고 그 날은 갑을에 해당되며 성덕은 목에 속한다. 그 동물은 비늘 있는 동물이다. 소리는 角이며 律은 太簇에 해당된다. 그 수는 8이고, 그 맛은 신맛이며 냄새는 누린내가 난다. 제사 지내는 곳은 문이며, 제사에는 먼저 비장을 사용한다.[6]

정월에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며, 준수사항을 알려준다. 문장 중에 寅·東·甲乙·木·鱗·角·太簇·八·酸·膻·戶·脾가 모두 음양오행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정월의 월령이라서 모두 목에 배속된다. 목에 비늘이 있는 짐승 鱗을 배속한 것은 인이 청룡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제사에 비장(脾)을 올리는 것은 고문『尙書』와 당시 시령을 다룬『예기』「월령」·『여씨춘추』「십이기」·『회남자』「시칙훈」이 비장을 목에 배속한 것을 따른 것이다.[7]

---

3) 양계초·풍우란 저, 김홍경 역,『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283~284쪽.

4)『회남자』에는「時則訓」·「天文訓」·「墜形訓」·「泰族訓」에 음양오행 기능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主術訓」에서 음양론은 통치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寇莫大於陰陽, 而枹鼓爲小"라고 음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만 있다.

5) 鄭芷人,『陰陽五行及其體系』, 台北: 文津出版社, 1992, 45쪽,「董仲舒的陰陽五行說」, "陰陽五行說到了漢代, 已成爲非常流行的思想架構, 例如董仲舒的『春秋繁露』·『淮南子』的「天文訓」·「墜形訓」·「時則訓」(此篇與『禮記』「月令」及『呂氏春秋』「十二紀」首篇同一根源, 可能同是抄錄自鄒衍的著作)·「主術訓」, 此外, 還有『白虎通』·『黃帝內經』."

6)『淮南子』「時則訓」, "孟春之月, 招搖指寅, 昏參中, 旦尾中. 其位東方, 其日甲乙, 盛德在木, 其蟲鱗, 其音角, 律中太蔟, 其數八, 其味酸, 其臭膻, 其祀戶, 祭先脾."

7) 강성인, 앞의 논문, 2015, 163~166쪽 참조; 김교빈·박석준 외,『동양철학과 한의학』, 아카넷, 2003, 83쪽 참조.

『여씨춘추』「십이기」의 정월 시령 첫 부분[8]과 『예기』「월령」의 정월 시령 첫 부분[9]이 「시칙훈」과 동일한 근원이고, 시령 전체의 내용도 유사하다. 유사한 이유에 대하여 鄺芷人은 지금은 소실되었지만 당시 추연의 저작을 초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0] 『회남자』의 「시칙훈」은 『여씨춘추』「십이기」와 『예기』「월령」의 시령에 포함된 음양오행론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여씨춘추』는 「십이기」 외에서 음양오행론을 기술한 것은 「應同」의 五行相勝說에 따른 '五德終始說' 뿐이고,[11] 『예기』는 「월령」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음양오행론이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남자』는 「시칙훈」의 시령에서 음양오행론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천문훈」·「지형훈」·「태족훈」 등에서도 다양한 음양오행론을 서술하였다.

『음양오행설의 연구』에서도 음양오행에서 『회남자』가 『여씨춘추』를 능가한다고 설명한다.

> 『회남자』는 천상의 일과 인간의 일을 포괄하고 만물과 만상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러므로 이 책 20편을 저술하니 여기에서는 천지의 이치가 연구되고, 인간의 일이 다루어지며, 제왕의 도가 갖추어진다. 그 말에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며, 미세한 것도 있고 성긴 것도 있다."[12] 그 가운데서 기본골격으로 음양오행의 기능도 보다 정제되고 내재된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呂氏春秋』를 멀리 뛰어넘는다.[13]

『회남자』가 『여씨춘추』「십이기」의 방대한 시령 체계를 「시칙훈」에 요약하면서, 일부분 수정하거나 보충한 형태가 되게 하였고,[14] 「천문훈」·「지형훈」·「태족훈」 등에서 음양오행 기능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음양오행 부분에서 『여씨춘추』를 능가한다.

그리고 『회남자』에 함축된 음양오행론의 다양성을 한대에 음양오행론이 기술된 동중서의 『춘추번로』와 반고의 『백호통의』 등과 비교하면서 한대의 음양오행론을 논의하겠다.

동중서는 정신 실질적 측면에서 전술한 『呂氏春秋』의 방향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인사정치와 천도의 운행을 견강부회적으로 결합시키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음양가를 뼈대로 하는 체계의 틀을 밖으로 돌출시키고, 음양오행[天]과 왕도정치[人]의 일치와 상호영향을 강조하는 이른바 천인감응을 이론의 축으로 하면서 그것을 둘러싼 모든 것을 전개시켰다.[15]

---

8) 『呂氏春秋』「十二紀」, "孟春之月: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 其日甲乙. 其帝太皞. 其神句芒. 其蟲鱗. 其音角. 律中太蔟. 其數八. 其味酸. 其臭羶. 其祀戶. 祭先脾."

9) 『禮記』「月令」, "孟春之月,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 其日甲乙. 其帝大皞, 其神句芒. 其蟲鱗. 其音角, 律中大蔟. 其數八. 其味酸, 其臭膻. 其祀戶, 祭先脾."

10) 鄺芷人, 앞의 책, 92쪽 참조.

11) 『呂氏春秋』「應同」, "凡帝王者之將興也, 天必先見祥乎下民. 黃帝之時, 天先見大螾大螻, 黃帝曰「土氣勝」, 土氣勝, 故其色尚黃, 其事則土. 及禹之時, 天先見草木秋冬不殺, 禹曰「木氣勝」, 木氣勝, 故其色尚青, 其事則木. 及湯之時, 天先見金刃生於水, 湯曰「金氣勝」, 金氣勝, 故其色尚白, 其事則金. 及文王之時, 天先見火, 赤烏銜丹書集於周社, 文王曰「火氣勝」, 火氣勝, 故其色尚赤, 其事則火. 代火者必將水, 天且先見水氣勝, 水氣勝, 故其色尚黑, 其事則水."

12) 『淮南子』「要略訓」, "故著書二十篇, 則天地之理究矣, 人間之事接矣, 帝王之道備矣, 其言有小有巨, 有微有粗."

13) 양계초 · 풍우란 저, 앞의 책, 323쪽.

14) 이석명, 「『회남자』의 시령사상과 음양오행론」, 『大東文化硏究』 7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145쪽.

15) 양계초 · 풍우란 저, 앞의 책, 327쪽.

『춘추번로』는 오행의 相生과 相剋[相勝[16]]관계를 「五行相生」에서 "木生火,……火生土,……土生金,……金生水,……水生木."이라고 오행의 상생을 설명하고, 「五行相勝」에서는 "金勝木,……水勝火,……木勝土,……火勝金,……土勝水."라고 오행의 상극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백호통의』에서 오행의 상생과 왕상휴수사를 설명한다.

> 오행은 어떤 것이 더욱 왕한가? 돌아가면서 서로 생하며, 시작과 끝이 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다. 그래서 목이 王하면, 화는 相이 되고, 토는 死가 되며, 금은 囚가 되고, 수는 休가 된다.[17]

오행의 상생관계를 설명하고, 왕상휴수사를 통하여 오행의 각자 세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백호통의』에 음양오행론이 다양하게 기술되었는데, 상극과 토왕사계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오행에서 서로 해하는 것은, 천지의 성질이, 많음은 적음을 극하니, 수는 화를 극하고, 정교함은 견고함을 극하니, 화는 금을 극하며, 강함은 유함을 극하니, 금은 목을 극하고, 전일함은 산만함을 이기니, 목은 토를 극하며. 실함은 허함을 이기니, 토는 수를 극한다.[18]

> 토는 어찌하여 사계의 왕인가? 목은 토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고, 화는 토가 아니면 타지[熒][19] 못하며, 금은 토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는 토가 아니면 높이 쌓이지 못한다. 토는 미세한 것을 부조하여, 두루 그 도를 이루니, 오행이 바꾸며 생하더라도, 역시 토가 필요하다. 토는 사계의 왕이 되어, 사계에 거하며, 때에 이름 붙이지 않는다.[20]

『백호통의』에서 오행의 생극과 왕상휴수사, 그리고 토왕사계론을 설명하면서 『춘추번로』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음양오행론을 제시한다.

『춘추번로』의 오행의 생극이론과 『백호통의』의 왕상휴수사와 토왕사계론이 『회남자』에 모두 보이는데, 「천문훈」과 「지형훈」에서 오행의 상생[21]과 상극[22]을 설명하고, 「지형훈」에서 왕상휴수사[23]를 기술하면서

---

16) 『회남자』·『춘추번로』·『백호통의』 등 한대의 문헌에는 극을 승으로 표시하였다.
17) 『白虎通』「五行更王相生相勝變化之義」, "五行所以更王何? 以其轉相生, 故有終始也.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是以木王, 火相, 土死, 金囚, 水休."
18) 위의 책, "五行所以相害者, 天地之性, 衆勝寡, 故水勝火也. 精勝堅, 故火勝金. 剛勝柔, 故金勝木. 專勝散, 故木勝土. 實勝虛, 故土勝水也."
19) 반고 저, 신정근 역, 『백호통의』, 소명출판사, 2005, 154쪽 각주, "원래 榮이지만 문의와 판본 교감에 따라 고쳐서 번역한다."
20) 『白互通』「五行更王相生相勝變化之義」, "土所以王四季何? 木非土不生, 火非土不榮, 金非土不成, 水非土不高. 土扶微助衰, 歷成其道, 故五行更生, 亦須土也. 王四季, 居中央, 不名時."
21) 『淮南子』「天文訓」,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22) 위의 책, 「墜形訓」, "木勝土, 土勝水, 水勝火, 火勝金, 金勝木."
23) 위의 책, 「墜形訓」, "木壯, 水老, 火生, 金囚, 土死. 火壯, 木老, 土生, 水囚, 金死. 土壯, 火老, 金生, 木囚, 水死. 金壯, 土老, 水生, 火囚, 木死. 水壯, 金老, 木生, 土囚, 火死."

壯生老囚死로 표기했다. 『백호통의』의 토왕사계설을 『회남자』에서는 「천문훈」에서 "甲·乙·寅·卯는 木이고, 丙·丁·巳·午는 火이며, 戊·己는 四季의 土다."[24]라고 『회남자』만의 특별한 '사계설'로 설명한다. 그리고 「천문훈」에서 생·왕·사를 통해 문헌상 처음으로 지지삼합과 십이운성법을 도출하였다.

『회남자』가 한대 초 『춘추번로』나 『백호통의』보다 먼저 저술되었지만 한대의 음양오행론을 대부분 함축할 수 있었던 것은 「시칙훈」에서 시령을 기술함으로서 제 사물을 음양오행에 배속하여 음양오행 기능에 맞는 시령을 제정하고, 『여씨춘추』와 『예기』에는 없는 五位·六合·制度를 기술하여 음양오행의 기능을 보강했으며, 「천문훈」·「지형훈」에서 오행의 생극과 왕상휴수사, 그리고 토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토의 회합과 십이운성법 및 토의 용사를 기술하고, 또한 五行相治를 통하여 오행의 待對關係를 설명함으로서, 다양한 음양오행론을 내포하여 음양오행론에서 진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회남자』의 주요 음양오행론

『회남자』의 음양오행론은 「시칙훈」의 시령에서 방향·물질·숫자·맛·냄세·五祀·五藏·五色·가축·관리·樹木·制度 등을 오행에 배속하였고,[25] 「천문훈」·「지형훈」·「태족훈」을 중심으로 오행의 상생과 상극 및 오행의 성쇠를 나타내는 왕상휴수사와 오행의 相治 이론이 수록되었으며, 그리고 24절기와 육십갑자 간지력이 정립되고 寅月歲首가 시행되었다.[26] 본 절에서는 오행의 생극제화, 즉 중화작용에 관계되는 주요 음양오행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오행의 生剋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론은 음양오행론의 기초이론으로 春秋時期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龐樸은 「五行思想三題」에서 당시 사람들의 이름과 字에 오행상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27] 그리고 王引之의 『經義述文』「春秋名字解詁」에 名과 字의 관계를 오행의 상생이론으로 설명한다.[28]

> 秦나라의 白丙은 字가 乙인데, 丙은 火이고 剛日이며, 乙은 木이고 柔日이다. 이름이 丙이고 자가 乙인 것은 화가 목에서 생하는 것을 취한 것이고, 또 剛柔가 서로 돕도록 한 것이다. 鄭나라의 石癸는

24) 위의 책, 「天文訓」, "甲乙寅卯, 木也, 丙丁巳午, 火也, 戊己, 四季土也."
25) 강성인, 「『회남자』의 음양오행 사상과 명리학의 연관성 고찰」, 『도교문화연구』 40, 한국도교문화학회, 2014, 54쪽 도표 참조.
26) 강성인, 앞의 논문, 2014, 59~63쪽 참조.
27) 龐樸, 「五行思想三題」, 『山東大學學報』, 1964년 제1기(殷南根, 『五行新論』,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3, 11쪽에서 재인용).
28) 彭華, 「陰陽五行研究(先秦篇)」, 上海: 華東師範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4, 80쪽; 殷南根, 『五行新論』,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3, 11쪽.

字가 甲父인데, 癸는 水이고 柔日이며, 甲은 木이고 剛日이다. 이름이 癸이고 자가 甲인 것은 목이 수에서 생하는 것을 취한 것이고, 또 剛柔가 서로 돕도록 한 것이다.[29]

이름과 字가 서로 생하는 이치를 사용하였는데, 앞부분은 字가 이름을 생하고, 뒷부분은 이름이 字를 생하게 하여 이름과 자가 서로 돕는 오행의 상생이론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管子』「五行」에서 1년 중 오행의 72일 用事를 설명하면서 "甲子,……丙子,……戊子,……庚子,……壬子."로 오행의 次序를 상생에 맞게 처음 배열함으로서 목 → 화 → 토 → 금 → 수의 상생관계가 성립되었다.

오행의 상극이론은 『尙書』「大禹謀」에 "덕은 정치를 잘하는 데에서 이루어지고, 정치는 백성을 잘 기르는 데 있습니다. 수·화·금·목·토·곡을 잘 다스리십시오(於! 帝念哉, 德惟善政, 政在養民. 水·火·金·木·土·穀)."라고 오행을 언급하면서 수 → 화 → 금 → 목 → 토를 상극의 관계로 설명한다. 그리고 전국시대 鄒衍의 五德終始說[30]이 五行相勝說에 근거하면서 이 때 이미 오행의 상극개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여씨춘추』「應同」에도 五行相勝說에 따른 五德終始說[31]을 기술하여 오행의 상극개념을 설명한다.

그러나 한대 이전에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관계를 이해하고 사용은 하였으나 공식화하여 설명되지는 않았는데, 『회남자』「천문훈」에서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며, 화는 토를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라고 오행의 相生關係를 설명하고, 「지형훈」에서 "목이 토를 이기고, 토는 수를 이기며, 수가 화를 이기고, 화는 금을 이기며, 금이 목을 이긴다(木勝土, 土勝水, 水勝火, 火勝金, 金勝木)."라고 오행의 相剋關係를 공식화하여 기술함으로서 오행의 생극관계가 완성되었다.

2. 十二運星法과 地支三合

십이운성법은 오행의 生長盛衰에 따른 힘의 변화를 12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生死所·十二運程法·十二胞胎法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천문훈」에서 오행의 생사과정을 기술하면서 지지 삼합을 통하여 오행의 십이운성법을 설명한다.

木은 亥에서 생하여 卯에서 壯[旺][32]하고 未에서 죽으며 三辰이 모두 목이다. 火는 寅에서 생하여 午에서 장하고 戌에서 죽으며 삼신이 모두 화이다. 土는 午에서 생하여 戌에서 장하고 寅에서 죽으며 삼신이 모두 토이다. 金은 巳에서 생하여 酉에서 장하고 丑에서 죽으며 삼신이 모두 금이다. 水는 申에서 생하여 子에서 장하고 辰에서 죽으며 삼신이 모두 수이다.[33]

---

29) 王引之, 『經義述文』「春秋名字解詁」, "秦白丙字乙: 丙, 火也, 剛日也, 乙, 木也, 柔日也: 名丙字乙者, 取火生于木, 又剛柔相濟也. 鄭石癸字甲父: 癸, 水也, 柔日也, 甲, 木也, 剛日也: 名癸字甲者, 取木生于水, 又剛柔相濟也."

30) 劉向, 『七略』, "鄒子有從始五德, 從所不勝: 土德後, 木德從之, 金德次之, 火德次之, 水德次之."

31) 본문 각주 11 참조.

32) 현대명리학에서 사용하는 旺字를 『淮南子』에서는 壯字로 표시했다.

33) 『淮南子』「天文訓」, "木生于亥, 壯于卯, 死于未. 三辰皆木也. 火生于寅, 壯于午, 死于戌, 三辰皆火也. 土生于午, 壯于戌, 死

오행의 生·旺·墓를 합하면 지지 삼합이 되는데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오행의 生·旺·墓[三合]

	木	火	土	金	水
生	亥	寅	午	巳	申
旺[壯]	卯	午	戌	酉	子
墓[死]	未	戌	寅	丑	辰

「천문훈」에 나타난 生·壯·死는 현대음양오행 이론의 십이운성법에 해당되며 문헌상에 처음 기술되었다.[34] 현대음양오행 이론과 비교하면 生·旺·墓를 生·壯·死로 표기하여 용어의 차이가 있다. 「천문훈」의 '壯'은 '旺'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死'와 '墓'는 의미가 다른데도 같은 위치에 쓰인 것은 '死'를 죽어서 묻힌다는 '墓'의 뜻으로 사용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음양오행론의 지지 삼합 이론에 해당하는 亥卯未 合木, 寅午戌 合火, 巳酉丑 合金, 申子辰 合水 외에 午戌寅 合土를 추가하고 있다.[35] 아마도 오덕종시설의 영향으로 한대에 토를 중시하는 풍조가 합토를 기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남자』에서 오행의 생사를 통하여 삼합이론과 십이운성법을 처음으로 기술하였고, 삼합이론에서 오술인을 합토로 인식한 것은 『회남자』가 유일하다.

3. 육합

地支六沖에 해당하는 것을 『회남자』에서 六合이라 칭하면서. 「時則訓」에서 "육합은 맹춘과 맹추가 합이고, 중춘과 중추가 합이며, 계춘과 계추가 합이며, 맹하와 맹동이 합이며, 중하와 중동이 합이며, 계하와 계동이 합이다."[36]라고 육합을 언급하면서 합이 되는 달들 사이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寅申·卯酉·辰戌·巳亥·午子·未丑 여섯 가지의 待對關係를 육합이라 칭했다.

육합은 『춘추번로』에는 언급되지 않고, 『백호통』「五行」에 "사람이 오장육부가 있는 것은 무엇을 본뜬 것인가? 오행육합을 본 뜬 것이다(人有五藏六府何法？法五行六合也)."라고 육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단어만 사용하였고, 『黃帝內經』「生氣通天論」에도 "근본이 음양천지 사이에 있고, 육합의 안이다(本於陰陽天地之間, 六合之內)."라고 육합이란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회남자』에서 설명한 육합은 현대의 地支六合

于寅, 三辰皆土也. 金生于巳, 壯于酉, 死于丑. 三辰皆金也. 水生于申, 壯于子, 死于辰, 三辰皆水也."

34) 김만태, 「地支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지지합 연구」, 『철학논집』 31, 서강대 철학연구소, 2012, 234쪽 참조.

35) 강성인, 앞의 논문, 2014, 65쪽.

36) 『淮南子』「時則訓」, "六合. 孟春與孟秋爲合, 仲春與仲秋爲合, 季春與季秋爲合, 孟夏與孟冬爲合, 仲夏與仲冬爲合, 季夏與季冬爲合."

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었고, 『백호통』과 『황제내경』의 육합이 의미하는 것은 현대음양오행 이론의 지지 육합이라기 보다 천지사방 즉 우주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37]

『회남자』를 포함하여 한대까지의 문헌에는 오행에서 沖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볼 때 아직 한대에는 합충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4. 오행의 旺相休囚死

「지형훈」에서 오행의 성쇠를 판단하는 왕상휴수사를 설명하고 있다.

> 목이 壯하면 수는 老하고 화는 生하며 금은 囚하고 토는 死한다. 화가 壯하면 목은 老하고 토는 生하며 수는 囚하고 금은 死한다. 토가 壯하면 화는 老하고 금은 生하며 목은 囚하고 수는 死한다. 금이 壯하면 토는 老하고 수는 生하며 화는 囚하고 목은 死한다. 수가 壯하면 금은 老하고 목은 生하며 토는 囚하고 화는 死한다.[38]

旺相休囚死를 壯生老囚死로 설명하고 있다. 寅月에서 丑月까지 12월을 기준하여 旺은 월과 동일한 오행이고, 相은 월에서 生을 받는 오행이며, 休는 월을 생하는 오행이고, 囚는 월을 剋하는 오행이며, 死는 월에게 극을 받는 오행이다. 그래서 寅·卯月에는 목이 旺[壯]이 되고, 火가 相[生]이 되며, 수가 休[老]가 되고, 금이 囚가 되며, 토는 死가 된다. 그리고 辰·未·戌·丑月에는 토가 旺이 되고, 목이 囚가 되며, 수가 死가 되어 다른 四行의 例와 같이 해석한다. 왕상휴수사는 氣勢의 旺衰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데 힘의 세기는 旺에서부터 순서대로이다.

5. 五行相治

「지형훈」에서 오행이 서로 다스리고 다스려지는 待對關係를 오행상치로 설명한다.

> 그러므로 水로써 土를 화합하고, 土로써 火를 화합하며, 火로써 金을 변화시키고, 金으로써 木을 다스리며, 木은 다시 土로 돌아간다. 五行이 서로 다스려져서 만물의 역량이 만들어져 사용되는 것이다.[39]

五行의 보완·견제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相生·相剋을 통하여 五行이 서로 다스리고 다스려져 만물의 역

37) 김만태, 앞의 논문, 210~216쪽 참조; 반고 저, 신정근 역, 앞의 책, 160쪽 각주 48, "六合은 동서남북의 사방과 천지를 말한다."
38) 『淮南子』「墜形訓」, "木壯, 水老, 火生, 金囚, 土死. 火壯, 木老, 土生, 水囚, 金死. 土壯, 火老, 金生, 木囚, 水死. 金壯, 土老, 水生, 火囚, 木死. 水壯, 金老, 木生, 土囚, 火死."
39) 위의 책, "是故以水和土, 以土和火, 以火化金, 以金治木, 木復反土. 五行相治, 所以成器用."

량과 기능이 만들어져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문장 중에서 "수로써 토를 화합하고, 토로써 화를 화합하며(是故以水和土, 以土和火)."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원래 오행의 생극이론에서는 수는 토에게 극을 당하고, 토는 화에게 생을 받는데, 以水和土, 以土和火라고 한 것은 『오행대의』「論合」의 "그래서 未土와 午火가 합하고, 子水와 丑土가 합한다(故未與午合……故子與丑合)."라고 하는 地支六合의 天地四方 중에 천지에 해당하는 未午 合火와 子丑 合土에 상응한다. 아직 『회남자』에서 지지육합 이론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오행상치를 통하여 이미 인식되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한대에 성행한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으로 『회남자』에서 시령에 내포된 음양오행 개념과 더불어 체계적인 음양오행 이론을 함축할 수 있었다. 시령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諸事物의 분류를 위한 오행 배속이 이루어졌고,[40]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 오행의 생사과정을 통한 지지삼합과 12운성법, 그리고 오행의 성쇠를 판단하는 왕상휴수사 이론이 정립되었으며, 그 외에도 음양오행 기능이 다양하게 수록되었는데, 24절기가 완성되어 『회남자』에 처음으로 출현하며,[41] 육십갑자 간지력[42]이 정립되고 寅月歲首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한대 문헌에는 오행의 합충 이론이 아직 출현하지 않는다.

Ⅳ. 음양오행론에서 『오행대의』의 위상

전국시대 오행의 큰 스승 추연과 한대 오행의 대가 劉向·劉歆 부자 등이 오행을 해설한 저작은 원본이 이미 사라지거나 흩어져, 二十四史 중에 『漢書』「五行志」 1권, 『後漢書』「오행지」 6권, 『晉書』「오행지」 3권, 『宋書』「오행지」 5권, 『南齊書』「오행지」 1권, 『隋書』「오행지」 2권, 『舊唐書』「오행지」 1권, 『新唐書』「오행지」 3권, 『舊五代史』「오행지」 1권, 『宋史』「오행지」 7권, 『金史』「오행지」 1권, 『元史』「오행지」 2권, 『明史』「오행지」 3권에 음양오행론이 수록되었으나 모두 오행설과 그 역사를 설명하는 저술이 아니라 災異現狀을 기록한 저작이다. 古人이 오행학설을 전문적으로 해석한 저술로 오늘날까지 완전히 보존된 것은 『오행대의』만이 있을 뿐이다.[43]

『오행대의』에는 간지의 음양배합과 오행의 釋名으로부터 諸事物의 오행배속 및 性情·政治 등의 人心과 人事, 그리고 수대 이전까지의 음양오행 이론이 전반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오행의 生剋合沖 이론이 완성되어 오행의 생극제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장에서는 생극제화에 관련된 음양오행론을 중심으로 논술하겠다.

「論相生」에서 각종 문헌을 인용하여 "자연에는 오행이 있는데, 목·화·토·금·수가 이것이다. 목이 화

40) 강성인, 앞의 논문, 2014, 51~56쪽 참조.
41) 홍성국, 『사주 궁합의 비밀을 밝힌다』, 한솜, 2010, 72~73쪽 참조.
42) 『淮南子』「天文訓」, "壬午冬至, 甲子受制.……七十二日, 丙子受制.……七十二日, 戊子受制.……七十二, 庚子受制.……七十二日, 壬子受制.……七十二日而歲終. 庚午受制, 歲遷六日, 以數推之, 十歲而復至甲子."
43) 殷南根, 『五行新論』,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3, 92쪽.

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며,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며, 수는 목을 생한다."[44]라고 하고, 「論相剋」에서는 "힘이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억제할 수 있는데, 목이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며, 수가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며, 금이 목을 극한다."[45]라고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설명하면서, 상극에 대하여 한대의 諸文獻에서 '勝'字로 표시한 것을 『오행대의』에서는 '剋'字를 사용하였다.

오행의 생사에 대하여 현대음양오행 이론에서 사용하는 오행의 십이운성법으로 설명하면서, 토의 십이운성은 목·화·금·수와 다르게 설명한다.

> 토는, 亥에서 氣를 받고, 子에서 胎가 되며, 丑에서 養이 되어. 寅에서 寄行하고, 卯에서 長生이 되어, 辰에서 沐浴하며, 巳에서 冠帶하고, 午에서 臨官이 되어, 未에서 王이 되며, 申에서 病衰하고, 酉에서 死하여, 戌에서 葬한다.[46]

토의 生長盛衰가 초반 부분은 火土同宮說에 입각한 것 같으나, 長生과 旺地 부분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12운성을 설명하면서, 土 중에 未土를 旺地로 해석하였다.

토 전체에 대하여는 앞의 설명과 같이 生死所를 해석하면서, 특이하게 『五行書』를 인용하여 토의 地支인 진술축미에 대하여 각각 11단계로 생장성쇠를 설명한다.[47]

辰은 子에서 生하여 辰에서 王[旺을 王으로 표기]하고 未에서 葬[墓를 葬으로 표기]한다고 하는데, 이는 木의 餘氣인 辰土가 관장하는 四時의 春[木]을 기준하여 목의 생지가 되는 水의 旺地인 子에서 생하고 辰에서 왕하여 목의 墓地가 되는 未에서 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未·戌·丑土 모두가 같은 맥락으로 未土는 夏[火]·戌土는 秋[金]·丑土는 冬[水]을 기준하여 生·旺[王]·墓[葬]의 논리를 전개하였다.[48]

십이운성법은 대부분 천간 오행에 대한 것인데, 토의 지지인 진미술축에 대하여 각각 십이운성을 정하여 설명한 것이 독특하다.

---

44) 蕭吉 著, 錢杭 點校, 『五行大義』,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1, 「論相生」, "天有五行, 木·火·土·金·水是也.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45) 위의 책, 「論相剋」, "以其力强能制弱, 故木剋土,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

46) 위의 책, 「論生死所」, "土, 受氣於亥, 胎於子, 養於丑, 寄行於寅, 生於卯, 沐浴於辰, 冠帶於巳, 臨官於午, 王於未, 衰病於申, 死於酉, 葬於戌."

47) 위의 책, "辰土受氣於申·酉, 胎於戌, 養於亥, 生於子, 沐浴於丑, 冠帶於寅, 臨官於卯, 王於辰, 衰病於巳, 死於午, 葬於未. 未土受氣於亥·子, 胎於丑, 養於寅, 生於卯, 沐浴於辰, 冠帶於巳, 臨官於午, 王於未, 衰病於申, 死於酉, 葬於戌. 戌土受氣於寅·卯, 胎於辰, 養於巳, 生於午, 沐浴於未, 冠帶於申, 臨官於酉, 王於戌, 衰病於亥, 死於子, 葬於丑. 丑土受氣於巳·午, 胎於未, 養於申, 生於酉, 沐浴於戌, 冠帶於亥, 臨官於子, 王於丑, 衰病於寅, 死於卯, 葬於辰."

48) 강성인, 앞의 논문, 2015, 161쪽.

〈표 3〉 四季土의 생장성쇠

	受氣	胎	養	生	沐浴	冠帶	臨官	王	衰病	死	葬
辰	申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未	亥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戌	寅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丑	巳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論四時休王」에서는 오행의 盛衰에 대하여 오행의 자체 휴왕과 천간 · 지지의 휴왕, 그리고 팔괘의 휴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오행과 十干 · 十二支의 旺[王][49]相休囚死를 계절에 상관하여 盛衰를 설명한다.

> 오행체의 휴왕은, 봄에는 목이 왕이 되고, 화는 상이 되며, 수는 휴가 되고, 금은 수가 되며, 토는 사가 된다.……천간과 지지의 휴왕은, 봄에는 갑 · 을과 인 · 묘가 왕이 되고, 병 · 정과 사 · 오는 상이 되며, 임 · 계와 해 · 자가 휴가 되고, 경 · 신과 신 · 유는 수가 되며, 무 · 기와 진 · 술 · 축 · 미는 사가 된다.[50]

위의 오행과 十干 · 十二支를 계절에 대입하여 왕상휴수사로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오행 · 십간 · 십이지 왕상휴수사

		王	相	休	囚	死
春	오행	木	火	水	金	土
	십간	甲乙	丙丁	壬癸	庚辛	戊己
	십이지	寅卯	巳午	亥子	申酉	辰戌丑未
夏	오행	火	土	木	水	金
	십간	丙丁	戊己	甲乙	壬癸	庚辛
	십이지	巳午	辰戌丑未	寅卯	亥子	申酉
六月	오행	土	金	火	木	水
	십간	戊己	庚辛	丙丁	甲乙	壬癸
	십이지	辰戌丑未	申酉	巳午	寅卯	亥子
秋	오행	金	水	土	火	木
	십간	庚辛	壬癸	戊己	丙丁	甲乙
	십이지	申酉	亥子	辰戌丑未	巳午	寅卯
冬	오행	水	木	金	土	火
	십간	壬癸	甲乙	庚辛	戊己	丙丁
	십이지	亥子	寅卯	申酉	辰戌丑未	巳午

49) 현대 음양오행론에서 사용하는 旺字를 『五行大義』에서는 王字로 표시하였다.

50) 蕭吉, 앞의 책, 「論四時休王」, "五行體休王者, 春則木王, 火相, 水休, 金囚, 土死.……支干休王者, 春則甲乙 · 寅卯王, 丙丁 · 巳午相, 壬癸 · 亥子休, 庚辛 · 申酉囚, 戊己 · 辰戌丑未死."

춘하추동 사시에서 季夏 未月을 포함한 오시체계를 기준으로 오행 왕상휴수사의 변화에 따라 기세의 성쇠를 설명하였다.

팔괘의 휴왕은 "입춘에는 간이 왕, 진은 상, 손이 태, 리는 몰, 곤이 사, 태가 수, 건은 폐, 감이 휴이다. ……."[51]라고 설명하면서 易의 기본괘인 팔괘를 계절에 배속하여 王·相·胎·沒·死·囚·廢·休로 구분하였는데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팔괘 휴왕[52]

	王	相	胎	沒	死	囚	廢	休
입춘	艮	震	巽	離	坤	兌	乾	坎
춘분	震	巽	離	坤	兌	乾	坎	艮
입하	巽	離	坤	兌	乾	坎	艮	震
하지	離	坤	兌	乾	坎	艮	震	巽
입추	坤	兌	乾	坎	艮	震	巽	離
추분	兌	乾	坎	艮	震	巽	離	坤
입동	乾	坎	艮	震	巽	離	坤	兌
동지	坎	艮	震	巽	離	坤	兌	乾

팔괘가 입춘·춘분·입하·하지·입추·추분·입동·동지의 八節에 따라 변하는 힘의 세기를 王·相·胎·沒·死·囚·廢·休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합에 대하여 천간 합과 지지육합을 구분하여 기술하면서 합이 되는 이치를 설명한다.

> 천간의 합이란, 기가 갑의 처가 되어 갑과 기는 합이 되고, 신이 병의 처가 되어 병과 신이 합이 되며, 계는 무의 처가 되어 계와 무가 합이 되고, 을은 경의 처가 되어 을과 경이 합이 되며, 정은 임의 처가 되어 임과 정은 합이 된다.[53]

十干이 서로 甲己, 丙辛, 戊癸, 乙庚, 丁壬으로 만나면 천간 합이 형성된다.

천간 합에 이어 지지육합에 대하여 설명한다.

> 지지의 합은, 일월이 운행하다가 회합하는 곳을 말한다. 정월에는 일월이 추자의 자리에 모인다. 추

51) 위의 책, "八卦休王者, 立春, 艮王, 震相, 巽胎, 離沒, 坤死, 兌囚, 乾廢, 坎休.……."
52) 이동아, 「오행의 원리와 取象歸類의 방법(소길의 『五行大義』를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13, 66쪽.
53) 蕭吉, 앞의 책, 「論合」, "干合者, 己爲甲妻, 故甲與己合. 辛爲丙妻, 故丙與辛合. 癸爲戊妻, 故癸與戊合. 乙爲庚妻, 故乙與庚合. 丁爲壬妻, 故壬與丁合."

> 자는 亥方이고, 일명 豕韋라고 한다. 이 때는 북두의 자루가 寅을 가리키므로 인과 해가 합이 된다. ……묘와 술이 합이 된다.……진과 유가 합이 된다.……사와 신이 합이 된다.……오와 미가 합이 된다. ……미와 오가 합이 된다.……신과 사가 합이 된다.……유와 진이 합이 된다.……술과 묘가 합이 된다. ……해와 인이 합이 된다.……자와 축이 합이 된다.……축과 자가 합이 된다.[54]

十二支가 서로 寅亥, 卯戌, 辰酉, 巳申, 午未, 子丑이 합을 이루어 지지육합이 완성된다.

오행의 중화작용에 필요한 합의 완성에 이어 충에 대하여 衝破란 단어를 사용하여 천간과 지지의 충을 설명하면서, 서로 마주보는 것이 충파가 되어 영향이 크다고 한다.

> 간이 충파하는 것은, 갑과 경이 충파하고, 을과 신이 충파하며, 병과 임이 충파하고, 정과 계가 충파하며, 무와 임, 갑과 무, 을과 기가 충파한다. 이것은 모두가 상대를 마주보아 충파하니, 본체가 서로를 극하는 것으로 더욱 중한 것이 된다. 지가 충파하는 것은, 자와 오가 충파하며, 축과 미가 충파하고, 인과 신이 충파하며, 묘와 유가 충파하고, 진과 술이 충파하며, 사와 해가 충파하는데, 이것 역시 서로 마주하는 것을 취하였다.[55]

서로 마주보는 간지의 충파는 오행상극의 이치에서 파생된 것이다. 『오행대의』에서 천간과 지지의 합과 충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오행의 생극합충 이론이 완전하게 정립되었다.

『오행대의』에는 생극합충 이론의 완성뿐만 아니라, 刑과 害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論刑」에서 支自相刑·支刑在干·干刑在支의 三種刑을 설명한다.

> 지지끼리 서로 형을 하는 것은, 子는 卯에서 刑하고, 묘는 자에서 형하며, 丑은 戌에서 형하고, 술은 未에서 형하며, 미는 축에서 형하고, 寅은 巳에서 형하며, 사는 申에서 형하고, 신은 인에서 형하며, 辰·午·酉·亥는 스스로 형이 된다.……천간이 지지를 형하는 것은, 인은 庚에서 형하고, 묘는 辛에서 형하며, 진은 甲에서 형하고, 사는 癸에서 형하며, 오는 壬에서 형하고, 미는 乙에서 형하며, 신은 丙에서 형하고, 유는 丁에서 형하며, 술은 갑에서 형하고, 해는 己에서 형하며, 자는 戊에서 행하고, 축은 을에서 형이 된다.……지지가 천간을 형하는 것은, 갑은 신에서 형이 되고, 을은 유에서 형이 되며, 병은 자에서 형이 되고, 정은 해에서 형이 되며, 무는 인에서 형이 되고, 기는 묘에서 형이 되며, 경은 오에서 형이 되고, 신은 사에서 형이 되며, 임은 진과 술에서 형이 되고, 계는 축과 미에서 형이 된다.[56]

---

54) 위의 책, "支合者, 日月行次之所合也. 正月日月會於諏訾之次, 諏訾, 亥也, 一名豕韋, 斗建在寅, 故寅與亥合.……故卯與戌合.……故辰與酉合.……故巳與申合.……故午與未合.……故未與午合.……故申與巳合.……故酉與辰合.……故戌與卯合.……故亥與寅合.……故子與丑合.……故丑與子合."

55) 위의 책, 「論衝破」, "干衝破者, 甲庚衝破, 乙辛衝破, 丙壬衝破, 丁癸衝破, 戊壬, 甲戊, 乙己亦衝破, 此皆對衝破, 亦本體相剋, 彌爲重也. 支衝破者, 子午衝破, 丑未衝破, 寅申衝破, 卯酉衝破, 辰戌衝破, 巳亥衝破, 此亦取相對."

56) 위의 책, 「論刑」, "支自相刑者, 子刑在卯, 卯刑在子, 丑刑在戌, 戌刑在未, 未刑在丑, 寅刑在巳, 巳刑在申, 申刑在寅, 辰·午·酉·亥各自刑.……干刑支者, 寅刑在庚, 卯刑在辛, 辰刑在甲, 巳刑在癸, 午刑在壬, 未刑在乙, 申刑在丙, 酉刑在丁, 戌刑在甲, 亥刑在己, 子刑在戊, 丑刑在乙.……支刑干者, 甲刑在申, 乙刑在酉, 丙刑在子, 丁刑在亥, 戊刑在寅, 己刑在卯, 庚刑在午,

支自相刑은 두 개의 지지로 이루어지는 相刑 子卯, 세 개의 지지로 구성되는 三刑 丑戌未와 寅巳申, 독자적으로 성립되는 自刑 辰辰 · 午午 · 酉酉 · 亥亥가 되고, 天干이 地支를 형하는 것[干刑支者]은 천간에서 지지를 剋하는 오행인 寅庚 · 卯辛 · 辰甲 · 巳癸 · 午壬 · 未乙 · 申丙 · 酉丁 · 戌甲 · 亥己 · 子戊 · 丑乙이 되며, 지지가 천간을 형하는 것[支刑干者]은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오행인 甲申 · 乙酉 · 丙子 · 丁亥 · 戊寅 · 己卯 · 庚午 · 辛巳 · 壬辰 · 壬戌 · 癸丑 · 癸未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음양오행 이론에서는 支自相刑은 활용하고 있으나 支刑在干과 干刑在支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십이지지가 서로 만나서 害가 되는 여섯 가지 경우를 설명한다.

> 서로 해하는 것은 십이신에서 역행하여 서로 만나 둘씩 서로 해치므로 여섯 가지 해라고 한다. 술과 유, 해와 신, 자와 미, 축과 오, 인과 사, 묘와 진이 육해이며, 살상한다는 뜻이다.[57]

십이지지 酉戌 · 申亥 · 子未 · 丑午 · 寅巳 · 卯辰을 六害로 지정했는데, 이는 지지육합에서 쌍방 중 일방을 충파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로 합하는 일방을 충파하니 해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행대의』에서 다른 문헌에서는 소실되어 전무한 오행이 상생하는 근본원리에 대하여 『白虎通』에 있었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 "목이 화를 낳는다는 것은 목의 성질이 온난하기 때문이다. 화가 그곳에 숨어 있다가, 나무에 구멍을 뚫어 비비면 나타나니, 따라서 목이 화를 낳는 것이다. 화가 토를 낳는 것은 화는 뜨거우니 목을 태울 수 있고, 목이 타면 재가 되는데 재가 바로 토이니, 따라서 화가 토를 낳는 것이다. 토가 금을 낳는 것은 금은 돌에 섞여 산에 있는데 물기가 적셔져 금이 생기며, 흙이 모이면 산을 이루고 산에는 돌이 있으므로 토는 금을 낳는 것이다. 금이 수를 낳는 이유는 소음의 기는 윤택하여 물기가 흐르는데, 쇠를 녹이면 물의 상태가 되어 산의 구름이 그에 의해 윤기가 있고, 따라서 금이 수를 낳는다. 수가 목을 낳는 이유는 목이 물의 윤기에 의해 살 수 있기 때문이니 따라서 수는 목을 낳는다.[58]

목생화 · 화생토 · 토생금 · 금생수 · 수생목이 성립되는 이치를 설명한다. 이 부분은 현재 전해지는 『백호통』에는 소실되어 없다. 오행의 상생원리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오늘날 전하는 진한시대의 문헌에는 이를 설명하는 문장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오행대의』가 인용하는 『백호통』의 사라진 문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59]

辛刑在巳, 壬刑在辰戌, 癸刑在丑未."

57) 위의 책, 「論害」, "相害者, 逆行相遇, 於十二辰兩兩相害, 名爲六害. 戌與酉, 亥與申, 子與未, 丑與午, 寅與巳, 卯與辰, 是六害也, 是殺傷之義."

58) 위의 책, 「論相生」, "『白虎通』云: 木生火者, 木性溫暖, 火伏其中, 鑽灼而出, 故木生火; 火生土者, 火熱, 故能焚木, 木焚而成灰, 故火生土; 土生金者, 金居石依山, 津潤而生, 聚土成山, 山必生石, 故土生金; 金生水者, 少陰之氣潤澤流津, 銷金亦爲水, 所以山雲而從潤, 故金生水; 水生木者, 因水潤而能生, 故水生木也."

59) 은남근 저, 이동철 역, 『오행의 새로운 이해』, 법인문화사, 2000, 191~192쪽 참조.

『오행대의』에는 오행과 간지의 명을 논하는「釋名」으로부터 五色·音聲·氣味·藏府·五常·五事 등의 諸事物의 오행배속과 律呂·七政·八風을 비롯하여 五靈과 禽獸, 그리고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에 관계되는 모든 음양오행 기능을 다루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행의 상생 원리를 설명한 것과 오행의 생극합충 이론이 완성된 것이다. 오행의 상생원리를 설명한 문헌은『오행대의』가 유일하고, 오행의 생극제화를 완성하는 합충 이론이 온전하게 기술된 문헌이 전무했는데,『오행대의』에서 천간 합과 지지 합(지지회합·지지육합)을 설명하고, 충에서 천간 충과 지지 충을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서 합충이론을 완전하게 정립하였으며, 나아가 형해 이론까지 서술하여 생극제화의 근간이 완성되었다.

Ⅴ.『회남자』와『오행대의』의 음양오행론 비교

『회남자』에서 논의한 음양오행론 중 오행의 생극과 왕상휴수사, 그리고 諸事物의 오행배속 등 대부분의 음양오행론이『오행대의』와 상동하다. 그러나『오행대의』에서는『회남자』에서 성립되지 않았던 오행의 합충 이론과 형해이론이 확립되어 생극이론과 더불어 生剋制化의 근간을 이루었으며,『회남자』에서 이론적으로 모순이 있었던 토의 會合과 십이운성법 및 토의 用事가 정리되었다.

1. 오행의 合沖

『회남자』「시칙훈」에서 "육합은 맹춘과 맹추가 더불어 합이 되고, 중춘과 중추가 더불어 합이 되며, 계춘과 계추가 더불어 합이 되고, 맹하와 맹동이 더불어 합이 되며, 중하와 중동이 더불어 합이 되고, 계하와 계동이 더불어 합이 된다."[60]라고 육합을 언급하면서 합이 되는 달들 사이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寅申·卯酉·辰戌·巳亥·午子·未丑 여섯 가지의 待對關係를 육합이라 칭했다.「시칙훈」에서 말하는 六合은 현대음양오행 이론의 地支六沖에 해당되는데, 한대에는 오행에 沖이란 의미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행대의』에서는 현대음양오행 이론의 沖을 衝破로 설명하였다.

> 천간의 충파로는 甲庚, 乙辛, 丙壬, 丁癸, 戊壬, 甲戊, 乙己가 있고,……지지의 충파로는 子午, 丑未, 寅申, 卯酉, 辰戌, 巳亥가 있으며, 간지의 충파는 서로 대응하는 상극관계를 취한 것이다.[61]

천간 충에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다섯 종류의 충[甲庚·乙辛·丙壬·丁癸·戊壬]에다가 甲戊·乙己를 더

60)『淮南子』「時則訓」, "六合. 孟春與孟秋爲合, 仲春與仲秋爲合, 季春與季秋爲合, 孟夏與孟冬爲合, 仲夏與仲冬爲合, 季夏與季冬爲合."

61) 蕭吉, 앞의 책,「論衝破」, "干衝破者, 甲庚衝破, 乙辛衝破, 丙壬衝破, 丁癸衝破, 戊壬, 甲戊, 乙己亦衝破,……支衝破者, 子午衝破, 丑未衝破, 寅申衝破, 卯酉衝破, 辰戌衝破, 巳亥衝破, 此亦取相對."

하여 일곱 종류로 기술하였고, 『회남자』에서 언급한 육합을 서로 마주 대응하며 相剋하는 지지충파로 해석하였다.

천간 합에 대하여 『회남자』에는 없으나 『백호통』에 "일설에 목이 금을 두려워하는데, 금은 경을 처로 삼으며 경의 변화를 받는다(一說木畏金, 金之妻庚, 受庚之化)."라는 短文이 있는데, 이를 『白虎通疏證』 주석에서 "문장에 잘못이 있다(文有訛)."라고 하면서 五行相雜의 뜻으로 설명하였다.

> 고찰하건대 『五行大義』 卷三에서 『白虎通』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일설에서 말하길, 갑목이 금을 두려워하여, 을목으로 경금의 처가 되게 하여, 경금의 변화를 받으며,"……『大義』에서 『오행서』를 인용하여 말하면, "갑목이 여동생 을목을 경금에게 시집보내 처가 되게 하고, 병화가 여동생 정화를 임수에게 시집보내 처가 되게 하며, 무토가 여동생 기토를 갑목에게 시집보내 처가 되게 하고, 경금이 여동생 신금을 병화에게 시집보내 처가 되게 하며, 임수가 여동생 계수를 무토에게 시집보내 처가 되게 한다." 모두가 五行相雜의 뜻이다.[62]

『백호통소증』의 주석 앞부분 『大義』는 『오행대의』를 일컬으며, 『백호통』의 애매한 짧은 문장을 주석한 내용은 결국 『오행대의』에 의거하여 설명한 것이고, 주석 말미의 오행상잡도 『오행대의』의 「五行相雜」편을 말한다. 주석내용은 현대음양오행 이론으로 乙庚合金 · 丁壬合木 · 甲己合土 · 丙辛合水 · 戊癸合火 천간 합으로 『오행대의』에 근거한 것이 된다.

『오행대의』에서는 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干合과 지지육합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 천간의 합이란, 기가 갑의 처가 되어 갑과 기는 합이 되고, 신이 병의 처가 되어 병과 신은 합이 되며, 계는 무의 처가 되어 계와 무가 합이 되고, 을은 경의 처가 되어 을과 경이 합이 되며, 정은 임의 처가 되어 임과 정은 합이 된다.……지지의 합은, 일월이 운행하다가 회합하는 곳을 말한다. 정월에는 일월이 추자의 자리에 모인다. 추자는 亥方이고, 일명 豕韋라고 한다. 이 때는 북두의 자루가 寅을 가리키므로 인과 해가 합이 된다.……묘와 술이 합이 된다.……진과 유가 합이 된다.……사와 신이 합이 된다.……오와 미가 합이 된다.……미와 오가 합이 된다.……신과 사가 합이 된다.……유와 진이 합이 된다.……술과 묘가 합이 된다.……해와 인이 합이 된다.……자와 축이 합이 된다.……축과 자가 합이 된다.[63]

진한대 문헌에는 천간 합과 지지육합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다. 『회남자』에서 오행상치를 들어 설명

62) 班固 著, 吳則虞 點校, 『白虎通疏證』, 北京: 中華書局出版, 2011, 193쪽. "案『大義』三引『白虎通』云, '一說云, 甲木畏金, 以乙妻庚, 受庚之化,'……『大義』引『五行書』云, '甲以女弟乙嫁庚爲妻, 丙以女弟丁嫁壬爲妻, 戊以女弟己嫁甲爲妻, 庚以女弟辛嫁丙爲妻, 壬以女弟癸稼戊爲妻.' 皆卽五行相雜之義也."

63) 蕭吉, 앞의 책, 「論合」, "干合者, 己爲甲妻, 故甲與己合. 辛爲丙妻, 故丙與辛合. 癸爲戊妻, 故癸與戊合. 乙爲庚妻, 故乙與庚合. 丁爲壬妻, 故壬與丁合.……支合者, 日月行次之所合也. 正月日月會於諏訾之次, 諏訾, 亥也, 一名豕韋, 斗建在寅, 故寅與亥合.……故卯與戌合.……故辰與酉合.……故巳與申合.……故午與未合.……故未與午合.……故申與巳合.……故酉與辰合.……故戌與卯合.……故亥與寅合.……故子與丑合.……故丑與子合."

한 以水和土와 以土和火에서 지지육합의 단서를 찾고, 『백호통』에 수록된 단문을 통하여 천간 합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것도 『백호통소증』 주석에서 잘못된 글이라고 기술하였다. 이로 볼 때, 한대에는 오행의 생극이론은 성립되었지만, 오행의 합충이론은 정립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오행의 충은 『玉照神應眞經』[64]에 看命하는 방식으로 "인신갑경이 있으면, 상인이나 하급관리가 된다(寅申庚甲 商途吏人)."라고 寅申 沖과 甲庚 沖을 출현시킴으로서 천간 충과 지지 충을 제시하였다.[65] 그리고 합에 대해서는 "합이란, 갑과 기가 합이고, 을과 경이 합이며, 병과 신이 합이고, 정과 임이 합이며, 무와 계가 합한다. 인명이 이것을 얻으면 대대로 오래 산다."[66]라고 천간 합을 설명한다. 오행의 합충이론이 『옥조신응진경』과 『백호통』 등에 단편적으로 제시되지만, 합충이란 명칭으로 이론의 전말을 제대로 기술한 서적은 없었는데, 수대 소길이 『오행대의』에서 간지 합에 대한 이론과 충파 이론을 온전하게 수록하여 생극합충 이론을 완전하게 정립하였다.

2. 오행의 刑害

『회남자』에는 형과 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오행대의』 「論刑」에서 支自相刑 · 支刑在干 · 干刑在支의 세 가지 형[67]을 설명한다. 이중에 지형재간과 간형재지는 상용되지 않고 지자상형은 현대음양오행 이론에서 子卯를 相刑, 丑戌未 · 寅巳申을 三刑, 辰辰 · 午午 · 酉酉 · 亥亥를 自刑이라고 칭하며 형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論害」에서 害가 성립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 서로 해하는 것은 십이신에서 역행하여 서로 만나 둘씩 서로 해치므로 여섯 가지 해라고 한다. 술과 유, 해와 신, 자와 미, 축과 오, 인과 사, 묘와 진이 육해이며, 살상한다는 뜻이다.[68]

지지육합에서 一方을 沖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酉戌 · 申亥 · 子未 · 丑午 · 寅巳 · 卯辰을 지지육해로 정하여, 『오행대의』에서 오행의 생극합충 이론뿐만 아니라 형해이론까지 성립되었다.

3. 토의 會合과 十二運星法

『회남자』 「천문훈」에서 "土는 午에서 생하여 戌에서 장하고 寅에서 죽는데 삼신이 모두 토이다(土生于午,

---

64) 『玉照神應眞經』은 일반적으로 東晉의 郭璞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四庫全書提要』에서는 곽박에 가탁한 위서라고 하였다[鄒文耀 撰, 『命學尋眞』, 台北: 集文書局, 1982, 252쪽, "庫全書提要旣考定玉照定眞經爲託名于郭璞之僞書, 則此玉照神應眞經當然亦是僞書."].

65) 이명제, 「서자평의 명리사상 연구」, 『중국학연구』 제66집, 한국외국어대 중국학연구회, 2013, 381쪽.

66) 『玉照神應眞經』, "合者 甲與己合 乙與庚合 丙與辛合 丁與壬合 戊與癸合 人命得之乃世世長年耳."

67) 본문 각주 56) 참조.

68) 위의 책, 「論害」, "相害者, 逆行相遇于十二辰, 兩兩相害, 名爲六害. 戌與酉, 亥與申, 子與未, 丑與午, 寅與巳, 卯與辰, 是六害也, 是殺傷之義."

壯于戌, 死于寅, 三辰皆土也).”라고 土의 生死를 지지 삼합 이론과 십이운성법을 연관하여 설명하는데, 토의 지지 삼합에 대하여는 다른 문헌에는 발견되지 않고 『회남자』에서만 午戌寅 三支의 합을 土의 회합으로 보았다.

『오행대의』「相雜」편에서 토의 會合에 대하여 “未·辰·丑·戌은 토의 자리다. 미토에는 王土가 있고, 진토에는 死土가 있으며, 축토에는 衰土가 있고, 술토에는 壯土가 있으니, 이는 토의 體가 사방에 섞여있는 것이다(未辰丑戌, 土之位也. 未中有王土, 辰中有死土, 丑中有衰土, 戌中有壯土, 此土體雜在四方也).”라고 토의 회합을 진·술·축·미로 해석하고 있다.

『회남자』에서는 토의 會合을 午戌寅으로 설명하고, 『오행대의』에서는 辰·戌·丑·未로 토의 회합을 해석하는데, 『淵海子平評註』와 『精選命理約言』에서도 토의 회합을 辰·戌·丑·未로 설명하고 있다.[69] 현대 음양오행 이론에서는 토의 회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오행대의』「相雜」편의 지지 會合 논리가 이치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회남자』「천문훈」의 “土生于午, 壯于戌, 死于寅, 三辰皆土也.”에 대하여 현대음양오행의 십이운성법으로 해석하면 午에서 生하여 未에서 浴하고 申에서 帶가 되며, 酉에서 官이되고 戌에서 旺이 되어 亥에서 衰가 되며, 子에서 病이 되고 丑에서 死가 되어 寅에서 墓가 되며, 卯에서 絶이 되고 辰에서 胎가 되어 巳에서 養이 된다. 「천문훈」과 비교하면 생지와 왕지는 일치하고 사지는 상이하다. 이는 「천문훈」에서 십이운성법의 단초가 처음 기술되어, 아직 용어와 순서가 온전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음양오행의 십이운성법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토의 십이운성법을 이렇게 설명한 문헌은 『회남자』가 유일하고, 현대음양오행 이론에서는 火土同宮說과 水土同宮說에 따라 화와 수의 십이운성으로 논하며, 별도로 토의 십이운성법을 정하지 않았다.

『오행대의』에서는 특이하게도 토를 총칭하여 설명할 때는 십이운성법[70]을 사용하여 土 중의 土인 未土를 旺으로 해석하였고, 토의 地支인 辰·戌·丑·未의 생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각각 구별하여 十一運星法[71]으로 生長盛衰를 서술하고 있다.

『오행대의』의 토에 대한 십이운성법은 매우 특이하다. 오행 중 목·화·금·수의 십이운성법 외에 별도로 토에 대하여 생장성쇠를 설명한 문헌도 『회남자』와 『오행대의』가 특별한데, 더욱이 토의 지지 진·술·축·미 각각에 대하여 십이운성법을 적용한 경우에서는 『오행대의』가 유별하다. 『淵海子平評註』에서는 火와 土를 同宮으로 보고 십이운성법을 해석하고,[72] 『精選命理約言』·『子平眞詮評註』·『滴天髓闡微』 등에서도 화토동궁설에 따라 화의 십이운성법으로 기술하지만, 『三命通會』「論納音取象」에서는 “병진정사 沙中土, 토는 진에서 庫가 되고 巳에서 絶이 된다(丙辰丁巳, 土庫辰絶巳).”라고 토를 수와 같은 십이운성법으로 설명하며 수토동궁설을 따랐다.

---

69) 徐升, 『淵海子平評註』,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4, 「論運化氣」, “辰戌丑未全, 曰稼穡句陳得位.”; 韋千里 編著, 『精選命理約言』, 台北: 瑞成書局, 2013, 「看一行得氣法」, “土日全辰戌丑未, 爲稼穡格, 土合四方爲方也.”

70) 본 논문 Ⅲ章 참조.

71) 본 논문 Ⅲ章 참조.

72) 『淵海子平評註』「論天干生旺死絶」, “丙火·戊土, 生寅 沐浴在卯 冠帶在辰 建祿在巳 帝旺在午 衰在未 病在申 死在酉 墓在戌 絶在亥 胎在子 養在丑.”

4. 토의 用事

『회남자』에서는 토를 사계월설[73] · 72일계하설[74] · 30일계하설[75]로 다양하게 해석하여 토가 주관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오행대의』「辨體性」에서는 "토는 사계절의 사이에 있고, 여름의 끝에 거처한다(土在四時之中, 處季夏之末)."라고 하고, 또 "사계절을 주관함으로써 춘 · 하 · 추 · 동을 이룬다(以主四季成四時)."라고 하면서 『오행대의』에서는 四季에 속하는 辰戌丑未를 土月로 인정하였다.

『회남자』와 『오행대의』 두 문헌에 나타난 음양오행론을 비교해보면 오행배속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상동하다.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회남자』에서는 오행의 생극과 12운성법에 따른 오행의 성쇠와 왕상휴수사 이론은 정립되었으나 합충이론이 성립되지 않았었는데, 『오행대의』에서 생극이론과 함께 합충이론이 확립되고 나아가 刑害 이론으로까지 발전하여, 음양오행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中和를 위한 생극제화의 근간이 완비되었다. 그리고 『회남자』의 오 · 술 · 인 합토는 『오행대의』에서 진술축미 토의 회합으로 정리되었고, 『회남자』에서 세 가지로 기술하였던 토의 용사는 『오행대의』에서 四時의 四季인 진술축미월로 정하였다.

『오행대의』의 토의 독자 십이운성법은 다른 문헌에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이론이어서 현대음양오행 이론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화토동궁설과 수토동궁설로 토의 십이운성법을 설명하며, 토의 용사는 『오행대의』와 같이 진술축미를 사용하고, 『회남자』와 『오행대의』의 생극이론과 『오행대의』의 합충이론은 물론 형해이론까지도 현대음양오행 이론에서 오행의 생극제화 원리에 사용하고 있다. 『회남자』와 『오행대의』의 음양오행론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회남자』와 『오행대의』의 음양오행론 비교

	『회남자』	『오행대의』
오행의 生剋	생 :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극 :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회남자』와 동일
오행의 合沖	천간합충 : 없음 지지육합 : 寅申, 卯酉, 辰戌, 巳亥, 午子, 未丑 지지육충을 육합으로 설명 지지회합 : 亥卯未 合木, 寅午戌 合火, 午戌寅 合土, 巳酉丑 合金, 申子辰 合水	천간합 : 甲己 · 乙庚 · 丙辛 · 丁壬 · 戊癸 천간충 : 甲庚 · 乙辛 · 丙壬 · 丁癸 · 戊壬 · 甲戊 · 乙己 지지육합 : 寅亥 · 卯戌 · 辰酉 · 巳申 · 午未 · 子丑 지지회합 : 亥卯未 合木, 寅午戌 合火, 巳酉丑 合金, 申子辰 合水, 辰戌丑未 合土 지지육충 : 子午 · 丑未 · 寅申 · 卯酉 · 辰戌 · 巳亥

73) 『淮南子』「天文訓」, "甲乙寅卯, 木也, 丙丁巳午, 火也, 戊己, 四季土也."
74) 위의 책, "壬午冬至, 甲子受制. 木用事, 火煙青. 七十二日, 丙子受制. 火用事, 火煙赤. 七十二日, 戊子受制. 土用事, 火煙黃. 七十二, 庚子受制. 金用事, 火煙白. 七十二日, 壬子受制. 水用事, 水煙黑."
75) 위의 책, 「時則訓」, "季月之月, 招搖指未, 昏心中, 旦奎中. 其位中央, 其日戊己, 盛德在土."

	『회남자』	『오행대의』
지지 刑害	없음	支自相刑 : 子卯 · 丑戌未 · 寅巳申 · 辰辰 · 午午 · 酉酉 · 亥亥 支刑在干 : 寅庚 · 卯辛 · 辰甲 · 巳癸 · 午壬 · 未乙 · 甲內 · 酉丁 · 戌甲 · 亥己 · 子戊 · 丑乙 干刑在支 : 甲申 · 乙酉 · 丙子 · 丁亥 · 戊寅 · 己卯 · 庚午 · 辛巳 · 壬辰 · 壬戌 · 癸丑 · 癸未 害 : 戌酉 · 亥申 · 子未 · 丑午 · 寅巳 · 卯辰
오행의 盛衰	壯生老囚死로 성쇠 설명	王相休囚死로 하며 내용은 동일
토의 십이운성	土 : 午-生, 戌-壯, 寅-死	戊 · 己 : 卯-生, 未-王, 戌-葬 辰 : 子-生, 辰-王, 未-葬 未 : 卯-生, 未-王, 戌-葬 戌 : 午-生, 戌-王, 丑-葬 丑 : 酉-生, 丑-王, 辰-葬
土의 用事	사계월설 · 72일계하설 · 30일계하설로 다양하게 인식	四季의 辰戌丑未를 土月로 인식

Ⅵ. 맺음말

『尙書』「甘誓」와 「洪範」에 이어 음양오행설이 광범위하게 조직화된 것은 『여씨춘추』와 『회남자』에서이고, 특히 『회남자』는 음양오행 기능이 함축되어 있는 시령의 「시칙훈」과 天地自然의 음양오행 이치를 기술한 「천문훈」 · 「지형훈」 · 「태족훈」 등에서 발전되고 다양한 음양오행론을 수록하고 있다. 그 후 음양오행론이 『춘추번로』 · 『백호통의』 · 『한서』 「오행지」 등에 단편적으로 전해지다가, 소길이 수대 이전까지의 제 문헌에 수록된 음양오행론을 취합하여 『오행대의』를 집필 · 편찬함으로서 음양오행론이 집대성을 이루게 되었다.

한대의 『회남자』와 수대의 『오행대의』는 음양오행론의 발전과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700여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회남자』에서 논한 음양오행론 중 오행의 생극과 왕상휴수사, 그리고 音聲 · 氣味 · 五常 · 五色 등 諸事物의 오행배속 대부분이 『오행대의』와 상동하다. 이는 추연으로부터 일관되게 다루어져온 음양오행론이 『회남자』에서 오행의 왕상휴수사와 삼합이론 성립, 그리고 육십갑자 간지력과 24절기의 완성 등으로 음양오행 기능이 발전되어 이미 성숙된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남자』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干合과 支合이 『오행대의』에서 간합 · 지지육합 · 지지삼합 이론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성립되고, 『회남자』 뿐만 아니라 진한대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충파이론이 『오행대의』에서 충파이론과 더불어 형해이론까지 완성되었으며, 『회남자』에서는 토의 用事가 정리되지 않아 사계월설 · 72일계하설 · 30일계하설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나, 『오행대의』에서 四季 辰未戌丑月로 정

하였다.

그리고 『회남자』에서 처음으로 십이운성법의 단초가 되는 생 · 장 · 사를 통하여 오행의 회합을 설명하며, 오 · 술 · 인으로 토의 회합과 십이운성법을 형성하였는데, 『오행대의』에서는 진술축미를 토의 회합으로 정하고, 십이운성법에서 화토동궁설과 수토동궁설에 따르지 않고 토의 십이운성법을 별도로 정하였으며, 더욱이 토의 지지 진술축미의 십이운성을 각각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회남자』와 『오행대의』에서 성숙된 음양오행 이론인 생극합충과 형해이론, 왕상휴수사와 십이운성법을 비롯하여 인월세수와 24절기, 그리고 사물의 오행배속 등을 통하여 고대로부터 천문 · 지리 · 민속 · 병법 · 풍수 · 한의학 · 명리학 등에 활용되어오고 있다.

이에 논자는 이 글을 통하여 음양오행론에서 『회남자』와 『오행대의』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두 문헌에서 논의된 음양오행론이 唐代 이후 전개되는 음양오행론 연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管子』, 『白虎通義』, 『尙書』, 『玉照神應眞經』, 『呂氏春秋』, 『禮記』, 『春秋繁露』, 『漢書』, 『黃帝內經素問』, 『淮南子』.

강성인, 「『회남자』의 음양오행 사상과 명리학의 연관성 고찰」, 『도교문화연구』 40, 한국도교문화학회, 2014.
_____, 「『회남자』에 나타난 음양오행론의 특징」, 『동양학』 5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김교빈 · 박석준 외, 『동양철학과 한의학』, 아카넷, 2003.
김만태, 「地支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지지합 연구」, 『철학논집』 31,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2.
반고 저, 신정근 역, 『백호통의』, 소망출판, 2005.
서승 저, 심재열 역, 『淵海子平精解』, 명문당, 1993.
소길 저, 김수길 · 윤상철 역, 『五行大義』, 대유학당, 1998.
양계초 · 풍우란 저, 김홍경 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여불위 저, 김근 역, 『여씨춘추』, 글항아리, 2012.
유안 저, 안길환 역, 『淮南子 上, 中, 下』, 명문당, 2001.
유안 저, 이석명 역, 『淮南子 1, 2』, 소망출판, 2013.
은남근 저, 이동철 역, 『오행의 새로운 이해』, 법인문화사, 2000.
이동아, 「오행의 원리와 取象歸類의 방법(소길의 『五行大義』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석명, 「『淮南子』의 시령사상과 음양오행론」, 『大東文化硏究』 7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장종원, 「소길의 『五行大義』에 나타난 오행설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진소암 저, 이용준 역, 『精選命理約言』, 청학출판사, 2007.

홍성국,『사주 궁합의 비밀을 밝힌다』, 한솜, 2010.
鄭芷人,『陰陽五行及其體系』, 台北: 文津出版社, 1992.
董仲舒 著,『春秋繁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萬民英 著,『三命通會』,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班固 著, 吳則虞 點校,『白虎通疏證』, 北京: 中華書局出版, 2011.
徐升 編著,『淵海子平評註』,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蕭吉 著, 錢杭 點校,『五行大義』,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1.
蕭吉 撰, 嚴繹 審訂,『五行大義』,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呂不韋門客 編撰, 關賢柱・廖進碧・鍾雪麗 譯注,『呂氏春秋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0.
王引之,『經義述文』,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979.
韋千里 編著,『精選命理約言』, 台北: 瑞成書局, 2013.
劉文典,『淮南洪烈集解』, 北京: 中華書局出版, 1989.
殷南根,『五行新論』,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3.
鄒文耀 撰,『命學尋眞』, 台北: 集文書局, 1982.
彭華,「陰陽五行研究(先秦篇)」, 上海: 華東師範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4.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6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

The Status and Differences of *Huainanzi*(『淮南子』) and *Wuxingdayi*(『五行大義』) in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Kang, Sungin* · Kim, Mantae**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research on Huainanzi, which can represent Yin-yang and Five Elements in the Qin Dynasty(秦代) and the Han Dynasty(漢代), and Wuxingdayi in the Sui Dynasty(隋代). Huainanzi including Shicheukhun(時則訓) mentioned the Ruling with Times-Theory, contains a variety of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in Cheonmunhun · Jihyeonghun · Jusulhun(天文訓 · 墜形訓 · 主術訓), etc. So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is the most developed among literature up to the Han Dynasty. Wuxingdayi is the representative record of the Th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that organizied and compiled the Yin-yang and Five Elements of ancient times generally.

In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Elements discussed in Huainanzi, the Sheng · Geuk of the Five Elements and most of Wangsanghyususa(旺相休囚死) and 'Putting things into Five Phases' are similar with those of Wuxingdayi.

However, Ganhap(干合) and Jihap(支合) theories, which were not exactly identified in Huainanzi, were established in Wuxingdayi. In Huainanzi, the Sheng(生) and Geuk(剋) theory was completed but the Hap(合) and Chung(沖) theory was not established, while in Wuxingdayi, the Sheng · Geuk · Hap · Chung theory was defined and it was developed to the Hyeong(刑) and Hai(害) theory. In the former, Haihap(會合) of the Earth(土) was called Osulin(午戌寅), which was arranged to Jinsulchukmi(辰戌丑未) in the latter. In Huainanzi, the period during which the Earth governs a year was not defined, thus it was described in various ways such as Sagyewolseol(四季月說) · 72Ilgyehaseol(72日季夏說) · 30Ilgyehaseol(30日季夏說). But in Wuxingdayi, Jinmisulchukwol(辰未戌丑月) referring to Sagye (四季) was designated as the month when the Earth prevailed.

[Key Words] Huainanzi(淮南子), Wuxingdayi(五行大義), Yin-yang and Five Elements, ShengGeukHapChung(生剋合沖), Putting things in Five Phases

* A Doctoral Program /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 Assistant Professor /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彙　　報

(2015. 10. 21. ~ 2016. 1. 20.)

1.『東洋學』 제61집 목차

서남아시아로부터 동북아시아로의 어휘 전파
－‘야홀[鴉鶻]’, ‘날[剌]’, ‘마니주(馬泥珠)’를 중심으로－ …… 여채려 · 김양진 …… 1
唐詩 속의 西王母 이미지의 기원과 활용 …… 박혜경 …… 19
중국어 부사 ‘在’, 동태조사 ‘着’ 相 자질 중한 대조 분석 …… 한경숙 …… 43
『일선골계화(日鮮滑稽話)』연구
－원전의 발굴 소개와 변용(變容)의 의미 탐구－ …… 노혜경 …… 59
구문적 특성으로 본 일본어 무드표현
－‘しなくてはならない’, ‘すればよい’, ‘してはいけない’를 중심으로－ …… 최병규 …… 77
항일투쟁기 한국독립당의『震光』발간과 한중 연대 …… 박성순 …… 103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양상과 전개
－소위 쌍방 · 미송리문화를 중심으로－ …… 오대양 …… 123
高麗 太祖 王建을 보는 또 다른 시각
－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 정성권 …… 153
史的考察에 의한『詩經』「鄭風」의 ‘淫’에 대한 의미 …… 안춘분 …… 175

2. 研究院 동정

2015년 10월 23일. 제7회 동양학연구원 사전학 학술회의 개최.

- 공동주제 : 동아시아의 사전학 Ⅷ —한국한자어사전 증보편찬 방향의 모색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국제관 101호
- 발표 :

김성주(동국대),「우리말 불교용어와『한국한자어사전』의 불교용어 증보 방향에 대하여」
이병기(한림대),「석독구결자료와『한국한자어사전』」
안대현(단국대),「국어사 한글자료에 포함된 한국한자어에 대하여」
오창명(제주국제대),「『한국한자어사전』의 차자와 차자어, 이두와 이두어」

하정수(한국기술교육대), 「단어(명사, 동사) 및 단어 상당 구절에 후행하는 음독구결의 양상」

- 토론 : 박병철(서원대), 황금연(전남대), 이용(시립대), 황선엽(서울대), 권인한(성균관대)
- 사회 : 김홍겸(단국대)
- 종합토론 좌장 : 전덕재(단국대)

10월 30일. 본교 교양학부 박성순 교수, 지난 6월 7~12일에 '광복 70주년 및 신흥무관학교 개교 104주년 기념'으로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사업회와 공동 주관한 "독립운동가 후손, 조부의 발자취를 찾아서" 답사를 정리하여 『우당 이회영과 범정 장형의 발자취를 찾아서』(단국대학교 출판부) 간행.

11월 4일. 저명인사 초청 강연.

- 강연자 : 전정혁(양세봉 장군 자료전시관 관장)
- 주제 : 만주지역 독립운동과 정미소의 역할

11월 17일. 제45회 동양학연구원 정기 학술회의 개최.

- 공동주제 : 한국의 독립운동과 연합국의 관계
-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광복회
- 후원 : 동아일보사
- 발표 :

양지선(단국대), 「한국의 독립운동과 중국국민당」
石源華(復旦大), 「中國共産黨與韓國獨立運動」
김도형(독립기념관), 「한국의 독립운동과 미국」
반성률(한국외국어대), 「한국의 독립운동과 소련」
윤종문(국가보훈처), 「한국의 독립운동과 프랑스」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연합국 카이로회담의 한국 독립 약속과 신탁통치」

- 토론 : 朱芹(復旦大), 염인호(서울시립대), 최기영(서강대), 윤상원(동국대), 박성순(단국대), 허동현(경희대)
- 사회 : 김경락(광복회), 이재령(단국대)
- 종합토론 좌장 : 한시준(단국대)

11월 17일. 제45회 동양학연구원 정기 학술회의와 함께 '동양학연구원 간행도서 특별전시'를 함께 가짐.

11월 18일. 저명인사 초청 강연.

- 강연자 : 石源華 復旦大 教授(中國與周邊國家關係研究中心 主任)
- 주제 : 韓中關係發展與中國留學生的角色(한중관계 발전과 중국유학생의 역할)

12월 11일. 『東洋學』 제62집 편집위원회 개최.

12월 20일. 한시준 원장,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살다 간 지도자 김구』(〈한국의 독립운동가들〉 6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간행.

12월 26일. 제5회 번역학학술회의 개최.

- 공동주제 : 어우 유몽인과 『어우집』
- 장소 : 용산역 ITX 회의실
- 발표 :

김영미(전북대), 「기간과 유몽인의 산문」

안세현(강원대), 「어우 유몽인의 산문에 대하여」

안득용(고려대), 「유몽인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

김홍백(단국대), 「유몽인의 경세론을 읽는 키워드」

- 사회 : 장유승(단국대)
- 종합토론 좌장 : 허호구(단국대)

12월 30일. 번역실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팀, 『용주유고 4 · 5』(학자원) 간행.

12월 31일. 번역실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팀 김홍백 연구원 사직.

2016년 1월 1일. 번역실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팀,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지원협력사업(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 3기 진입.

1월 14일. 동양학연구원 운영위원회 개최.

- 안건 : 2015년 사업결산 및 2016년 사업계획 보고

『東洋學』 투고간행 규정

2010.05.20. 전면 개정
2014.03.05. 부분 개정
2014.06.15. 부분 개정
2015.01.20. 부분 개정
2015.10.06. 부분 개정

제1장 간 행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의 전문 학술지 『東洋學』(영문명 : *The Oriental Studies*)의 간행과 투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성격) 『東洋學』은 동양학 관련 전문 학술지로서 연구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 자료의 발굴에 따른 소개 및 전재는 가능하다.

1.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의 文史哲과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새로운 자료의 경우 학술적 가치가 높아야 하며, 관련 학문의 상호 교류와 발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회수) 『東洋學』은 창간호부터 년 1회, 2003년 제33집부터 년 2회, 2014년 제56집부터 년 3회, 2015년 제59집부터 년 4회 간행한다. (2015.01.20. 개정)

제4조(시기) 『東洋學』의 간행일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한다. (2015.01.20. 개정)

제5조(특집호) 특집호 또는 기획 주제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필진은 본 연구원 연구원들이 그 동안의 연구업적을 조사 정리하여 해당 분야별로 5명 내외로 추천한다. (2014.03.05. 개정)
2. 편집위원회는 추천된 필진 가운데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선정하여, 집필을 의뢰한다.
3.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주관아래 논문을 발표한 필자가 발표 당시 질의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東洋學』 투고간행 규정'과 '『東洋學』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본인의 논문을 『東洋學』에 게재를 의뢰할 경우에는 예비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심사에 들어간다.

제2장 투 고

제6조(자격) 논문의 투고 자격은 국내 · 외 동양학 관련 전공자로 하되, 동일 필자가 본 『東洋學』에 논문을 연2회 이상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10.06. 개정)

제7조(분량) 200자 원고지 120장 내외로 하되, 150장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8조(투고) 원고의 투고는 본 규정과 본 연구원의 '『東洋學』 연구윤리 규정'을 먼저 숙지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먼저 투고기한 내에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첨부파일 형식을 갖추어 아래 명기한 전자우편(e-mail) 주소로 제출해야 한다.

>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 031) 8005-2633, 2622
> 편집간사 이호석 (e-mail : vajrabat@dankook.ac.kr)

2. '한글 2005 이상'에 글자가 없거나 글자를 진하게 처리한 부분 등 특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고를 출력하여 출력본에 붉은색 펜으로 표시한 뒤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한다. (2014.03.05. 개정)
3. 본 연구원 홈페이지(http://user.dankook.ac.kr/~oriental/) 또는 『東洋學』에 게재된 '『東洋學』 투고 신청서'와 '『東洋學』 연구윤리 서약서'의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투고 기한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투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분야분류표'를 참조하여 투고자의 전공분야와 함께 투고 논문의 '심사희망분야'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5. 투고 신청서와 연구윤리 서약서는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첨부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양식을 출력 또는 복사를 하여 작성한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투고 절차를 마친 후, 마감 당일 17시전까지 '접수 확인'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투고자는 『東洋學』 편집간사에게 연락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투고 기한까지 제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가 보류되거나 논문이 반려될 수 있다.

제9조(기한) 원고 접수는 간행일로부터 9주전 금요일(14:00)까지로 한다.

제10조(체재) 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4.03.05. 개정 및 부분삭제)

1. 검색을 위하여 주제어(한글, 영어) 5~8개를 명시하고 영문 제목과 영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014.06.15. 개정)
2. 논문의 구성은 제목, 저자명, 한글 초록, 한글 주제어, 목차 – 본문 – 참고문헌 – 영문 초록(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주제어 포함) 순으로 한다. (2014.06.15. 개정)
3.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 수혜 논문임을 밝힐 경우, 논문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4. 논문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과 저자의 소속 기관 그리고 직위와 함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각주로 밝힌다.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dkhangul@dankook.ac.kr

5.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논문연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본 연구원과 연락을 취한 연구자를 주저자로 하여 저자들 중에서 맨 앞에 쓴다. 또한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주저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괄호 안에 '제1저자'라고 표시하여,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 ○○○(제1저자) · ○○○(공동저자)

6.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이면서 논문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본『東洋學』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에는 연결저자(교신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 ○○○(제1저자) · ○○○(연결저자)

7.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이면서 제1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작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 ○○○ · ○○○(연결저자)

8. 한글 초록은 논문의 논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되 800자 내외로 하며, 주제어는 대표적인 단어 중 5~8개 내외로 한다.
9. 장절(章節)의 표시는 장(章)은 로마숫자(Ⅰ, Ⅱ, Ⅲ ……)로, 절(節)은 아라비아 숫자(1, 2, 3 ……)로 표기하고, 소절(小節) 이하의 표시는 전각기호 괄호((1), (2), (3) ……)와 전각기호 원(①, ②, ③ ……)의 순으로 한다.
10. 자료 인용 부분이나 개념어, 역사적 용어,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적인 용어는 가급적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11. 인명에서 존칭은 생략한다.
12. 외국 인명이나, 지명 그리고 기관 단체 등의 명칭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통용하는 역어나 약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며, 맨 처음 나온 글자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13. 띄어쓰기 등은 '한글맞춤법'을 기준으로 한다.
14. 인용문과 각주 그리고 참고문헌 등의 제반 형식은 본 연구원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15. 표와 그림 그리고 사진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그림 2〉, 〈사진 3〉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표나 그림 그리고 사진의 제목과 설명 그리고 출처 등은 표나 그림의 바로 아

래에 제시한다.

16. 심사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자의 이름은 별도의 표지에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졸고'나 '졸저' 같은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2014.03.05. 개정)

17. 영문 초록(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주제어 포함)은 한글 초록에 준하되 편집원고 1쪽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영문 저자명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기관 및 직위를 영문으로 각주에 밝힌다. (2014.6.15.개정)

제11조(작성도구) 투고 논문은 '한글 2005 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제12조(별쇄본) 저자에게는 『東洋學』지 2부와 별쇄본 20부를 증정한다.

부 칙 [2010.05.20.]

본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05.]

본 규정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6.15.]

본 규정은 201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1.20.]

본 규정은 201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東洋學』 원고작성 요령

2010.05.20. 전면 개정
2014.03.05. 부분 개정
2014.06.15. 부분 개정
2015.02.01. 부분 개정

Ⅰ. 공통사항

1. 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제목에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 뒤에 '줄표'(—, HNC코드: 340a)를 하고 이어서 적어준다. 각주나 참고문헌에서는 줄표 대신 '쌍점'(:)을 사용하며, 이때 문장부호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부제를 적어준다.
3. (2014.06.15. 삭제)
4. 저자의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 성(姓) 다음에 반점(,)을 찍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2014.03.05. 개정)
5. 목차에는 장(章)만 표기한다. (2015.02.01. 개정)
6. 발행연도는 연도만 표기하고, 월(月)은 표시하지 않는다.
7. 저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하는 경우 '졸고' 또는 '졸저' 등 논문저자를 유추할 수 있는 표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2014.03.05. 개정)

Ⅱ. 본문

1. 본문에서 문장부호의 사용은 국립국어원의 어문규정 중 '한글 맞춤법'의 문장부호 사용원칙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⑴ 본문에서 문장을 인용한 경우, 인용문 안에 마침표로 온점(.)을 찍는다.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

> 그는 "학생은 배움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인용문이 문장임.)
> 그가 말하는 "통일을 위한 방안"은 이미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있다. (※ 인용문이 구절임.)

⑵ 용어의 강조에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⑶ 본문에서 나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간점은 반드시 전각기호의 ‘가운뎃점’(・, HNC코드: 32a5)을 사용한다.

> 몽룡・춘향, 평강・온달, 서동・선화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다.

⑷ 빗금(/)을 사용할 때는 앞뒤로 한 칸을 띄우지 않는다.

> 2/3, 착한 사람/악한 사람

⑸ 용어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나 별도의 용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달지 말고 ‘소괄호’(( ))를 사용한다.

> 이야기(Story), 병인년(丙寅年, 2010)

⑹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르거나,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는 ‘대괄호’([ ])를 사용한다.

⑺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낼 때에는 ‘줄표’(—, HNC코드: 340a)를 사용한다.

> 그 아이는 네 살에 — 보통 아이 같으면 한글도 모를 나이에 — 벌써 시를 지었다.

⑻ 생몰년 및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표시할 경우 ‘물결표’(~, 유니코드: 007E)를 사용한다.

⑼ 할 말을 줄였거나 말이 없음과 같이 생략을 표시하는 줄임표(……)는 ‘…’(HNC코드: 3406)을 2번 사용하여 표시하며, 이때 앞뒤로 한 칸씩 띄우지 않는다.

⑽ 온점(.), 반점(,),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소괄호(( )), 붙임표(-), 쌍점(:), 세미콜론(;) 등 일반적인 부호는 모두 키보드 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기타 부호의 통일

⑴ 겹낫표(『 』, HNC코드: 341a 341b) :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작품, 전집류, 학회지명 등.

⑵ 낫표(「 」, HNC코드: 32a2 32a3) : 작품명, 논문(석박사 논문 포함), 단행본 속의 소제목 등.

⑶ 큰따옴표(“ ”) : 직접인용, 대화 등.

⑷ 작은따옴표(‘ ’) : 간접인용, 강조 등.

Ⅲ. 인용문

1. 논문 작성 시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3행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때 인용문의 위아래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세 칸씩 들여 쓴다.

2. 원문을 인용할 경우, 매 인용문의 출전은 각주에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인용처를 먼저 밝히고, 반점(,)을 찍은 후 그 내용은 큰따옴표(“ ”) 안에 제시한다.
3. 재수록, 재인용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 홍길동, 『율도국 건설의 당위성』, 단국대 출판부, 1993, 48쪽(이몽룡, 『율도국』, 죽전출판사, 2000, 78쪽에서 재인용).

4. 한문이나 외국어 원문의 인용 시 본문에는 한글 번역문을 제시하고, 각주를 통해 원문을 제시한다.
   ⑴ 각주에서 제시하는 한문 원문은 반드시 현대식 표기방식에 의하여 구두점을 표시한다.
   ⑵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원문을 본문에 노출시킬 수 있다.
   ⑶ 인용하는 책의 서지(書誌)는 일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정확하게 밝힌다. 한적(漢籍)의 경우, 영인본 여부, 소장처 및 영인한 출판사를 밝힌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등 널리 알려진 기본 자료라 할지라도 필자 자신이 참고한 판본(또는 영인본)의 서지를 정확하게 밝혀준다.
5. 기타 외국 언어로 된 자료의 인용 시 필요에 따라 원어를 제시하되, 출전을 분명히 밝힌다.
6.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제작자, 주제명, 제작연도,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표기한다.

> 단국대학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단국의 비전」, 2010, http://www.dankook.ac.kr/web/kor/i2_1 (검색일 : 2010. 4. 20).

Ⅳ. 각주

1. 각주 번호는 ‘1), 2), 3)’으로 표기한다.
2. 각주 번호는 본문 문장의 온점 다음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상 서로 연관성이 없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점 뒤에 붙일 수 있다.
3. 동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⑴ 논문
      ① 저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호수,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발행연도는 연도만 표기한다.
      ② 논문은 낫표(「 」), 게재지는 겹낫표(『 』) 안에 표기한다.
      ③ 게재지의 ‘권’, ‘호’, ‘집’ 등의 숫자만 표기한다. 권과 호가 함께 사용된 경우, 쌍점(:)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쌍점 다음에 오는 숫자는 한 칸을 띄고 표기한다.
      ④ ‘p’, ‘pp’, ‘면’ 등은 모두 ‘쪽’으로 통일한다.
      ⑤ 두 개 이상의 다른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이라도 저자를 다시 명기한다.

⑥ 공동 저자가 2명일 경우에는 가운뎃점(·)을 이용하여 저자를 모두 표기하되,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인용에서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로 표기한다.

⑦ 미간행 논문 혹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일 경우, 위의 논문 작성에 준하되 발표 기관, 발표 장소 및 발표 날짜를 기재한다.

⑧ 출판예정인 논저는 출판 예정인 학술지나 서명을 표기하고, 출판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한다.

⑨ 신문, 잡지(월간, 주간)에 실린 기사의 경우, 게재지는 겹낫표(『 』) 안에 표기하고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거나 혹은 문건(기사)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명,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 홍길동, 「독립운동과 민족사학」, 『동양학연구』 18: 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994, 31~36쪽.
> 홍길동, 「조선사의 이해」, 동양학연구원(편), 『근현대사의 이해』, 단국대 출판부, 1976, 52쪽.
> 홍길동, 「한국근대사와 여성」, 제11회 동양학학술심포지엄, 용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0. 2. 5, 34쪽.
> 홍길동, 「민족 사학의 흥성과 쇠락」,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34쪽.
> 『단국신문』, 1988년 12월 25일자.
> 홍길동, 「단군신화」, 『월간단국』, 1992년 10월호, 423쪽.

⑵ 저서

①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발행연도는 연도만 표기한다.

② 서명은 겹낫표(『 』) 안에 표기한다.

③ 발행지는 국내일 경우 생략한다.

④ 'p', 'pp', '면' 등은 모두 '쪽'으로 통일한다.

⑤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동일 저자의 다른 저서라도 저자를 다시 명기한다.

⑥ 공동 저자가 2명일 경우에는 가운뎃점(·)을 이용하여 저자를 모두 표기하되,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인용에서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로 표기한다.

⑦ 편저나 번역서일 경우에는 괄호를 이용하여 편 · 저자와 역자를 구분하고 편 · 저자, 역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출판연도, 인용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⑧ 서적이 개정판인 경우에는 서명과 겹낫표 뒤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개정판 또는 증보판'이라 표기한다.

홍길동, 『한국정치사』(수정판), 단국대 출판부, 1992, 42쪽.
동양학연구원(편), 『한국 근대화』, 단국대 출판부, 1988, 10~15쪽.
石昌渝(저), 홍길동 · 김철수(역), 『中國小說源流論』, 혜당출판사, 2001, 32쪽.

⑶ 발행지 표시

① 국내 인용서의 경우는 발행지를 따로 표시하지 않으며, 외국에서 출판된 서적 중 필요한 것에 한한다.

②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작성한다.

陳平原, 『小說史: 理論與實踐』, 北京: 北京出版社, 1993, 48쪽.

⑷ 중복

① 바로 앞에 나온 논저를 다시 인용할 경우, '위의 논문', '위의 책'이라고 표기한다.

② ①의 경우와 달리 앞에서 인용된 논저의 경우, '앞의 논문', '앞의 책'이라고 표기한다.

③ 동일 저자의 논저가 여럿일 경우, 저자를 표기하고, 앞의 논문,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같은 연도에 발행된 논저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한다.

홍길동, 앞의 책, 1987a, 43쪽.
홍길동, 앞의 논문, 1999, 23쪽.

4. 서양어로 된 논저일 경우

⑴ 논문

①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권과 호가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쌍점(:)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쌍점 다음에 오는 숫자는 한 칸을 띄우고 표기한다.

② 논문은 큰따옴표(" ")로, 게재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③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④ 두 개 이상의 다른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동일저자의 다른 논문이라도 저자를 다시 명기한다.

⑤ 공동 저자가 2명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표기하되,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Hong, Gildong, et al.'로 표기한다.

Hong, Gildong, "History and the Issue of Dankook University", *The Oriental Studies* 20: 2, 1991, pp.40~50.
Hong, Gildong, "Korean Unification", Robert Woo(ed.), *Korean History*, New York: Hill, 1984, p.32.

⑵ 저서

①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작성한다.

②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③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④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동일저자의 다른 저서라도 저자를 다시 명기한다.

⑤ 공동 저자가 2명일 경우에는 가운뎃점(·)을 이용하여 저자를 모두 표기하되,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인용에서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Hong, Gildong, et al.'로 표기한다.

> Hong, Gildong · Lee, Dam, *Korean History*, New York: Hill, 1984, p. 32.

⑶ 중복

① 바로 앞에 나온 논저를 다시 인용할 경우, '*Ibid.*'를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② ①의 경우와 달리 앞에서 인용된 논저의 경우, '*op. cit.*'를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③ 동일 저자의 논저가 여럿일 경우, 저자를 표기하고, 앞의 논문,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같은 연도에 발행된 논저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한다.

> Hong, Gildong, *op. cit.*, 1987a, p. 43.

5. 한적(漢籍) · 문집의 경우

⑴ 연대기적(chronology) 성격을 갖는 1차 사료(예컨대,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또는 『論語』와 같이 널리 알려져 있고 판본이 여러 가지인 자료를 인용하여 본문에 주(註)를 작성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저자와 쪽수를 밝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⑵ 사료 인용방식은 저자명(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서명과 권수(또는 책), 편명, 총서(또는 총간)명칭, 출판사, 출판연도, 간지(또는 항목), 인용쪽수(근대적 출판물에 한함) 순으로 표기한다. 이때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간지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같은 주(註)에서 2편 이상의 논문(또는 단행본)을 다룰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고, 한 칸을 띄우고 이어서 표기한다.

> 『高麗史』 卷76, 百官1, 贊成事,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
> 『仁祖實錄』 卷50, 仁祖 27年 3月 乙亥; 『增補文獻備考』 卷14, 輿地考 2 歷代田界 2.
> 金尙憲, 『淸陰集』, 「月汀先生集跋」, 한국문집총간 77, 민족문화추진회, 1990, 594쪽.
>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 ○○○ 소장, 刊本 여부.

Ⅴ. 참고 문헌

1. 참고 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논문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 문헌의 순서는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하고, 한글, 중국어문, 일본어문, 기타 동양어문, 영문, 유럽어문의 순으로 배치한다. 그 순서는 동양어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어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3. 참고 문헌의 끝에는 온점(.)을 찍는다.
4. (2014.03.05. 삭제).
5. 단행본은 편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순으로 한다. 단, 동일 편저자이면서 같은 연도에 발행된 논저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한다.

> 홍길동, 『한국역사학개론』, 단국대 출판부, 1981.
> 홍길동, 「한국의 전통사회와 가부장제」, 『동양학』 10: 1, 1999.
> 홍길동, 「자본주의와 상인」,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Hong, Gildong, *Confucian Philosophy in America*, Seoul: Dankook Univ. Press, 1996.
> Hong, Gildong, "Korean Unification", *The Oriental Studies* 20: 4, 1998.

『東洋學』 투고 신청서(투고자 제출용)

성 명	한글 : (漢字 : 영문 :)			
소 속	한글 : 영문 :			
직 위	한글 : 영문 :			
주 소	자택 :			
	직장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직장 : e-mail :			
논문제목	한글 :			
	영문 :			
전공분야		심사희망분야		

연월일	출신학교	학위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년 월 일		학사		
년 월 일		석사		
년 월 일		박사		

본인은『東洋學』제 집 원고 공모에 투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정의 양식과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인)

동양학연구원장 귀하

『東洋學』 편집심사 규정

2010.05.20. 전면 개정
2014.03.05. 부분 개정
2015.10.06. 부분 개정

제 1 장 편집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이하 '본 연구원'라고 한다.)의 전문 학술지 『東洋學』(영문명 : *The Oriental Studies*)의 간행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논문 심사를 위한 제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임무) 편집위원회는 『東洋學』에 게재할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선정에서 심사의뢰와 심사결과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집행하고 결정한다.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원 연구위원회의 추천과 인준을 받아, 원장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이 인정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국내외 교수 또는 학자로 구성한다(2014.03.05. 개정).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편집위원회는 국내 동양학 관련 전공 학자를 위주로 국내 저명학자 8~10명을 전공별, 지역별로 적절히 안배하여 위촉 구성하되, 본 연구원의 편찬실장, 연구실장, 번역실장은 당연직편집위원으로 한다(2014.03.05. 개정).
3. (2014.03.05. 삭제).
4. 단국대학교 소속의 편집위원이 전체 편집위원 중 2/3 이하이어야 한다(2014.03.05. 신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이외에 실무를 담당할 편집간사를 둔다(2014.03.05. 개정).

제4조(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4.03.05. 개정).

제5조(의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편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2014.03.05. 개정).

제6조(소집)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소위원회'를 소집한다.

1. 『東洋學』 간행에 관련하여 『東洋學』 논문투고 마감일로부터 5일 안에 '편집소위원회'를 소집한다(2014.03.05. 개정).
2. 『東洋學』 간행에 관련하여 『東洋學』 논문투고 마감일로부터 2주일 안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2014.03.05. 개정).

제7조(위임)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회의전반의 권한을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4.03.05. 신설).
제8조 편집위원의 논문을 한 호에 2편 이상 게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5.10.06. 개정).
제9조 심사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책임아래 대외비로 한다.

제 2 장 심사 및 판정

제10조(예비심의) 편집간사는 간행일로부터 9주전 금요일(14:00)까지 투고 접수된 원고를 모두 수합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편집위원 3명과 함께 '편집소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적으로 예비심의를 진행한다(2014.03.05. 개정).
2. 논문투고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 '편집소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학자로 심사위원의 수락을 얻어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2조(구성) 심사위원은 교내 1명, 외부 2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 교수 중 해당 전공 분야 심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 3명으로 한다.
제13조(심사기간) 투고 논문의 심사기간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선정 위촉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2014.03.05. 개정).
제14조(심사기준)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과 각 항목당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① 논제가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15점 만점)
② 글의 구성(목차)이 논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논증하도록 짜여 있는가?(15점 만점)
③ 논제를 구성하는 개념어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가?(15점 만점)
④ 논문에서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15점 만점)
⑤ 결론이 창의적이며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가?(15점 만점)
⑥ 각주와 참고문헌의 선명성 : 각주와 참고문헌에 제시된 내용이 기존 연구 성과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으며, 논제와 적절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15점 만점)
⑦ 초록 작성의 일관성 : 국문초록이 적절한 분량으로 요약되어 논문 전체의 논제와 논증을 반영하고 있으며, 영문(외국어)초록과 내용이 일치하는가?(10점 만점)

제15조(결과판정)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를 완료한 후, '투고논문 심사결과서'(별첨)와 '투고논문 지적/수정사항'(별첨)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각 해당 논문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은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에 관한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대해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최후 판정을 한다.

점 수	판 정	비 고
80.0점 이상	게재 확정	
60.0~79.9점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결과에 따라 차기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함
59.9점 이하	게재 불가	동일 필자의 이후 유사 내용의 논문 투고를 불허함

2.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 중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이가 40.0점 이상이고 그로인해 게재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낮은 점수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위원 1명을 교체 위촉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2014.03.05. 개정).

제16조(조치)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 여부에 대한 최후 판정 결과에 대해 심사위원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한 후, 논문 투고자 각 개인에게 송부할 '논문심사 결과통보서'(별첨)를 작성하여 본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2. 본 연구소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위의 '논문심사 결과통보서'를 편집간사를 통해 해당 투고논문의 집필자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발송하고, 이와 함께 그 결과를 전화상으로 통보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의 수정 과정을 거쳐 다음 호 심사에서 예비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만약 투고 기일을 넘겼을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재심사 의뢰를 받은 원고의 심사 결과가 '게재 확정'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하며, 만약 이전 결과와 동일하거나 더 낮게 나온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 처리한다.
5.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지 않으며,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 결과통보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게재가 확정된 논문편수가 당초 계획된 게재 분량을 초과할 경우 심사 성적순으로 게재를 확정하고, 게재보류 논문은 차기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7. 최종결과 확정에 따른 게재 순서와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원고 편집)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제18조(판권) 『東洋學』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판권은 본 연구원이 소유한다. 아울러 논문 투고자는 본인의 논문이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판권이 본 연구원에 귀속된다는 사항에 대해 '『東洋學』 투고 신청서'(별첨)와 '『東洋學』 연구윤리 서약서'(별첨)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0.05.20.]

본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05.]

본 규정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06.]

본 규정은 2015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

위 원 장 : 정재철(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한문학)
위 원 : 김무림(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학)
류보선(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대문학)
박상영(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고전문학)
백종오(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고고학)
윤채근(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본 연구원 번역실장, 한문산문)
이건식(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본 연구원 편찬실장, 국어정보학)
이재령(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본 연구원 연구실장, 중국근현대사)
편무진(단국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일본어학)
황현국(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중문학)
편집간사 : 이호석(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전임강사)

위 임 장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 속			

『東 洋 學』 편집위원인 위 본인은 년 월 일에 열리는 『東 洋 學』 제 집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오니 회의전반의 권한을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東 洋 學』 편집위원장 귀하

논문심사 의뢰서

_____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東洋學』편집간사 _____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 모두 세 차례씩 간행하는 학술지『東洋學』은 2004년 12월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東洋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東洋學』제 집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선생님께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심사를 마치신 후에는 첨부해 드린 양식 1, 2, 3 모두를 '한글 2005 이상'으로 작성하여, 월 일(09:00)까지 아래의 동양학연구원『東洋學』편집간사에게 전자우편(e-mail)이나 또는 1부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우송시에는 봉투 겉면에 '심사서 재중'이라고 명기하여 주십시오.

소정의 심사비는『東洋學』발간과 함께 심사위원께서 지정하신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첨 부 -

1. 논문심사위원 수락 및 서약서 1부
2. 투고논문 심사결과서 1부
3. 논문 지적/수정 사항 1부
4. 심사대상논문 1부

년 월 일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東洋學』편집위원회

주 소 :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031) 8005-2633, 2623
편집간사 이 호 석(e-mail : vajrabat@dankook.ac.kr)

논문심사위원 수락 및 서약서(심사위원용)

동양학연구원장 귀하

심사대상논문제목:

본인은 동양학연구원의 학회지『東洋學』제　집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직을 수락하며, 연구소의 논문심사규정 및 심사서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의뢰 받은 논문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논문심사에 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일체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논문을 심사한 사실
나. 논문의 내용(필자의 논지 및 근거 등 내용 일체)

년　　월　　일

제출자　　(서명/인)

심사위원 신상 및 심사료 입금계좌 자료

소　　속			직　위	
주민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자택 주소				
연락처	직장		핸드폰	
	e-mail			

『東洋學』 투고논문 심사결과서(심사위원용)

심사대상 논문제목	

심 사 항 목	우수	양호	보통	부족	미달
① 논제가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	15	12	9	6	3
② 글의 구성(목차)이 논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논증하도록 짜여 있는가?	15	12	9	6	3
③ 논제를 구성하는 개념어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가?	15	12	9	6	3
④ 논문에서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15	12	9	6	3
⑤ 결론이 창의적이며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15	12	9	6	3
⑥ 각주와 참고문헌에 제시된 내용이 기존 연구 성과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으며, 논제와 적절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15	12	9	6	3
⑦ 국문초록이 적절한 분량으로 요약되어 논문 전체의 논제와 논증을 반영하고 있으며, 영문(외국어)초록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10	8	6	4	2
80.0점 이상 : 게재 확정; 60.0~79.9점 : 수정 후 재심사; 59.9점 이하 : 게재 불가	총 (　　)점				

※ 심사소견(구체적으로)

년　　월　　일

제출자(심사위원)　　(서명/인)

『東洋學』 투고논문 지적/수정 사항(심사위원용)

심사대상 논문제목			
번호	쪽(면)/행	지적 / 수정 사항	비고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년 월 일

제출자(심사위원) (서명/인)

『東洋學』 논문심사 결과통보서(투고자 통보용)

투 고 자	성명 : 소속 :
심사대상 논문제목	
심사결과	☐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 불가

위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상기한 바와 같이 ‘ ’로 판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심사위원 소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東洋學』 편집위원회

『東洋學』 수정 대조 확인서(게재예정자 제출용)

투고논문제목	
논문심사 지적사항	필자 견해 및 수정 내용
- 심사자 1 1. 2. 3.	
- 심사자 2 1. 2. 3.	
- 심사자 3 1. 2. 3.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년 월 일

제출자 (서명/인)

『東洋學』 연구윤리 규정

2008.12.16. 제정
2010.05.20. 전면 개정
2014.03.05. 부분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이하 '본 연구원'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東洋學』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학술 연구자 및 전문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東洋學』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학술 연구자 및 전문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자료의 중복 사용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③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나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을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자료의 중복 사용 :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표시 없이 연구자 본인이 이미 출간한 연구 결과를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거나,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와 동일한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는 행위
   ⑥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⑧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 연구원의 발간하는 학술지『東洋學』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학술 연구자 및 전문가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비조사,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③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1. 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원장과『東洋學』편집위원회의 전체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2014.03.05. 개정).
2. 위원장은 본 연구원장으로 한다.
3.『東洋學』편집위원회의 편집간사를 윤리위원회의 간사로 한다(2010.05.20. 신설).

제7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

집한다.

2.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회의록은 윤리위원회 간사가 기록한다.

제11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연구원의 '『東洋學』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보시에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2010.05.20. 개정).

제13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안에 완료하여야 한다(2010.05.20. 개정).
2.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3명 이내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2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4.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제보자의 의견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위원회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③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⑤ 기타 관련 증거자료

⑥ 예비조사위원 명단

제15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5일 안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안에 완료하도록 한다(2010.05.20. 개정).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위원회의 추천으로 본 연구원장이 위촉한다(2014.03.05. 개정).
2. 조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3명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출신학교 및 소속 학교 또는 기관이 아닌 외부 인사를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2010.05.20. 개정).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차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피조사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에는 제보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조사위원의 제척 및 기피)

1. 조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2.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제보자가 기피 조사위원에 관한 타당성 있는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피조사자는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7일 안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고 한다)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0.05.20. 개정).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③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⑥ 조사위원 명단

제22조(판정 및 통보)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윤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7일 안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2010.05.20. 개정).

제23조(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2010.05.20. 개정).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1. 본 연구원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최종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고, 1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로부터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자의 해당 논문의 게재를 철회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그 부정행위와 제재조치 내용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지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간되는『東洋學』지에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게재해야 한다(2014.03.05. 개정).
2. 본 연구원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교내 인사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교외 인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2010.05.20. 신설).

제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 타

제26조(연구윤리준수 서약서)『東洋學』에 게재를 위해 논문을 투고하는 필자는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반드시 투고 마감일까지 '『東洋學』 투고 신청서'(별첨)와 함께 '『東洋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별첨)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東洋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미제출시에는 접수를 거부한다(2010.05.20. 개정).

제27조(시행세칙) 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8.12.16.]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5.20.]

본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05.]

본 규정은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東洋學』 연구윤리 서약서(투고자 제출용)

성 명	한글 : (漢字 :	영문 :)
소 속	한글 :	영문 :
직 위	한글 :	영문 :
주 소	자택 :	
	직장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직장 :	e-mail :
논문제목	한글 :	
	영문 :	

귀 연구원에서 20 년 월 일 발간되는『東洋學』제 집에 본인의 논문을 투고하면서 다음 사항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에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 자료의 중복 사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
2.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한 행위
3.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년 월 일

제출자 서명/인)

동양학연구원장 귀하

『東洋學』 부정행위 조사 결과서(보관용)

<table>
<tr><td rowspan="5">제보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소 속</td><td></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4">자택 :</td></tr>
<tr><td colspan="4">직장 :</td></tr>
<tr><td rowspan="2">전화번호</td><td colspan="4">자택 : 핸드폰 :</td></tr>
<tr><td colspan="4">직장 : e-mail :</td></tr>
<tr><td rowspan="6">대상논문</td><td>저 자 명</td><td colspan="2"></td><td>소 속</td><td></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4">자택 :</td></tr>
<tr><td colspan="4">직장 :</td></tr>
<tr><td rowspan="2">전화번호</td><td colspan="4">자택 : 핸드폰 :</td></tr>
<tr><td colspan="4">직장 : e-mail :</td></tr>
<tr><td>논문제목</td><td colspan="4"></td></tr>
<tr><td>게재호/쪽</td><td colspan="4">『東洋學』 제 집(. . 발행) ~ 쪽</td></tr>
<tr><td>위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년 월 일

작성자 (서명/인)

동양학연구원장 귀하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東洋學』 제62집 심사 경위

『東洋學』 제62집은 2015년 10월 6일 개정된 '『東洋學』 투고간행규정' 및 '원고작성요령'과 '『東洋學』 편집심사규정'에 의하여 2015년 11월 27일까지 투고논문 접수를 완료하였고,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하였습니다. 이번 『東洋學』 제62집에는 일반 투고논문 10편이 투고되었습니다.

총 10편의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에 대하여 그 세부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심사위원 3명씩을 선정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편집위원회 최종 심사판정결과는 게재 8편, 수정 후 재심사 1편, 게재 불가 1편이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2017년 4월에 간행될 제63집에 재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東洋學』 제62집에는 총 8편의 논문을 싣게 되었습니다.

엄정한 심사로 인해 탈락하게 된 논문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지만,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東洋學』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하시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東洋學』 제63집에는 이번 제62집과 똑같은 규정과 방식으로 논문을 접수·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양학연구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院　長　韓　詩　俊
硏究委員　尹　勝　俊
尹　載　煥
李　建　植
李　瑞　恒
李　聖　揆
李　鍾　洙
張　世　元
全　德　在
鄭　載　喆
鄭　　灤
黃　炫　國

東洋學

第六十二輯

2016年 1月 26日　印　刷
2016年 1月 31日　發　行
發行·編輯　東洋學硏究院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Tel : (031) 8005-2622
Home-page : http://user.dankook.ac.kr/~oriental
組版·印刷　新陽社
【定價 10,000원】

登錄 : 1968年 2月 27日 가제 3-95